

한국군선교신학회 논문집

20

# 군선교, 청년



비전2020을통해 실천하는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MILITARY EVANGELICAL ASSOCIATION OF KOREA (MEAK)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 33: 3).

☞ 비전2030 실천운동 공동기도문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선교적 비전을 주셔서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하시고  
국군장병들을 믿음의 군대로 만들며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을 위하여  
21세기 기독교 운동을 실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군인교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예수를 믿어  
십자가의 군병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백성을 인도하시는 주님!**

청년선교와 민족복음화의 꿈이 담긴 비전2030 실천운동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며  
한국교회와 군인교회가 하나되어  
이 소중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문은 군·민족·인류복음화를 소원하는 사명자들을 위하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에서  
1999년 2월 26일 제정한 공동기도문입니다.  
군복음화로 민족복음화와 인류복음화를 위한 모든 예배·회의 등 군선교사역과 관련된 각종 행  
사 시 공식순서에 포함하여 함께 낭독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 생명력 있는 군선교사역 합심기도 제목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1. 군선교 비전2030 실천운동 사역의 결실을 방해는 모든 악한 세력을  
결박하여 주시고
2. 2030년까지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100만 장병을 한국교회로' 위  
하여
3. 10만 명의 기독교장병 (신규 6만 명, 기세레자 4만 명)을 파송하기 위하여
4.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군선교 사역의 책임 있는 기도 실천을 하게 하  
시며
5. 260여 군종목사, 650여 군선교사, 기독교인(MCF) 회원들과 가족들의  
군선교사역을 인도하시며
6. 장병들의 병영 내 사고 예방, 사기 진작, 명랑한 생활로 기독교문화가  
확산되게 하시며
7. 모범 국민 육성 및 기독교 인재 양성을 위한 군종병과의 발전을 이루  
어 주시며
8. 군선교 거점교회를 통해 파송되는 장병을 양육하고 정착하여 군선  
교 후원과 지원을 위하여
9. 기독교청년들의 정체성 확립 및 군선교 훈련(다음세대, 미래세대, 차세대)  
기독교청년캠프 참여와 생명력 있는 삶(군복무/직장/가정/교회)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오며
10. 이 민족을 구원하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  
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머리말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100만 장병을 한국교회로!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100만 장병을 한국교회로!”

군선교 비전2030 실천운동의 구호입니다. 한국군종목사단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그리고 한국교회는 지난 10월 7일 향후 10년 동안 군선교의 중점이 될 군선교 비전2030 실천운동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동안 참 잘해왔던 진중세례식에 각 부대에서의 양육과 한국교회로의 파송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를 위해 육군훈련소 등의 노하우를 각 양성기관과 공유하는 한편 각 군별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준비, 용사들을 전도하고 세례를 주고, 양육해서 한국교회로 파송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세례 받은 용사들이 전역 후에 출석하게 될 따뜻한 보급자리와 같은 거점교회를 확보하기 위해 군선교연합회 본부와 지회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MZ세대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용사들에게 스마트폰이 지급됐고, 그들과 소통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급격한 병영 환경의 변화와 대중매체 속 기독교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우리 군선교에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군내 이단들의 활동으로

인해 더욱 군선교 현장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군선교를 신학적으로 정립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 기반을 든든히 정립해 놓아야 어떤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선교신학회는 매년 군선교 현장의 이슈를 중점적인 주제로 삼아 군선교를 신학적으로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군선교 전략과 전술을 개발해 제안하고 있습니다. 연구위원님들의 땀과 노력이 담긴 열매들은 군선교의 내일을 준비하는 든든한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들을 개척하며 달려왔습니다. 작년 발생한 코로나19 속에서도 어렵지만 복음을 전하고, 위로를 전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기존과는 다른 방식들이었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발표되는 귀중한 논문들이 군선교 현장에서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좋은 양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역이 더욱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2021년 10월 26일

김삼환 목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이사장/기독교군종교구장)

## ● ● 발간사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위협한 지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우리는 새로운 질병에 적지 않게 당황했고, 고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방법으로 군선교 사역을 계속 이어 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걸어왔습니다. 긴 터널을 걸어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왔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모든 오프라인 모임이 축소되거나 연기되었고, 온라인 시대를 빠르게 앞당겼습니다. 그것은 도전이었고, 숙제였으며 한국교회를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과연 '이대로 좋은가?' 말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은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발간된 「군선교, 청년」 20권은 의미가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불길이 잡히고 있지 않은 팬데믹 속에서 어떻게 사역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계속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논문집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군인 정신건강과 군목회상담의 과제'와 함께 '기독교 군 병사의 종교적 실천과 종교적 대처가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뤄 주셨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휴가/외박이 통제되고 언제나 질병의 위험 속에서 받는 용사들의 스트레스는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통제되고 공동생활을 하는 군인들로서는 일반인들보다 더욱 두려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용사들과 직접 대면하는 군종목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회상담을 통해 아픈 자를

어루만지며, 무형의 정신건강과 군 장병에 대한 종교적 실천과 대처에 대한 영향을 심도 있게 다뤘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문집에는 연구위원들의 군선교를 위한 고민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부디 소중한 논문들을 통해 다양한 선교적 아이디어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연구된 내용이 군선교 현장에 적용돼,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 사역에 도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군선교신학회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군선교 신학을 개척, 군선교를 신학적으로 논증하고 중장기적인 선교 전략과 전술을 개발, 적용해 나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연구논문들은 집필자들의 땀과 수고의 결실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 군선교 현장에서 복음이 증거 되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구원 사역의 열매를 맺어지길 기도합니다.

2021년 10월 26일  
한국군선교신학회 회장  
곽요셉 목사

● ● 차례

- 비전2030 실천운동 공동기도문 ... 2
- 머리말 | 김삼환 목사(이사장) ... 4
- 발간사 | 박요섭 목사(신학회장) ... 6

심포지엄 논문

- 013** 기조강연 진리란 무엇인가? | 박요섭
- 015** 발제1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군인의 정신건강을 위한 군 목회상담의 과제 | 전요섭
- 044** 논찬1 전요섭의 논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군인의 정신 건강을 위한 군 목회상담의 과제”에 대한 논찬 | 강찬영
- 051** 발제2 기독교 군 병사의 종교적 실천과 종교적 대처가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 임정인
- 079** 논찬2 임정인의 논문 “기독교 군 병사의 종교적 실천과 종교적 대처가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찬 | 김아영

연구위원 논문

- 087** 왜 하나님은 여호와와의 전쟁을 수행하시는가? | 강사문
- 165** 반달족의 침공에 대응하는 어거스틴의 목회 돌봄 영성 | 이규철
- 197** 이야기심리학의 이해와 군상담에의 적용 | 김상만
- 239** 효과적인 군상담을 위한 전인건강과 치유의 이해 | 전요섭
- 265** 사회적 책임(CSR, CSV)과 군선교의 과제 | 강찬영

부록 1

- 294** 한국군선교신학회 운영규칙
- 299** 군선교신학회 연구윤리 규정
- 303** 군선교신학회 논문투고 규정

부록 2

- 312** 군선교신학논문집 출판현황(2002년~2021년까지)

# 심포지엄 논문

## 기조강연

진리란 무엇인가?

| 곽요셉 |

## 발제1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군인의 정신건강을 위한 군 목회상담의 과제

| 전요섭 |

## 논찬1

전요섭의 논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군인의 정신  
건강을 위한 군 목회상담의 과제”에 대한 논찬

| 강찬영 |

## 발제2

기독교 군 병사의 종교적 실천과 종교적 대처가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 임정인 |

## 논찬2

임정인의 논문 “기독교 군 병사의 종교적 실천과 종교적  
대처가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찬

| 김아영 |



## 진리란 무엇인가?

What is the Truth?

» 곽요셉 D. Miss.\*

---

\* 군선교신학회장, 예수소망교회, 에덴낙원이사장  
\* 논문 기고자 Email: jesushope1@daum.net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군인의 정신건강을 위한 군 목회상담의 과제

Pastoral Counseling for Military Psycho-spiritual Health of Post  
COVID-19 Era

» 전요섭 Ed. D.\*

## 국문초록

이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군인의 심리영적 건강을 위한 군 목회상담의 과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문헌연구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19 시대의 종지부를 찍는 개념이라기보다 코로나-19와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with COVID-19)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군인의 정신건강은 피로도가 높아짐에 따라 분노와 공격성이 높아지면 사소한 일에도 과도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이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다. 군 목회상담은 군인의 관계적 공격성을 해소하는 상담에 주력해야 하는데, 결속력(단결)을 필수로 하는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키며, 조직을 와해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군인들이 고립과 소외를 느끼지 않고, 정신화된 두려움에 노출되지 않도록 군인의 강화된 신앙으로 정서적 접촉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목회와 수습하는 상담이 필요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심리영적 면역력, 저항력을 강화하고, 정서적 접촉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인지행동치료의 '논박', '거부' 등을 응용, 활용, 적용해야 한다.

## 중심단어

군 목회상담, 팬데믹,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 정신건강

• 논문 투고일: 2021년 9월 26일 • 논문 수정일: 2021년 9월 28일

• 게재 확정일: 2021년 10월 8일

\* 군선교신학 실행위원, 성결대학교 파이데이아(교양교육)대학 학장, 예)군종목사

## I. 여는 글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나라에 전염되어 첫 확진자가 나온 것은 2020년 1월 20일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3월 코로나-19를 이른바 ‘팬데믹’(pandemic), 즉 전 세계적으로 유행되는 전염병으로 선언한 바 있다.<sup>1)</sup> WHO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을 일컬어 ‘COVID-19’(Coronavirus Disease-19)로 명명했으며, 우리말로로는 ‘코로나-19’라고 부른다.

인류가 겪은 세계적인 전염병은 14세기에 ‘흑사병’이라고 불렀던 페스트(Yersinia Pestis)와 1918년에 스페인 독감(Spanish Flu)이 틀림없는 팬데믹이었지만 이는 WHO가 설립(1948년)되기 이전의 일이라 공식적으로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WHO가 선언한 팬데믹은 1968년 홍콩 독감,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였다.<sup>2)</sup> 1976년 이후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는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 2003년 사스(SAR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중증 급성 호흡기증후군)와 2012년 메르스(MERS-CoV: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중동 호흡기증후군) 등도 국제적인 전염병이었지만 팬데믹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팬데믹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동일 전염병이 2개 대륙 이상으로 확산되어 나타나야 하는 기준에 충족되어야 한다.

코로나-19는 국제적으로 정치, 경제, 외교, 사회, 군사, 과학, 문화

1) ‘팬데믹’(pandemic, πανδημία)이라는 용어에서 팬(pan)은 그리스어(판: πᾶν)로 모두(all)를 의미하는 단어이고, 데믹(demic)은 그리스어(데모스: δῆμος)로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2) Isaac Boaheng, “Christianity and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Pastoral Theology* 29(3) (2021), 1-14.

등 각 분야, 각 영역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쳐왔다. 그것은 전 세계인의 삶과 사회 전반적인 기능의 무력화, 마비, 하락, 침체 등 심각한 재앙으로서 무차별적인 현상이었고, 비정상적인 시간이었으며, 무능력을 경험한 사건이었다. 이는 각 종교의 신앙에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쳤는데, 당연히 기독교회와 그 신자들의 신앙 양상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고 말았다.

극단적으로는 이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기도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심각한 후유증과 폐해가 초래되므로 국가가 나서서 이를 통제하는 것이다. 코로나-19는 분명히 바이러스에 의한 신체적 질병이지만 심리정서적인 면에도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분명하다.<sup>3)</sup> 코로나-19의 창궐로 인한 불안-공포가 사회 전반에 팽배해졌고, 사람들은 코로나-19를 죽음의 영향과 관련하여 인식한다. 그래서 백신을 맞는 이유는 코로나로 죽지 않으려는 것이고, 백신을 맞지 않는 이유는 백신의 부작용으로 죽지 않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부상한 신조어들은 코로나-19의 특징을 함축적으로 대변하기도 하는데, 그 가운데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비대면, 비접촉을 뜻하는 언택트(untact)는 대인 간 접촉(contact)을 최소화하는 의미로 코로나 상황을 여실히 드러내는 신조어이다. 또 새로운 정상을 뜻하는 신조어 뉴 노멀(new normal: 새 기준, 새 일상)도 사람들 간에 직접 만나서 뭔가를 하는 것이 예외적인 것 또는 비정상적으로 인식되는 개념으로, 정상과 비정상의 전도가 일어난 코로나 상황을 함

3) César, Fernández-de-Las-Peñas et al, “Defining Post-COVID Symptoms,” *An Integrative Classifi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Basel* 18(5) (2021), 2621.

축적으로 드러낸 용어이다.<sup>4)</sup> 일각에서는 인류 역사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BC(Before Christ)와 AD(Anno Domini)로 나누듯, 현대역사는 코로나-19를 중심으로 BC(Before COVID)와 AC(After COVID)로 나눌 정도로 지구촌에 엄청난 삶의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언젠가는 주춤할 때가 오게 될 것이고, 분명히 그 유행병의 종지부를 찍을 날이 있을 것으로 보아 기독교계는 물론, 사회 각계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전망하고 대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군인의 정신건강 및 심리영적 상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측과 아울러 군 목회 및 군 목회상담은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군인신자들을 어떻게 심리영적으로 지지해야 할지에 대하여 논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피로와 피로감, 관계적 공격성, 고립과 소외, 정신화된 두려움 등을 심리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 문제들을 해소, 해결해야 하는 목회상담의 과제와 방안을 다루었다.

## II. 펴는 글

### 1. 코로나-19의 영향

포스트 코로나 시대(post-corona era)란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의 시대를 의미한다. 여기서 포스트(post)는 ‘...이후’ 또는 ‘탈’(脫: 벗을 탈)의 의미로 ‘코로나-19에서 벗어난 이후’ 또는 ‘코로나-19로부터

탈피’의 뜻으로 사용된 말이다. 포스트 코로나는 우리말로 ‘후기 코로나’라고 할 수 있지만, 국제적으로 영어표기를 하고 음역하는 추세이다.

WHO가 조만간에 이것의 종료를 알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선언하는 날이 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에 대하여 키스 킨케이드(Keith J. Kincaid) 등의 학자들은 연구결과를 통해 장기 코로나(long-COVID)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표현했다.<sup>5)</sup> 독일 튀빙겐(Tübingen) 대학교 의과대학 심리치료학부 교수들(Andreas Stengel, Nisar Malek, Stephan Zipfell & Siri Goepel)도 장기 코로나에 대한 입장을 나타냈다.<sup>6)</sup> 일각에서는 코로나-19의 여파를 향후 수십 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한 경우도 있다.<sup>7)</sup> 이런 예측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전망하는 것이 요원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19 시대의 종지부를 찍는 개념이라기보다 코로나-19와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with COVID-19)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이(알파-영국)와 그것의 또 다른 변이(베타-남아프리카), 변이(감마-브라질)의 변이(델타-인도, 람다-페루) 등 10여 종의 변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나 의학계에서도 이에 대

5) Keith J. Kincaid et al, "Post-COVID Seizure," *Neurological Science* 23 (2021), 100340. cf. Abdul M. Baig, "Chronic COVID Syndrome," *Journal of Medical Virology* 93(5) (2021), 2555-56. Terry Murray, "Unpacking 'Long COVID',"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 193(9) (2021): 318-19.

6) Andreas Stengel et al, "Long Haulers-What Is the Evidence for Post-COVID Fatigue?" *Front Psychiatry* 21 (2021), 1-3.

7) Victoria L. Cerone, "COVID-19 and Moral Distress/Moral Anguish Therapeutic Support for Healthcare Workers in Acute Care," in Carol Tosone, (ed.) *Shared Trauma, Shared Resilience during a Pandemic* (Cham, Switzerland: Springer, 2021), 29.

4) 김기봉, "포스트코로나 문명 전환과 컴퓨터 역사학," 『한국사학사학보』 42(2) (2020), 239-62.

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백신이 개발되었으나 그것을 완전히 정복한다는 것은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니다. 백신 접종자도 재감염되는 이른바 ‘돌파 감염’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또한 마땅한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약품은 지나치게 고가여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의 변이가 계속 발생하고, 변이가 우세종이 되자 영국,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대한민국도 포함)에서는 코로나와 힘겨운 싸움을 포기하고, 불가능한 퇴치에 매달리기보다는 그것과의 공존(with)을 선택한 바 있거나 그것을 고려하고 있다.

코로나-19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가능한 한 빨리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이 파괴적인 유산은 코로나의 종식 선언을 어렵게 하고, 인류가 감기 또는 독감이나 풍토병과 더불어 살아가듯 다음 세대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수치가 0명이 되었다 하여 그 종식이 선언되기는 어려운데, 쇄국정책을 펴지 않는 한, 국외로부터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은 언제든지 남게 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되기를 바라지만, 모든 국민, 군인들의 피로도도 이어지고, 악화된 정신건강의 결과들, 그리고 심리영적 문제들을 처리하고 수습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 네브라스카(Nebraska)대학교 교수 찬스 벨(Chance A. Bell) 등은 코로나-19에서 드러난 상담 및 심리치료분야의 문제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심리영적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치유와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8)</sup> 이는 군 목회상담에도 그대로

8) Chance A. Bell et al, "Research in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Post COVID-19,"

적용되는 문제이다.

##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군인의 심리영적 건강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것은 코로나-19가 낳은 시대라고 볼 때 문제는 코로나-19가 남긴 상태가 그대로 이어지게 되어 그것을 수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될 것이다. 코로나-19가 발생시킨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 가운데 피로 상승과 관계적 공격은 특히 군인에게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을 갖고 다루어야 할 주제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예외 없이 비접촉사회/관계가 됨으로써 소외와 고립은 자연스럽게 발생한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아울러 코로나-19는 죽음의 위협으로 작용이 되므로 적과 싸우기 이전에 환경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두려움과 싸워야 하는 힘겨운 상황이므로, 군인에게 있어서 이 주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1) 피로 상승과 관계적 공격성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군인은 신체감으로서 피로(fatigue)와 심리정서적 증상으로 피로감(sense of fatigue)을 흔히 겪게 되는데, 이는 코로나에 노출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라, 그것에 노출될까 봐 긴장하며 살았던 대부분의 군인에게서 볼 수 있는 보편적 증상으로 봐야 한다. 통상 의학에서 만성피로증후군(chronic fatigue syndrome)으로 진단하려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로 또는 피로감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개선되지 않을 때 질병으로 판단한다.<sup>9)</sup> 코로나-19로 이미 전 세계인들이 2020년 1월부터 2년 가까이 피로와 피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Research* 21(1) (2021), 3-7. cf. Jill Maben & Jackie Bridges, "Covid-19,"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9(15-16) (2020), 2742-50.

9) Katie McCallum, "Post-COVID Syndrome," *Houston Methodist on Health* (2020), 1.

로감을 경험한 상태인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누적된 피로와 활력 상실, 침체는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

군사심리학에서는 군인의 피로도가 높아지면 짜증과 분노도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sup>10)</sup> 피로도가 높아짐에 따라 짜증, 분노, 공격성이 높아지면 조그마한 일에도 과도/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이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다. 기독교위상담학자 노만 라이트(Norman Wright)는 피로감이 높아지면 어떤 일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며, 자살률이 현저하게 높아진다는 것을 연구결과로 내놓은 바 있다.<sup>11)</sup>

제프리 오스굿 등(Jeffrey M. Osgood et al)은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을 경험한 군대에서 군인들의 피로도가 높아짐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을 일컬어 ‘관계적 공격성’(relational aggression)이라고 표현했다.<sup>12)</sup> 관계적 공격성은 대표적으로 이른바 ‘왕따’나 소외, 고립, 배제 등의 현상을 의미하기도 하며, 눈치주기, 험담, 욕설, 언어적 폭력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즉 병영 내에서 코로나-19에 노출된 군인이 기침 예절을 어기거나 위생관념이 소홀한 군인을 향해 괴롭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일을 당하는 군인은 수치심, 죄책감, 우울감, 불안-공포 등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을 수 있다.<sup>13)</sup>

관계적 공격성은 타인에 대한 비물리적 공격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불법적 현상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모든 조직에서

10) Jeffrey M. Osgood et al, "Tired and Angry," *Military Psychology* 33(2) (2021), 80-91.

11) Norman Wright, *Crisis Counseling: Helping People in Crisis and Stress* (San Bernardino, CA: Here's Life, 1985), 164.

12) Osgood et al, "Tired and Angry," 80-91.

13) Matthew M. Breuninger et al, "The Invisible Battle," *Military Psychology* 31(6) (2019), 433-49.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며, 군대에서 쉽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sup>14)</sup> 관계적 공격성은 주로 쉬는 시간, 식사시간, 체육활동 및 일과 후, 부대 내에서 덜 구조화된 시간에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관계적 공격을 당하는 병사는 명백하게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자신감도 저하될 뿐만 아니라, 집단에 대한 매력과 애착이 낮아지는 문제를 겪게 되며, 섭식장애, 불안-공포, 우울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야기한다.

이는 결속력(teamwork/단결)을 필수로 하는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키며, 조직을 와해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관계적 공격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병영에서 이탈(탈영)하고 싶은 충동이 발생하고, 더 나아가 감정조절 불능 및 자제력 상실로 자해 또는 자살충동 및 총기사고를 야기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 2) 고립과 소외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로나-19로 타인과 물리적 접촉, 교류 및 대면 기회가 감소하면서 심리정서적, 사회적, 영적 고립과 소외를 경험한 바 있다.<sup>15)</sup> 고립과 소외는 대인관계 단절, 동선 축소로 개인의 정신건강을 약화 또는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고, 신앙도 위축시켰다. 코로나-19는 매개체 감염, 즉 대인 간의 접촉으로 인해 바이러스가 옮겨지는 전염병이므로 철저한 위생관념을 갖게 했다. 질병에 대한 과민반응과 과도한 경계태도로 인해 강박관념/행동이 코로나-19시대에 발생하였다.<sup>16)</sup> 사람들 간 비위생적인 행동을 비윤리

14) Osgood et al, "Tired and Angry," 80-91.

15) Eve Escalante et al, "Social Isolation and Loneliness,"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325(6) (2021), 520-21.

16) Bell et al, "Research in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Post COVID-19," 3-7.

넘어 범죄시하고 분노하는 현상들이 증가함으로써 서로 '사회적 거리유지'라는 물리적 고립을 요구하고 요구받는 상황도 발생했다.<sup>17)</sup>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2018년), 영국 총리 테레사 메이(Theresa May)는 사회적 고립과 소외, 외로움을 국가정책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전략적 우선순위라고 발표한 적이 있었다.<sup>18)</sup> 그러다가 코로나-19를 겪게 되어 영국이 국가정책으로 삼았던 사회적 고립과 소외 및 외로움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오히려 팬데믹의 대표적인 심리정서적 결과인 고립감, 소외감, 우울감은 코로나-19의 창궐과 함께 팽배해져 세계인의 기본정서가 되었으며,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대로 이어지게 될 것이 틀림없다.<sup>19)</sup>

고립과 소외는 코로나-19로 인해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시장경제가 축소, 붕괴되어 중산층이 사라지고 상당수가 신흥 빈곤층으로 하락된 사회구조와도 밀접하다. 경제적 약자계층이 된 가정은 우울, 불안-공포, 좌절감, 불편감, 불행감, 위화감, 박탈감, 위기감 등을 겪게 된다.

이는 대다수 군인의 가족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와 연결된 군인의 사기와도 밀접하다. 전염병으로 인한 비전투 손실은 물론 질병에 노출된 병사의 전투력 상실, 그에 따른 두려움의 만연 등이 결국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보건안보의 문제는 이미 생물학적 위협을 당했던 전쟁국들로부터 확인되고 있다. 감염

은 이동, 접촉, 확산의 과정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군의 통제, 대인비접촉, 활동 축소 등은 자연스럽게 물리적, 심리정서적 고립과 소외로 이어진다.

### 3) 정신화된 두려움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군인들이 갖게 된 보편적인 심리는 두려움인데, 이에 대해 벨 등은 '정신화된 두려움'(mentalized fear)이라고 명명했다.<sup>20)</sup> 이는 두려움이 보편적인 정신질환으로 형성되었다는 의미도 되고, 두려움이 모든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보편화의 의미이기도 하다. 정신화된 두려움은 범불안장애(汎不安障礙, Generalized Anxiety Disorder)에 준하는 상태의 다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코로나-19는 발열, 오한, 기침, 숨가쁨, 호흡곤란, 피로, 근육통, 두통, 미각-후각 상실, 인후염(통), 콧물,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발현되는 명백한 신체적 질병이다.<sup>21)</sup> 이런 증상들은 단지 신체적 질병으로서 불편감만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동반하게 된다. 통상 불안-공포와 우울은 동시에 발생하는 정서로서 불안-공포가 있을 때 우울해지고, 우울할 때 그 저변에 불안-공포가 자리 잡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을 분석해 보면, 코로나-19는 이에 감염이 되었거나 감염되지 않았거나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sup>22)</sup> 코로나-19

17) Fabián Echegaray et al, *Sustainable Lifestyles after Covid-19*, (London: Routledge, 2021), 2.

18) Escalante et al, "Social Isolation and Loneliness," 520-21.

19) Emma Dawson & Janet McCalman, *What Happens Next?* (Victoria, Australia: Melbourne University Press, 2020), 11.

20) Bell et al, "Research in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Post COVID-19," 3-7.

21) L. Sher, "Post-COVID Syndrome and Suicide Risk," *Monthly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Physicians* 114 (2021), 95-98.

22) Anders Håkansson, "Post-COVID Syndrome," *Psychiatry Research* 301 (2021), 113961.

에 노출되었던 생존자들의 심리정서를 분석해 보면, 강박증이 20%, 공포증이 23%,<sup>23)</sup> 인지기능장애가 30%,<sup>24)</sup>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31%, 불면증이 40%, 우울증이 42%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울은 코로나-19의 보편적 정서가 되어 이른바 ‘코로나 블루’(COVID-blue)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다.

코로나-19에 노출되면 대부분의 정신질환을 종합적으로 한 번에 겪는다고 볼 수 있다.<sup>25)</sup> 이러한 증상들은 팬데믹 이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고,<sup>26)</sup>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이어질 것이 분명한데, 이를 일컬어 ‘포스트 코로나 신드롬’(post-COVID syndrome)이라 한다.

어느 시대에나 사회적 불안-공포와 불확실성은 존재해 왔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병영은 물론, 사회 전반에 불안-공포가 극심, 팽배해질 것으로 예측된다.<sup>27)</sup>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의 근본문제인 불안-공포는 해소되지 않고 상존한다. 인간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조절,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공포는 그 양상을 달리할 뿐,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처럼 장기간 생활 자체가 불안-공포이고 스트레스인 경우를 일컬어 ‘생활사건 스트레스’(life events stress)라고 하는데, 이는

23) Håkansson, "Post-COVID Syndrome," 113961.

24) R. Rubin, "As Their Numbers Grow, COVID-19 'Long Haulers' Stump Experts,"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324 (2020), 1381-83. cf. Kristian Borg & Henk J. Stam, "Rehabilitation of Post Covid-19 Syndrome," *Journal of Rehabilitation Medicine* 54(1) (2021), 132.

25) Sher, "Post-COVID Syndrome and Suicide Risk," 95-98.

26) Angelika A. Zollfrank, "Chaplaincy in a Free-Standing Psychiatric Hospital during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Pastoral Care & Counseling* 75(1) (2021), 49-52.

27) Fabián Echegaray et al, *Sustainable Lifestyles after Covid-19*, 2. 박혜정,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시계획,"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3(3) (2020), 287-302.

마치 소나기를 맞고 온몸이 젖는 것과 달리 꾸준히 내리는 이슬비, 보슬비에 온몸이 젖는 것에 비견되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은 코로나 이후에도 틀림없이 군인의 정신건강은 물론, 영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갑자기 커다란 위기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주의가 집중되고, 간절함과 열정 있는 기도를 하게 되지만 생활사건 스트레스같이 장기간 발생한 스트레스는 기도생활의 주의가 집중되지 못하고 활력(동력)을 잃게 하고, 산만하게 되는 점에서 신앙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sup>28)</sup>

지속 가능성의 보장이 안심, 안정, 안전인데, 이것이 깨지거나 붕괴되면 의심, 불안정, 불안이 발생된다. 의심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방어적이 되는 심리적 원인으로서, 이는 팬데믹이 가져온 심리정서적 상황이다.<sup>29)</sup> 의심, 불안정, 불안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심리영적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태는 극단적으로 생명의 지속 가능성, 건강의 지속 가능성, 직업 및 고용의 지속 가능성, 기존 방법의 지속 가능성, 경제의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하고,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불안 심리는 단지 팬데믹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천재지변, 사회변혁 또는 혁명, 오일쇼크, 경제위기 또는 경제개혁, 전쟁 후에 여지없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런 면에서 팬데믹을 경험한다는 것은 전쟁의 황폐함을 겪는 것과 유사한 상황에 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로 불안-공포, 알코올 남용 및 다양한 중독,

28) Angela U. Ekwonye & Ngozi G. Nwosisi, "The Impact of Negative Life Events(NLEs) on Spirituality," *Journal of Spirituality in Mental Health* 23(2) (2019), 155-79.

29) Echegaray et al, *Sustainable Lifestyles after Covid-19*, 2.

과체중(비만), 수면장애, 인터넷 의존성, 강박행동 등의 현상이 현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sup>30)</sup> 우리 상황에서도 이런 문제는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코로나-19가 이런 문제를 야기했다면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이어질 것이고, 그것을 수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될 것이다.

2011년 9월에 개봉된 영화 “컨테이션”(contagion)에서 묘사한 전염병은 코로나-19 발생 10년 전에 제작된 영화였지만 작금의 팬데믹 상황을 거의 정확하게 예측했다는 면에서 의아할 정도이다. 그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팬데믹 상황이 영화의 소재로만 다루어지길 바랄 뿐이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그럴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또 다른 팬데믹의 돌발(outbreak) 가능성은 가정(assumption)이 아니라 시간의 문제이다.

코로나-19는 기저질환자에게 더욱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던 것처럼 심리정서적으로도 기저에 이미 우울, 불안-공포, 수면장애, 공황장애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 팬데믹은 더욱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나타나거나 악화되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sup>31)</sup> 코로나-19로 정신질환을 촉발시킬 심리사회적 요인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이미 기저질환으로서 공황장애를 겪는 환자의 경우에 코로나-19로 인해 나타나는 호흡곤란, 과호흡증후군이나 심계항진 등은 공황장애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으로 그것을 촉발,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극단적으로 코로나-19를 경험한 환자에게서 자살관념 및 자살행동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며, 이는 자살연구

에 대한 새로운 주제가 될 것이다. 군인의 경우, 군의 특수한 구조적인 두려움에 정신화된 두려움까지 가중되어 특별한 목회적, 목회상담적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 될 것이다.<sup>32)</sup>

### 3.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군 목회상담

코로나-19가 남긴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 피로와 피로감, 고립과 소외, 정신화된 두려움은 심리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군 전투력 및 단결의 와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향후 이런 문제를 해소, 해결, 극복해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건강한 병영생활이 될 수 있고, 건강한 군 목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1) 피로 회복을 위한 목회상담

피로의 원인이 혈당, 갑상선 기능, 당뇨 등의 신체기관적인 질병이 아니고, 심리정서적인 문제라면 그 회복은 심리정서적, 심리영적 차원에서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피로를 목회상담의 주제로 삼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으며, 성경에도 ‘피로’와 ‘피곤’이라는 용어가 언급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매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시 38: 8),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욘 16: 7)라는 구절들을 볼 때 피로와 피곤은 심리영적인 폐해를 초래하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성경은 피로와 피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

30) Echegaray et al, *Sustainable Lifestyles after Covid-19*, 3.

31) Sher, “Post-COVID Syndrome and Suicide Risk,” 95-98.

32) Jessica Rose, *Psychology for Pastoral Contexts*, (London: SCM, 2013), part 2, cf. Natasha A. Tassell-Matamua & Karen E. Frewin, “Psycho-spiritual Transformation after An Exceptional Human Experience,” *Journal of Spirituality in Mental Health* 21(4) (2019), 237-58.

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사 40: 31),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렘 31: 25),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욘 2: 7). 단적으로 이런 성경구절들을 볼 때, 피로와 피곤은 신앙방법으로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다.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목회상담학 교수 티모시 레인과 폴 트립(Timothy S. Lane & Paul D. Tripp)은 소망이 확고할 때 피로와 피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주장했다.<sup>33)</sup> 대부분 피로와 피곤이 낙심 또는 짜증으로 인한 관계적 공격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목회상담적으로 볼 때 소망을 통한 회복을 추구하는 것은 비약물치료로서 가장 훌륭한 치료방법이 될 수 있다.

피로와 피곤은 우울, 무감각, 소망의 상실, 두려움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기 때문에 심리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이것의 해소는 중요한 치유적 접근이 될 수 있다.<sup>34)</sup> 피로와 피곤은 위로를 통한 돌봄이 치유에 이르게 된다.<sup>35)</sup> 이때 위로는 “모든 것이 잘될 것이다”라는 단순히 긍정적 인식을 갖는 것이기도 하지만, 군인신자들은 모든 것이 다 잘되지 않더라도 천국의 소망이 위로의 근원이 되어 것으로 피로와 피곤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33) Timothy S. Lane & Paul D. Tripp, *How People Change* (Winston-Salem, NC.: Punch, 2006), 69, 219.

34) Mark R. McMinn, *Sin and Grace in Christian Counseling: An Integrative Paradigm* (Downers Grove, IL.: IVP Academic, 2008), 99.

35) Mark R. McMinn & Timothy R. Phillips, (eds.) *Care for the Soul* (Downers Grove, IL.: IVP, 2001), 537.

부활과 보상, 내세, 천국 등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통한 위로를 일컬어 케빈 프랜넬리(Kevin J. Flannelly) 등은 이 땅에서 삶의 피로와 피곤을 극복할 ‘유쾌한 신념’(pleasant beliefs)이라고 표현했다.<sup>36)</sup> 유쾌한 신념은 부활의 소망을 통해 사후에 하나님과의 연합, 사랑하는 사람과의 연합, 천국에서의 평화롭고 평안한 삶, 밝고 명량한 천국, 영원한 보상의 삶 등에 대한 신념을 확고히 함으로써 얻어지는 기쁨, 즐거움, 유쾌함이 피로와 피곤을 극복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인신자에게 유쾌한 신념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전력화의 기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물론, 병영생활, 극한의 교육훈련, 위기, 전투 등의 두려움 극복방안이 될 수 있다. 심지어 프랜넬리 등은 이런 유쾌한 신념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간의 우울, 불안, 공포, 강박관념(행동), 공격성, 편집증, 더 나아가 다양한 신체화(somatization) 증상까지 회복, 극복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를 밝힌 바 있다.<sup>37)</sup> 피로하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므로 이는 기도로써 충분히 극복, 회복, 치유될 수 있는 문제이다.

## 2) 고립과 소외 해소방안

고립과 소외는 지지를 약화 또는 단절시켜 심리적 복원(resilience)이 용이하지 않고, 극단적으로 자살의 주요 원인이 된다.<sup>38)</sup> 텔아

36) Kevin J. Flannelly et al, “Beliefs about Life-after Death, Psychiatric Symptomology and Cognitive Theories of Psychopathology,”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36(2) (2008), 94-103.

37) Flannelly et al, “Beliefs about Life-after Death, Psychiatric Symptomology and Cognitive Theories of Psychopathology,” 94-103.

38) Christine Moutier, “Transforming Threat into Opportunity,”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78(4) (2020), 433-38.

비브(Tel-Aviv)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술라미드 크리틀러(Shulamith Kreitler)는 고립과 소외는 누구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다는 상황으로 여기서 심리정서적 문제가 비롯된다고 분석했다.<sup>39)</sup>

고립과 소외, 분노, 관계적 공격성을 해소하는 방편(means of grace)으로 기도, 찬양, 말씀, 용서, 사랑의 신앙을 내재화하는 것만한 것이 없다. 군종목사는 군인신자들이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신하도록 하여 고립과 소외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목회상담에서는 ‘임마누엘 테라피’라 한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자신을 도와주시는 분으로 신뢰하는 믿음,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신다는 임마누엘을 신앙의 기저로 삼는다면 고립과 소외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

‘임마누엘 치료’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고, 이를 목회상담에 도입한 학자는 제임스 와일더(James Wilder)이다. 1970년에 와일더는 ‘임마누엘 중재’(intervention) 또는 ‘접근’(approach)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신다는 임재의식을 통해 고립, 불안-공포 및 다양한 심리정서적 문제와 고통 등을 완화, 감소 및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했다.<sup>40)</sup> 칼 레흐만(Karl D. Lehman)은 정신과 전문의로서 임마누엘 치료의 효과를 구체화하며, 조직적인 연구를 했다. 레흐만은 하나님께서 생물학적 인간의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sup>41)</sup>

39) Shulamith Kreitler, “The Dynamics of Fear & Anxiety,” in Paul L. Gower (ed.), *Psychology of Fear* (New York: Nova Science Publishers, 2004), 1.

40) James G. Friesen, James E. Wilder & Anne M. Bierling, *Living from the Heart Jesus Gave You* (Pasadena: Shepherd’s House, 1999), 7-8.

41) William James,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New York: Penguin Books, 1985), 274. cf. Vicky Genia, *Counseling & Psychotherapy of Religious Clients*, 김병

임마누엘 치료는 ‘Theophostic therapy’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1990년대 중반에 레흐만이 에드워드 스미스(Edward D. Smith)와 함께 이 신조어를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다. Theophostic은 우리말로 용어화하기는 어렵고, 음역하여 ‘데오파스틱’(하나님의 빛)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개념에 있어서는 심리적 불안상태에서 거대한 힘으로서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시는 임재의식으로 자신의 내면에 고립, 소외, 불안-공포와 같은 부정적 정서와 어둠이 물러나고 진리의 빛으로써 극복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sup>42)</sup> 이것은 하나님이 현재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자신과 함께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심리정서적, 심리영적 안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sup>43)</sup> 군인신자에게는 임마누엘 치료가 가장 적합한 목회상담기법이 될 수 있다.

교회에서 공동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군인신자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신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이다. 팬데믹을 비롯하여 전쟁, 전투 등 국가적, 사회적 위기로 인해 가견적(visible) 교회에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스스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개별신앙을 평상시에 유지해야 한다. 즉 군인신자 각자가 어떤 위기상황에 처할지라도 그에 대비하여 홀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견고한 신앙을 형성해 주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군 목회형태는 어디서든,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군인신자들이 각자

오 역, 『영적 발달과 심리치료』(서울: 대서출판사, 2010), 212.

42) Edward M. Smith, *Healing Life’s Deepest Hurts* (Ann Arbor, MI.: New Creation Publishing, 2002), 13.

43) S. Brandon et al, “Reported Recovered Memories of Child Sexual Abuse: Recommendations for Good Practice & Implications for Training,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 Research,” *Psychiatric Bulletin* 21(10) (1997), 663-65.

기도할 수 있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묵상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이는 무교회주의거나 이른바 ‘나 홀로 신앙’이 아니라 교회가 공동체 신앙과 아울러 강조하고 훈련해야 할 신앙형태이다.

군인신자들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경험을 빈번하게 했는데, 한번 피로에 빠진 상태에서 흐트러진 신앙생활을 바르게 되돌리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마치 닭장을 뛰쳐나간 닭들을 불러 모으기 어려운 상황처럼 교회를 벗어나 본 경험을 가진 신자들을 어떻게 불러 모으고, 어떻게 전과 같은 또는 전보다 더 강한 결속과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열정적인 신앙을 갖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는 국가(군대)가 시민(군인)의 자유와 제도를 중단, 차단, 단절, 규제, 통제, 제한, 취소, 폐쇄, 봉쇄, 소멸, 손실, 상실, 감소, 침체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경험한 바 있다.<sup>44)</sup> 또다시 팬데믹 또는 그와 유사한 국가적 위기상황에 봉착한다면 고립 및 소외되고, 삶의 지속 불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코로나-19가 그것을 웅변적으로 말해 주었다.

### 3) 두려움의 정서적 접촉감염에 대한 예방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해지고, 광범위해지고, 예측할 수 없게 되고, 급변하고,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하고, 진화된 문제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군인의 정신건강을 위협할 것이다. 부정확한 정보와 과잉정보까지 합해져 정신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데 이를 WHO에서는 팬데믹에 비견하여 인포데믹(infodemic: information+pandemic)

이라고 표현했다.<sup>45)</sup> ‘인포데믹’이라는 용어 자체는 과잉정보를 의미하지만 정확하게는 잘못된 정보의 과잉을 뜻하는 말이다. 이는 사람들에게 팬데믹에 편승하여 부정확한 정보로 불안-공포 등을 야기함으로써 정신건강에 피해를 초래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신조어라 할 수 있다. 국제적 위기상황이나 팬데믹이 발생하면 인포데믹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일종의 심리현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군인들이 잘못된 정보로 심리영적 혼란에 빠지거나 전투력이 약화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테면 백신 접종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짐승의 수 666’(계 13:18)이라거나 백신을 접종하면 노년에 치매에 걸린다든지, 백신접종은 비성경적이라든지, 영적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유언비어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뉴욕 대학교 사회학교수 캐롤 토손(Carol Tosone)은 코로나-19 같은 트라우마를 ‘집단적 트라우마’(collective trauma)라고 했는데, 집단적 트라우마는 다른 표현으로 ‘공유된(shared) 트라우마’라고도 한다. 이는 동시대 사람들이 사회전반적으로 동시에 트라우마를 경험하여 함께 고통을 겪고 외상을 입었다는 의미이다. 이런 경우, 군대 내에서 ‘정서적 접촉감염’(emotional contagion)이라는 현상이 매우 수월하게 발생한다.<sup>46)</sup>

정서적 접촉감염도 일종의 감염(infection)인데, 두려움에 노출된 군인과 접촉하고 나서 자신에게 매우 쉽게 불안-공포 정서의 전이(transference)가 나타나 그것에 노출되거나 강한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이것은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가 주장한 상담자와 내

44) Echeagaray et al, *Sustainable Lifestyles after Covid-19*, 3.

45)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9 Novel Coronavirus,”(p.7) [https://www.who.int\(2020. 9.1\).](https://www.who.int(2020. 9.1).)

46) Tosone, *Shared Trauma, Shared Resilience during a Pandemic*, 2.

담자 간 정서적 전이로서 전이 신경증(transference neurosis)과 개념이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정서가 전이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심리학에서 부정하는 입장이 없다.<sup>47)</sup>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군인 가운데 목숨을 잃거나 전염의 소문 등은 불안-공포가 전이되어 군인들이 요동하기 쉽다. 또 자신에게는 의심이 없었으나 의심을 드러내는 군인과 접촉하고 나서 의심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더 나아가 자신도 다른 군인들에게 의심을 감염시킬 수 있는 심리정서적 현상이 나타난다. 아울러 강박적인 군인과 접촉하고 난 군인은 전에 없던 강박관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우울한 정서를 가진 군인과 접촉하고 나서 우울의 영향을 받고, 우울한 정서를 타인에게 전염시키듯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건강한 사회에서 이런 일은, 전혀 없는 일은 아니지만, 흔하지 않거나 심각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집단적 트라우마를 겪고 공유된 외상경험을 가진 사회문화에서는 이런 정서적 접촉감염 현상이 매우 쉽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집단적 또는 공유된 트라우마를 경험한 군인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것의 여파로 나타날 정서적 접촉감염의 위험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정서적 접촉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을 철저히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했던 것처럼 각자가 정서적 접촉감염의 연결고리를 끊거나 그것으로부터 영향받지 않으려는 노력과 이격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교회가 군인

신자들을 대상으로 꾸준한 신앙교육과 상담을 강화하여 심리영적 면역력, 저항력, 회복력을 높여야만 한다. 정서적 접촉감염은 서로 악영향을 주고받는 양방향일 수 있지만 누군가 심리영적으로 강화된(건강한) 사람이 그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야 이 감염을 억제할 수 있다. 정서적 접촉감염은 그 용어가 함의하고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물리적 근접거리에서 심리정서적 감염이라 할 수 있다. 비유하면 심리영적인 백신(vaccination)을 주입받아 면역력, 저항력을 키우듯 신앙교육은 백신의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와 목회, 그리고 기독교(목회)상담은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공세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신자들이 우울, 불안-공포, 강박 등 다양한 심리정서적 질병에 노출되지 않고 심리영적 면역력, 저항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군종목사는 군인신자들이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그들의 심리정서적, 심리영적 문제에 노출되어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말씀으로 해결하는 데 목회적 관심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 군인과 군인 가족의 심리영적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특화된 존재가 군종목사이기 때문이다. 군종목사는 군인의 심리영적 건강을 책임지고 이를 담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로 인정받고 있다.<sup>48)</sup> 군대에서 군인에게 공식적으로, 그리고 심리영적으로 평안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존재는 군종목사가 거의 유일한 사람이다. 영국군에서는 군종목사를 일컬어 “군인의 슬

47) Joseph H. Clarke, “Transference Neurosis Revisited,” *Journal of Spirituality in Mental Health* 23(2) (2021), 99-121.

48) Andrew Totten, “Moral Soldiering and Soldiers’ Morale,” in Andrew Todd, *Military Chaplaincy in Contention* (New York: Routledge, 2013), 19. cf. Marek S. Kopacz et al., “Chaplains’ Engagement with Suicidality among Their Service Users,” *Suicide & Life-Threatening Behavior* 46 (2016), 206-12.

품과 우울에 대해 공식적으로 다룰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중재자<sup>49)</sup>라고 표현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군인 및 군인가족에 대한 치유와 회복 및 정신건강의 유지를 위해 강력한 심리영적 결속과 지지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안드레아스 스텐겔 등(Andreas Stengel et al)은 코로나-19가 정신질환 발병의 원인이 되는 것도 분명하지만 사회적, 심리정서적, 심리영적 지지가 강할 때는 정신질환으로 이환되지 않거나 악화되지 않고 현저하게 낮아진다고 분석한 연구결과를 내놓았다.<sup>50)</sup> 그런 면에서 군종목사의 역할은 더욱 부상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50년 한 카투사 병사의 호소 “성직자의 기도로써 죽음의 두려움을 없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건의에 따라 군종제도가 창설된 만큼 군종목사는 군인의 불안-공포를 해소하여 전투력을 증강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건강하게 돌려보내 시민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병과창설의 취지이며, 군종목사의 의무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sup>51)</sup> 일반적으로 군대와 군인의 심리적 특성은 비자발적이어서 자신의 심리영적 건강에 대해 적극적 도움 요청을 꺼린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sup>52)</sup> 군종목사는 이 같은 요청이 없어도 군인의 문제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

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미 정신화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확고한 기독교신앙을 갖는 것이다.

불안-공포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뢰(신앙)를 통해 해소될 수 있으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신앙의 기본을 다짐으로써 정신화된 두려움을 다루어야 한다. 그리하여 평안의 원천이 되는 말씀, 그리스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앙의 본질적 입장을 견고하게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불안-공포가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sup>53)</sup> 매튜 브루닝거 등(Matthew M. Breuninger et al)은 군사심리학적으로 볼 때, 군인들이 겪는 불안-공포는 신앙을 갖게 하는 데 동기부여가 되고,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향상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분석한 바 있다.<sup>54)</sup> 이는 코로나-19로 얻어진 긍정적 상황일 수 있으며, 기회를 얻는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불안-공포의 세대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 안정을 누린다면 그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군인신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가 될 수 있다. 이는 마치 존 칼빈(John Calvin)이 표현한 ‘전투적 교회’(the church militant)의 개념처럼 교회는 신자들을 심리영적으로 약화시키는 죄는 물론, 우울, 불안-공포 등 정신화된 두려움과 온갖 부정적인 정서에 대하여 전투적으로 대적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이런 대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심리영적 면역체계를 확보해 주

49) Rachel L. Seddon, Edgar Jones & Neil Greenberg, “The Role of Chaplains in Maintaining the Psychological Health of Military Personnele,” *Military Medicine* 176(12) (2011), 1357-61.

50) Stengel et al, “Long Haulers-What Is the Evidence for Post-COVID Fatigue?” 1-3.

51) 전요섭, “국방부 군종교 제도의 효율적 운용방안,”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정책연구」 185 (2015), 117-48. Stengel et al, “Long Haulers-What Is the Evidence for Post-COVID Fatigue?” 1-3.

52) Todd, “Moral Engagements: Morality, Mission and Military Chaplaincy,” 159. cf. Seddon, Jones & Greenberg, “The Role of Chaplains in Maintaining the Psychological Health of Military Personnel,” 1357-61.

53) Lawrence J. Crabb, *Finding God*, 김성녀 역,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서울: 복있는사람, 2010), 191.

54) Breuninger et al, “The Invisible Battle,” 433-49. cf. Michael J. Himes, J. Pilarski & Donald P. McNeill, *Doing the Truth in Love*, (New York, NY.: Paulist Press, 2014), Chapter 3.

어야 한다.<sup>55)</sup>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군인교회와 군인신자의 정서적 접촉감염에 대한 전투적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인지행동치료의 ‘논박’ 형태는 매우 유용한 응용전략이 될 수 있다. 정서적 접촉감염은 심리정서적, 영적 저항력을 가지고 거부하는 것이 초점이다. 바른 거부는 바른 기준에 의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군인교회, 군종목사, 군목회 및 상담 등은 온 힘을 기울여 신자들에게 바른 것(신앙, 가치관, 철학, 관계, 태도 등)을 수립해야 한다.

### III. 닫는 글

이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군인의 심리영적 건강과 군 목회상담의 과제에 대한 문헌연구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코로나가 종식되고 군대와 군인이 평안, 안전, 안정, 안녕을 누리다면 그것은 가장 필요한 은혜가 될 것이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 하여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과거와는 연결고리가 끊어진 전혀 새로운 시대가 되리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 코로나-19 시대에 발생했던 여러 상황들이 그대로 이어져 그것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가 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언택트, 뉴노멀, 사회적 거리두기, 통제, 활동 축소, 피로 등이 높아질 것이며, 이는 군의 전투력과 단결을 약화시킬 수 있다. 고립과 소외는 우울을 비롯하여 좌절, 불행감, 위화감, 박탈감, 위기감 등 다양한 심리정서를 야기하여 군인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 정신화된 두려움은 범불안장애에 버금가는 심리정서적 문제로서 두려움

이 만성화, 생활화되어 삶 자체가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코로나-19가 남긴 피로, 두려움, 고립과 소외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임마누엘 치료가 군 목회상담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군인신자들의 소망이 확고할 때 피로와 피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 유쾌한 신념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전력화의 기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물론, 병영생활, 극한의 교육훈련, 위기, 전투 등의 두려움 극복방안이 될 수 있다.

군인신자의 심리영적 면역력, 저항력, 회복력을 높여야만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위해 군종목사가 특화된 존재이므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 군대와 군인의 심리적 특성은 비자발적이어서 자신의 심리영적 건강에 대해 적극적 도움 요청을 꺼린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군종목사는 이 같은 요청이 없어도 군인의 문제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55) Otto Weber, *Die Treue Gottes in der Geschichte der Kirche*, 김영재 역, 『칼빈의 교회관』 (서울: 이레서원, 2001), 49.

## Abstract

### Pastoral Counseling for Military Psycho-spiritual Health of Post COVID-19 Era

Joseph Jeon

This study is a literature research to clarify pastoral counseling for psycho-spiritual health for soldiers in the post-COVID-19 era. The post-COVID era should be understood as the concept of so-called 'with Corona' (with COVID-19). It is not easy to completely overcome COVID-19. This devastating legacy makes it difficult to declare an end to the corona virus, and it is likely that it will still affect the next generation just like a cold or flu as endemic.

In the post-COVID era, as fatigue increases, anger and aggression increase, resulting in an over-reaction to even small/minor things, which is a problem that can lead to major accidents.

Military pastoral counseling should focus on counseling that resolves the mentalized fear of the military, which may cause weakening the fighting power of military which requires solidarity, lower morale, and cause disorganization. Pastoral counseling is needed to strengthen faith through immanuel therapy so that soldiers do not feel isolated and alienated and are not exposed to mentalized fears.

Pastoral counseling for military personnel should be counseling for recovery by strengthening the soldiers' faith so that they are not exposed to emotional contagion/infection. In particular, strong and repeated faith education is needed so that military believers can strengthen their psycho-spiritual immunity and resistance without being exposed to

various psycho-spiritual diseases such as depression, anxiety-phobia, and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Spiritual immunity and resistance should be applied and utilized in the form of disputation and refutation to avoid exposure to emotional contact infections.

#### Key Words

Pastoral counseling, pandemic, COVID-19, post COVID-19, mental health

#### 논문 기고자 Email

jeon8182@gmail.com

## 전요섭의 논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군인의 정신 건강을 위한 군 목회상담의 과제”에 대한 논찬

A Comment : Pastoral Counseling for Military Psycho-spiritual Health of Post COVID-19 Era

» 강찬영 Ph. D.(cand.)\*

### 1. 들어가면서

전요섭 교수님의 귀한 논문의 논찬을 맡게 되어 영광이며, 이런 기회를 주신 군선교신학회에 감사를 드린다. 또한 시의 적절한 주제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군인 정신건강과 군 목회상담의 과제”를 통해 코로나 시대의 군선교의 새로운 방향과 목회상담과 관련된 전략적 접근에 대해 의미 있는 연구를 해주신 전요섭 교수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전요섭 교수님의 논문 덕분에, 군인교회 목회자이자 상담자의 한 사람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익한 공부와 도전의 시간이 되었다.

### 2. 요약 및 논평

#### 1) 요약

전요섭 교수님은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기초로

전반적인 내용들을 소개하고 평가하면서, 종식의 개념이 아닌 더 붙어 살아가야 하는 위드 코로나(with Covid19), 결과를 수습해야 하는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의 시대에 군인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해 분석하고, 군 목회상담과 군선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코로나19의 전반적인 영향을 다룬다. 더 이상 퇴치가 아니라 공존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오랜 팬데믹(Pandemic)의 영향으로 악화된 정신건강과 심리영적문제들을 처리하고 수습해야 하는데, 이는 치유와 회복에 기초한 각별한 지지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임을 강조한다.

이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군인의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한 분석을 시도한다. 장기간 코로나19 노출로 인해, 군인들은 신체의 피로(fatigue)와 심리정서상의 피로감(sense of fatigue)을 모두 겪고 있는데, 이러한 군인들의 피로상승문제는 군의 결속력을 파괴하는 관계적 공격성(relational aggression)을 야기시킨다는 것이다.

논자는 계속해서 대인관계의 단절과 감소, 축소로 인한 고립과 소외의 문제가 신앙마저 위축시키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를 경험한 세계인의 기본정서가 되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코로나 블루(Covid-Blue)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만연해 있는, 전반적인 우울의 문제와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정신화된 두려움(mentalized fear)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스트레스의 장기화는 심리 정서적 기저질환(우울증, 불안-공포증, 수면장애, 공황장애)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전요섭 교수님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코

• 논문 투고일: 2021년 10월 3일 • 논문 수정일: 2021년 10월 4일

• 게재 확정일: 2021년 10월 5일

\*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육군3사관학교 총성대학교회, 기독교윤리학 박사과정 수료

로나 시대의 군 목회상담을 제안한다.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은 목회의 환경과 형태의 급격한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비대면과 온라인 사역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코로나19가 진화적 촉매(evolutionary catalyst)로 작용했음을 강조한다. 이제 교회는 새로운 형태의 미래예배(교회)를 그려 나갈지, 아니면 전통적인 예배론(교회론)에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부분 수정을 할지, 전통적인 예배(교회)를 유지할지를 고민해야만 하는 시점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팬데믹 상황과 관련하여 신정론(神正論, Theodicy)의 질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이고, 이들에 대한 준비된 목회적 돌봄과 상담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된 고립과 소외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밀접한 연결점을 찾아 확신하도록 돕는, ‘임마누엘 테라피’(cf. Theophostic Therapy)에 대해 설명하며 강조하고 있다. 거대한 힘으로서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임재의식은 문제 해결의 좋은 동기가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의 정서적 접촉감염(Emotional Contagion)에 대해 설명하면서, 잘못된 정보과잉(infodemic: information+pandemic)의 문제와 집단적 트라우마가 정서적 접촉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를 치료, 예방하기 위해 정신적 백신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신앙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런 측면에서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략적인 접촉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한다.

## 2) 논평

(1) 전요섭 교수님의 논문은 코로나19의 영향에 대한 명확한 분석

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사회 및 목회적 환경의 변화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의 대안으로 군 목회상담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다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논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상황은 군인교회와 군선교의 패러다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군 조직 안에서 공적 성격을 가진 군인교회의 특성상, 민간교회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와 고민에 직면하면서, 군목회는 본질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그것과 관련된 역할을 돌아보게 되는데, 전 교수님의 논문은 이러한 시점에 꼭 필요한 논문이라 생각한다.

(2) 짧은 지면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코로나의 영향, 그리고 해결을 위한 노력 관련하여 단순한 정리를 넘어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이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의미 있는 평가는 물론 적시성을 지닌 대안까지 잘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사실 코로나와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이를 군인교회, 군목회(상담)와 연결하여 학문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은 작금의 상황과 관련하여 참으로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육군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군종장교들을 통한 회복탄력성 교육이 전장병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회복을 위한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일은 전쟁시의 군인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지만, 특히 최근 장기적인 방역상황이 이어지면서 발생하는 문제들과 관련하여 더욱 강조되고 있다. 현 상황과 관련하여 회복탄력성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준비된 교안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

요섭 교수님의 논문의 내용들이 더하여진다면 좀 더 깊이 있고, 장병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3) 전요섭 교수님은 일반적인 심리상담 분야의 개념들을 코로나 상황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잘 소개하고 있으며, 이를 군인들의 현실에 적합한 용어와 표현으로 잘 묘사하고 제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목회상담학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이는 오랜 시간 상담 분야에서 연구를 해온 경력과 예비역 군종장교(목사)의 경험에서 흘러나오는 연륜과 전문성 덕분일 것이다.

(4) 하지만 장기적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립과 소외의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임마누엘 치료’와 관련하여, 이 치료법이야말로 “군인신자와 관련하여 가장 적합한 목회상담기법”이라는 평가에 비해서는, 그저 간략한 소개에 그친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제한된 지면에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면 더욱 설득력이 있고, 군목회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것이라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개인적인 바람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군목회상담에 대한 후속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 ‘임마누엘 테라피’와 관련된 내용들도 군목회 상황에 맞게 소개되고, 이것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다면, 군인교회와 군선교에 큰 유익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5) 전요섭 교수님은 군종목사가 군인들에게 심리영적으로 평안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지금 군의 현실은 과거와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말단 부대까지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이 배치되면서, 군종장교(목사)

의 상담자로서의 역할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물론 목회상담학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상담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 상담자로서의 역할과 정체성이 축소된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상담과 관련된 군종목사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이에 대한 군의 관심과 교육 등이 축소되고 있는 것은 참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CPE와 관련하여 전문가 그룹 양성을 위한 군종병과 차원에서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모든 군 목회자들이 전문가가 될 수는 없겠지만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 상담자로서 목회자의 역할이 주목되는 시점에서, 기독교연합교구(군선교연합회)와 군선교기관들이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군목회자들의 상담역량 강화에 좀 더 관심을 가진다면, 이는 군선교와 군목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3. 나가면서

전요섭 교수님은 코로나와 공존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군인교회와 군 목회자들이 시대적 요구와 필요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하며, 특히 장기화된 두려움으로 인해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 영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돌봄을 통해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고, 심리 영적 면역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사역임을 강조한다.

논문을 읽으면서 그의 군인교회를 향한 사랑과 군선교 현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 큰 도전을 받았다. 다시 한 번 귀한 논문을 제공해 주신 전요섭 교수님의 수고에 감사를 드린다.



# 기독교 군 병사의 종교적 실천과 종교적 대처가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the Christian Soldier's Religious Practices and Religious Coping on Subjective Well-being

» 임정인 Ph. D.(Cand.)\*

## 국문초록

기독교 신앙생활과 관계된 요인들이 군 장병의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일은 효과적인 군선교 전략 수립을 위해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종교적 실천과 종교적 대처가 기독교 군 병사의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육군, 해군, 공군에 현역 복무 중인 기독교 병사 16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인구통계학 특성을 포함하여 예배참석빈도와 기도생활빈도, 종교적 대처 및 주관적 웰빙이 측정되었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예배참석빈도는 지각된 스트레스를 낮추고 삶의 의미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도생활빈도는 긍정정서를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긍정적 종교적 대처는 인구통계학 특성과 예배참석빈도 및 기도생활빈도를 통제하고, 지각된 스트레스를 낮추고, 긍정정서, 삶 만족 및 삶의 의미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 종교적 대처는 지각된 스트레스를 높이고, 긍정정서, 삶 만족 및 삶의 의미를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의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 한계 및 미래연구방향 등이 논의되었다.

## 중심단어

종교적 실천, 긍정적 종교적 대처, 부정적 종교적 대처, 주관적 웰빙, 군선교 전략

• 논문 투고일: 2021년 9월 8일 • 논문 수정일: 2021년 9월 14일

• 게재 확정일: 2021년 9월 28일

\* 충신대학교 역사교육과 및 동 신학대학원,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산업 및 조직심리) 박사(수료), 현) 육군 정책연수

## I. 서론

군대에서 종교활동은 장병의 신앙심 함양과 사생관 확립을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으로 정의된다.<sup>1)</sup> 이는 군대에서 실시되는 종교활동이 종교의 본래 목적인 신앙심 함양뿐 아니라 장병의 국가관, 가치관 및 사생관 확립과 필승의 신념 배양, 부대의 사고예방 등 다양한 영역에 기여해야 함을 뜻한다.<sup>2)</sup> 즉 군대는 종교활동이 깊은 신앙심을 갖게 할 뿐 아니라 무형전투력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군대가 종교에 바라는 이 같은 역할은 기독교 군선교의 방향설정에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선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지만 선교대상자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sup>3)</sup> 예를 들면, 선교대상자들에게 의료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면 복음 전파 활동과 함께 의료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복음 전파에 효율적일 것이다. 즉, 군대에서의 복음 전파는 군대가 종교활동을 통해 장병들의 신앙심 함양뿐 아니라 무형전투력 강화를 기대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실시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장병들의 신앙생활과 직접 관계된 요인이 장병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경험적 확인이 요구된다. 선행연구들은 예배와 기도가 종교적 실천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객관적 지

표임을 제안했고, 이는 군 장병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sup>4)</sup> 대한민국 군대는 장병들이 일요일과 수요일 정기 종교행사와 종교별 절기 종교행사 등에 참석할 수 있도록 법규로 보장한다.<sup>5)</sup> 그러므로 공적인 예배참석은 군 장병의 기독교 신앙생활과 관계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다. 또한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실시하는 기도생활은 공적인 예배참석과 함께 종교적 실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예배 시간 이외에 실시하는 개인기도의 빈도는 개인의 심리적 웰빙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며,<sup>6)</sup> 6주가 지난 시점의 감사를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sup>7)</sup>

하지만 공적인 예배참석의 빈도와 개인적인 기도생활빈도와 같은 객관적 특성의 종교적 실천은 결과변인들과의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의 영향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주관적 측면의 구성개념이 요구된다.<sup>8)</sup> 이와 관련하여 최근 종교적 대처개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종교적 대처는 종교가 개인의 보편적인 신념체계를 구성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종교적 의미가 스트레스를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제안되었

4) M. F. Steger, & P. Frazier, "Meaning in life: One link in the chain from religiousness to well-be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4) (2005), 574-582.

5) 국방부훈령, *op. cit.*, 제3장 종교활동, 제12조(종교행사) ① 정기 종교행사는 일·수요일 종교행사와 각 종단의 절기행사를 말한다. 다만, 부대사정에 따라 요일을 정해 정기 종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6) J. Maltby, C. A. Lewis & L. Day, "Religious orientation and psychological well being: The role of the frequency of personal prayer," *British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4(4) (1999), 363-378.

7) N. M. Lambert, F. D. Fincham, S. R. Braithwaite, S. M. Graham & S. R. Beach, "Can prayer increase gratitude?," *Psychology of Religion and Spirituality* 1(3) (2009), 139-149.

8) K. I. Pargament, M. Feuille & D. Burdzy, "The Brief RCOPE: Current psychometric status of a short measure of religious coping," *Religions* 2(1) (2011), 51-76.

1) 국방부훈령 제2300호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2019. 7. 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2. "종교활동"이란 군종장교의 주된 임무로 장병의 신앙심 함양과 사생관 확립을 위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Ibid.*, 제2장 군종업무, 제6조(군종의 기능)

3) 안승, "건강한 기독교 발전을 위한 선교 개념 소고," 「신학과 목회」 (2018), 162-184.

다.<sup>9)</sup> 군대는 계급을 바탕으로 한 엄격한 위계질서와 상명하복 문화, 통제된 집단생활 등 일반 사회와 구별되는 특징을 가진 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복무하는 것 자체가 군 장병에게 스트레스원(stressor)으로 작용할 수 있다.<sup>10)</sup> 게다가 최근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스트레스는 군 장병이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극복하기 위한 대처자원으로서 종교적 대처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한다.<sup>11)</sup>

이상에서 언급한 군 장병의 종교적 실천과 함께 종교적 대처의 긍정적 결과로 주관적 웰빙을 생각할 수 있다. 주관적 웰빙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하여 내리는 주관적 평가로서 삶 만족, 삶의 의미와 같은 인지적 평가와 긍정정서, 부정정서, 스트레스, 우울 등의 정서적 평가로 구성된다.<sup>12)</sup> 기존의 연구들은 삶 만족이 학업성취도를 높이고,<sup>13)</sup> 긍정정서가 자아탄력성을 증가시켜 삶 만족을 예측하며,<sup>14)</sup> 군인이 지각하는 삶의 의미가 우울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고했다.<sup>15)</sup> 이런 결과들은 군 장병

9) K. I. Pargament, *The psychology of religion and coping* (New York: Guilford, 1997), 1-548.

10) 민진, “군대조직의 특성에 관한 연구,” 『국방연구』 51(3) (2008), 61-94.

11) S. Pirutinsky, A. D. Cherniak & D. H. Rosmarin, “COVID-19, mental health, and religious coping among American Orthodox Jews,”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59(5) (2020), 2288-2301.

12) E. Diener, E. M. Suh, R. E. Lucas & H. L. Smith,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2) (1999), 276-302.

13) Z. J. Ng, S. E. Huebner & K. J. Hills, “Life satisfaction and academic performance in early adolescents: Evidence for reciprocal associatio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53(6) (2015), 479-491.

14) M. A. Cohn, B. L. Fredrickson, S. L. Brown, J. A. Mikels & A. M. Conway, “Happiness unpacked: positive emotions increase life satisfaction by building resilience,” *Emotion* 9(3) (2009), 361-368.

15) G. P. Owens, M. F. Steger, A. A. Whitesell & C. J. Herrera, “Posttraumatic stress

의 높은 주관적 웰빙이 심리적 건강뿐 아니라 전투와 관계된 수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군 장병을 대상으로 종교적 실천과 종교적 대처가 주관적 웰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군 장병, 특히 기독교 병사의 종교적 실천과 종교적 대처가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적인 예배참석의 빈도와 개인적으로 실시하는 기도생활빈도가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것이다. 또한 종교적 실천의 영향을 통제한 후 종교적 대처가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된 군 병사들에게 기독교 신앙생활(예배참석, 기도생활)이 유익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군선교 전략 수립과 관계된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주관적 웰빙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은 자신의 삶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및 주관적 평가(cognitive and affective evaluation)로서 자신의 삶을 만족스럽게 인식하는 것, 삶에서 긍정적인 정서는 많이 경험하지만 부정적인 정서는 적게 경험하는 것 등을 가리킨다.<sup>16)</sup>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군 병사들의 주관적 웰빙 중 정서적 측면으로 지각된 스트레스와 긍정정서를, 인지적 측면으로 삶 만족과 삶의 의미를 선정하였다.

disorder, guilt, depression, and meaning in life among military veterans: Military veterans and meaning,”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2(6) (2009), 654-657.

16) Diener et al, *op. cit.*, 276-302.

‘지각된 스트레스’(perceived stress)는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및 신체적 긴장 상태를 가리킨다.<sup>17)</sup> 기존 연구결과들을 통해 높은 수준의 지각된 스트레스는 자존감을 낮추고 우울을 높이며,<sup>18)</sup> 특히 군인들의 부적응을 유발하고<sup>19)</sup> 부대 응집력을 낮추는 예측변인으로 확인되었다.<sup>20)</sup>

확장 및 구축 이론(broaden-and-build theory)에 따르면, ‘긍정정서’(positive affect)는 개인의 사고-행동 레퍼토리를 확장하고 인지적으로 유연하게 만들어 풍성한 인지적 자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과정은 상승나선(upward spirals) 곡선을 그리며 다시 긍정정서를 유발하는 선순환을 이룬다.<sup>21)</sup> 경험적 연구결과들은 긍정정서가 삶의 만족을 높이고<sup>22)</sup> 긍정적인 건강행동을 촉진하는<sup>23)</sup> 등을 검증함으로써 긍정정서의 가치를 증명했다.

‘삶 만족’(life satisfaction)은 주관적 웰빙의 대표적인 변인으로서 자

17) 이종하, 신철민, 고영훈, 임재형, 조숙행, 김승현, 정인파, 한창수, “한글판 스트레스 자각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 『정신신체의학』 20(2) (2012), 127-134.

18) J. S. Lee, E. J. Joo & K. S. Choi, “Perceived stress and self-esteem mediate the effects of work-related stress on depression,” *Stress and Health* 29(1) (2013), 75-81.

19) J. H. Ha, J. Jue, & Y. Jang, “The Relationship Between Army Soldiers’ Perceived Stress and Army Life Adjustment: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tress Response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Cohesion,” *Military Medicine* 185(9-10) (2020), e1743-e1749.

20) J. Griffith & M. Vaitkus, “Relating cohesion to stress, strain, disintegration, and performance: An organizing framework,” *Military Psychology* 11(1) (1999), 27-55.

21) B. L. Fredrickson, “The role of positive emotions in positive psychology: The broaden-and-build theory of positive emotions,” *American Psychologist* 56(3) (2001), 218-226.

22) P. Kuppens, A. Realo, & E. Diener, “The role of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in life satisfaction judgment across n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5(1) (2008), 66-75.

23) K. M. Nylocks, E. Rafaeli, E. Bar-Kalifa, J. J. Flynn & K. G. Coifman, “Testing the influence of negative and positive emotion on future health-promoting behaviors in a community sample,” *Motivation and Emotion* 43(2) (2019), 285-298.

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가리키는 인지적 평가이며, 주관적 웰빙의 중요한 지표로 간주된다.<sup>24)</sup> 삶 만족은 우울과 불안, 자살 생각 등 정신건강의 부정적 지표들과 부적 관계를 보이고,<sup>25)</sup> 자기효능감, 긍정정서, 자아존중감 등과 정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sup>26)</sup>

‘삶의 의미’(meaning in life)는 자신의 실존과 존재의 본질에 대해 인식하는 중요성으로 정의되며, 삶에서 의미를 찾기 위한 노력을 뜻하는 의미추구(search for meaning)와 현재의 삶에서 의미를 이미 발견했음을 가리키는 의미발견(presence of meaning)으로 구분된다.<sup>27)</sup> 삶의 의미는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자살사고의 관계를 약화시키고,<sup>28)</sup> 정신건강의 긍정적 지표, 예를 들면, 삶 만족, 긍정정서, 심리적 웰빙 등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sup>29)</sup>

## 2. 종교적 실천과 주관적 웰빙

선행연구에서 종교는 높은 수준의 웰빙을 예측하는 보호요인으로 확인되었다.<sup>30)</sup> 종교를 측정하는 다양한 기준들이 있지만, 그중

24) Diener et al, *op. cit.*, 276-302.

25) D. M. Fergusson, G. F. H. McLeod, L. J. Horwood, N. R. Swain, S. Chapple, & R. Poulton, “Life satisfaction and mental health problems (18 to 35 years),” *Psychological Medicine* 45(11) (2015), 2427-2436.

26) 임남연, 이화령, 서은국, “한국에서의 Diener의 삶의 만족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사용 연구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1) (2010), 21-47.

27) M. F. Steger, P. Frazier, S. Oishi & M. Kaler, “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Assessing the presence of and search for meaning in lif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 (2006), 80-93.

28) 주영, 이서정, 현명호, “스트레스와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 감사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4) (2012), 1175-1192.

29) 유성경, 박은선, 김수정, 조효진, “삶의 의미와 정신건강과의 관계에 관한 메타분석: 1997년-2013년 국내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3(2) (2014), 441-468.

30) H. G. Koenig, “Religion, spirituality, and health: The research and clinical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공적인 영역과 개인적인 영역에서 실시하는 '종교적 실천'(religious practices)이다. 공적인 영역에서는 예배참석, 개인적인 영역에서는 기도, 신앙서적 독서, 종교 영상 시청 등이 있으며,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대표적인 종교적 실천으로 제안된 공적인 예배참석과 개인적인 기도생활을 선정하였다.<sup>31)</sup>

예배참석과 개인기도와 같은 종교적 실천은 개인의 보편적인 의미와 신념체계를 강화시켜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하도록 만들고, 이를 통해 개인은 낮은 스트레스와 높은 삶의 의미 수준 등 향상된 주관적 웰빙을 경험할 수 있다.<sup>32)</sup> 공적인 예배참석은 같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신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종교의식이기 때문에 예배 참석자는 예배를 통해 공동체성을 경험함으로써 더 나은 정신건강을 가질 수 있다.<sup>33)</sup> 개인적인 시간에 기도하는 개인은 기도시간을 통해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다른 관점들을 가지게 되어 감사와 같은 긍정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sup>34)</sup>

종교적 실천을 실행하는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종교적 실천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이 높았고,<sup>35)</sup> 기도 및 신앙서적 독서와 같은 개인적인 종교적 실천은 이민자들의 활력을 증가시켰

implications," *International Scholarly Research Notices* (2012), 1-33.

31) Steger & Frazier, *op. cit.*, 574-582.

32) D. Krok, "Religiousness, spirituality, and coping with stress among late adolescents: A meaning-making perspective," *Journal of Adolescence* 45 (2015), 196-203.

33) L. Balbuena, M. Baetz & R. Bowen, "Religious attendance, spirituality, and major depression in Canada: A 14-year follow-up study," *The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58(4) (2013), 225-232.

34) Lambert et al, *op. cit.*, 139-149.

35) A. Berthold & W. Ruch, "Satisfaction with life and character strengths of non-religious and religious people: It's practicing one's religion that makes the difference," *Frontiers in Psychology* 5 (2014), 876.

다.<sup>36)</sup> 또한 참전용사들의 종교적 실천은 삶에서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도록 하고, 우울과 자살생각 등을 유의미하게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고,<sup>37)</sup> 자발적인 예배참석과 신앙서적 독서 및 명상과 같은 종교적 실천은 삶의 의미를 증가시켜서 긍정정서와 삶 만족을 높였다.<sup>38)</sup> Maltby와 동료들(1999)은 개인적인 기도의 빈도가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을 확인했고,<sup>39)</sup> 다양한 종교를 가진 한국인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에서는 종교행사 참석빈도와 기도의 빈도가 삶의 의미, 삶 만족, 자아존중감 등을 높이고, 우울은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종교적 실천이 주관적 웰빙을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sup>40)</sup>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공적인 예배참석과 개인적인 시간에 실시하는 기도의 빈도는 기독교 군 병사들의 주관적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가설 1을 세웠다.

가설 1: 공적예배참석과 사적기도생활은 지각된 스트레스를 낮추고 긍정정서, 삶 만족, 삶의 의미를 높일 것이다.

### 3. 종교적 대처와 주관적 웰빙

'종교적 대처'(religious coping)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는 예배와 같

36) Lee, K. H., & Hwang, M. J., "Private religious practice, spiritual coping, social support, and health status among older Korean adult immigrants," *Social Work in Public Health* 29(5) (2014), 428-443.

37) V. Sharma, D. B. Marin, H. K. Koenig, A. Feder, B. M. Iacoviello, S. M. Southwick & R. H. Pietrzak, "Religion, spirituality, and mental health of US military veterans: Results from the National Health and Resilience in Veterans Study,"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17 (2017), 197-204.

38) Steger et al, *op. cit.*, 654-657.

39) Maltby et al, *op. cit.*, 363-378.

40) You, S., Yoo, J. E., & Koh, Y., "Religious practices and mental health outcomes among Korean adul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2 (2019), 7-12.

은 종교행사 참석이나 개인적인 기도생활의 빈도 등으로 종교적 대처를 측정했다. 하지만 예배참석이나 개인기도의 빈도 같은 종교적 실천은 종교적 대처 개념을 폭넓게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sup>41)</sup> 이에 Pargament(1997)는 종교적 대처를 스트레스 혹은 위기상황을 다루기 위한 종교적인 노력으로 정의하고, 관계된 이론적 모형을 제안했다.<sup>42)</sup> Pargament(1997)에 따르면, 스트레스 사건 혹은 상황이 발생할 때 개인은 손상, 위협, 도전 등으로 일차적 평가를 실시한 이후 이차적 평가로 종교적 대처를 선택한다.<sup>43)</sup> 이때, 종교적 대처는 의미 만들기(meaning-making)와 긴밀히 연결된다.

Park(2005)은 모든 개인이 보편적인 의미체계(global meaning)를 가지고 있으며, 스트레스 사건 혹은 상황 때문에 의미체계가 손상되면 의미 만들기 과정을 거치면서 스트레스에 대처한다고 설명한다.<sup>44)</sup> 종교는 보편적인 의미체계를 형성하는 주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의미 만들기 과정에서 스트레스 대처자원으로서 중요하게 고려된다.<sup>45)</sup> 즉, 종교적 대처는 스트레스 사건 혹은 상황에 대한 의미를 신적 존재(하나님)로부터 찾음으로써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종교적 대처는 ‘긍정적 종교적 대처’(positive religious coping)와 ‘부정적 종교적 대처’(negative religious coping)로 구별되며, 구체적인 내용이 표 1에 제시되었다.<sup>46)</sup>

41) Pargament et al, *op. cit.*, 51-76.

42) Pargament, *op. cit.*, 1-548.

43) *Ibid.*

44) Park, C. L., "Religion as a meaning-making framework in coping with life stress," *Journal of Social Issues* 61(4) (2005), 707-729.

45) *Ibid.*

46) Pargament et al, *op. cit.*, 51-76.

〈표 1. 긍정적 및 부정적 종교적 대처〉<sup>47)</sup>

긍정적 종교적 대처(positive religious coping)	
1. 영적 연결(spiritual connection)	하나님과의 더욱 강한 유대관계를 찾는다.
2. 영적 지원 추구 (seeking spiritual support)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구한다.
3. 종교적 용서(religious forgiving)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청한다.
4. 협동형 종교적 대처 (collaborative religious coping)	(나의) 계획을 하나님과 함께 실행하려고 노력한다.
5. 호의적인 종교적 재평가 (benevolent religious reappraisal)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강하게 하시려는지 보려고 노력한다.
6. 종교적 정화(religious purification)	나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
7. 종교적 초점(religious focus)	문제에 대한 걱정을 멈추려고 신앙에 초점을 맞추었다.
부정적 종교적 대처(negative religious coping)	
1. 영적 불만 (spiritual discontent)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닌가 의심한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회의를 든다.
2. 하나님의 벌로 재평가 (punishing God reappraisal)	나의 헌신이 부족하여 하나님이 벌하신다고 느낀다. 나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이 벌하신 것이라 생각한다.
3. 대인관계에서의 종교적 불만 (interpersonal religious discontent)	교회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걱정이 든다.
4. 마귀의 짓으로 재평가 (demonic reappraisal)	마귀가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5. 하나님 능력의 재평가 (reappraisal of God's powers)	하나님의 능력에 회의를 든다.

예를 들면, 암 선고를 받은 기독교인은 두 가지 방식의 종교적 대처를 할 수 있다. 먼저 긍정적 대처방식으로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포함한 삶 전반의 성숙을 이끄실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왜 자신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는지를 질문하며 하나님의 무능력함에 대해 원망하는 부정적 대처방식도 선택할 수

47) Pargament와 동료들(2011)의 내용을 제석봉(2002)이 정리한 것을 수정하여 사용함.

있다. 이는 긍정적 종교적 대처와 부정적 종교적 대처가 각각 긍정적 및 부정적 결과와 연결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게 하며, 선행연구들 역시 긍정적 및 부정적 종교적 대처의 효과를 일관되게 보고했다.<sup>48)</sup>

심리적 적응에 대한 종교적 대처의 효과를 메타 분석한 연구에서는 긍정적 종교적 대처가 삶 만족, 삶의 의미, 긍정정서, 자아존중감 등 긍정적인 변인들과 정적 관계를 가지고, 부정적 종교적 대처는 스트레스, 무망감, 우울 및 불안 등 부정적인 결과들과 정적 관계를 보인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추가로 긍정적 종교적 대처는 부정적 결과들과는 부적 관계를 보였지만 부정적 종교적 대처는 긍정적 결과들과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sup>49)</sup> Krok(2015)은 부정적 종교적 대처가 삶의 의미를 낮춰서 심리적 웰빙을 낮춘다는 결과를 보고했고,<sup>50)</sup> Maltby와 Day(2003)는 긍정적 종교적 대처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 정신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사실을 밝혔다.<sup>51)</sup> 또한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에서 긍정적 종교적 대처는 내재적 종교성향과 삶의 의미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sup>52)</sup> 장애인 부양자 집단의 내재적 종교성

48) 반신환, “대학생의 종교와 종교적 대처: 내담자의 종교,”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2 (2006), 139-155; 제석봉, “종교적 대처와 정신건강,” 『종교연구』 26 (2002), 25-42.

49) G. G. Ano & E. B. Vasconcelles, “Religious coping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to stress: A meta analysi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1(4) (2005), 461-480.

50) Krok, *op. cit.*, 196-203.

51) J. Maltby, & L. Day, “Religious orientation, religious coping and appraisals of stress: Assessing primary appraisal facto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s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7) (2003), 1209-1224.

52) 최명심, 손정락, “내재적 종교 성향과 삶의 의미에서 종교적 대처의 매개역할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1) (2010), 91-105.

향과 불안의 관계에서 긍정적 및 부정적 종교적 대처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sup>53)</sup>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기독교 군 병사의 긍정적 종교적 대처는 지각된 스트레스는 낮추고 긍정정서, 삶 만족, 삶의 의미는 높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기독교 군 병사의 부정적 종교적 대처는 지각된 스트레스는 높이고 긍정정서, 삶 만족, 삶의 의미는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긍정적 및 부정적 종교적 대처는 예배참석과 개인기도와 같은 종교적 실천보다 유의미하게 주관적 웰빙 관련 변인들을 설명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가설 2와 가설 3을 설정하였다.

가설 2: 긍정적 종교적 대처는 종교적 실천을 통제한 이후에도 지각된 스트레스를 낮추고, 긍정정서, 삶 만족, 삶의 의미는 높일 것이다.

가설 3: 부정적 종교적 대처는 종교적 실천을 통제한 이후에도 지각된 스트레스를 높이고, 긍정정서, 삶 만족, 삶의 의미는 낮출 것이다.

### III. 방법

#### 1. 참가자 및 절차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인식하는 육군, 해군, 공군 병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국의 다양한 지역에 위치한 부대들을 임의표

53) 조혜윤, 손은정, “종교성향과 불안과의 관계에서 종교적 대처와 낙관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3) (2008), 773-793.

집하였다. 해당 부대 군인교회 주일예배 참석자들 중 예배 종료 이후 연구목적 및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병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이 실시되었다. 총 172명이 설문에 응답했으며, 특정 변인 전체에 응답하지 않거나 인구통계학 문항에 기입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응답한 5명의 자료를 제거하고, 최종 167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참가자들은 모두 남성이었고, 평균 연령은 21.17세(SD=1.74)였으며, 18세부터 28세의 범위에 분포했다. 계급 분포를 살펴보면, 이병이 3명(1.8%)으로 가장 적었고, 상병이 64명(38.3%), 병장이 25명(15.0%)이었으며, 일병이 75명(44.9%)으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대학 재학이 132명(79.0%)으로 가장 많았고, 고졸 이하가 18명(10.8%), 대학 졸업 이상이 17명(10.2%)이었다. 세례를 받은 참가자는 121명(72.5%)이었고, 세례를 받지 않은 참가자는 46명(27.5%)이었다. 육군이 124명(72.1%)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공군이 30명(17.4%), 해군이 18명(10.5%)이었다.

## 2. 측정도구

### 가. 종교적 실천(religious practices)

참가자들의 종교적 실천과 관계된 내용을 측정하기 위해 Levin 등(1995)<sup>54)</sup>이 개발하고 You와 동료들(2019)<sup>55)</sup>이 한국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사용한 종교몰입척도(religious involvement scale)의 문항들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예배참석빈도는 “귀하는 대면/비대면을

포함하여 예배에 얼마나 자주 참석하십니까?” 질문으로 측정되었으며, 참가자들은 리커트 6점 척도(1=전혀 참석하지 않음, 2=1년에 1~2회, 3=1년에 2~6회, 4=1년에 7~11회, 5=1달에 1~3회, 6=1주일에 1회 이상)에 응답하였다. 기도생활빈도는 “귀하는 예배 이외에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자주 기도하십니까?” 질문으로 측정되었고, 참가자들은 리커트 6점 척도(1=전혀 하지 않음, 2=1년에 1~11회, 3=1달에 1회, 4=1주에 1회, 5=하루에 1회, 6=하루에 2회 이상)에 응답하였다.

### 나. 종교적 대처(religious coping)

참가자들의 종교적 대처를 측정하기 위해 Pargament와 동료들(2011)<sup>56)</sup>이 개발하고 조혜윤과 손은정(2008)<sup>57)</sup>이 번안한 단축형 종교적 대처 척도(Brief RCOPE)를 사용하였다. 긍정적 종교적 대처를 측정하는 7개 문항(예: 하나님과의 더욱 강한 유대관계를 추구하였다), 부정적 종교적 대처를 측정하는 7개 문항(예: 하나님이 나를 내어버리신 것이 아닌가 의심했다) 등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커트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장애인 부양자와 비장애인 부양자를 대상으로 한 조혜윤과 손은정(2008)의 연구에서 긍정적 종교적 대처의 Cronbach's  $\alpha$ 는 각각 .81과 .82로, 부정적 종교적 대처의 Cronbach's  $\alpha$ 는 각각 .77과 .8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부정적 종교적 대처의 Cronbach's  $\alpha$ 는 각각 .90, .83이었다.

### 다.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

#### 1) 삶 만족(life satisfaction)

54) J. S. Levin, R. J. Taylor & L. M. Chatters,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religious involvement for African Americans," *The Sociological Quarterly* 36(1) (1995), 157-173.

55) You et al, *op. cit.*, 7-12.

56) Pargament et al, *op. cit.*, 51-76.

57) 조혜윤, 손은정, *op. cit.*, 773-793.

참가자들이 지각하는 삶의 만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Diener 등(1985)<sup>58)</sup>이 개발한 삶의 만족 척도를 임영진(2012)<sup>59)</sup>이 타당화한 한국판 삶의 만족도 척도(K-SWLS)를 사용하였다. “전반적으로 나의 인생은 내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모습에 가깝다”,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등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커트 7점 척도(1=매우 아니다, 7=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경찰공무원, 대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임영진(201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1(경찰공무원), .84(대학생), .86(청소년)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84였다.

## 2) 삶의 의미(meaning in life)

참가자들이 인식하는 삶의 의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Steger와 동료들(2004)<sup>60)</sup>이 개발하고 원두리 등(2005)<sup>61)</sup>이 타당화한 한국판 삶의 의미 척도를 사용하였다. 삶의 의미추구(예: 나는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무언가를 찾고 있다)와 의미발견(나는 내 삶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커트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원두리 등(2005)의 연구에서 삶의 의미 척도 전체의 신뢰도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1로 나타났다.

## 3) 지각된 스트레스(perceived stress)

참가자들이 최근 1주일 동안 경험한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Cohen과 동료들(1983)<sup>62)</sup>이 개발하고 국내에서 타당화된 스트레스 자각척도(perceived stress scale)를 사용하였다.<sup>63)</sup> 본 척도는 참가자가 받았던 스트레스와 관련된 요인(예: 최근 1주 동안, 예상치 못했던 일 때문에 당황했던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과 스트레스와 관련된 조절 요인(예: 최근 1주 동안, 당신의 개인적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얼마나 자주 자신감을 느꼈습니까?)의 2개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절 요인을 측정하는 4개 문항은 역문항이었다. 리커트 5점 척도(0=전혀 없었다, 4=매우 자주 있었다)로 측정되었으며, 이종하 등(2012)의 연구에서 지각된 스트레스 전체의 Cronbach's  $\alpha$ 는 .82였고, 본 연구에서는 .85로 나타났다.

## 4) 긍정정서(positive affect)

참가자들이 지난 1주일 동안 경험한 긍정정서를 측정하기 위해 Watson 등(1988)<sup>64)</sup>이 개발하고 박홍석과 이정미(2016)가 타당화한 정적정서 부적정서 척도 중 긍정정서를 묻는 10개 문항을 사용했다. “맑은 정신이었다”, “열정적이었다” 등의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박홍석과 이정미(2016)<sup>65)</sup>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58) E. D. Diener, R. A. Emmons, R. J. Larsen & S. Griffin,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1985), 71-75.

59) 임영진, “한국판 삶의 만족도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경찰공무원, 대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3) (2012), 877-896.

60) Steger et al, *op. cit.*, 80-93. 원두리 등(2005)이 타당화에 사용한 논문은 Steger와 동료들(2006)이 출판하기 이전인 2004년의 논문임.

61) 원두리, 김교현, 권선중, “한국판 삶의 의미 척도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2) (2005), 211-225.

62) S. Cohen, T. Kamarck, & R. Mermelstein “A global measure of perceived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83), 385-396.

63) 이종하 등, *op. cit.*, 127-134.

64)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6) (1988), 1063-1070.

65) 박홍석, 이정미, “정적정서 부적정서 척도(PANAS)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4) (2016), 617-641.

#### 라. 인구통계학 특성(demographic characteristics)

통제변인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구통계학 특성 정보들이 측정되었고, 참가자들은 나이, 학력(1=고졸 이하, 2=대학 재학, 3=대학 졸업 이상), 계급(1=이병, 2=일병, 3=상병, 4=병장), 세례(1=받았음, 2=안 받았음) 항목에 응답하였다. 또한 참가자들은 기독교 신앙생활을 지속한 기간에 대하여 리커트 6점 척도(1=1년 이하, 2=1~5년, 3=5~10년, 4=10~20년, 5=20~30년, 6=30년 이상)에 응답하였다.

#### 3. 분석방법

연구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IBM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사용하였고, 측정변인 간 상관을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 분석을 실시했다. 기독교 군 병사의 종교적 실천과 종교적 대처가 주관적 웰빙, 구체적으로 지각된 스트레스, 긍정정서, 삶 만족 및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했다. 1단계에서 나이, 학력, 계급, 신앙생활 기간, 세례여부 등 인구통계학 변인들이 통제변인으로 투입되었고, 학력과 계급, 세례는 더미코딩(dummy coding)하여 투입되었다. 2단계에서는 종교적 실천의 객관적 측면을 뜻하는 예배참석빈도와 기도생활빈도가 투입되었다. 3단계에서는 긍정적 및 부정적 종교적 대처가 투입되어 인구통계학 변인과 객관적 측면의 종교적 실천을 통제된 상태에서 결과변인들을 얼마나 추가로 설명하는지 검증하였다.

## IV. 결과

### 1. 기술통계치 및 상관

측정도구들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모든 측정변인들의 Cronbach's  $\alpha$  계수가 .70 이상으로 나타나 각 변인들의 내적 일관성이 확보되었다. 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연구변인들 중 예배참석빈도와 기도생활빈도를 제외한 주요 변인들의 상관이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분석결과가 표 2에 제시되었으며, 예측변인과 결과변인들 간 상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배참석빈도는 기도생활빈도( $r=.60, p<.001$ ), 긍정적 종교적 대처( $r=.45, p<.001$ ) 및 삶의 의미( $r=.17, p<.05$ )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지만 부정적 종교적 대처, 지각된 스트레스, 긍정정서, 그리고 삶 만족과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둘째, 기도생활빈도는 긍정적 종교적 대처( $r=.50, p<.001$ )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지만 부정적 종교적 대처를 비롯하여 모든 결과변인들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셋째, 긍정적 종교적 대처는 지각된 스트레스( $r=-.16, p<.05$ )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긍정정서( $r=.26, p<.01$ ), 삶 만족( $r=.27, p<.001$ ), 삶의 의미( $r=.25, p<.01$ )와는 각각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낸 반면 부정적 종교적 대처와의 상관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넷째, 부정적 종교적 대처는 지각된 스트레스( $r=.30, p<.001$ )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긍정정서( $r=-.17, p<.05$ ), 삶 만족( $r=-.25, p<.001$ ), 삶의 의미( $r=-.16, p<.05$ )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표 2.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N = 167)〉

	평균	표준 편차	1	2	3	4	5	6	7	8	9	10
1. 계급	2.66	0.75	-									
2. 세례	0.72	0.45	.10	-								
3. 신앙생활기간	3.60	1.43	.23**	.60***	-							
4. 예배참석빈도	5.14	1.41	.28***	.38***	.51***	-						
5. 기도생활빈도	4.10	1.55	.23**	.39***	.50***	.60***	-					
6. 긍정적 종교적 대처	2.83	0.67	.11	.26**	.31***	.45***	.50***	-				
7. 부정적 종교적 대처	1.75	0.57	.11	.18*	.20**	.05	.04	.07	-			
8. 지각된 스트레스	1.36	0.66	.27***	.15*	.18*	-.03	.05	-.16*	.30***	-		
9. 긍정정서	3.23	0.75	-.08	-.02	-.07	.08	.13	.26**	-.17*	-.48***	-	
10. 삶 만족	4.87	1.15	-.06	-.06	.02	.09	.06	.27***	-.25**	-.50***	.53***	-
11. 삶의 의미	5.33	1.02	.06	-.135	.02	.17*	.12	.32***	-.14*	-.32***	.48***	.60***

주1. 계급(1=0병, 2=일병, 3=상병, 4=병장); 세례(0=인받음, 1=받음); \* p < .05, \*\* p < .01, \*\*\* p < .001

2.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지각된 스트레스, 긍정정서, 삶 만족,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이 실시되었으며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었다. 각 결과변인들에 대하여 총 3단계에 걸쳐 예측변인들이 투입되었다. 1단계에서는 나이, 학력, 계급, 신앙생활기간, 세례유무 등 인구통계학 정보들이 통제변인으로 투입되었다. 2단계에서는 예배참석빈도와 기도생활빈도가 투입되었으며, 예배참석빈도는 지각된 스트레스( $\beta = -.24, p < .05$ )를 유의미하게 낮추고 삶의 의미( $\beta = .21, p < .05$ )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도생활빈도는 긍정정서( $\beta = .20, p < .05$ )를 유의미하게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예배참석빈도와 기도생활빈도는 모두 삶 만족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긍정적/부정적 종교적 대처가 투입되었다. 긍정적 종교적 대처는 인구통계학 변인들과 예배참석빈도 및 기도생활

빈도를 통제한 후 지각된 스트레스( $\beta = -.23, p < .01$ )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추고 긍정정서( $\beta = .27, p < .01$ ), 삶 만족( $\beta = .32, p < .001$ ), 삶의 의미( $\beta = .34, p < .001$ )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설 2가 지지되었다.

부정적 종교적 대처는 인구통계학 변인들과 예배참석빈도 및 기도생활빈도를 통제한 후 지각된 스트레스( $\beta = .26, p < .01$ )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이고 긍정정서( $\beta = -.18, p < .05$ ), 삶 만족( $\beta = -.30, p < .001$ ), 삶의 의미( $\beta = -.16, p < .05$ )는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이 지지되었다.

〈표 3. 지각된 스트레스, 긍정정서, 삶 만족, 삶의 의미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모형〉

	지각된 스트레스			긍정정서			삶 만족			삶의 의미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1	모형 2	모형 3
통제변인												
나이	.11	.15	.06	.02	-.03	.04	-.04	-.06	.05	.06	.02	.09
학력더미1	-.04	-.08	-.02	.07	.12	.08	-.04	-.01	-.08	.06	.10	.06
학력더미2	-.17	-.22	-.12	.06	.11	.05	.10	.13	.02	.08	.13	.07
계급더미1	.36	.38	.41	-.55	-.55	-.51	-.52	-.53	-.54	-.42	-.44	-.36
계급더미2	.35	.40	.40	-.52	-.52	-.48	-.47	-.50	-.48	-.38	-.42	-.33
계급더미3	.52*	.57**	.57***	-.44*	-.48*	-.45*	-.42	-.45*	-.44*	-.24	-.29	-.23
신앙생활기간	.11	.22*	.16	-.10	-.22*	-.18	.06	-.01	.06	.12	.01	.05
세례	.08	.12	.08	.06	-.01	.02	-.10	-.12	-.08	-.22*	-.26**	-.24*
종교적 실천												
예배참석빈도		-.24*	-.15		.10	.01		.12	.01	.21*	.10	
기도생활빈도		-.04	.07		.20*	.09		.05	-.10	.08	-.05	
종교적 대처												
긍정적 대처			-.23**			.27**			.32***		.34***	
부정적 대처			.26**			-.18*			-.30***		-.16*	
F(df)	3.05(8)**	3.35(10)**	4.61(12)***	7(18)	1.38(10)	2.33(12)**	.84(8)	9.4(10)	3.11(12)**	1.20(8)	1.75(10)	3.21(12)***
R2(ΔR2)	.13**	.18(0.4*)	.26(0.9***)	.04	.08(0.05*)	.15(0.7**)	.04	.06(0.02)	.20(1.4***)	.06	.10(0.4*)	.20(1.0**)

주2. 학력더미1(0=고졸이하, 1=대학재학), 학력더미2(0=고졸이하, 2=대학졸업이상); 계급더미1(0=0병, 1=일병), 계급더미2(0=0병, 2=상병), 계급더미3(0=0병, 3=병장); 세례(0=인받음, 1=받음); 표시된 값들은 표준화 회귀계수 \* p < .05, \*\* p < .01, \*\*\* p < .001.

## V. 논의

본 연구는 기독교 군 병사의 종교적 실천(예배참석빈도와 기도생활빈도)과 종교적 대처가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연구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육군, 공군, 해군 기독교 병사 167명의 자료가 수집되었고,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 방법이 사용되었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배참석빈도는 지각된 스트레스를 낮추고 삶의 의미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도생활빈도는 긍정정서를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긍정적 종교적 대처와 부정적 종교적 대처는 예배참석빈도와 기도생활빈도를 통제한 후 지각된 스트레스, 긍정정서, 삶 만족 및 삶의 의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 이론적 및 실무적 함의

본 연구결과가 가지는 이론적 및 실무적 함의는 아래와 같다.

첫째, 예배참석빈도와 기도생활빈도는 개인의 주관적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비록 삶 만족은 예배참석 및 기도생활빈도 모두와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예배참석빈도는 지각된 스트레스 및 삶의 의미에, 기도생활빈도는 긍정정서에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교는 인간의 근본적인 의미체계를 구성하고 긍정적인 재평가를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예배참석빈도는 삶의 의미 증가와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 감소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sup>66)</sup> Lambert와 동료들(2009)은 개인시간에 기도생활을 더 많이 할수록 관점의 변화

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감사를 더 많이 한다는 증거를 제안했다.<sup>67)</sup> 감사가 인지-정서의 복합적인 과정이며, 긍정정서의 특성을 잘 드러낸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결과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한다.<sup>68)</sup> 본 연구에서는 종교적 실천이 삶 만족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Steger와 Frazier(2005)의 연구에서 자발적인 예배 참석과 신앙서적 독서 및 명상과 같은 종교적 실천이 삶 만족을 증가시킬 때 삶의 의미가 완전매개 효과를 보였다는 결과는 종교적 실천이 삶 만족과 직접적인 정적 관계를 보이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후의 연구들을 통해 종교적 실천과 삶 만족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요구된다.

둘째, 종교적 대처는 예배참석빈도와 기도생활빈도를 통제한 후에도 모든 주관적 웰빙 변인들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긍정적 종교적 대처는 지각된 스트레스를 낮추고 긍정정서, 삶 만족, 삶의 의미는 높였다. 반면 부정적 종교적 대처는 지각된 스트레스를 높이고 긍정정서, 삶 만족, 삶의 의미는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긍정적 및 부정적 종교적 대처가 심리적 적응과 관계된 긍정적 및 부정적 결과들과 각각 관계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sup>69)</sup> 특히 종교적 대처는 예배참석빈도와 기도생활빈도보다 지각된 스트레스, 긍정정서, 삶 만족 및 삶의 의미를 예측하는

67) Lambert et al, *op. cit.*, 139-149.

68) A. Alkozei, R. Smith & W. D. Killgore, "Gratitude and subjective wellbeing: A proposal of two causal framework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9(5) (2018), 1519-1542.

69) Ano & Vasconcelles, *op. cit.*, 461-480.

66) Krok, D, *op. cit.*, 196-203.

설명량이 유의미하게 더 많았다.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는 장애인 부양자 집단이 일반 집단보다 불안을 예측하는 종교적 대처의 설명량이 크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sup>70)</sup> 예배참석과 기도생활 등 신앙생활의 객관적 측면보다 종교적 대처가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는 점을 뜻한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한민국 기독교 군 병사들의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종교적 실천과 종교적 대처의 영향을 경험적으로 살펴본 최초의 연구라는 의의를 가진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기독교 병사들을 대상으로 종교적 요인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은 기독교 신앙의 객관적 및 주관적 측면을 동시에 확인하지 않거나 종교 관련 요인에 대한 의식조사를 하는 정도로 실시되었다.<sup>71)</sup> 본 연구는 기독교 신앙생활의 객관적 측면인 종교적 실천(예배참석빈도와 기도생활빈도)이 기독교 병사의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동시에 주관적 측면인 종교적 대처의 가치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기독교 군 병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발전에 기여했다.

이상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실무적 함의들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기독교 병사들의 주관적 웰빙을 높이기 위해 공적인 예배참석과 개인적인 기도생활이 강조될 수 있다. 군 조직이 종교활동을 통해 잘 준비된 전투원 양성을 기대한다는 점과 주관적 웰빙이

70) 조혜윤, 손은정, *op. cit.*, 773-793.

71) 대표적으로 아래의 논문들이 있다. ① 문장욱, “긍정기도문쓰기가 군생활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 군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② 박기영, “기독교 장병의 신앙정도에 따른 자살위험성 예측,” 『군선교신학 4권』 (서울: 쿰란출판사, 2006), 435-464. ③ 박기영, “장병의 기독교 신앙 유무와 인생태도가 복무적응에 미치는 영향,” 『복음과 상담』 23(1) (2015), 165-189. ④ 정동식, “군 선교를 위한 병사 의식 실태 조사 연구.”(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전투준비를 잘하는 장병 양성과 관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배참석과 기도생활 실천은 기독교 신앙생활의 중 하나에 머물지 않고 그 자체가 실제적인 선교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기독교 병사들의 예배참석과 기도생활은 신앙심을 깊게 하기 위한 종교적 차원만이 아니라 전투를 잘 준비하는 군인이 되도록 군에 실제로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이해되고 실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군인교회에서는 기독교 병사들을 대상으로 종교적 대처방법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긍정적 종교적 대처는 스트레스를 낮추고 긍정정서, 삶 만족 및 삶의 의미를 높이는 반면 부정적 종교적 대처는 스트레스를 높이고 긍정정서, 삶 만족 및 삶의 의미를 낮추었다. 병사들은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종교적 대처의 활용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기독교 병사들이 긍정적 종교적 대처를 잘 활용하는 동시에 부정적 종교적 대처를 하지 않도록 훈련한다면 사고발생을 예방함으로써 군인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는 일에 군선교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2. 한계 및 미래연구방향

본 연구결과는 이상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함의들을 갖지만 아래의 몇 가지 한계들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종교적 실천의 객관적 측면에 한정하여 예배참석빈도와 기도생활빈도만 측정하였지만 미래연구에서는 종교적 실천의 다양한 측면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믿음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와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를 질문하거나

교회의 공동체성에 대한 인식 정도를 측정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대면예배와 비대면예배 참석을 구분하지 않았고, 개인적인 기도생활빈도에 국한하였지만 다음 연구에서는 대면예배와 비대면예배 참석을 구분하거나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신앙서적 독서나 기독교 영상 시청 등과 같은 항목들을 추가하여 종교적 실천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기독교 군 장병의 종교적 실천과 종교적 대처가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최초 연구였기 때문에 예측변인과 결과변인 사이의 관계만 확인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매개모형 검증을 통해 메커니즘을 확인하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초래되는 부적 결과들(예: 우울, 불안 등)을 약화시키는 조절변인으로서 종교적 실천과 종교적 대처의 기능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측정변인들은 자기보고식 설문을 통해 수집되었기 때문에 공통방법편향(common method bias)의 위험을 가진다.<sup>72)</sup> 또한 특정한 시점에 모든 변인들이 측정된 횡단연구(cross-sectional study)로서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미래연구에서는 실험, 동료평가, 객관적 지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인들을 측정하고, 종단연구(longitudinal study)를 실시함으로써 변인과 변인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72) P. M. Podsakoff, S. B. MacKenzie, Lee, J. Y. & N. P. Podsakoff, "Common method biases in behavioral research: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recommended remedi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8(5) (2003), 879-903.

## Abstract

### The Influence of the Christian Soldier's Religious Practices and Religious Coping on Subjective Well-being

Jung In Im

It is important to examine the influence of factors related to Christian religious life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military personnel for establish an effective military evangelism strateg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religious practices(i.e., frequency of worship attendance and prayer) and religious coping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Christian soldiers. A total of 167 Christian soldiers serving active duty in the army, navy, and air force participated in this survey, in which we measured frequency of worship attendance and prayer, religious coping and subjective well-being, includi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results of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frequency of worship attendance lowered the perceived stress and increased the meaning in life and the frequency of prayer increased positive affect. Also, after controlling fo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requency of worship attendance and prayer, it was found that positive religious coping lowered perceived stress and increased positive affect, life satisfaction, and meaning in life. On the other hand, negative religious coping increased perceived stress and lowered positive affect, life satisfaction, and meaning in life. Lastly,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discussed.



### Key Words

Religious Practices, Positive Religious Coping, Negative Religious Coping, Subjective Well-Being, Military Evangelical Strategy

### 논문 기고자 Email

lji4019@naver.com

## 임정인의 논문 “기독교 군 병사의 종교적 실천과 종교적 대처가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찬

A Comment : The Influence of the Christian Soldier's Religious Practices and Religious Coping on Subjective Well-being

» 김아영 Ph. D.\*\*

본 논문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에 태어난 남성으로 군복무의 의무를 감당하는 기독교인 병사들의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종교활동과 종교적 대처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 논문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육, 해, 공군에 복무 중인 기독교 병사 중 계급, 학력, 신앙연수, 세례유무와 관계없이 167명을 임의 표집하여 설문조사를 하였고, 이를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기독교의 대표적 종교적 실천인 예배참석빈도와 기도의 빈도가 병사의 종교적 실천을 측정하는 객관적 지표로 선택되었고, 그러한 종교활동의 빈도수가 삶의 만족 정도와 삶의 의미인지와 관련된 주관적 웰빙, 그리고 더 나아가 위기상황에서의 종교적 대처와의 연관성과 관련된 결론이 도출되었다.

결과는 이미 저자가 설명한 바와 같이 예배참석빈도와 기도생활빈도는 병사들의 주관적 웰빙과 긍정적 종교적 대처, 삶의 만족

• 논문 투고일: 2021년 9월 21일 • 논문 수정일: 2021년 9월 27일

• 게재 확정일: 2021년 9월 27일

\* 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햇볼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선교학과 교수

과 삶의 의미 부여에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은 되었으나 리커트 척도(Likert Scale)가 상당히 높게 나타남으로써 의무복무 기간 중의 기독교 병사들의 신앙생활이 일상에서뿐만 아니라 위기상황과 종교적 통제 상황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입증한 중요한 연구이며, 저자가 밝혔듯이 이러한 연구의 첫 사례라는 점에서 학문적 공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이러한 분명한 학문적 기여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본 논문과 같은 연구 목적의 연구들의 심화와 그를 통한 효과적 군선교 방법론의 개발을 위해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는 저자도 논문의 후반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병사들의 종교활동을 평가하는 지표가 빈도수라고 하는 극히 양적이고 표면적인 기준에 의해서만 평가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한국사회 속에서 받고 있는 현실적이고 비판적인 평가에 대해 적절히 설명할 수가 없다. 예배참석빈도와 기도의 빈도수가 병사를 비롯한 기독교인 개인의 신앙의 성숙도와 반드시 일치한다는 근거가 없고, 팬데믹 가운데 그 실체를 드러낸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집단의 경우 한국교회 대다수의 교단에 속한 기독교인들의 예배참석빈도와 기도생활의 빈도수를 능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자도 본 연구의 한계에서 지적했듯이 종교생활의 빈도수와 같은 양적 척도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내면적, 주관적 측면인 헌신도와 제자도의 실천 등과 같은 질적 척도와의 연관성을 연구 항목에 포함시킨다면 보다 실제적이고 입체적인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결론에 근거하여 저자는 기독교 병사들의 예배참석과 신앙심을 깊게 하는 것은 단지 종교적 차원과 개인의 주관적 웰빙에 기여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전투를 잘 준비하는 군인이 되도록 하는, 군인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활동이 병사에게 미치는 삶의 의미 부여와 사생관에 대한 유의미한 연관성이 반드시 투철한 군인정신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미약하다.

논찬자는 국방부 군종실장을 마지막으로 대령으로 예편한 부친 덕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20여 년의 군생활(?)을 했다. 그 기간 동안 논찬자의 집안뿐만 아니라 군인교회 곳곳에 걸려 있었던 휘호가 하나 있었는데 “신앙전력화”라는 휘호였다. 언뜻 보면 신앙과 대한민국 군대의 전력과의 연관성을 강조하여 종교의 종류에 관계없이 종교생활이 한국군에 갖는 유의미성을 강조한 슬로건으로 비쳐진다. 그러나 논찬자는 그 휘호를 보고 자라며 그 슬로건이 반드시 기독교 신앙관, 제자도에 일치하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종교생활이 병사의 사생관, 삶의 의미 등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의미는 본 연구를 통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그것이 단 한 번이라도 있을 수 있는 전투의 상황에서 효과적 군인으로 기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확대해석하는 것에는 의문과 신학적 위험성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추후 이와 연관된 보다 실제적인 연구를 통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다.

2017년에 발표된 미국의 Pew Research Center의 세계 종교 지표는 이미 많은 연구에서 회자되고 있는 자료이다. 현재 세계에서 가

장 성장률이 빠른 종교가 이슬람이며, 이제까지의 성장률에 근거했을 때 2050년경이 되면 성장률만이 아니라 실제 종교 인구수에서 기독교와 무슬림이 거의 동수를 이룰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그런데 기독교-이슬람 관계를 연구하는 논찬자가 이와 함께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는 바로 무종교인(unaffiliated)의 증가율과 대표적인 세계 종교의 평균연령에 대한 수치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현재, 기독교인 인구수는 23억, 무슬림은 18억, 그리고 그다음이 무종교인으로 12억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힌두교와 불교 등 기타 종교를 능가하는 수치이다. 바로 뒤이은 도표에는 각 종교의 평균연령이 제시되고 있는데 2015년 기준, 평균연령이 가장 젊은 종교는 힌두교(27세)와 이슬람(24세)이었고, 기독교는 모든 종교인 평균 연령인 30세였다.<sup>1)</sup> 이러한 통계의 배경에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힌두교인들과 무슬림들의 출산율이 높기 때문이며, 둘째는 전통적인 기독교 지역이 부모세대의 종교를 그대로 이어받는 경우가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sup>2)</sup> 전통적인 이슬람, 힌두교 지역에서는 여전히 부모세대의 종교를 당연히 이어받는 것에 대한 '사회적 압력'(peer pressure)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통계와 더불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2015-2020년 사이의 종교인구 변화에 있어서 무종교인이 약 7,500,000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증가에는 기독교 인구의 인

1) <https://www.pewresearch.org/fact-tank/2017/04/05/christians-remain-worlds-largest-religious-group-but-they-are-declining-in-e>

2) <https://assets.pewresearch.org/wp-content/uploads/sites/11/2017/04/07092755/FULL-REPORT-WITH-APPENDIXES-A-AND-B-APRIL-3.pdf>

구변동이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동기간 기독교에서 타 종교로 개종을 하거나 무종교인이 된 인구수가 8,100,000명에 이른다.

전술한 이러한 통계들은 대략 20세와 30세 사이의 대한민국 남성의 다수가 복무하게 되는 군선교의 중요성이 병사 개인의 주관적 웰빙과 종교적 대처, 이를 통한 전투력 향상과만 연관된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20세기 중반, 세속화가 시작되어 가속화된 이후 현 세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유이고, 그러한 차원에서 규범적이고 전통적이며 고착화되고 심지어 종교 본연의 순기능을 잃어버리고 종교 자체가 세속화되어 버린 전통적 종교들에 대해 젊은 세대는 더 이상 기대하는 바가 없다.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그의 저서 『그들은 어떻게 이단이 되었는가』(Heresy)에서 오늘날 젊은 세대는 소위 기성 종교보다는 이단시되는 신종교, 유사 종교들이 더 역동적이고 변화를 추구하며 유연하고 사회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이러한 이단들에 대해 상대적 호감도가 높다고 평가한다.<sup>3)</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긍정적인 결론을 토대로 현 세대에 맞는 창의적인 선교방식과 예배, 그리고 온라인을 매개로 한 목회적 돌봄을 통해 기독교가 일정 기간의 통제사회 속에서의 병사들의 주관적 웰빙을 위한 해결책(remedy)이 아니라 복무 해제 후에도 일생을 통한 제자도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는 제자들을 양육해 내는 그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기대한다.

3) 알리스터 맥그라스, 『그들은 어떻게 이단이 되었는가』, 홍병룡 역 (서울: 포이에마, 2011).

# 연구위원 논문

왜 하나님은 여호와와의 전쟁을 수행하시는가?

| 강사문 |

반달족의 침공에 대응하는 어거스틴의 목회 돌봄 영상

| 이규철 |

이야기심리학의 이해와 군상담에의 적용

| 김상만 |

효과적인 군상담을 위한 전인건강과 치유의 이해

| 전요섭 |

사회적 책임(CSR, CSV)과 군선교의 과제

| 강찬영 |





# 왜 하나님은 여호와와의 전쟁을 수행하시는가?

Why Does God Carry Out the War of YHWH?

» 강사문 Ph. D.\*

## 국문초록

성경에 나타난 전쟁에 관한 본문들은 왕들의 전쟁과 여호와와의 전쟁으로 구분된다. 왕들의 전쟁은 왕의 주장에 따라 영토 확보나 국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 군사적 힘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전쟁이다. 지금 우리 국가 안보를 염려하는 우리들에게는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안목으로 여호와와의 전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와의 전쟁은 과거에 있었던 전쟁을 보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유사시 생존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데 있다.

여호와와의 전쟁은 여호수아 시대에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진 전쟁이었다.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전쟁은 여호와와의 전쟁이 아니고 왕들의 전쟁이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그 땅을 영원히 향유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에 그곳에서 추방당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은 바로 이런 원리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는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므로 수혜자는 땅 주인의 말씀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은혜로 복을 받았지만 복을 누리려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이다. 이 길만이 우리의 살 길을 제시한다.

## 중심단어

여호와와의 전쟁, 헤렘, 공의와 정의, 전쟁의 용사, 약속의 땅

• 논문 투고일: 2021년 8월 11일 • 논문 수정일: 2021년 9월 28일

• 게재 확정일: 2021년 10월 7일

\* 군선교신학회 고문위원, 장로회신학대 명예교수

## I. 서론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군(軍)에 대한 문제성이 많이 제기된다. 금년도 2021년 2월 16일 북한의 귀순자가 남방 한계선을 넘어 우리 군의 철책선 하수구를 통해 침입했지만 우리 군은 알지 못했고, 몇 시간 후에야 겨우 귀순자를 파악하게 되는 바 부실대응으로 군을 소동케 한 사건이 있었고, 또 공군에서는 성추행 사건으로 여중사의 죽음으로 인해 군의 기강이 와해된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상황인데, 현역 군 장성까지 성추행 사건으로 구속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군의 난맥상이 보이게 되자, 한 신문 사설(2021.7.8)은 전군 지휘관 회의가 북핵문제 같은 것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성(性) 관련 문제로 열렸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논조로 국방의 책무를 개탄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청해부대 전원이 귀국하자 국방장관이 대국민사과를 했는데 이는 올해 들어 6번째 국방장관의 대국민 사과라고 한다(2021.7.20).

그래서 기강이 해이해지고 나약해진 군(軍)을 어떻게 믿고 우리 백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왜 군이 존재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한다. 그래서 요즈음 왜 무엇 때문에 갑자기 우리 군이 허약한 체질로 변화되었는가? 우리 주변에서는 우리 군의 자세를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수없이 하고 있다. 우리 군의 허약한 체질이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국민은 군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전쟁 대비를 위해 재무장해야 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하나님 여호와의 전쟁을 자세히 검토함으로써 우리의 자세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래 군(軍)의 존재는 국가안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군은 국토, 주권, 국민의 생명, 재산과 문화를 보호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적의 공격이나 침공으로부터 자기 나라와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군이란 이런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특수 공동체이다. 나라와 백성을 지키는 방법은 최신의 과학적 무기로 적을 제압하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것이지만 최후의 승리는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이는 최신 무기가 우세한 미국이 월남전이나 최근에 이라크전(戰)에서 최후의 승리를 얻지 못하고 철군한 데서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선 전쟁의 본질이나 전쟁을 위한 무기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군 장병들의 마음가짐과 군 정신이 투철한 전투태세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전쟁 개념을 익히고 대비하는 자세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삼상 17: 47)으로, 전쟁의 승리 여부는 전쟁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일반 전쟁과 여호와의 전쟁을 비교하고, 그 후 왜 하나님은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셨는지 전쟁의 목적을 숙고하고 이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세로 우리의 삶을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 바르게 정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II. 인류역사에서 전쟁과 전쟁의 생리

전쟁은 인류역사의 시작과 함께 출발하여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으며, 전쟁이 없었던 때는 거의 없었다. 전쟁 전문가들

의 통계에 의하면, 주전 3600년부터 주후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 약 5,600년 동안에 크고 작은 전쟁이 14,500번 있었고, 약 35억 명이 생명을 잃었다고 한다.<sup>1)</sup> 이 기간 중 지구의 어느 곳에도 전쟁이 없었던 해는 단 292년으로, 185 세대(世代) 가운데 단 10세대에 해당되는 사람들만이 전쟁 없는 평화를 경험했다는 것이다.

또 1945년부터 1990년까지 총 2,340주(週) 중에서 지구상에 전쟁이 없던 때는 단 3주간에 불과했다는 것은 우리의 주변에서 전쟁이 끊임없이 반복되었음을 나타낸다. 1950년 6·25 전쟁 이후 세계적으로 큰 전쟁은 없었다 할지라도 산발적으로 1960년대 중반기의 월남 전쟁(1964-1973년)이나 2000년대 초입에 이라크 전쟁(2003-2011년) 같은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으니, 이것은 어느 누구도 전쟁을 막을 수가 없었기에 지금까지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전쟁을 인간 욕망의 산물 혹은 악마의 종합예술이라고 전해진다. 전쟁의 권위자인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는 지적하기를, “전쟁은 인류 역사 속에서 국가 공동체의 출범과 함께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무자비한 괴물”이라고 하며, “아군의 뜻을 완벽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적군(敵軍)을 강제로 제압하려는 폭력행위(暴力行爲)”가 전쟁이라는 것이다.<sup>2)</sup>

아마 적군의 잘못도 있겠지만 우선 아군의 뜻을 달성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가 전쟁이므로 전쟁에는 어떤 전쟁이든 세 가지 의도가 있다고 한다. 첫째 의도는 국가정책(國家政策)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수단(政策手段)으로 적군의 군사력(軍事力)을 파괴하는 것이다. 최근에 세계 평화와 정의를 위한다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도 일종의 국가정책의 수행이다. 둘째 의도는 적군의 영토(領土)를 점령(占領)함으로써 적군의 새 군사력 양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요즈음의 에티오피아의 내전도 일종의 지역 영토를 확보하는 데 있다. 셋째 의도는 적군이 패했다 할지라도 적대감정(敵對感情)이 내재하고 있는 한 전쟁행위는 끝난 것이 아니므로 악순환(惡循環)을 차단하기 위해 전쟁과 비슷한 후속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패배한 나라가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전쟁은 잠재적(潛在的)인 형태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역사 이래 인간은 평화를 갈구했지만 진정한 평화를 향유해 본 적이 없고, 세계 도처에서 지금까지 전쟁은 계속되어 왔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쟁(戰爭)을 하면서도 평화(平和)를 위해서 싸움을 한다고 한다. “그대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 “평화는 전쟁에 의해서 얻어진다”(pax quaeritur bello)는 구호처럼 전쟁이 없이는 평화를 얻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전쟁을 통해 얻은 “평화도 전쟁을 준비한다”(pax paritur ballo)고 한다.<sup>3)</sup>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위해서라도 먼저 전쟁을 알고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된다. 인류의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정치 군사적 욕망(慾望)은 끊임없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전쟁이 일상화된 것은 인류역사에 왕들이 등장하면서부터 전쟁은 한 국가의 생존기능으로 정착되었다. 이는 왕권(王權)을 획득하려

1) 이춘근, “세계전쟁의 원인 및 유형과 그 특징을 분석한다,” 『목회와 신학』 60 (1994/6), 46-49.

2) C. von Clausewitz, 『전쟁론』, 김홍철 역 (서울: 삼성출판사, 1977), 51-52. 강사문,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6 (2002), 30-80 참조.

3) 클라우제비츠, 『전쟁론』, 112.

는 자들의 정치적(政治的) 욕망에서 전쟁이 일상화되었고, 정치적 목적을 가진 집단들 간의 분쟁이 가속화되었기 때문이다.

전쟁의 발발 요인들도 다양하지만 전쟁은 국가의 탄생(誕生), 성장(成長) 그리고 지속적인 생존(生存)과 필연적 관계를 갖기 때문에 고대로 어떤 나라든 전쟁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탄생하고 번창했던 나라는 없다. 따라서 전쟁은 국가 출범과 함께 본격화(本格化)된 것으로 인간의 피치 못할 비극(悲劇)이 된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전쟁들은 전쟁 책임자들의 운명(運命)을 바꾸어 놓았으며, 역사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전쟁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으며 생존(生存)을 위해 군비(軍備)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전쟁의 승패(勝敗)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不可抗力的)인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각자의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運命)을 위탁할 수밖에 없었다.

### 1. 전쟁의 유형과 그 특징

구약성경에 나타난 전쟁을 그 특성에 따라 구분하면 두 유형, 즉 왕들의 전쟁과 하나님 여호와의 전쟁(戰爭)으로 대별할 수 있다. 흔히 '성전'(the holy war)도 하나의 전쟁 유형으로 보는 자도 있으나 이는 제의적 전쟁뿐이고, 실전과는 무관한 후대에 해석된 전쟁 유형이다. 더욱이 성전이라는 용어가 구약성경에 나타나지도 않지만, 예레미야 6: 4와 요엘 4: 9(3: 9-한글개역)에 전쟁을 거룩하게 하여야 한다는 내용(카드슈 밀하모트)과 함께 전쟁의 주(主)이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자리인 예배의식(禮拜儀式)에서 정착된 신명기학과

(Dtn/Dtr)의 신학적 산물이라고 하나<sup>4)</sup> 성전은 다윗 시대를 지나 세속전(世俗戰)에 의해 사라진 것으로 알려진다.

### 2. 왕(王)들의 전쟁(戰爭)(삼하 11: 1; 왕상 20: 1-43)과 그 특성

신명기에 나타난 전쟁법(戰爭法)은 기업(基業)으로 받은 가나안(Canaan) 땅 밖에서 있었던 왕들의 전쟁(20: 10-14)과 가나안 땅 안에서 있었던 여호와의 전쟁(20: 15-18)으로 구별된다.

이스라엘의 땅도 우리나라의 지정학적(地政學的) 위치와 비슷하기 때문에 남쪽의 애굽과 북쪽의 앗수르 및 바벨론에 의한 침공으로 많은 전쟁들을 치러야만 했다. 구약에는 크고 작은 전쟁이 124회나 나타난다.<sup>5)</sup> 이러한 많은 전쟁들 가운데 모든 전쟁들이 다 왕들의 전쟁이나 하나님 여호와의 전쟁(戰爭)은 아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많은 전쟁들은 일반 나라들 사이의 전쟁처럼 적(敵)을 공격하여 군인들을 죽이기도 하고 포로로 잡아가지도 하고 전리품을 취하고 분배하고 또 방어(防禦)도 하는 등 아람과 이스라엘이 싸운 전쟁처럼 대부분이 보통 왕들의 전쟁이었다(왕상 20장). 신명기 20: 10-11은 이러한 왕들의 전쟁 원칙을 제시한다. 즉 침공자는 먼저 상대 나라에 사신을 보내 평화(和平)를 요구할 것이며, 이때 거기에 응할 경우 조공을 바치게 하고 섬기게 하는 등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쟁의 형태이다. 이러한 왕들의 전쟁은 주로 영토 확장이나 자원 획득을 목적(目的)으로 하는 정복(征服)전쟁이지만 정복에 대한 정당성(正當性)이나 명분(名分)도 없고 인명살상에 대한

4) G. von Rad, *Der Heilige Krieg im Alten Israel*, 25-32; M. C. Lind, "Paradigm of Holy War in the Old Testament," *Biblical Research* 16 (1971), 17-31; B. C. Ollenburger, "G. von Rad's Theory of Holy War," in *Holy War in Ancient Israel*, G. von Rad, tr. & ed. by M. J. Dawn (Grand Rapids: Eerdmans, 1991), 1-33.

5) 김기태, 『군선교의 理論과 實際』(서울: 보이서사, 1985), 64.

죄의식(罪意識)도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sup>6)</sup>

사사기 18장 이하에서 언급된 단 지파에서 선발된 육백 명의 용사들이 갈릴리 북쪽에 평화(平和)롭게 사는 레셈(라이스) 성읍을 급습(急襲)하여 사람을 죽이고 성읍을 불사른 것(27)은 왕들의 전쟁과 같이 영토 확장을 위한 정복전쟁(征服戰爭)에 속한다. 1절에 단(Dan) 지파가 레셈(후에 단으로 개칭)을 공격(攻擊)한 것은 자기 지파의 기업(基業)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나, 여호수아 19: 40-48에는 단 지파도 이미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단 지파의 정탐꾼들이 정탐 후에 돌아온 곳도 기업의 땅 소라와 에스다올이었다(삿 18: 8). 여호수아서 19장은 단 지파가 레셈을 점령한 것을 그들의 경계선(境界線)을 넘어 영토(領土)를 확장(擴張)한 것(47절)이라고 말한다. 사사기는 단 지파가 정탐할 때 레위 제사장의 신탁(神託)을 받고 나아가는 형태를 취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자기 지파에 넘겨준다는 말씀(10절)에 따라, 제사장의 협조하에 드라빔, 신상(神像)과 에봇을 가지고 원정을 갔지만(5-6, 17절). 공격(攻擊)에 정당한 이유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그 전쟁은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sup>7)</sup> 단 지파가 약하기 때문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주한 것이라고 하지만, 더 약(弱)한 자를 정복했다는 것은 힘 있는 왕들의 정복전쟁과 같다. 이는 후에 종교적인 의미가 부과된 것으로 힘이 있기 때문에 힘으로 약한 상대를 제압하여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시켰다는 것은 종교적으로도 설득력이 약하다.

민수기 32: 39-42에 마길의 자손들이 길르앗을 빼앗는 전쟁(戰爭)

6) S. Niditch, *War in the Hebrew Bible: A Study in the Ethics of Viole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127ff.

7) *Ibid.*, 128.

도 같은 유형의 정복전쟁이다. 사사기 9장에서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도 힘(力)으로 친족들을 살해하고 세겜의 왕이 되었으나, 이는 정당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16, 19절), 하나님께서 여인으로 하여금 던진 돌에 맞아 죽게 함으로써 그의 악행을 갚았다고 언급한다(56절).

그래서 힘 있는 왕(王)들은 자기들이 수행하는 전쟁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전쟁을 정의로운 정당 전쟁(正當 戰爭, *Justum bellum*)이라고 부른다.

사사기 11장에서 암몬 족속의 침공을 받은 입다는 그들이 공격한 공격의 정당성(正當性)에 대해 질문했다(12). 암몬 왕은 너희가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압복과 요단까지 나의 땅을 점령했으므로 이제 평화적(平和的)으로 땅을 반환(返還)하라는 것이 침공(侵攻)의 이유”(13)였다. 그러자 입다는 그렇다면 땅을 빼앗겼던 그 당시에 반환을 요구해야지, 삼백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영토를 반환하라는 것은 정당성(正當性)이 없다고 응수한다. 입다는 이스라엘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우리 조상들이 너희 영토(領內) 통과(通過)를 요청했을 때 너희 조상들이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조상들을 공격(攻擊)했으므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우리 조상들의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한 것이지 우리가 먼저 공격(攻擊)하여 점령(占領)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우리의 기득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너의 영토 반환주장(返還主張)은 타당성(妥當性)이 없다는 것이다(23절).

지금 나의 잘못이 없는 한 너희 침공은 악(惡)을 행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심판(審判)하실 것이라고 입다는 주장한다(27절). 아무리 암

몬이 힘이 있어도 이스라엘의 잘못이 없는 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은 반환논쟁(返還論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입다의 주장이다. 영토분쟁은 그 곳에 사는 자들의 잘못 여하에 따라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지, 힘 있는 자의 침공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압몬 왕이 영토 반환요구를 구실로 침공한 것은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즉 침공을 받은 자의 잘못이 없고 침공의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입다의 말처럼 그 전쟁은 결국 악(惡)을 행하는 것이 된다(27절).

이러한 말씀들은 전쟁을 인간의 악한 행동으로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전쟁을 통해서 그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수행하고 계신 것으로 인식이 된다.<sup>8)</sup>

왕들의 전쟁은 왕들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발생하는 정치 군사적 전쟁으로서, 분열왕국 이후(922 BC)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또는 정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다른 요인에 따라 발생하였던 전쟁들이다. 북왕국의 여로보암과 남왕국의 르호보암 시대에는 항상 전쟁이 있었으며, 이는 영토확장(領土擴張)을 위한 싸움이였다(왕상 14: 30). 이러한 왕들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따라 발생한 전쟁들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전쟁(戰爭)들이기 때문에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들의 거센 항의(抗議)가 있었다.<sup>9)</sup>

주전 8세기 중엽 유다의 아하스 왕은 아람과 이스라엘의 공격

을 받았을 때 이사야의 권고를 듣지 않고 강대국으로 마병(馬兵)을 구하려 가는 등, 하나님을 신뢰(信賴)하지 않았다(사 7: 1-25; 왕하 16: 5-18). 이와 같이 왕국시대의 전쟁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왕들의 뜻대로 일으켰던 전쟁들이었기 때문에 예언자들의 규탄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스라엘 분단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왕들의 전쟁을 주로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활용하였음은 예언자들의 심판 메시지에서 분명해진다. 더욱이 앗수르의 예루살렘 포위도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이기 때문에 여호와와 뜻과 무관할 수가 없음을 말하면서 오히려 적군(敵軍)은 유다 왕을 조롱한다: “내(앗수르 왕)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예루살렘)을 멸하는 것은 여호와와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사 36: 10).

구약의 많은 전쟁들은 왕들의 목적에 따라 발발한 왕들의 전쟁에 속한다. 여기서 생기는 문제점은, 왕의 정규군(正規軍)으로 구성된 군병들에 의해 수행된 전쟁들이 정당 전쟁(the just war)이라고 하나, 과연 이러한 전쟁에 정당성(正當性)이 있느냐가 문제이다.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왕들의 전쟁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왕들의 전쟁은 힘에 의한 지배 이데올로기의 전쟁이므로 이들의 전쟁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공의(公義)와 긍휼(矜恤)에 의해서 공인될 때에만 전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시 45: 6-7). 그러나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예언자들은 왕들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한 왕들의 전쟁(戰爭)을 반대하는 반전운동을 그들의 주요 사명으로 삼았다. 그 이유는 정복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와 평화가 실

8) P. C. Craigie, *The Problem of War i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1978), 42.

9) P. D. Hanson, “War and Peace in the Hebrew Bible,” *Interpretation* 38 (1984/10), 351-353.

현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 III. 여호와의 전쟁(신 20: 15-18)과 그 특성

신명기 20: 14-18은 왕들의 전쟁이 아닌 여호와의 전쟁을 언급한다. 인간은 전쟁을 자기들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不可抗力的)인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전쟁에서 승리를 그들의 신에게 의탁(依託)하는 바 전쟁에 대한 신앙(信仰)이 있어 왔다. 구약에 나타난 많은 전쟁들 가운데 왕들의 전쟁에 해당되지 않는 전쟁들을 ‘여호와의 전쟁’이라 불렀다. 구약에는 성전이라는 용어 대신에 하나님 ‘여호와의 전쟁’(밀하모트 아도나이, milhamot YHWH)이란 용어가 세 번(민 21: 14; 삼상 18: 17; 25: 28) 쓰이고 있다. 더욱이 민수기 21: 14에는 ‘여호와 전쟁의 책’이란 어휘까지 나타난다.

#### 1. 여호와 전쟁이란 어떤 전쟁인가?

여호와의 전쟁은 약속(約束)의 땅 영내(領內)에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세우는 과정, 즉 그들의 적군과 싸우는 전쟁 마당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간섭(干涉)과 도우심으로 승리를 했다는 전쟁들을 말한다. 스멘트(R. Smend)를 위시한 여러 학자들은 여호와의 전쟁은 실제로 전쟁터에 있었던 정치 군사적 전쟁에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에 따라 승리한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한다.<sup>10)</sup> 이

10) R. Smend, *Yahweh War and Tribal Confederation: Reflection upon Israel's Earliest History* (Nashville/NY: Abingdon, 1970), ET. by M. G. Rogers, 13-25; S. Talmon, "YHWH War," *Encyclopedia Biblica* 4 (1963), 1064-1065(히브리어); P. Weimar, *Die Jahwekriegserzählungen in Ex 14, Jos 10, Richter 4 und I Sam 7*, *Biblica* 57 (1976), 38-73; F. Stolz, *Jahwes und Israelskriege*, *ATANT* 60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1972), 9ff; M. C. Lind, *Yahweh is Warrior, The Theology of Warfare in Ancient Israel* (Pennsylvania/Ontario: Herald Press, 1980); 66ff; A. de Pury, *La Guerre Sainte Israélite: Réalité Historique or Fiction Littéraire?* ET 56 (1981), 5-38.

여호와의 전쟁이 정치 군사(政治軍士)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는가를 확인함에 따라서 여호와의 전쟁 전모가 결정될 것이다. 이미 고대 근동세계에서는 주전 삼천 년대에 전쟁(戰爭)의 여러 신(神)들이 전쟁에 간섭하는 소위 신(神)의 전쟁(Divine War)이 보편화되었고 일상화된 것이 역사문서에 나타난다.<sup>11)</sup>

1) 여호와의 전쟁은 약속(約束)의 땅(창 15: 18-21)과 관련된 전쟁(戰爭)들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원주민(原住民, 아말렉, 미디안, 블레셋과 그니스 족속 등)들은 이스라엘의 적국(敵國)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적(敵)이었다. 이와 같은 전쟁은 적대자(敵對者)들이 이스라엘의 적(敵)인 동시에 하나님의 적(敵)이 될 때에만 해당되는 전쟁(戰爭)이다(신 32: 41; 시 89: 52(51-한글개역); 92: 10(9-한글개역)). 만일 적이 이스라엘의 적이지만 하나님의 적이 아닐 때는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할 수 없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주전 605-562)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적이었지만 하나님의 적은 아니었다.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아브디)이었다(렘 25: 9; 27: 6; 43: 10).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때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박해하고 압제한 이스라엘의 적(敵)이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악한(라샤아) 적(敵)이었다. 바로 왕은 말하기를 “자기와 자기 백성은 악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출 9: 27)라고 말했다. 그 외에도 이스라엘과 전쟁이 있었던 미디안(민 31: 3), 모압(대하 20장), 아말렉(출 17: 8-16), 블레셋(삼상 30: 26) 등 약속(約束)의 땅에 거주하는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의 적(敵)으로 간주되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11) Sa-Moon Kang, *Divine War in the Old Testament and in the Ancient Near East*, *BRAW* 177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1989), 111f.

도 하나님의 적(敵)으로 간주되었다. 하나님은 그 대적(對敵)이 이스라엘의 적(敵)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적(敵)이 될 때에만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다(대하 20: 29).

이스라엘의 적대자(敵對者)들은 가나안 땅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다. 가나안 땅에 속한 이스라엘의 적대자들은 가나안, 아모리, 헷 족속 등 6(7)족속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적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맺은 계약(契約)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적(敵)이 되어 심판을 받았다(렘 25: 8-11). 이와 같은 여호와의 전쟁의 이중성, 또는 양면성의 성격을 승리의 신학과 징벌의 신학으로 구별한다.<sup>12)</sup> 즉 승리의 전쟁-구원과 징벌의 전쟁-심판으로 구별된다.

여호와의 전쟁 맥락에서 이스라엘의 적이나 하나님의 적이 뉘 존재로 인정은 되었으나 악(惡) 자체로 인식되지는 않았으나 포로 후기의 묵시문학에서는 이스라엘의 적(敵)이나 하나님의 적(敵)이 악(惡)으로 인식되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 그들의 사탄으로 인정되었지만(삼상 29: 4), 다윗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지만 천상적(天上的)인 사탄은 아니다. 현대전에서 우려되는 것은 이란이 미국을 거대한 사탄(the great satan)으로 간주하듯이<sup>13)</sup> 만일 적대자를 악으로 판단할 때에 전쟁은 종교전으로 비화되고, 악을 섬멸하려는 적대감에서 무차별한 사살과 심한 잔인성이 나타나게 된다.

2) 여호와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전쟁이다. 여호수아는 아이 성 공격에 실패하자 “가나안 거민이 우리를 둘러싸

12) 윤용진, 『여호와의 전쟁신학』 (서울: 그리스, 1998), 226ff.

13) J. L. Allen, 『기독교인은 전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김홍규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15.

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려고 합니다”(수 7: 9)라고 하나님께 절규한다. 생존권의 위협을 느낀다는 말이다. 사사들과 다윗의 전쟁들도 생존권을 위한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웃니엘의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는 심판을 받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의 영을 사사 웃니엘에게 부여 주어 백성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메소포타미아 왕을 제거하고 생존을 보장해 주셨다(삿 3: 10).

다윗도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자로 기름 부음을 받고(시 45: 7) 왕국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들을 수행하였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되었으며, 그 후 계속해서 약속이 확인된 땅이기 때문이다(창 15: 18-21; 수 1: 2). 하지만 다윗 왕국 초기의 전쟁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여호와의 전쟁이었다.

사사들이나 다윗의 경우도 그들의 전쟁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될 때는 먼저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이 주어진다. “내가 적을 너의 손에 붙이겠다”(나탄 베야도, 삿 3: 10; 삼하 5: 19; 왕상 22: 12). 이런 신탁에 의해서 전쟁의 승리가 보장된다. 사사들과 다윗의 시기는 바로 왕조가 시작될 때이었던 바, 그들은 왕국의 생존이 확보되느냐 못하느냐는 갈림길에서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전쟁들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전쟁들 속에 여호와는 그들과 함께하셨고, 직접 하나님 자신이 사사들과 다윗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싸우셨다. 그들은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적을 멸망시키고 자신의 생존권을 보장받았음을 고백한다(대하 20: 15).

3) 여호와의 전쟁은 승리(勝利)와 함께 패배(敗北)도 하나님의 역사운행의 한 방편임을 시사해 주는 전쟁이다. 하나님께 대한 배반으로 사울은 패배했다. 사울의 패배는 죽음으로 끝났으나 후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패배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었다. 이 경우에 패배자(敗北者)는 단순히 심판을 당한 자가 아니라, 패배자이지만 오히려 세계 선교를 위해 이방인들에게 빛을 발하기 위해 하나님의 역사섭리(歷史攝理)에 의해 사용된 자(者)라고 한다(사 54-61 장). 이를테면 패배(敗北)의 수난을 통해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창조되는 것이다.<sup>14)</sup>

따라서 패배도 하나님의 역사운행의 방법이므로 패배를 하나님의 뜻으로 수락해야 한다. 이것은 비극 속에서 영광을 보는 신앙의 안목이다. 예레미야는 매국자(賣國者)처럼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승자(勝者)인 바빌론 왕에게 항복하고 그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왕과 국민에게 경고한 바 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은...내가(여호와) 그의(바빌론 왕)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열병으로 벌 하리라(렘 27: 8).

따라서 여호와의 전쟁의 목적은 왕들의 전쟁과 같은 정복이나 지배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공휼에 따라 약하고 억압받는 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생존권 보장(生存權 保障)을 위해 싸울 때 하나님 자신도 적(敵)과 싸워 승리를 주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승리나 패배도 모두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는 것이다.

14) 김이곤, 『구약성서의 고난신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9), 227-255, 319-358.

다윗 왕국 성립 후에는, 콘스탄틴 대제의 십자가(十字架)가 정복(征服)의 창(槍)으로 바뀌듯이, 승리한 다윗의 방패(防牌)도 정복의 창(槍)으로 바뀌게 되며, 그 이후의 왕들은 계속하여 왕들의 전쟁을 수행하며 그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였다.<sup>15)</sup> 피를 많이 흘린 결과로 하나님의 전을 짓지 못하는 불운을 맞았다.

4)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의 뜻의 구현이다. 여호와의 전쟁이란 하나님 여호와의 뜻과 섭리가 전쟁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구현되는 전쟁을 말한다.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 방법으로 역사 속에서 구현된다: 즉 하나님 여호와에 의해서 전쟁이 계획(計劃)되고, 전쟁 속에 간섭(干涉)하시고, 전쟁의 승패를 판단하는 재판장으로서 재판하는 형식으로 나타난다.

(1) 여호와의 전쟁은 인간의 의도와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意圖)와 명령(命令)으로 진행되는 전쟁이다. 사사기 4: 6에서 여호와는 사사 드보라에게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 일만 명을 데리고 다불 산으로 가거라”고 명령하였으며, 드보라는 여호와의 의도와 명령에 따라 가나안 왕 야빈에 대응하였다. 사무엘하 5: 17에도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블레셋을 섬멸한 사실이 나타난다.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집결했을 때,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명령하시기를,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을 네 손에 붙이리라”고 명하신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 올라가 블레셋을 쳐부순 뒤, 여호와는 ‘적을 흠으시는(브라심) 주(主)’라는 뜻에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였다(18-20절).

이처럼 전쟁이 하나님의 의도와 명령에 따라 진행된 예들이 신명

15) J. C. Swaim, *War, Peace and the Bible* (Maryknoll, NY: Orbis Books, 1983), 104.

기 학파의 작품인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에 편재되어 있다. 주로 침략을 받았을 경우에 생존을 위한 전쟁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해되었다. 그래서 드보(R. de Vaux)는 여호와와의 전쟁은 실제로 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전쟁이었다고 주장한다.<sup>16)</sup> 홉스(T. R. Hobbs)도 사사시대의 전쟁은 정치 군사적 목적보다는 생존전략(生存戰略)에 의한 전쟁이라고 부연한다.<sup>17)</sup>

(2) 여호와와의 전쟁은 하나님 여호와가 전쟁에 간섭(干涉)하여 승리로 인도하여 준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군대 앞뒤에 전위대(vanguard) 혹은 후위대(rearguard)로서 전쟁터에 직접 참여하여 전쟁을 지휘하고, 간섭하신다. 다윗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여호와는 다윗 앞에서 진군(進軍)하신다(삼하 5: 20, 24). 이런 전위대(前衛隊)의 활동이 적의 전열을 마비시키고 아군에 승리를 가져오게 한 경우는 여러 곳에 나타난다. 다윗과 사울의 갈등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을 치실 것이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간섭을 표명하는 내용으로서는 “내가(하나님) 적을 너의 손에 붙이겠다”는 표현이 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블레셋 군대를 너의 손에 정녕히 주겠다”라고 확언하신다. 이런 여호와와의 간섭의 때가 후에 예언자들에 의해 ‘심판의 날’ 또는 ‘여호와와의 날’로 발전되었다. 아모스도 심판받는 자에게는 “여호와와의 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다”(5: 18)라고 증언한다.

(3) 여호와와의 전쟁은 하나님 여호와를 전쟁의 재판장(裁判長)으로

하는 일종의 재판(裁判)으로 판단되었다.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가 간에 맺은 계약을 위반한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맺은 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전쟁은 계약위반자를 고발하는 재판형식으로 이해되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은 엔게디 굴 속에서 사울 왕의 옷자락을 자른 후에 자기와 사울 왕의 갈등을 하나님께 말한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判斷)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王)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裁判長)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피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나이다”(삼상 24: 12-15)라고 호소한다. 이 경우에 하나님은 양자 간의 분쟁에 재판관(裁判官)이 되심을 뜻한다.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해는 전쟁이란 잘못을 제거하는 청결제 역할을 한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여호와와의 전쟁은 하나님 여호와의 계획(計劃)과 명령에 따라 출발되고 간섭(干涉)에 따라 진행되며 재판장과 같은 하나님의 판결(判決)에 따라 승패(勝敗)가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던 것이다.

## 2. 여호와와의 전쟁의 기본 특징들

여호와와의 전쟁은 6가지의 특징이 나타날 때만이 여호와와의 전쟁이라 할 수 있다.

1) 여호와와의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수행되었던 전쟁이다. 인간들의 전쟁에 간섭도 하지만 인간의 참여 없이 하나님 자신이 홀로 싸우며 전쟁을 주도한다. 출애굽기 14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래와 같이 말한다.

16) R. de Vaux, *Ancient Israel*, vol. 1 (NY/Toronto: McGraw-Hill Press, 1965), 262.

17) T. R. Hobbs, *A Time for War: A Study of Warfare in the Old Testament*, OTS 3 (Wilmington, Delaware: Michael Glazier, 1989), 42.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13-14절).

위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서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뿐,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다. 여리고 전쟁(수 6장) 때에도 이스라엘 군대는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았고 제7일에는 성을 일곱 바퀴를 돌고 큰 소리로 함성(테루아)을 질렀을 뿐 성(城)을 공략하는 데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 성벽의 무너짐은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여호수아 6장 여리고 함락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위대(偉大)한 행위(行爲, *magnalia Dei*)를 이스라엘 예배 속에서 영속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말라마트(A. Malamat)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지만 체계화된 제의문화형식으로 기록되었을 뿐이라고 한다.<sup>18)</sup> 왜냐하면 여리고 점령 과정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행되지만, 공격을 위한 이스라엘 군사의 준비가 완전 배제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미 정찰대 파견이 있었고(수 2: 1-24), 공격대형 맨 앞에 무장군인(武裝軍人)이 등장하고 다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행진하며, 그 뒤에 4만 명가량의 무장 군인이 따라갔다(수 4: 13). 군인들은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았다. 따라서 여리고 함락에

군사적 활동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 성을 붙이시고 간섭하심으로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여리고를 정복한 것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출애굽 시대의 전쟁에서와 같이 인간의 노력이 완전히 배제된 것이 아니고 신인협동(神人協同, *synergism*)에 의해 적을 점령한 것으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이 협동하여 승리한 것이 여호와 전쟁의 특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신인협동의 전쟁형태로 여호수아 시대에는 항상 승리로서 가나안 족속들을 섬멸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사사시대에는 승리(勝利)와 패배(敗北)가 같은 비율로 나타난다. 하나님 명령에 잘 순종하고 율법을 잘 지켰을 때에는 승리를 거두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방신(異邦神)들을 섬겼을 때에는 패배하곤 하였다. 웃니엘의 때(삿 3: 7-11)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악(惡)을 행하였기 때문에 아람의 지배를 받았으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웃니엘을 보내어 압박(壓迫)에서 구원해 주었다.

여기서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에 한해서만 하나님께서 적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고 승리하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서이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범죄유무(犯罪有無)와 직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심판과 구원은 곧 이스라엘의 범죄와 회개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2) 여호와와의 전쟁 맥락에서 적들은 하나님의 적일 때만 여호와와의

18) A. Malamat, "Conquest of Canaan, Israelite Conduct of War according to Biblical Tradition," *Revue Internationale d'Historie Militaire* 42 (1979), 26-27; Id., *Israel in Biblical Times Historical Essays* (Jerusalem, 1983), 49ff. (히브리어); Y. Kaufmann, *The Biblical Account of the Conquest of Palestine*, tr. by M. Dagut (Jerusalem, 1953), 74ff.; Sa-Moon Kang, *Divine War in the Old Testament*, 143ff.

전쟁이다. 이때 그 적이 동시에 이스라엘의 적이 될 때만이 이스라엘의 승리가 가능하다. 그렇지 않고 적이 하나님의 적이 아닐 경우에는 여호와와의 전쟁이 성립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적이 되어 심판을 받은 경우가 있다. 예레미야 25: 9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오히려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에게 주어진 일을 수행하였으니 곧 주전 586년에 그가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포로로 잡아간 것이다.

3) 여호와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적들은 가나안 땅 경내에 사는 이방 족속들에만 해당된다. 이들의 정체성은 우상숭배자들이다(신 13: 6).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이다(출 22: 20). 동시에 이방신들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자들이었다(신 13: 7-8). 우상숭배나 이방신을 섬긴다는 말은 힘, 권력과 부를 추구하는 자들이다.

4) 여호와와의 전쟁의 기본 성격은 결코 정복전쟁(征服戰爭)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적대적 나라들에서 왕의 세력(Royal power)을 제압한 후에는 언제나 군 사령부가 있는 길갈 진지로 돌아오곤 한다(10: 15; 11: 43). 제압한 지역을 점유하고 지배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불의한 지배자(支配者)와 지배세력(支配勢力)을 진멸시키는 것뿐이다.

5) 여호와와의 전쟁은 속전속결이 아니라 장기전(長期戰)이다. 신명기 7: 22에 의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노라. 여호수아가 주도한 전쟁도 일조일석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조금씩(메아트) 조금씩(메아트) 수십 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을 반영한다.

6) 여호와와의 전쟁은 신(神)과 신(神)들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간들의 적과 싸우시고 적을 제압하는 전쟁으로, 승리는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해 승리가 주어졌음을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신다(출 14: 14).

위와 같은 6가지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에만 여호와와의 전쟁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통상 사람들이 싸우는 보통 전쟁, 곧 왕들의 전쟁에 해당되는 것이다.

### 3. 여호와 전쟁에서 적과 싸우시는 무사(武士)로서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전쟁 맥락에서 하나님은 싸우는 무사로 묘사된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와의 전쟁이라는 전쟁터에서 홀로 싸우시는 용사요 무사(武士)이시다(God is a Warrior-출 15: 3)<sup>19)</sup>

기독교의 하나님은 자비로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을 주관하는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런 대치점에 대해 초대교회의 말시온(Marcion)은 구약의 하나님은 ‘열등하고 잔인한 창조자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롭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의 기능을 이원론(dualism)으로 분리되었다.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시는 호전적인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시편 24: 8의 표현

19) P. D. Miller, *The Divine Warrior in Early Israel*, HSM 5 (Cambridge, Mass. 1975), 151-155; Id., "God the Warrior," VT (1965), 39-46; M. C. Lind, *Yahweh is a Warrior: the Theology of Warfare in Ancient Israel* (Pennsylvania/Ontario, 1980); 트럼퍼 룬만, 『거룩한 용사』, 성종현 역 (서울: 솔로몬, 1996), 17ff.

을 보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시 24: 8)라고 말한다.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와는 전쟁에 능한 분으로 묘사되고, 출애굽기 15: 3에서는 호전적 성격을 지닌 ‘전쟁의 사람’(a man of war)으로 기술된다. 더욱이 사랑스런 모습보다는 무자비한 무사(武士)와 같은 성격이 이후 예언자들에 의하여 ‘만군의 주(主) 여호와’라는 호칭으로 발전되므로 여호와는 전쟁에 능한 하나님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 ‘만군의 주’(The Lord of hosts)라는 용어는 모든 군대의 주인은 여호와라는 뜻이다.<sup>20)</sup>

예언문학에서 279회나 반복되는 이 ‘만군의 주 여호와’라는 호칭은 주로 예언자들에 의해서 여호와는 전쟁터에서 싸우시는 야전사령관과 같은 전쟁의 주(主)라는 의미로 통용되었다. 여호와가 전쟁의 주라는 개념은 여호와가 ‘역사의 주’(The Lord of history)라는 의미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듯이 전쟁을 심판과 구원의 도구로 삼아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이해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전쟁은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사이고, 인간에게는 전쟁을 수행하는 데에 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의 승패는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믿게 되었다. 전쟁터에서 신의 도움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고 믿은 전쟁신학(戰爭神學)은 고대 중동 지방의 모든 나라에도 마찬가지로이다. 전쟁의 승리는 자기들의 신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으로 믿었던 바, 그들의 신들인 바알(Baal)이나 마르둑(Marduk) 또는 앓수르(Ashur) 같은 주(主)신들이

20)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은 ‘여호와 용사’(YHWH militant), ‘군대의 하나님’(YHWH God of armies), ‘군대를 존재케 하는 자’(He who brings armies into existence), ‘군대를 유지하는 자’(He who sustains armies), ‘군대를 전복시키는 자’(He who overthrows armies), 혹은 ‘천상군의 창조자’(Creator of the heavenly armies) 등 여러 가지로 표현되나 여호와 하나님의 기능이 군대와 관련된다는 뜻이다.

대부분 전쟁의 신들로 인식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호와 전쟁을 통해 그의 역사를 운행하신다. 구원과 심판을 통하여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무사성(武士性)이 요청되는 것이다. 인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공의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그의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전쟁을 통괄하신다는 말이다. 하나님은 전쟁의 여파로 파생되는 폭력을 그의 심판도구로 사용하시며, 동시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를 폭력에 죽게 하심으로써 폭력을 수용하신 것처럼 폭력도 수용하신다는 결론에 이른다.<sup>21)</sup>

하나님은 군인 같은 무사로서의 기능을 가지 분으로 인식되었는 바, 이에 따라 하나님은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강한 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공의와 정의이다. 개인에 대한 기준이 사랑이라면, 공동체 집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사란 말은 하나님은 전쟁을 주관하듯이 우리를 다스리고 보살피시는 통치자(統治者)라는 뜻이다. 역시 하나님은 그의 공의, 정의, 그리고 공휼에 따라 우리를 다스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요 통치자이시다.

또한 무사처럼 강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십자가에서 폭력을 수용한 예수처럼 약(弱)하신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 공휼의 하나님으로도 구원의 역사를 수행하신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전멸시킨 엘리야의 강한 하나님은 사건 후에 세미(細微)한 소리로 현현(顯現)하신다(왕상 19: 12). 그는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보낸 심판의 주(主)요 강하신 하나님이지만 다시 포로로 가는 이스라엘 백

21) Craigie, *The Problem of War in the Old Testament*, 99-100.

성과 함께하신 약한 하나님으로 바벨론으로 가 거기서 이방인으로 부터 조롱을 받기도 한다(시 44: 13, 23; 74: 3).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은 포로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신다: “두려워 말라…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겠는가?”(사 43: 5-13). 하나님은 포로가 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거기서 (바벨론)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미 4: 10). 이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되는 이유는 그들은 이미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이다.

이런 약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예수가 십자가 죽음에서 폭력(暴力)을 수용(受容)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이 되신 것과 같다. 이로써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폭력(暴力)과 악(惡)을 정복(征服)한 셈이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무사로서 강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뿐만 아니라, 수난의 종처럼 고통을 수용하시면서 약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섭리하시는 바, 하나님의 양면성(兩面性)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사 45: 7).

#### 4. 여호와와의 전쟁의 전쟁방법과 전투형식

##### 1) 전쟁방법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방법에는 4가지 방법이 주어진다. 우선 하나님은 전쟁에 참전하시기 전에 승리의 확신을 보여주는 신탁을 보여주신다. 즉 나 여호와가 적들을 너희 손에 붙인다(나탄 베 야도)는 내용이 주어진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헛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수 24: 8, 11-12).

사사기 7장 기드온의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승리의 확신을 기드온에게 네 번 보여주신다(7, 9, 14, 15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훔아 먹은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7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9절),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14절),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기드온) 손에 넘겨주셨느니라’(15절)와 같이 승리의 신탁을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심으로 기드온의 군대는 승리를 한 것이다.

이런 승리의 확신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전법 4가지를 열거한다.

(1)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전법을 보면 우선 혼돈이나 공포로 상징되는 왕벌을 보내 적을 섬멸하신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헛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라 하고 한다(수 24: 11-12).

(2) 앞서서도 잠깐 언급한 대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다(수 10: 14, 42; 11: 16-17; 23: 3, 10). 야살에 책에 기록된 것과 같은 이스라엘군이 성공한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라고 한다(수 10: 14b).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에서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쳐서 이긴 것은 하나님의 도움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느니라(수 10: 41-42). 이스라엘 군인 한 명이 적군 천 명을 쫓아낸 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이라고 한다(수 23: 10).

(3) 하나님은 자연질서를 이용하여 적을 섬멸하신다. 그가 홍해를 동풍으로 말리신 것(출 14: 21)처럼 요단 강 물을 말리셨다(수 3: 17). 홍해 작전에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 나타난 육지로 걸어갔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져 달리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 도다(출 14: 21-25).

같은 기적이 여호수아 일행이 요단 강을 건널 때도 일어났다.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

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고 한 후에 온 땅의 주 여호와와의 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고 한다. 그러자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 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와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수 3: 8, 13b-17).

(4) 천체를 동원하여 적을 심판하신다(수 10: 12). 출애굽기 14장에서 추격하는 애굽군을 구름 기둥으로 막아 적을 꼼짝 못하게 막으셨다(출 14: 19-20).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으므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하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적을 고립시키고 바다에 섬멸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 여호와와의 전쟁을 수행하신 것이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과 싸울 때 하나님은 해와 달을 동원하여 아모리 사람들을 섬멸하신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

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수 10: 12-14).

## 2) 전투형식

여호와와의 전쟁에 대한 기술이 다양한 전쟁 본문에 나타나지만 일정한 형식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조네스는 여호와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데 수반되는 여러 구성 형식들을 나열한다. 전쟁 시작 전(前)에 신탁(神託) 요청, 출발 전 병사들의 세례(淨潔)예식, 하나님께 헌신(獻身) 다짐, 전쟁 지도자와 영적 후원자의 협동(協同), 법궤의 사용, 군기 활용, 헤렘과 전리품 활용, 승리 축하 등등이다.<sup>22)</sup> 성전은 전쟁의 형식 면에서 여호와와의 전쟁과 대동소이하지만 그 내용은 여호와와의 전쟁을 재해석한 것이라고 한다.<sup>23)</sup> 여기서의 여호와 전쟁의 3개의 주요 형식들만을 살펴본다.

### (1) 전쟁 전 신탁

앞에서 논한 것처럼 여호와와의 전쟁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전쟁이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을 주도하는 자(者)는 전쟁 전(前)에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파악하는 일이 필수적이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전쟁에 앞서 전쟁에 대한 신의 뜻을 파악하여 왕에게 고하는 일이 주 임무였다. 사울 왕도 블레셋과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여호와께 물었으나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Urim)으로도, 선지자로도’ 사울에게 대답하시지 않았으므로 엔돌

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신의 뜻을 물었다. 그러나 죽은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미 여호와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 그의 적이 되셨음을 알려 주었다(삼상 28: 6-25).

전쟁을 시작하기 전(前)에 신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 자연의 변형을 이용하거나(삼하 5: 24) 번제를 드리거나(삼상 7: 9) 예언자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기도 하였다(삿 20: 18). 이런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쟁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전쟁으로 이해되었다.

그래서 적군(敵軍)은 이스라엘의 적(敵)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와의 적(敵)(삿 5: 31; 11: 36; 삼상 30: 26)이 되었고, 병사들은 하나님의 백성(삿 5: 11, 13; 20: 3)으로 여호와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되었다. 이와 같이 다윗도 여호와와의 뜻에 따라 블레셋 적군을 쳐부수었다(삼하 5: 17-25). 블레셋은 다윗의 적군(敵軍)인 동시에 여호와와의 적(敵)이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직접 블레셋을 쳐부수셨기 때문이다. 다윗 앞에서 여호와가 직접 나아가서 블레셋 군사를 쳐부수셨다(삼하 5: 24-25)고 언급되어 있다.

### (2) 하나님의 임재로서 군기 및 법궤

전쟁터에 하나님이 참여하고 계시다는 가시적(可視的) 표현으로, 이방 나라들에서는 자기들 신(神)의 상징인 신상(神像)이나 깃발을 전장(戰場)에 갖고 나갔다(삼하 5: 21). 구약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터에 임재하시는 가시적 표현으로 군기(軍旗, 출 17: 15)나 법궤를 사용했다.

사무엘상 4장에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간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패한 원인은 진중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없었

22) G. H. Jones, "Holy War or Yahweh War," VT 25 (1975), 648-651.

23) Ibid., 642-658.

기 때문이라고 한다(3절). 일차 패한 뒤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실로 성소(聖所)에서 법궤를 가져왔을 때 블레셋 군인들은 겁에 질려 “우리는 이제 망했구나” 하고 소리쳤다. “누가 저 무서운 신(神)에게서 우리를 구할까? 갖가지 재앙과 질병으로 애굽 사람을 친 신(神)이 아니냐?”(8절). 여리고 성(城)을 점령하는 과정에서도 법궤가 제사장(祭司長)들에 의하여 전위대(前衛隊)로서 행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에서 전위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던 것으로 이해된다. 다윗의 전쟁 때에도 법궤가 전장(戰場)에 나갔었음을 우리가 장군은 증언하고 있다(삼하 11: 11). 다윗이 전장에서 돌아온 우리에게 집에서 쉴 것을 권유할 때에 “이스라엘군과 유다군이 모두 야영 중이고 ‘법궤’도 그곳에 있는데 혼자만 집에서 쉴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런 증언들은 여호와와의 전쟁 시에는 여호와와의 법궤가 전쟁터에 나가 있었음을 말해 준다.

### (3) 전리품(戰利品) 처리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에는 전리품을 얻게 된다. 사무엘상 30장에서 다윗은 여호와와의 원수(怨讐, 26절)인 아말렉을 공격한 후에 그들에게서 빼앗은 전리품(戰利品) 중에 양떼와 소 떼를 취하여 유다 장로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26-31절).

전리품에 있어서는 생명에 대한 진멸(殄滅)사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사사기 5장에서도 전리품 처리나 진멸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사울이 아말렉과 싸울 때(삼상 15장)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할 때(수 6장)에는 전리품(戰利品)과 진멸(殄滅)에 관한 자세한 처리 규정이 나타나고 있다.

## IV. 진멸(殄滅)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지상에서 끊이지 않는 전쟁의 비극을 보면서 성경에도 80번에 달하는 곳(민 21: 1-3; 신 2: 34; 3: 6; 수 8: 26; 6: 21; 사 1: 17; 21: 11 등)에서 사람들을 진멸시키는 구절들을 읽게 된다. 특히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전쟁 기록들을 읽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곤 한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인정사정도 없이 여리고 성의 왕과 군인은 물론 남녀노유와 심지어는 나귀까지도 무차별하게 진멸하도록 명령했을까(6:21)? 아이(Ai) 성을 점령했을 때에도 가축은 제외되었지만(8: 2) 여리고 성의 경우와 같이 왜 왕과 거민을 진멸했을까? 가나안 남쪽 지역을 점령할 때도 위와 같이 진멸(殄滅)했다는 용어가 반복된다(10: 30, 32, 33, 35, 37, 39, 40). 여호수아서 10장 40절에서도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전부 진멸’하였다니, 마치 1975년 이후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폴 포트(살롯 사)의 대량학살(killing field)이나 1991년 이후 발칸의 인간 도살자로 불리는 유고슬라비아의 밀로세비치의 ‘인종청소’ 같은 일이 일어났었으니 정말로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이신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의 하솔(Hazor) 왕과 그 인접 여러 왕들과 여섯 족속들, 즉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히위 사람들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임을 당했다(수 11: 8, 14). 하솔 성의 경우도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고 그 성을 불살랐다(11: 10). 사사기 21: 10에도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간의 동족상쟁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11지파는 자기 부족의 하나가 없어진 것을 애도하며 미스바 광장에 모일 것을 서

원했을 때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참석치 않았음을 확인하고 이스라엘 연합군은 야베스 길르앗의 처녀만을 제외하고는 그 성의 거민과 부녀와 어린아이까지 진멸시켰다(10-11절). 이 경우 이 진멸의 콘텍스트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에 대한 약속의 이행 여부에 따른 처사일 뿐이지만 사람들을 진멸시킨 것이다.

위의 전쟁 기록들이 보여주는 바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 중에 군인은 물론 부녀자나 어린아이까지, 더욱이 동물까지도 살해하기를 요구하시는 무자비하신 분으로 나타난다. 인도주의적인 면에서나 윤리적인 차원에서 볼 때 전쟁 중에 서로 싸우는 군인들을 죽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지만, 전쟁에 직접 참여치도 않은 부녀자나 어린아이까지 진멸시킨다는 것은 20세기 후반기에 캄보디아나 보스니아, 르완다, 코소보와 같은 지역에서 자행된 인종청소와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생긴다. 심지어는 죄 없는 동물까지 멸종시켜야만 하니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이다. 특히 여호수아서의 이러한 전쟁의 기록들을 일반적인 전쟁의 기록으로 간주하여 기독교 식민주의자들이 약소민족들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데 합법적인 근거로 사용했다는 것은 본의 아니게 여호수아서를 상당히 왜곡한 것이라고 햄린(Hamlin)은 지적한다.<sup>24)</sup>

이상과 같은 질문이나 오해를 전면적으로 재조명함으로써 관련 본문을 재해석하려고 한다.

### 1. 진멸(殄滅, 헤렘)에 대한 정의

헤렘(הרם)이란 히브리 말의 우리 번역은 개역과 개역개정에는 진멸

(全滅, 수 2: 10) 혹은 많은 경우에 진멸(殄滅, 수 10: 1, 20, 28, 37; 11: 20, 21 등)로 번역하나, 표준새번역은 전멸(全滅)로 통일하여 옮긴다. 여기서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본 개역과 개역개정역을 따라 헤렘을 진멸로 사용한다. 이 헤렘의 의미는 ‘바친다’, ‘근절한다’, 또는 ‘금(禁)한다’는 뜻이다.

우선 어떤 경우에 이와 같은 끔찍한 진멸(utterly destruction) 현상이 일어났는가? 여호수아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전쟁 중에 이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여리고 성 점령이나 아이 성의 점령 방법은 주로 공격전이었다. 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공격전에서 이방민족을 진멸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래서 헤렘은 방어전이 아닌 공격전에서 실시된 전법이었음을 알 수 있다. 헤렘 전쟁은 전쟁 중에서도 특히 여호수아 시대에 일어났던 여호와와의 전쟁의 공격전에 국한된다. 여호수아의 전후 시대의 전쟁 이야기에서는 진멸이란 용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출애굽도중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에서도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했지만 진멸(herem)이란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다(출 17: 13). 민수기 21장에서는 아랏 왕과 그 성읍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진멸(3절)이란 용어가 나타난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매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과 그 성읍을 다 (진)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다(3절)

이 구절은 ‘호르마’(완전히 멸함)란 지명의 어원적 근원을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서원하였기 때문에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바쳤다(민 21: 2)는 뜻으로 그 지명을 ‘호르마’라고 한 것이

24) E. John Hamlin, *Joshua: Inheriting the Land*, ITC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 Co. 1983), p. XI.

다.<sup>25)</sup> 동쪽 요르단 지역을 이스라엘이 올라갈 때 아모리 왕 시혼과 싸우게 되었지만(민 21: 21-24), 그때 왕과 백성을 쳐 파했을 뿐(24절) 진멸이란 용어가 쓰이지 않았다. 그러나 민수기 21: 21-24의 기사가 신명기 2: 26-36에 재해석되어 반복되는데 여기서는 민수기 기사와는 달리 남녀노소 구별 없이 주민을 진멸시켰다(מָחַ)는 것으로 표현된다. 민수기 기사는 신문기사와 같은 사실(fact) 보도에 관심을 둔 일반 역사기술의 형식이라면 신명기 기사는 사실 보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설교와 같이 역사란 하나님의 간섭에 의하여 진행된 하나님의 역사(役事)로 의미를 해석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런 신명기 역사 신학의 관점은 신명기 여러 곳에서 반복되는데 신명기 7: 1-4에서 하나님은 그가 준 땅에 들어갈 때에는 그 땅의 거민들을 진멸시키라고 명령한다(2절). 그 이유는 신앙적인 것이다:

그가(이방족속들) 네(이스라엘) 아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것이므로(4절)…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너는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2절) 또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요 그 딸로 네 며느리를 삼지 말라(3절).

이 진멸의 대상이 된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살았던 족속들로서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들이다(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을 주신 땅에 이미

살았던 이 일곱 족속은 수가 많고 힘이 있는 족속들로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들이었으므로 진멸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신명기 신학의 생각이다. 그래서 신명기 20: 17에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진멸하라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을 주신 약속의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일곱 이방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명령하신다(신 20: 16). 신명기 3장의 바산 왕 옥(Og)과 이스라엘의 대결도 같은 맥락에서 기술되어 있다.<sup>26)</sup>

그러나 여호수아 다음 시대인 사사시대에는 헤렘 전쟁으로 진멸시킨 이방민족들은 없다. 웃니엘과 메소포타미아와 구산 리사다임과의 전쟁에서도 웃니엘이 단지 이겼을 뿐이지 진멸에 대한 보도가 없다(삿 3: 10). 에훗과 모압의 전쟁도 비슷한 경우였고, 가나안 왕 야빈과 바락과 드보라의 전쟁에서도 가나안 군인만 죽었을 뿐이지(삿 4: 16) 거민에 대한 진멸은 없다. 기드온과 미디안 족속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암몬과 입다의 경우도 거민과 성읍이 진멸되지 않았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대적은 가나안 야빈 왕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가나안 땅 밖의 부족으로 진멸의 대상이 아니었다. 즉 사사시대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진멸의 대상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사사기 20장의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전 지파의 싸움은 이방민족들과의 싸움이 아니고 집안싸움인 동족상쟁이었다. 그

25) M. Noth, *Numbers, OTL* (London: SCM Press, 1968), 154-155, 사사기 1: 17과 비교하라.

26) *Ibid.*, 166. 노트(M. Noth)는 민수기 기사가 신명기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나 빈도수가 약하다.

때에 이스라엘 군인들은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마다 불태웠다고 하지만 이런 묘사는 전쟁의 파괴가 심했다는 일반 전쟁의 기록이지 헤렘이란 용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사사기 21: 1-12에 이스라엘 군인은 미스바 광장에 참여치 않은 아베스 길르앗 사람 중 처녀만 제외하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온 주민을 칼로 진멸시켰다. 이 경우는 전쟁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모여 서약하는 단순한 종교집회였다. 전쟁도 아닌 종교집회에 불참으로 진멸을 당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경우는 입다의 전승을 환영하기 위해 나오는 첫 사람을 여호와께 바치겠다는 서원에 따라 자기 딸을 하나님께 바친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삿 11: 31-40). 여기서 바친다는 말은 불태워 바친다는 번제를 말한다. 사사기 21: 11의 경우는 처녀 외에는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큰 서원’(하쉐부아 하그돌라)을 전제하고 있는 경우이다.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위반자는 예외 없이 죽어야(모트 유마트) 한다는 것이다(삿 21: 5).

사무엘상 15장에서도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牛羊)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3절)고 하셨지만 사울은 백성만 진멸하고 값있는 것은 남겨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결국 다윗에게 왕위를 빼앗겼다. 그러므로 사울 시대 역시 진멸사상이 실시된 것은 아니다. 다윗 시대에도 역시 전쟁 중에 적대자들과 그 거민을 진멸시킨 전쟁은 없었다.

그러므로 이상의 전쟁기록들을 살펴볼 때 왕과 군인은 물론 남녀노유, 심지어는 동물까지도 호흡 있는 자를 진멸시키는 전쟁은 ‘여

호수아 시대의 전쟁에만 국한되었고, 그 진멸의 대상 족속들은 가나안 땅의 (6)족속 즉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와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에만 제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사시대에 모압, 미디안, 암몬과 블레셋 족속들은 진멸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면 여호수아 시대의 전쟁은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사사기 시대의 국부적 전쟁에 비하면 여호수아 시대에는 전군이 동원된 전국적 전쟁이었다. 사사시대에는 적군에 의하여 패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였다. 웃니엘의 경우,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하에 8년간 종살이를 하였으며 그 후 해방되어 40년간 태평시대를 맞았다. 사사기 저자의 신학적 관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3: 7) 때문에 외국의 압제를 받았고, 그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호와를 섬겼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전쟁의 승패는 인간의 힘과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느냐 안 섬겼느냐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헤렘은 전적으로 신앙적인 가치 판단에 의한 서술이다.

그러므로 사사기와 같은 사상을 가진 여호수아서 저자의 안목에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는 것은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이방신을 섬긴 적이 없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뜻에 복종했다는 신앙적 가치 판단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여호와를 멀리한 적이 없으므로 늘 승리했고, 이방 바알신과 아세라를 섬긴 일이 없으므로 패배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명기 기자는 사사시대에 비하여 여호수아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긴 시대

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진멸시키는 길만이 자기들의 하나님인 여호와와의 뜻을 따르는 길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진멸의 동기는 여호와 신앙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과의 전적 결별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가나안 6(7)족속<sup>27)</sup>만 진멸의 대상이 되었는가? 다른 이방 민족들은 왜 진멸의 대상이 되지 않았는가? 이들 6족속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약속으로 주어진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 땅에 살았던 족속들로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적(敵)이었다(출 23: 22-24). 그러나 가나안 땅 밖의 족속들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의 적(敵)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자신들이 전장에서 그들의 적을 처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적에 한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멸시켰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서에 나타나는 진멸사상은 여호수아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 시대였고, 그 당시 가나안 땅의 거민은 이방신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신학적 진술이다.

## 2. 진멸전쟁의 특징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진멸전쟁은 여호와와의 전쟁을 수행할 때 공격전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으로 방어전에서는 진멸사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방어전에서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을 섬멸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여호와와의 전쟁 맥락에서 주어지는 진멸전쟁의 7가지 특징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① 진멸이란 말은 번제처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말이다(레 27: 28-29). 하나님께 첫 열매를 바치듯 충성의 표시이다. ② 진멸의 대상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6-7 족속에겐만 국한된 이유는 이들이 가나안 땅을 오염시켰고 또 시킬 우려가 있는 족속들이기 때문이다. 여호와 신앙을 수호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③ 여호와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임을 증언하는 데 의의와 목적이 있다. 이방신을 섬기는 자는 가나안 족속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 이스라엘 족속도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진멸하셨다는 것이다. ④ 진멸이란 부정한 것을 파기하고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방신과 관련된 모든 것을 파기하고 새롭고 깨끗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이다. ⑤ 따라서 진멸이란 새 시대를 창조하기 위한 청결예식과 같은 것이다. 혼돈의 세력을 떨치고 새로운 창조질서를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다. ⑥ 진멸 사상은 십계명 1-2계명에 신학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진멸의 대상이 된 것이다(출 22: 20, MT 19절). ⑦ 어떤 민족도 새로운 영토에 정착한다는 것은 우주 생성적 사건에 속한다. 새로운 세계가 창조되고 성화되고 헌납되기 때문이다. 즉 진멸이란 우주질서를 회복하는 회복의 원리인 것이다.

이런 진멸의 개념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지역에서도 신들의 간섭으로 행해지는 전쟁 맥락에서 흔히 사용되었던 개념이다. 헷 나라 아시타 왕의 비문에도 전쟁의 승리를 준 자기의 신에게 모든 것을 바쳤다는 기록이 나타난다. 또한 요단 강 동편 디본(Dibon)에서 발견된 주전 9세기의 모압 비문에 의하면 모압 왕 메사

27) 6족속의 경우는 출 23: 23; 33: 2; 34: 11; 신 20: 17; 수 9: 1; 11: 3; 12: 8; 사 3: 5; 느 9: 8이고, 7족속으로 간주된 경우는 신 7: 1; 수 3: 10; 24: 11이다.

가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준 모압의 신 그모스에게 모든 것을 바쳐 봉헌하기 위해서 진멸했다고 한다(16-17절). 메사는 적들을 살해했는데 그중에는 남자, 소년, 부인들, 소녀들과 하녀들 포함하여 7천 명을 죽였다고 한다. 왜냐하면 아스타르-그모스 신(神)에게 봉헌하기 위해서이다(키 레아스타르 그모스 하하람타). 여기 쓰인 동사 하하람타(החרימו)가 헤렘의 사역형(히필형)으로 봉헌하다/진멸하다는 뜻으로 여호수아서에 14번 쓰인 동사(8: 26; 10:1, 28, 30, 35, 37, 39, 40; 11: 11, 12, 21 등)이고,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할 때에도 쓰였던 동사 형태이다(삼상 15: 18-20; 미 4: 13). 진멸의 대상은 여리고 성의 경우 남녀노소(문자적으로는 젊은이(나아르)로부터 노년(짜켄)에 이르기까지)와 동물들이 포함되어 있으나(6: 21), 모압 비문에서는 남자들, 소년들, 부인들, 소녀들과 하녀들로 되어 있고 동물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헤렘 사상은 윤리도덕적 차원의 행함이 아니라 종교적인 맥락에서 여호와께 충성과 헌신의 다짐을 진멸을 통해서 표현한 것이다. 메사 비문의 배경은 모압 왕 메사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전쟁 이야기로 열왕기하 3장에 자세히 언급되었으나 유다의 승전 보고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모압 비문에는 모압 왕 메사가 그의 왕자를 번제로 드림으로 전쟁의 승리를 거두었다고 기록한다.

따라서 여호와와의 전쟁 맥락에서 헤렘은 승리를 가져다준 여호와께 모든 것을 바쳤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헤렘으로 된 것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아무도 가질 수 없는 금기(ban)인 것이다. 왜냐하면 헤렘으로 된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므로 인간의 사용이 금지되고 접근조차 금지되는 금기(禁忌)이기 때문이다. 아간의 범죄는 하나님의 것을 탈취한 것이므로 자신이 진멸의 대상이 되었고, 이스

라엘 백성에게까지도 고통을 주는 우를 범했다(수 7장).

### 3. 헤렘 전쟁에서 하나님의 적들과 이스라엘 적들의 정체성

여호와와의 전쟁에서 가나안 땅에 거하는 민족들만이 하나님의 적대자들이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거민들은 이방신에 속한 자들로, 여호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고 하나님의 적이므로 호흠이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도록 한 것이다. 윤리적으로 너무 잔인한 것 같은 인상을 주나 이는 ‘가나안 땅’에 제한되어 있고, 하나님의 적(敵)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한된 장소와 제한된 조건하에서 수행되는 전쟁이 헤렘 전쟁이다. 이 전쟁의 목적(目的)은 이방 신들로부터 신앙의 유희과 우상에 오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같은 전쟁원리가 신명기 7: 1-5, 16-26에도 적용된다.<sup>28)</sup>

이스라엘의 적이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것은 여호와와의 전쟁의 경우와 같으나 하나님은 흥해에서처럼 일방적으로 그의 적을 대항해 싸우시는 자로 소개된다. 적에 대항해 홀로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출애굽 전승에서 뚜렷하다.<sup>29)</sup> 이때에 전쟁은 예레미야 48: 10 이하의 말씀처럼 “여호와와의 일”(멜레케트 아도나이)이었다.

하나님의 적들은 가나안 땅 경내에 사는 이방 족속들, 즉 토착 원주민들이다. 이 족속들은 열거한 목록이 구약성경 내에 28개 나타난다. 그 목록은 적계는 2족속, 많게는 12족속으로 나타나는데 그 유형별로 나누면, 12족속의 명단이 2개, 7족속의 명단이 3개이

28) 여호수아 11: 19에서 기브온 히위 족속은 여호수아와의 계약 때문에 진멸에서 제외되었다.

29) T. B. Dozeman, *God at War: Power in the Exodus Tra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5ff.

고, 6족속이 11개, 5족속이 4개, 2족속이 4개, 3족속이 2개, 8과 10족속의 명단이 각각 1개씩 나타난다. 여호수아서 내에서 5장 1절의 두 족속(아모리와 가나안 족속들)을 제외한 가나안 토착민의 명단을 열거해 보면 아래와 같다.

① 수 9: 1; 12: 8 -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등 6족속

② 수 11: 3 - 가나안, 아모리, 헷, 브리스, 여부스, 히위 등 6족속

③ 수 3: 10 - 가나안, 헷, 히위,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등 7족속

④ 수 24: 11 - 아모리, 브리스, 가나안, 헷, 기르가스, 히위, 여부스 등 7족속

위 족속들은 가나안 땅 토착민으로서 하나님의 원초적 적을 상징한다. 헷 족속은 가나안 땅 내외에 거주했던 기본적인 적으로 간주되었고,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중앙 산지에 거하며 종교적 위협이 강했던 바 이념적이고 본질적인 적이었다. 가나안 족속은 낮은 지대인 지중해 연안과 요단 강가에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나안 사람은 저지대에서 무역하는 상인들을 말한다. 상고(商賈)로 번역되는 용어가 가나안 사람들이란 뜻이다(잠 31: 24). 블레셋 족속은 어떤 명단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아마도 여호수아 때에는 가나안 땅에 아직 블레셋 족속이 도착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들은 가나안 토착민이 아니고 해외에서 온 외국인이기 때문에 적의 명단에 빠진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적들은 가나안 땅을 오염시켰기 때문에 진멸의 대상이 된 것이니까 적들은 그 땅에 오래 살며 오염시킨 족속들에 국한될 수밖에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적대적 족속들 역시 아브라함 조상 시대 이전부터 존재했던 헷, 가나안, 아모리, 여부스 족속들(창 10: 15-18)로서 이들이 그 후 가나안 지역의 주도권을 장악한 지배세력이 되었으나 여호수아 시대(11: 3; 12: 8)를 지나 다윗 솔로몬의 통일왕국 시대(왕상 9: 20)에는 솔로몬의 노예로서 존재했고, 더욱이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스 9: 1; 느 9: 8; 대상 1: 13-16; 대하 8: 7)까지도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스라엘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런 가나안 토착민들의 명단을 제시하는 바는 그들이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는 가나안 지역을 주도하는 지배권(支配權)은 상실했지만 약체로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공존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여호수아 6-12장에서 토착민들을 전멸시켰지만 남아 있는 자들(13: 6)과 남아 있는 땅(13: 1-2)이 일치하는 데서 알 수 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앞으로 그들을 쫓아내겠다고 약속하신다(13: 6; 23: 5). 오히려 남은 자의 사상은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하여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 희망의 근거가 되었다.

위에서 열거된 가나안 토착민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적들로서 이들의 정체성은 (1) 우상숭배자로 하나님의 적들인 동시에 이스라엘의 천적(天敵)이었다. (2)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신들을 섬기도록 유혹한 자들이다. 이런 자들은 여호와 이외의 신을 섬기도록 유인한 자들이므로(출 22: 20, MT 19절),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서 진멸을 당하게 된 것이다. 십계명 1-2계명을 위반하였기 때문이다. (3) 이들은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이다(신 13: 13, MT 12). 가나안의 바알 신을 따르고 섬긴 자들이 이에 해당된다.

#### 4. 진멸신앙(殄滅信仰)의 주요 쟁점들

왜 여호와와의 성전(聖戰)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호흡이 있는 자는 전부 진멸시키느냐 집단 살인을 해야만 하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여리고 성의 왕과 군인은 물론 남녀노유(男女老幼)와 심지어는 우양과 나귀까지도 무차별하게 진멸하도록 명령하셨을까?(6: 21). 여호수아서 6-11장에서 여러 번 호흡이 있는 자는 모두 진멸시켰다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전쟁들에서만 진멸 명령을 내리셨을까?

아이(Ai) 성을 점령했을 때에는 가축이 제외되었지만(8: 2) 여리고 성의 경우와 같이 왕과 거민이 진멸되었으며, 막게다(Makkedah) 성을 점령할 때도 모든 사람이 진멸되었고(10: 28), 가나안 남쪽 지역을 점령할 때도 위와 같이 진멸(殄滅)시켰으며(10: 30, 32, 33, 35, 37, 39, 40), 여호수아 10장 40절에서도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전부 진멸하였으니,” 곧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진멸의 대상은 가나안 땅 6(7) 족속의 주민으로 제한되어 있다: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이다.<sup>30)</sup> 이 족속들에 속한 사람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다(11: 8-14).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진멸을 당해야만 했을까? 더욱이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 중에 군인은 물론 부녀자나 어린아이까지, 심지어는 동물까지도 살

해하기를 요구하시는 무자비하신 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도주의적인 면에서나 윤리적인 차원에서 볼 때 전쟁 중에 서로 싸우는 군인들을 죽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지만, 전쟁에 직접 참여치도 않는 부녀자나 어린아이까지 진멸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심지어는 죄 없는 동물까지 멸종시켜야만 하니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한편 십계명(출 20: 13; 신 5: 17)에서는 엄격히 살인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런 상충된 문제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주어진 문제이다.

우선 여호와와의 전쟁 중에 생명이 있는 것들의 대량 학살 문제는 요단 강 서편 가나안 땅(민 34: 1-14)에 대한 공격 전쟁에만 제한되었음을 보았다. 여리고 성 점령(수 6장), 아이 성의 점령(수 7장)과 남북의 가나안 백성들을 점령(수 9-11장)할 때에만 참전한 군인들을 진멸시켰고, 여리고의 경우는 가축까지 진멸시키고 성을 불살라 버렸지만 그 후 사사시대나 다윗시대에 있었던 전쟁들에서는 군인들도 진멸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진멸에 대한 문제는 가나안 땅 공격 전쟁에만 국한된 것으로 이해되었다.

집단 살인을 의미하는 헤렘(herem)은 윤리나 도덕적 차원이 아닌 종교적인 차원의 의미를 말한다. 우선 집단살인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다른 신에게 바쳐진 제물을 불살라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신명기 13: 12의 우상 방지법에 나타난 대로 말하면 이 경우는 전쟁도 아니지만 신앙을 유혹하는 우상에 대한 진멸신앙이 나타난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성에서 어떤 비류가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유혹할 경우, 이런 사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너는 마땅히

30) 가나안 원주민들이 다른 시대를 반영하는 본문마다 차이가 있어 5족속(출 13: 5; 왕상 9: 20; 대하 8: 7), 6족속(출 23: 23; 33: 2; 34: 11; 신 12: 8; 20: 17; 수 9: 1; 11: 3; 사 3: 5; 느 9: 8), 7족속(신 7: 1; 수 3: 10; 24: 11) 명단이 나타난다. 에스라 9장 1절엔 그때까지 가나안 땅 원주민 가운데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 등 5족속은 존재했던 것으로 보도된다.

그 성읍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중에 거하는 모든 것과 그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얻은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 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영히 무더기가 되어 다시는 건축됨이 없을 것이니라”(신 13: 15-16)고 한다. 이 기록은 분명히 전쟁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길 경우, 진멸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진멸되어 폐허가 된 도시들의 대표적인 예가 소돔과 고모라(창 19: 4-29)이다.

여리고 성의 적군은 이스라엘의 적일 뿐만이 아니라 더러 여호와 하나님의 적이였다. 즉 적군은 가나안 신에게 바쳐진 가증스런 제물과 같은 것들로서, 다른 신에게 봉헌된 제물을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수 없기에 진멸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여리고 성 안의 전리품 역시 적군의 신에게 속했던 것이므로 여호와와의 창고에 넣을 수 없고 불살라 버려야 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 공격전쟁 과정에서 있었던 집단 살해는 신앙적-제의적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진멸의 신앙은 전쟁이든 전쟁이 아니든 간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를 진멸하도록 한 종교적인 의미의 집단 살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성경에서 의도적인 살인자의 사형이나 전쟁에서의 살인은 집단(集團)의 생명(生命)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허용된다. 왜냐하면 십계명의 살인금지(히브리 동족 간의 살인 방지를 위해 쓰인 것이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적군의 살인이 허용될 수 있다고 한다. 크레이기(Craigie)에 의하면, 십계명에 나타나는 ‘라차흐(죽인다)란 동사는 전쟁 콘텍스트나 종교적인 헤렘 콘텍스트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sup>31)</sup>

전쟁에서 살인이라는 것이 정당전쟁이란 차원에서 가능하다는 것보다는 생존경쟁의 과정에서는 피할 수 없는 필요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생명 경외자들도 살인을 인정한다. 적자생존의 과정에서 생명의 희생은 생명을 살리기 때문이라고 한다.<sup>32)</sup>

정당전쟁에서 살인허용이 가능하다는 말은 자기들의 전쟁은 의로운 전쟁(just war)이라는 전제가 쌍방에 의해 증명되어야 하지만 이런 증명은 불가능하고, 강대국들이 군축을 말하고 있지만 비밀리에 핵실험을 하면서 힘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욕망 때문에 인간의 힘에 의해서는 지상에 평화(평화)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개인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집단의 생명과 평화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를 위하는 차원에서 전쟁터에서의 살인은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개인보다는 집단의 생명보호를 위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의해 전쟁에서 살인이 허용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가나안 6(7)족속만 진멸의 대상이 되었는가? 왜 암몬이나 모압 같은 다른 이방 민족들은 진멸의 대상이 되지 않았는가? 가나안 땅의 6(7)족속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 땅에 살았던 족속들로서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적이였다(출 23: 22-24). 그러나 가나안 땅 밖의 족속들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의 적이였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적

31) Craigie, *The Problem of War in the Old Testament*, 57-58. ‘하라그’(죽인다)란 동사도 헤렘 문맥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32) Niditch, *War in the Hebrew Bible*, 22-23. 니디취는 전쟁은 피치 못해 살인을 허용하나, 이는 지상의 인구조절과 생태계 조절기능을 감당한다고 한다.

이라기보다 이스라엘의 적이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적은 이스라엘 자신들이 전장에서 그들의 적으로 처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적에 한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멸시켰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서에 나타나는 진멸신앙은 이방신을 섬겨 여호와와의 적이 되었던 가나안 땅의 거민들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이다.

사사기 저자와 같은 역사의식을 가진 여호수아서의 저자의 안목에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점령과정에서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는 것은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이방신을 섬긴 적이 없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뜻에 복종했다는 신앙적 가치판단을 전제하고 있다.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여호와를 멀리한 적이 없으므로 늘 승리했고, 이방 바알신과 아세라를 섬긴 일이 없으므로 패배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명기 기자는 사사시대에 비하여 여호수아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긴 시대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사사시대에는 주로 방어전(防禦戰)인데 비해<sup>33)</sup> 비하여 여호수아 시대의 전쟁은 공격전이었다.

진멸에서 구제되는 대상은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와의 기업(基業, inheritance)으로 주어지지 않았던 성읍에만 가능했다. 여호와와의 기업으로 주어지지 않은 성읍들, 즉 여호와에 의해서 물려받은 것이 아닌 자연인(自然人)의 것은 진멸의 대상이 아니었다. 화친(和親)에 의해서, 아니면 정복하되 군인만 죽이는 범위 내에서 전쟁이 진행되었으며, 전쟁에 과정에서 호흡이 있는 자의 진멸사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사울이 놉 제사장과 주민을 학살

33) G. von Rad, *Der heilige Krieg in Alten Israel*, 26-32. 폰 라트의 주장처럼 성전(Holy War)은 방어전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할 때 진멸사상은 성전개념에서 설명할 수 없다.

한 것(삼상 22: 6-23), 아비야가 이스라엘 군대 50만을 살해한 것(대하 13: 1-22), 예후가 아합 왕가(王家)에 대한 집단학살 등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규모는 모르지만 헤렘 사건의 역사적 실재가 없던 것은 아닌 것 같다.<sup>34)</sup>

위에서 본 대로 헤렘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얻은 것을 하나님께 번제와 같은 희생제물로 드린 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이다.<sup>35)</sup>

헤렘의 다른 기능은 죄와 우상을 정화한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여호와와의 신앙을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자들이었다. 이들은 제단에 바쳐진 번제 제물처럼 죽이고 불태워야만 했다(레 1: 1-17).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진멸시키는 길만이 자기들의 하나님인 여호와와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진멸의 동기는 여호와 신앙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과의 전적(全的) 결별(訣別)하는 것이다. 이는 열왕기하 23장에 요시아 왕이 행한 이방신 대척결운동(異邦神 大剔抉運動)을 연상할 수 있다. 요시아 왕은 이방신의 산당을 부수고 불태워 가루로 만들어 기드론 시내에 버림으로써 이방신과 그 신봉자들에 대한 일대 척결을 단행했다. 여기엔 조금의 용납도 없다. 그것은 이방 종교에 동화를 방지하고, 여호와 신앙의 순결성(純潔性)을 유지하기 위한 이방 종교와의 단절(斷絶)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 신앙의 순결성(Reinheit)을 찾을 수 있다.<sup>36)</sup>

34) 출애굽기 32: 27-29에 광야에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범죄한 자들의 집단 살해되었으나 진멸이라는 용어가 주어지지 않는다.

35) Niditch, *War in the Hebrew Bible*, 28-55.

36) C. H. W. Brekelmans, *De Herem in het oude Testament* (Nijmegen, 1959), 188.

그러므로 요시아의 종교개혁의 동기는 헤렘 사상을 통하여 여호와 신앙을 재정립하려는 것이었다고 한다.<sup>37)</sup> 따라서 헤렘 사상은 윤리적인 관점이나 인도주의적인 시각에서 이해될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의 전쟁 콘텍스트 속에서 이해해야 할 신앙행위의 문제다. 헤렘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파괴하는 여러 요인들을 제거하고 여호와와의 순수 신앙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데 의의가 있다.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땅 정복 기사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사실(事實)만을 보도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진실(眞實)을 보도함에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이방종교와 그 종교의 추종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대적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을 제물처럼 불살라 버려야만 했다. 예배 시에 첫 열매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민 18: 13-15) 가나안 정복의 첫 열매인 여리고 성과 그 거민을 하나님께 바친 것은 기본적인 신앙행위였다.

니디취(Niditch)는 헤렘은 하나님의 공의(God's justice)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sup>38)</sup> 하나님은 공의에 입각한 심판을 하신 것이다. 창세기 15: 16에서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지만 4대 즉 400년 후에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그때까지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방신을 섬겨 하나님 보시기에 역겹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므낫세도 아모리 사람보다 이방신을 섬기는 배교죄(背敎罪)를 많이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37) N. Lohfink, "הרם," TDOT 5권, 193ff., Lohfink는 헤렘 사상이 요시아 이전에 나타난 사상이라고 하나 미가 4: 13은 포로후기의 것으로 간주한다(198).

38) Niditch, *War in the Hebrew Bible*, 56-77.

다(왕하 21: 11). 그 결과 그의 손자 때에 나라가 망하는 운명을 맞게 되었다. 또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되면 그의 공의로운 판단에 따라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이다(렘 50: 26). 따라서 헤렘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심판으로 이해된다.

##### 5. 헤렘에 대한 신학적 이해

성경에서 헤렘 사상은 여호와와의 전쟁을 수행하던 여호수아 시대의 공격전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점령토록 허락하여 주신 성읍과 그 성읍의 호흡 있는 자는 전부 하나님께 바치는 신앙의 행위였다. 이런 제의적 신앙행위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1) 우선 헤렘 전쟁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진 전쟁이다.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전쟁이 아니다. 원래 땅은 인간생존(人間生存)의 바탕이고 국가존립의 기초(基礎)이다. 가나안 땅은 여호와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이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이와 같은 약속의 선물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그 땅을 영원히 향유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에는 그곳에서 추방당한다.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포로는 바로 이런 원리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는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므로 수혜자는 땅주인의 말씀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은혜로 복을 받았지만 복을 누리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이다.

2) 헤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 것이다. 땅

을 얻은 것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호수아 때에 이르러 완성된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약속이 완성되기까지는 4대(400년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다(창 15: 16).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그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 약속이 이루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즉 은혜로 받았을 뿐이다.

3) 헤렘의 신학적 의미는 여호와와의 신앙의 회복에 있다. 4대에 걸친 기간 동안 즉 400년을 지나는 동안 약속의 땅은 이방신 우상숭배로 오염될 대로 오염되었다. 그래서 헤렘 신앙은 가나안 땅의 6족속이 바알과 아세라 같은 이방신들을 섬기므로 땅은 오염되었고,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었다. 이들은 여호와와의 신앙을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자들이었으므로 이들을 제단에 바쳐진 제물처럼 죽이고 불태워야만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순수 신앙을 추구한 것이다.

4) 헤렘이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확인하는 것을 뜻한다. 앞에서 점검했지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기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인간이 탐내고 가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 여호와께 바쳐진 것은 여호와와의 것이고 기록한 제물인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손을 댈 수 없는 성역이다. 바쳐진 것은 기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인간이 탐내고 가져서는 안 된다(수 7: 1-21). 아간이 하나님께 봉헌된 것(바헤렘)을 취한 것, 즉 하나님의 것을 보고(looked) 탐내고(coveted) 취한 것(took)은 아담과 하와의 행위와 같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탐스럽고 먹음직하여 따 먹은 것과 유사하다(창 3: 6; 수 7: 21).

하나님께 서원하고 바쳐진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인간의 근본 죄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와 영역을 침범하는 죄를 지었고 에덴동산에서 추방되었지만 그 욕심은 지금까지 여전하다. 따라서 헤렘의 대상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인간의 사용이 금지되고 접근조차 금지되는 금기(禁忌, ban)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 V. 여호와와의 전쟁과 우리의 자세

여호와와의 전쟁에서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진 것은 우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위해 싸우셨던 것이다. 전쟁터의 최전선에 서 있는 군인들의 자세와 그 뒤에 있는 우리 백성의 자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그의 뜻을 따르는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어떤 전쟁에서도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된다는 진리이다.

### 1. 군인의 자세<sup>39)</sup>

군인이란 자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부름 받은 자이다. 국가안보란 국가와 국가 간의 개념으로 적의 공격이나 침공으로부터 자기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국가안보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소집된 존재들이 군인이고, 그들의 집단이 군대이다. 그래서 군대란 이런 특수 목적만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특수 공동체이다.

39) 강사문, "기독교인의 국가관과 신앙관에 대한 고찰," 「군선교신학」 9 (2011), 36-55 참조.

나라와 백성을 지키는 방법은 최신의 과학적 무기로 적을 제압하고 승리를 이끄는 것이지만 최후의 승리는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 있다. 이는 최신 무기가 우세한 미국이 월남전이나 최근 이라크전(戰)에서 최후의 승리를 얻지 못한 데서 알 수 있다.

여호와의 전쟁 맥락에서 승리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이므로 우리 군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먼저 군인으로서 나라에 대한 사명과 태도,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사명과 태도는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군인으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행동하는 신앙심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 동심원의 중심과 같다. 우리는 대한민국 군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군병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즉 이중적 의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가 주어진 과제이다.

#### 1) 군인은 투철한 국가관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건립 목표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The kingdom of God)의 목표는 동일하다. 이에 대한 성경의 기본 원리는 어떤 나라나 민족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나라의 흥망성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된다(렘 18: 7-10).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렘 18: 9-10)고 한다. 따라서 지상의 나라는 자연(自然)질서이고, 하나님 나라는 신적 질서(神的 秩序)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지

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지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명에 있어서는 서로 일치하기 때문에 두 나라의 목적(目的)은 같으나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각 지역에 산재된 나라들도 나름대로 그 나라의 목적과 사명이 있다. 이 목적과 사명이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합당하게 사용될 때에는 그 나라의 존재가치가 인정된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고 이웃 나라를 정복하고 지배만 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또한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 나라의 전위대로서 하나님 나라 구현에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배반할 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사람은 누구나 다 먼저 한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접하기 전에 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운명 지어진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이전에 이미 민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의무와 사명이 주어진다. 출생신고 후에 교회에서 세례 받는 것과 같다. 우리는 교회에 헌금을 내는 일 이전에 납세의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 납세의 의무는 강제이나 교회 헌금은 자율적 의무이다. 어떤 나라의 국민이든 국민은 먼저 자기 국가 공동체에 우선해야 하고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국가 공동체의 생리이다. 한편 믿는 자는 그의 신앙을 포기할 수는 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국방의 의무를 포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자에 앞서 국가에 충성해야 할 군인이기 때문에 국가 공동체의 동의 없이는 국방의 의무를 기피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2) 군인은 투철한 신앙관을 가져야 한다.

지상 나라나 하나님 나라 모두가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존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도구들로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상의 나라나 하나님의 나라 역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구현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군인으로서 상기해야 할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① 국가 안보에 책임을 맡은 군인들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절대이지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이다.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도 나라의 흥망은 하나님 손에 있었던 것을 역사가 증언하고 있으므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의지신앙(바타아흐)이 요청된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18장에서 선지자가 토기장의 비유에서 언급했듯이 토기는 전적으로 토기장의 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인 것처럼 나라의 흥망성쇠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신적 질서에 속하는 것으로 나라의 운명은 토기와 같은 운명이기 때문이다. 토기장이인 하나님에 의해서 전적으로 우리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만이 국가와 민족 생존의 기초가 됨을 알 수 있다.

②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은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언급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지켜 행할 것을 명하고 있으므로 믿는 자들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써 지상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 우리가 속한 나라와 민족을 지켜 보호함으로써 우리의 생존과 국가 안보가 보장되게 함으로써 참 군인상을 간직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우선 자기가 속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국방의 의무가 3대 의무 중에 하나라는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 의무로 간주하고 병역피나 군 혐오증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의무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상 나라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고,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하는 마당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강인하고 투철한 군인정신을 소유한 자일수록 신앙심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군인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 위에 굳게 세운 집처럼 정신전력의 군인상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중세의 십자군이 아닌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강하고 담대한 군인이 될 수 있다. 나약한 군인이 아니라 어떤 적군도 물리칠 수 있는 강한 군인이야말로 자기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 장병들이 자기가 속한 국가에 대해 이해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첫째, 나라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과 같은 맥락이다. 나라를 사랑하는 군인일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행위와 같다. 나라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이다. 나라에 충성하는 자는 곧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 다 같이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구현하는 일이므로, 군 체제상 계급사회라 할지라도 정

의와 공의가 병영생활의 기초가 되어 억울한 대우를 받는 자가 없고 인권이 보장되어 모두가 발달한 군 생활을 영위하는 병영문화가 창조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군대 지도자의 책임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므로 군의 책임자도 정의와 공의에 기초한 군대를 만들어야 국가안보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3) 우리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목표는 정의 구현에 있다.

하나님 나라와 지상의 나라는 같은 목적을 지향하는 공동체로서 양자가 타원형의 일심동체라고 할 수 있다. 루터도 일원적 사고를 지향하여 하나님 나라와 지상 나라는 하나님의 세계 통치의 두 팔이라고 한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세계 통치의 오른팔이라면 지상 나라는 왼팔이다.

칼빈의 사고구조가 더 일원론적 사고 유형에 속한다. 칼빈은 지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봉사하는 권력기관으로 이해한다. 하나님 나라와 지상 나라는 각각 다른 기관이기는 하나 다 같이 하나님의 세계 통치의 기구로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상호협력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직접 지배를 받는 곳이라면 지상 나라는 하나님의 간접 지배를 받는 곳이라고 한다.

지상 나라는 하나님의 세계 통치라는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지상 나라의 기능도 정의를 구현하고 악을 제거하는 데 있다. 국가에 충성과 복종도 주 안에서의 복종과 같다. 따라서 로마서 13장은 권세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를 말한다. 베드로 전서 2: 13-14은 이에 대한 보충설명이다.

지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갈등과 충돌이 있다면 이는 하나님

나라나 지상의 나라가 각기 자기의 한계를 넘어 상대 영역을 침범할 때, 또는 나라가 나라의 위탁기능을 망각하고 외도를 할 때 충돌이 불가피하게 된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지상의 나라의 절대적 분리란 하나님 나라가 스스로 사회에 대한 자신의 사명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로마서 13: 1에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교훈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 이 말씀은 모든 교인들은 지상 나라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함을 암시한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로부터 정해진 것이기 때문이다.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권세는 하나님의 명령과 동일시된다.

권세란 지상 나라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예로부터 권세자들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치리하는 자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디도서 3: 1에도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할 것을 권고한다. 전도서 8장 2절에서는 왕의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이유는 이미 이것을 하나님께 맹세한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것도 결국에는 주(主)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라고 베드로는 말한다(벧전 2: 13-14).

그런데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악한 권세에게라도 복종하여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런 질문에 주어진 하나의 답변은 무조건 세상 권세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를 행하며 공의로 다스리는 자에 한해서 그 권세에 복종할 수 있다는 논리가 제시된

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과거 일본 국가에 복종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나, 아니면 신사참배를 거부한 여러 애국지사들처럼 항거하다 순교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여러 상황으로 평가할 때 20세기 전반부의 일본 권세는 악의 화신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그러나 지상 권세가 적그리스도로 판명되기까지는 그 권세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시 순교한 순교자의 정신이 후세에 큰 교훈을 남겨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유념할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지켜주는 국가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도구로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논리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즉 루터의 논리대로 하나님 나라와 지상 나라는 하나님의 세계 통치의 두 팔로써 하나님의 큰 뜻에 헌신하는 두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신사참배와 같은 나라 권세의 요구에 대해 굴종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예레미야의 태도도 루터와 같은 견해이다. 주전 6세기 초에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놓였을 때, 예레미야는 유다 왕에게 더 큰 나라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권하며 “왕과 백성은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렘 27: 12)라고 말한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복종하므로 유다 왕과 백성들에게는 매국노와 같은 입장이 되기 때문에 왕과 백성들의 오해와 불신의 소지가 많았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관점은 세계 역사 운행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된다.

잠언 16장 4절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목적이 있으니, 곧 악한 자는 악한 때에 사용하시기 위함이라고 한다. 또는 원수 갚는 일은 내(하나님)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신다(신 32: 35; 롬 12: 14-21).

옛날부터 제정일치시대에는 종교의 영역과 국가의 영역을 주관하는 자는 동일인이고 양쪽 영역의 업무가 분리되지 않았다. 왕이 곧 제사장으로 정치와 제의를 다 주관했다. 정치가 건전했으면 종교도 건전했고, 정치가 부패했으면 종교도 부패했다는 결론이 된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다윗 왕국 전까지는 제사장과 정치지도자의 업무가 분리되지 않았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것은 정치가 세속화되면서 종교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주도했듯이 종교와 정치가 완전 분리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종교와 정치가 피차 견제하고 상호 협력하듯이 하나님 나라와 지상 나라도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자기가 속한 나라의 양심이자 파수꾼으로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동시에 지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보호하고 지원할 때가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예언자 이사야나 예레미야도 직접 왕에게 권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나라의 운명과 자기의 운명을 같이했다.

실제로 나라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the power)에 힘입고 있다 할 지라도 이는 땅의 권세요, 상대적 인간의 권세(a power)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현할 때만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적이고 잠정적 권세이다. 나라의 권세도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한계 내에서만 그 존재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

교회도 같은 논리에 부딪힌다. 교회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순

중할 때에만 교회의 본질을 드러내는 조건적 공동체이다. 교회는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섬김의 공동체요, 희생의 공동체이다. 국가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조건적·한계적인 권세이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따라서 교인들은 그들의 양심에 따라(롬 13: 5) 합리적이고 자율적으로 복종하는 것이다. 즉 주님을 위해서 복종하는 것이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베드로의 고백이 도움이 된다(행 5: 29).

바람직한 것은 양자가 항상 한계적 존재임을 의식할 때 긴장과 충돌이 없다. 그러나 역사상 교회와 나라는 늘 긴장 속에서 관계를 유지하곤 했다. 권세가 하나님의 뜻과 배치될 때에는 복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권세는 적그리스도로 칭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와 나라의 관계는 나라가 적그리스도로 판명되기 전까지는 이원적이 아니고 일원적이다. 교회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변화시킬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차이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아래 도표를 통해 비교하면 피차 다른 점도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구분	지상의 나라	하나님 나라
나라의 존재 기간	잠정적 나라	영원한 나라
창건 과정	전쟁을 통해서 창건됨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현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	물리적 힘	사랑의 힘, 영적인 힘
나라의 성격	때때로 적그리스도, 또는 악의 화신(잠 16: 4)으로 변형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통치	하나님의 간접, 가시적 통치	하나님의 직접 통치

4) 군 병사와 군 지도자는 정의구현으로 국가안보를 달성한다.

성경에서도 나라에 지도자를 세우는 목적은 나라의 안보와 평안에 있다.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기 위하여 왕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여야 한다. 이 땅에 정의가 이루어져 억울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다윗이 왕이 될 때에도 그의 즉위 목적은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했다고 진술한다(삼하 8: 15). 사무엘하 8: 15에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미스파트와 체테카)를 행하였다”고 한다. 정의와 공의의 구현은 하나님이 왕에게 주신 직분이고 사명이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는 데 있었다(왕상 10: 9b). 솔로몬은 그의 시편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자기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도 주어져 그들이 행함으로 백성들이 평강과 구원과 자비를 누리게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한다. 유다의 왕들이 정의와 공의를 구현하고 잘 준행하면 나라가 장구할 것이고 이를 준행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한다(렘 22: 3-5). 즉 왕들은 그들의 책무인 정의구현 여하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좌우됨을 보여준다.

나라의 존재 근거가 왕의 정의구현에 있다. 다윗 왕국이 건재했던 것은 그의 보좌가 정의와 공의에 기초했기 때문이라고 한다(사 9: 6; 잠 16: 12). 그래서 요시아 왕도 여호와의 명령으로 정의와 공의를 잘 행하였기 때문에 이상적인 왕으로 인정받고 있다(렘 22: 15-16). 이렇게 행하는 것이 여호와의 길이다(창 18: 19). 그러나 여호야김 왕은 부왕과 달리 그의 눈과 마음은 탐남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압박과 강포를 행하였기 때문에 결국 나라가 망하고 개죽음을 당하

는 비운을 당하게 되었다(렘 22: 13-19).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지상에 정의를 구현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 정의구현을 위해 유다 왕들이 할 일은 예레미야 22: 1-4에 잘 언급된다.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이 말을 참으로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이사야 42: 1에서 왕의 사명은 이 땅에 정의를 세우기까지 죄수를 석방하고 사회제도를 개혁하는 자로 나타나는데 이는 메소포타미아의 미샤름(misarum)에 해당된다. 사회의 올바른 질서 확립이 왕의 임무임을 말한다. 정의와 공의를 구현하는 방법은 평등사회(egallitarian society)를 확립하는 일이다.

정의와 공의란 단순히 올바른 재판(신 16: 18)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글자 같으나 바브(ἵ)로 연결된 정의와 공의는 이어일어(二語一語)로서 공정한 사법범주 이상의 정치와 삶 전반에 걸쳐 평등이 보장되는 바 사회정의(social justice)를 의미한다. 더욱이 정의와 공의는 세계질서에 해당되는 것으로도 이해된다.

그런데 이방의 왕들이 즉위 때에 자유, 즉 미샤름을 선포하는 것은 자기의 선함과 관용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으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왕이 하나님의 뜻을 준수하는 데 그 사명과 목적이 있다. 왕 자신의 치적을 과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준수하는 데 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제외한 다른 왕들은 그들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만든 비석이 없다.

## 2. 여호와의 전쟁에 임하는 백성들의 자세

6·25 전쟁이 발발한 지 반세기가 넘어 71년이 되는 해이지만 아직까지도 전쟁의 상흔은 남아 있다. 또 언제 과거의 비극 같은 사변이 발생할지 모른다. 온 국민은 긴장감에 살 수밖에 없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한다.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 이시기 때문이다. 나라의 운명과 우리의 생존은 하나님 장중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다면 거국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용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정의와 공의를 이 땅 위에 구현하여 국가 안보를 든든히 해야 한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것이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의 백성의 책임과 사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세 가지 대안을 제안하고 싶다: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다짐하는 일과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위기 때에도 하나님만을 의지(依支)하는 의지신앙(依支信仰)이 요망된다는 것이다.

### 1)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말씀에 나타나 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수행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수 1: 8) 하셨다. 시편 1: 2-3 말씀과 같은 내용이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右)로나 좌(左)로 치우치지 않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한다.

성경은 토라의 기초 위에 세운 집과 같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세운 집이 십계명이라 한다면 성경의 내용과 형식 전부가 하나님의 뜻으로 구현된 것이므로 성경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평화를 주신다. 앞에서 본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편에 서 있었으므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다. 출애굽기 19: 5-6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말에서 알 수 있다.

출애굽기 6장에서 11장까지의 바로 왕에게 내리는 재앙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암미)으로 10여 차례 호칭하신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출 6: 7),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고 바로에게 요구했으나 바로는 거절하였다(출 7: 4, 16; 8: 1(MT 7: 26), 21(MT 8: 17), 22(MT 8: 18); 9:1, 13; 10: 3, 4; 11: 3).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승리와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다.

430여 년간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42명의 왕들이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여 하나님의 길을 잘 따른 왕으로서는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둘뿐이다. 나머지 왕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전쟁에서 왕들

이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왕들이었고, 반대로 자신들을 선택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따르지 않은 왕들은 전쟁에서 패배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왕들에게 있어서 전쟁에서의 승패는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었느냐 또는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하였느냐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보듯이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다윗은 선언했다(삼상 17: 47).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블레셋 군인들)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따라서 성경은 전쟁에서 승리는 군사와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음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다.

여호수아 시대에 왕은 없었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나안 주민들과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다. 즉 여호수아는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고 지혜를 주어 가나안 땅에 사는 아모리 적군들을 격퇴하여 승리케 하셨다(수 6-12장).

그런데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 데 여호수아 군사들은 그들에게 공격을 감행하였는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은 정복자(征服者)들인가? 왜 가나안 땅의 이방 군사들은 패배했는가?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고 가나안 사람들의 편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운행의 원리에서 파악된다.

이미 여호수아보다 400여 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면서 약속하셨다: “네 자손은 사 대(400년) 만에 이 땅(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창 15: 16).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인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아브라함으로부터 400년을 지나서, 즉 여호수아 시대에 이르러서야 극에 달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했을 때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화를 확보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때에는 심판을 받고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는 비운을 맞이하였다. 사사기 3: 7-11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결국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패하여 8년을 종살이했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한 결과 사사 옷니엘을 보내어 메소포타미아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40년간 평화가 지속되었다고 한다(11절). 따라서 전쟁의 승패는 인간의 군사나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만이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성경은 교훈한다.

그러므로 전쟁에 대한 성경의 논거는 전쟁 당사자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가 문제이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북부군 참모가 링컨에게 요청하기를, 우리 북부군이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어야 하므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도록 기도하자고 제안하자 링컨은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를 따지기 전에 누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섰느냐에 따라 승리가 결정되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는 대답을 했다고 한

다. 그러나 이번에 부시는 하나님이 자기 편에 서서 자기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확신을 성경과 기도를 통해 얻어 전쟁을 수행한다고 한다(군복음화보, 173호, 2003/3/31, 1쪽).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반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국가 민족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

2)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백성들이 도덕적 문란과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사회가 깨끗해지는 바 성화(聖化)의 길을 가야 한다(수 3: 5; 7: 13). 우리 백성들이 성화되어야 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수 24: 19). 벤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 설 자가 없다고 고백한다(삼상 6: 20; 호 11: 9b).

성화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레위기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을 보여준다(152회). 거룩은 부정한 것의 반대되는 정한 것 그 이상을 말한다. 레위기 19: 2에서 여호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아퀼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말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뜻이다.

이 말의 의미를 부연하면 (1) 죄와 불의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 각종 오염으로부터 구별된다는 것(겔 20: 9-12)이고, 그래서 몸을 구별할 동안은 거룩하다(민 6: 8)는 말이다. 그래서 부정(不淨)에서 정결(淨潔)로, 그리고 정결에서 성결(聖潔)로 승화하게 된다.<sup>40)</sup> (2)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속한다는 말이다. 너희는 내(여호와) 소유가 되겠고 제

40) P. P. Jenson, *Graded Holiness, JSOT Suppl.* 106 (Sheffield: JSOT Press, 1992), 47ff.

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출 19: 5-6).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성도인 것과 같다(고전 1: 2). (3) 거룩이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말한다(Taboo).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거룩하다. 아간의 행위는 범 죄다(레 27: 28; 수 7: 25).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나 세례자 요한 등이 성인(聖人)에 해당된다(민 6: 1-21). (4) 거룩함이란 시간과 공간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위 모든 것을 포함한다. 즉 거룩함의 네 범주는 ① 성시, 성일(聖時, 聖日) ② 성인, 성전(聖所, 聖殿) ③ 성인, 성자(聖人, 聖者) ④ 성례(聖禮)이다. 그래서 거룩이란 말은 도덕적 가치나 선악을 넘어선 상태를 지칭하고, 어떤 질적상태(quality)나 의식상태를 말하기보다는 역동적이고 위협적인 힘(dynamic and threatening power)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성화(聖化)의 방법에 대하여는 레위기가 성화의 길 7가지를 제시한다.<sup>41)</sup> 첫째,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지킴으로 거룩해진다(출 19: 5-6). 하나님과의 언약대로 삶의 현장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거룩해지는 것이다. 둘째, 레위기 19장은 성화(聖化)의 장(章)으로 부모 공경함으로 거룩해진다. 셋째, 안식일을 준수함으로 거룩해진다. 수난시대에 생존의 방법을 모색한 결과 방법은 오직 성화의 길 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성화의 방법을 역설한 책이 곧 레위기 라바(Leviticus Rabbah)다. 안식일 준수가 곧 민족의 구원을 가져왔다고 한다. 넷째, 레위기의 초점은 나눔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거룩해진다.

다섯째, 레위기 16장(히 9: 13)에 피 흘림으로 속죄함을 받아 부정

을 벗고 거룩해진다. 이의 중요성은 모세오경의 핵심 구조가 이를 입증한다. 오경의 중심은 레위기이고, 레위기의 중심은 16장으로 속죄제물의 피의 희생으로 속죄가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이 규정은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가 우리를 속죄했음을 증언하는 것과 같다(히 9: 11-28). 여섯째, 십계명을 지킴으로 거룩해진다(신 5장; 출 20장). 신약에서는 말씀을 지킴으로 거룩해지는 것(엡 5: 26)과 같다. 일곱째, 거룩한 하나님 계신 곳이 성전이므로 주일에는 성전에 가야 한다. 성소는 세속과 구별된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성일에 성전에서 성직자의 성례에 따라 예배드리는 모습이 거룩의 정점이고, 최대의 복이다. 따라서 전장에 임하는 용사들의 성화가 없으면 여호와의 전쟁에서 승리가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이다.

3) 백성의 지도자들에게는 위기에 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의지신앙이 요망된다.

신명기 17: 18은 나라의 지도자인 왕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여 옆에 놓고 읽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언급한다. 나라의 생존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애굽과 앗수르나 바벨론 사이에 위치해 있으므로 언제나 양 대륙에서 강자가 침공할 때 조공을 바치고 생존권을 보장받았던 나라이다. 아무 죄도 없지만 위협과 침공을 받았던 나라이므로 언제나 생존을 위해 어느 한쪽의 힘에 의존해야만 한다는 사대주의 사고가 팽배해 있었다.

이러한 피할 수 없는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 모든 예언자들이 일

41) 강사문, “구약의 시공간 이해와 제사장 신학,” 『성서학연구원 심포지엄 논문집』 제1권 구약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12), 673-674.

관되게 왕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만을 의존하면 나라의 생존권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외국의 군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존함으로써 생존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역사(歷史)의 주(主)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라의 존립과 안보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과 이스라엘의 동맹전쟁이다(사 7:8장). 주전 734년 앗수르의 남진을 막기 위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동맹을 맺고 남유다에 동맹을 권유했다. 이때 유다의 아하스 왕이 아람-이스라엘의 동맹을 거절하자, 아람-이스라엘 동맹군이 유다를 공격했다. 위기에 처한 아하스는 앗수르에 조공을 바치고 구원을 요청하여 위기를 극복했으나 722년 북이스라엘이 망하자 곧 앗수르의 위성 국가가 되는 등 공격을 받기도 하였다.

이 때 위기 모면책으로 주어진 이사야의 예언이 임마누엘 신앙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이다. 그러나 아하스가 임마누엘 신앙을 거절했기 때문에 패망 일로에 접한 것을 알 수 있다.

믿음은 존재의 근거이다. 나라의 존립 역시 하나님께 의존하고 믿는 신앙 위에 굳게 선다. 이는 출애굽의 홍해사건(출 14: 13-17)이나 아람-이스라엘 전쟁(사 7: 4-14)과 역대하 20: 12-17의 여호사밧의 승리도 같은 신앙에 근거하고 있다. 믿지 않으면 서지 못한다(사 7: 9)는 말은 믿음에 생존과 안보의 근거가 있다는 말이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곧 나라 존립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나라의 생존 여부가 무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

는 것이다.

## VI. 결론

여호와와의 전쟁이란 여호수아 시대에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직접 그의 적들과 싸워 적들을 진멸시키시는 전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편에 설 때만이 우리에게 승리가 있고 국가안보가 보장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그의 장중에 있기 때문에 그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의 편에 서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므로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전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여호와와의 전쟁을 수행하시는 이유는 그의 뜻에 반하는 자들을 진멸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약속의 땅에 살았던 가나안 6/7족속들은 그곳에 정착한 지 4대가 되면서 그곳을 오염시켰고,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여 이방 신들을 섬기는 신앙의 퇴락을 가져오게 한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진멸의 대상이 된 것이다. 진멸(헤렘)이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거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인간이 탐내고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한다. 그래서 진멸이란 여호와 신앙의 회복을 뜻한다. 4대에 걸친 기간 동안, 즉 400년간을 지나는 동안 약속의 땅은 이방신 우상 숭배로 오염될 대로 오염되었으므로 신앙의 청결예식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바, 성경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야 우리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보장됨을 교훈하고 있다.

## Abstract

### Why Does God Carry Out the War of YHWH?

Sa Moon Kang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doctrine and aim of the war of YHWH in the Bible. There are two kinds of war in the biblical war texts: the war of kings and the war of YHWH. The war of kings mainly has been conducted by kings of Israel in order to expand their territories or the benefits of their nations through the military power. The War of YHWH was the war which took place only in the period of Joshua and in the promised land which YHWH had promised to Abraham, Isaac and Jacob by the help of YHWH. This YHWH's war was understood as the divine war which had taken the victories only by YHWH's intervention and guidance in the war fields. Thus In the context of the war of YHWH is to understand as a warrior who is the lord of history who controls war with sovereign power. Thus because of The war of YHWH, the wars are understood as an instrument of God's judgment and salvation.

In the courses of the war of YHWH Herem which means the utterly destruction like the killing fields by Pol Pot took place in the every times of wars. The basic problem is killing and cruelty. Yet, Herem indicates that it belongs to God' portion and God's justice. It means that all those who breathe alive should be dedicated to God like burnt offering, because of their His portion.

The Bible teaches that the war and peace is not the production of human's efforts, but the help of God as the gift of YHWH. And it is



outside of human's control. Thus we need to obey the will of God to become the YHWH' soldiers and people of YHWH to the controller wars and to keep his commandments given to us. This is only a way of living to our nation and people.

#### Key Words

the war of YHWH, Herem, Justices and Judgement, YHWH warrior, the promised land

#### 논문 기고자 Email

smkang@puts.ac.kr

## 반달족의 침공에 대응하는 어거스틴의 목회 돌봄 영성

Augustine's Pastoral Care in response to the Vandal Invasion

» 이규철 Ph. D.\*

#### 국문초록

이 연구는 북아프리카의 교회와 사람들을 참혹하게 유린하는 게르만 반달족의 무력침공에 대응하는 어거스틴의 목회 돌봄 사역의 진면과 그 목회 돌봄 사역에 투사된 교회 사역자로서의 자세를 살펴본 것이다.

어거스틴은 반달족의 침입으로 히포를 비롯한 북아프리카의 교회와 사람들이 총체적 형극에 처했을 때, 교회 사역자로서의 본연의 '목회 돌봄'으로써 난국에 처한 교회와 사회를 위해 헌신했다. 어거스틴은 반달족의 침공을 냉철하게 성찰하면서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자비로우신 아버지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 탄식하고 울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어거스틴은 아프리카 방면 군 사령관 보니파티우스에게 반달족의 침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의로운 전쟁'을 수행하도록 촉구했다. 특히 "반달족들이 교회에 가까이 쳐들어오면 주교나 성직자들은 교회를 버려야 하느냐"는 호노라투스의 질의에 대해 어거스틴은 환난 날에 양 떼를 돌보는 목회사역자의 도리를 진지하게 조언했다.

반달족의 침공에 대응하는 어거스틴의 목회 돌봄은 포시디우스를 비롯한 그 시대의 교회 성도들과 후대의 교회와 크리스천 지도자들에게 위기대응의 크리스천 영성과 영적 리더십의 진중한 롤 모델이 된다.

#### 중심단어

어거스틴, 게르만족의 이동, 반달족의 침공, 목회 돌봄, 영적 리더십

• 논문 투고일: 2021년 8월 31일 • 논문 수정일: 2021년 9월 6일

• 게재 확정일: 2021년 9월 6일

\* 한국군선교신학회 신학연구위원장, 안동성결교회

## 1. 들어가는 말

어거스틴은 반달족의 침입으로 히포를 비롯한 북아프리카의 교회와 사람들이 총체적인 형극의 고난에 처했을 때, 깊은 영성<sup>1)</sup>의 ‘목회 돌봄’<sup>2)</sup>으로 난국에 처한 교회와 사회를 위해 헌신했다. ‘포시디우스’(Possidius)에 따르면, 반달족의 침공에 대응하여 어거스틴이 보여준 목회 돌봄은 신앙적 영성으로 매우 일관적이다. 어거스틴은 반달족의 침공에 대해 “더 깊고 심오하게 성찰”하면서 “그 사건들 속에서 일어나게 될 영혼의 위협이나 죽음을 특별히 예견”하면서 “여느 때와는 달리 밤낮으로 눈물의 빵을 들며 이 어려움 속에서도 깨끗할 수 있도록 자비로우신 아버지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 탄식하고 울면서 기도”했다.<sup>3)</sup> 그리고 동료 주교 ‘호노라투스’(Honorats)가

1) ‘매리 클라크’(Mary T. Clark)는 어거스틴 영성의 특성을 “아바아버지(롬 8: 15)라 부를 수 있는 사랑(*caritas*)을 주심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시는 ‘성령 안에 있는 삶’(Life in the Holy Spirit)”으로 집약한다. Mary T. Clark, “Spirituality,” *Augustine through the Ages*, Ed., Allen D. Fitzgerald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 Co., Grand Rapids, 1999), 814; ‘브래들리 홀트’(Bradley P. Holt)에 따르면, 기독교에서의 영성은 두 가지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하나는 우리의 비육체적 자아가 느끼는 갈증이다. 그 갈증은 순수한 생명수이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하는, 이는 적극적으로 찾는 사랑이다. 이 점에서 기독교 영성은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하되 개인의 생활을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관계와 통합하면서 기도를 통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상호작용하는 특성이다. 브래들리 홀트, 『기독교 영성사』, 엄성옥 역 (서울: 은성, 1994), 12-15.

2) 박기영, 송진영, “팬데믹 상황에서의 목회돌봄 패러다임 연구,” 『신학과 실천』 73 (2021), 510. ‘박기영’과 ‘송진영’에 따르면, 목회 돌봄(Pastoral Care)에 있어 ‘돌봄’은 치료를 의미하는 ‘cura’에서 유래했다. cura는 보살핌(care)과 치유(cure)의 의미를 모두 가진다. 따라서 돌봄은 사람이나 물건을 돌보는 일에 포함된 과제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인 고통을 의미하고, 이 의미가 구체화되어 ‘치료’라는 뜻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라틴 교회에서는 목회 돌봄을 ‘영혼의 치료’(cura animarum)라고 칭했다. 이때 영혼은 인간의 인격성으로서 본질적으로 인간의 몸과 연결되어 있다. 영혼의 돌봄은 1950년대 중반까지 사용되다가 ‘목회적 돌봄’과 ‘목회상담’으로 구분하여 사용되기 시작했다. 목회 돌봄이 전통적인 영혼 돌봄을 포함한 광의적인 돌봄을 비롯하여 비구조화된 상담의 의미를 포함한 반면, 목회 상담은 심리치료적 전통에 기반한 구조화된 만남 속에서 전문적인 돌봄을 의미한다.

3) 포시디우스,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 28, 6., 이연학·최원호 역 (왜관: 분도출판사, 2008),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의 원제는 *Vita Augustini*이다. 이하 각주에서 *Vita Augustini*는 *v. Aug.*로 표기한다.

어거스틴에게 “적들이 교회에 가까이 쳐들어오면 주교나 성직자들은 교회를 버려야 하느냐”는 질의에 ‘참된 사목자에 대한 가르침의 편지’로 답함으로써 환난 날에 양 떼를 돌보는 목회사역자의 도리에 대해 진지하게 조언했다.<sup>4)</sup>

그런데 게르만족의 이동, 특히 반달족의 북아프리카 침공에 대응하는 어거스틴의 목회 돌봄 사역과 그 돌봄 사역에 함유된 어거스틴의 영성에 대한 한국 학계의 연구논문은 매우 미비하다.<sup>5)</sup> 이에 논자는 반달족의 침공에 대응하는 어거스틴의 목회 돌봄을 살핌에 있어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해명하고 규명하면서 귀결에 이르고자 한다. 첫째, 훈족에 의한 게르만족 이동이 로마 사회와 어거스틴에게 끼친 영향은 무엇인가? 둘째, 반달족의 북아프리카 침공 양상은 어떠한가? 셋째, 반달족의 침공에 대응하는 어거스틴의 목회 돌봄의 진면(眞面)과 그 목회 돌봄에 투사된 교회의 사역자로서의 자세는 어떠한가?

본 연구는 ‘목회자가 자신이 부여받은 영적인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성도들의 영과 혼과 육을 돌보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4) *v. Aug.*, 30, 1-2.

5) 게르만족의 이동과 게르만 반달족의 침탈에 대응한 어거스틴의 사역에 대하여 학위 논문을 제외하고 한국의 학술논문은 다음과 같다. 이종호, “게르만 민족 대이동을 촉발시킨 훈족과 韓民族의 親緣性에 관한 연구,” 『백산학회』 66 (2003), 197-246; 손호은, “게르만족의 민족대이동기의 생활상 고찰,” 『인문학논총』 14(1) (2009), 41-61; Ban, Kee-Hyun, “Antonius Pius’ Frontier Revision in Britannia,” 『서양고대사연구』 33 (2012), 191-211; 김철민, “몬테네그로 민족 정체성 논쟁: 발칸반도 정착부터 12세기 초까지,” 『동유럽발칸연구』 36 (2013), 307-333; 이규철, “클로비스의 세례,” 『인문학연구』 47 (2013): 157-184; 홍용진, “4세기 말-6세기 중반 게르만족의 대이동: 침입인가, 이주인가?” 『이주사학회』 8 (2013): 5-20; 김현일, “아틸라 사후 훈족의 동향,” 『세계환단학회지』 2(2) (2015), 30-48; 이규철, “게르만족의 침탈에 대한 어거스틴의 대응,” 『군선교, 청년』 한국군선교신학회논문집 16 (2017), 243-275.

활동이 목회 돌봄<sup>6)</sup>이라는 개념에 입각하여 반달족의 침입에 맞서 초토화된 북아프리카의 교회와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어거스틴의 목회 돌봄의 진면과 교회 사역자로서의 자세를 통전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오늘의 교회 지도자와 크리스천에게 주는 신학적 시사점을 궁구해 보고자 한다.

## 2. 훈족에 의한 게르만족의 이동

훈족에 의한 게르만족 이동이 로마 사회와 어거스틴에게 끼친 영향은 무엇인가? 훈족에 의한 게르만족<sup>7)</sup>의 이동 성격에 대한 사계(斯界) 학자들의 논쟁이 뜨겁다. ‘피터 히더’(Peter Heather)에 따르면, 게르만족의 이동에 대한 학계의 평가는 대략 세 가지 방향에서 이뤄진다. 첫째, 게르만족 이동의 성격을 ‘침입’(invasion)인지 아니면 ‘이주’(migration)로 볼 것인지? 둘째, 게르만족은 문명과는 상관없는 야만족인지 아니면 나름 독자적인 문명을 구축하고 있는지? 셋째, 게르만족이 로마를 멸망시켰는지 아니면 로마 문명을 변형 계승했는지? 히더의 분석에 따르면, 프랑스나 영국계 학자들은 게르만족의 대이동을 ‘야만족들의 침입’으로, 독일계 학자들은 ‘민족 이주’(Völkerwanderung)로 본다.<sup>8)</sup> 분명한 것은 게르만족의 이동이 로마의

6) 박기영, 송진영, *op. cit.*, 510.

7) ‘메시 셰퍼드’(Massey H. Shepherd)는 게르만족을 두 부류로 구분한다. 하나는 동부 게르만족 그룹으로서 ‘동고트족(Ostrogoths), 서고트족(Visigoths), 반달족(Vandals), 부르군트족(Burgundies)’ 등이 포함된다. 다른 하나는 서부 게르만족으로서 ‘프랑크족(Franks), 알레만니족(Alemanni), 앵글족(Angles), 색슨족(Saxons), 롬바르드족(Lombards), 프리시아족(Frisians)’ 등이 포함된다. Massey H. Shepherd, “Christianity and the Fall of Rome,” *A Short History of Christianity*, ed., Archibald G. Bak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3), 50.

8) Peter Heather, *Empires and Barbarians: The Fall of Rome and the Birth of Europ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12-13.

쇠퇴를 부채질했다.

‘존 손더어즈’(John Joseph Saunders)는 당시 대부분의 유럽인들이 “로마 제국을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4개의 위대한 왕국 중에서 마지막 것이기 때문에 결코 제5의 왕국은 존재할 수가 없다”고 여겼기에 로마의 몰락에 대하여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sup>9)</sup> 손더어즈는 이미 허물어진 로마 제국의 조직을 재건하고 회복시켜 보려는 후대의 노력을 이렇게 정리한다.

로마 제국의 칭호는 샤를마뉴(Charlemagne)와 오토(Otto) 황제들 및 중세의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들에 의해서 계속 사용되었다. 심지어 교회까지도 그 환영(幻影)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교회의 권위를 원용하였으니 로마의 『미사 典書』 가운데 오랫동안 수록되어 있었던 예수수난일 기도문은 그 한 예라 하겠다. “모든 정체(正體)의 권세를 한 손에 잡고 계시는 전능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로마 제국을 은혜로 굽어 살피사, 자기 자신의 狂暴한 힘에 의지하는 나라들을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쳐부수어 주시기를 기도하나이다.”<sup>10)</sup>

이규철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민족이동으로 알려진 ‘게르만족의 로마 영내로의 대대적인 침공’(Barbarian Invasion)은 375년경 중앙아시아의 ‘훈족’(Huns, 匈奴)이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지방에 있던 ‘고트족’(Goths)을 압박하는 데서 기인한다.<sup>11)</sup> ‘양하이잉’(楊海英)에 따르면, 훈족과 흉노는 ‘한 뿌리 같은 민족이다.’<sup>12)</sup> 양하이잉은 “만리장

9) 존 손더어즈, “로마의 沒落에 관한 論爭,” 『로마史 研究의 諸問題』, 지동식 편역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1990), 340.

10) *Ibid.*, 341.

11) 이규철, “클로비스의 세례,” 159.

12) 훈족과 흉노가 한 뿌리 같은 민족인 동족 여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이견이 있으나, ‘훈형 술’이 ‘오로도스’(Ordos)로부터 헝가리에 걸쳐 넓게 분포한다는 고고학적 해석에 따라 흉노와 훈족을 동일시한다. 楊海英, 『오랑캐-주변국 지식인이 쓴 反중국역사』, 이상규 역 (파주: 살림출판사, 2018), 147-148.

성 이남의 중국학자들은 흉노를 야만인이며 중국 북쪽의 소수민족 중 하나로 여기지만, 318년 중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등장했고 A.D. 453년 붕괴된 훈 제국(흉노)은 고대 중국의 소수민족이 아니라 흑해와 로마 제국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 세계적인 민족으로서 지금도 몽골 고원의 유목민들은 흉노를 자신들의 선조라고 여겼음을 지적한다.<sup>13)</sup>

‘피터 히더’(Peter Heather)에 따르면, 훈족은 A.D. 370년에 동유럽에 등장한 이래 매우 짧은 시간에 흑해북부로부터 라인 강에 이르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다.<sup>14)</sup> ‘정수일’은 370년경부터 흑독한 한파가 훈족들이 거주하던 지역을 강타하자 훈족은 서쪽으로 대이동을 단행했다고 본다.<sup>15)</sup> ‘몽테스키외’(Montesquieu, Baron de La Brède et de)는 훈족에 의해 게르만 고트족이 밀려나는 것을 이렇게 기술했다.

아조프 해(마이에티스 팔루스)와 코카서스 산맥, 카스피해 사이의 지역에는 대부분 훈족이나 알라니족에 속하는 많은 민족이 살고 있었다. …이들은 아조프 해를 횡단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기에 로마인에 대해 알지 못했다. 그리고 다른 야만족들이 제국을 황폐화시키는 동안, 그들은 무지한 탓으로 주어진 영내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어떤 사람의 말에 따르면, 돈 강(타나이스)을 통해 운반되어 온 진흙이 보스포루스 킴메리오스(아조프 해와 흑해를 잇는 해협)에서 일종의 단단한 표층을 형성하여 훈족이 그곳을 건너갔다고 한다. …무수한 훈족이 건너왔다. 맨 먼저 고트족과 만난 그들은 이들을 앞으로 몰아댔다. 이들 민족은 계속 돌진했는데, 아시아가 유럽을 압박하기 위해 새로

13) *Ibid.*, 148.

14) Peter Heather, *The Goths: the Peoples of Europe* (Oxford: Clarendon Press, 1992), 112.

15) 정수일, 『실크로드학』 (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1), 184-185.

운 중량을 얻은 것 같았다.<sup>16)</sup>

‘자크 르 고프’(Jacques Le Goff)는 게르만족의 대이동을 촉발한 훈족의 치명적인 잔인성을 이렇게 소개한다.

그들은 쇠붙이로 갓 태어난 아기의 얼굴에 깊은 상처를 내어 솜털의 싹을 모두 없애버린다. 그래서 그들은 수염도 매력도 없이 마치 내시처럼 늙어 보인다. 그들은 몸이 땅딸막하고 사지는 건장하며 목덜미는 두텁다. 그들의 육중한 몸매는 공포감을 자아낸다. …훈족들은 음식을 조리하지도 않고 양념도 넣지 않은 채 먹는다. 그들은 갓 태어난 동물의 날고기로 영양을 보충하고는 말 등에 누워서 한동안 휴식을 취한다. 그들은 모자를 사용하지 않듯이 주택도 이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삼베나 쥐털을 나뭇가지로 꿰매서 입는다. 그들에게는 실내복이나 외출복이 따로 없다. 그들은 한번 빛바랜 옷을 입기만 하면 해질 때까지 벗는 법이 없다. …그들은 말 위에서 떠나는 법도 없다. 식사할 때도 음료를 마실 때도 발을 땅에 대지 않는다. 그들은 말을 탄 채 말 목에 기대어 잠을 자며, 이런 자세로 편안히 갖가지 꿈을 꾸다.<sup>17)</sup>

‘시오노 나나미’(塩野七生)는 게르만족들 또한 훈족을 야만인이라고 부르며 두려워했다고 지적한다. 시오노 나나미의 지적에 따르면, 훈족과 게르만족의 차이는 훈족의 ‘다섯 가지 없음의 야만성’에 있다.

첫째, 목적이 없고 목적지도 없다. 따라서 훈족은 임기응변의 전법을 쓸 수 있었다. 둘째, 집을 갖는 것에 관심이 없다. 다만 황금이나 금붙이는 좋아한다. 셋째, 법률이 없다. 그래서 훈족은 윗사람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한다. 넷째, 가족의 수호신이 없다. 이는 훈족이 가족 개념을 중시하지 않으며 ‘볼모’라는 형태의 담보는 훈족에게 통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내일의 양식을 확보해 둔다는 생각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기회만 있

16) 몽테스키외, 『로마인의 흥망성쇠 원인론』, 박광순 역 (파주: 범우, 2007), 194-195.

17) 자크 르 고프, 『서양 중세 문명』, 유희수 역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1), 47.

으면 언제라도 무엇이든 빼앗을 생각부터 한다.<sup>18)</sup>

훈족의 강력한 무력 공세에 굴복한 게르만족의 로마 영내로의 이동은 급기야 로마 천하에 재앙을 부가했다. 자크 르 고프는 “게르만족의 대이동은 로마에로의 침공 성격이 강한 것으로서 농촌의 초토화, 도시의 폐허화와 같은 상처를 잘 아물지 못하게 했으며, 농업의 몰락과 도시의 위축을 가져와 경제적 발전을 저해했고, 인구 감소와 사회 변화를 재촉했다”고 평가한다.<sup>19)</sup>

‘타키투스’(Publius Cornelius Tacitus)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가 게르만족과 처음 만난 것은 게르만족의 고향인 북유럽이 아니라 남유럽에서였다. 기원전 2세기 말 유틀란드(Jutland) 반도 북쪽에 살던 ‘킴브리족’(Cimbri)과 ‘테우토니족’(Teutoni)이 갈리아로 이동하더니 남부 프랑스의 로마 속주와 북이탈리아로 침입해 왔는데, 로마의 ‘마리우스’(Gaius Marius)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이 게르만족을 격퇴했다.<sup>20)</sup>

로마가 게르만족에 대하여 적극적인 공세를 취한 것은 ‘율리우스 카이사르’(Gaius Julius Caesar) 때였다. B.C. 58년 전직 집정관 자격으로 갈리아의 총독으로 부임한 카이사르는 갈리아 전체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영국해협을 건너 켈트족을 격파하고, 갈리아 땅에 정착해 있던 게르만족을 축출했다. 카이사르의 군대는 라인 강에 다리를 놓고 게르만족 세력권으로 진격해 들어감으로써 로마의 무력이 막강함을 게르만족에게 과시하여 역내(域內) 평화를 구축한다.<sup>21)</sup> 카이

18) 堀野七生, 『로마인 이야기 15-로마 세계의 종언』 Vol. 15 (서울: 한길사, 2012), 260.

19) *Ibid.*, 43.

20) 타키투스, 『게르마니아』, 천병희 역 (고양: 도서출판 숲, 2012), 역사 서문 5.

21) *Ibid.*, 6.

사르는 그때의 경험을 기초로 하여 게르만족의 풍습에 관한 것을 그의 『갈리아 전쟁기』(Commentari De Bello Gallico)에 이렇게 기록했다.

게르만인의 풍습은 갈리아인과 매우 다르다. 그들에게는 종교 행사를 주관하는 성직자가 없고 희생제사도 없다. 이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것은 오직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실한 이익이 되는 것, 가령 태양의 신, 불카누스(Vulcanus), 달의 신 같은 것이고 그 밖의 것들은 꾀전으로 흘려버린다. 게르만인은 사냥과 전쟁으로 평생을 보내고 어린 시절부터 힘든 노동과 인내를 추구한다. 그들 사이에서는 가장 오래 동정을 지킨 자가 가장 큰 칭찬을 받는다. 그렇게 하면 키가 더 커진다는 말도 있고, 힘과 결단력을 기를 수 있다는 말도 있다. ...남녀가 함께 강에서 몸을 씻기도 하고, 몸에 걸치는 옷도 몸이 거의 다 드러나는 모피와 짐승 가죽에 불과하다.<sup>22)</sup>

게르만인은 농경에 열의가 없고 우유, 치즈, 고기를 주식으로 한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땅이나 집을 소유하지도 않는다. 남자를 군대에 보낸 가족이나 부족은 관리들과 유력자들로부터 일정 규모의 토지를 배정받지만 일 년 후에는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게르만족들은 이 제도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즉 습관에 사로잡히고 농사에 익숙해짐으로써 호전성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고, 넓은 땅을 욕심내어서 강자가 약자의 땅을 빼앗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고, 추위와 더위를 견딜 수 있는 집을 짓기 위해 지나치게 공들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고, 분파와 다툼을 조장하는 금전에 대한 욕심을 막기 위해서이고, 유력자와 평민의 평등한 소유로 평민들이 만족하며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sup>23)</sup>

게르만 부족들 사이에서 최고의 명예는 영토의 경계 지역에 넓은 황무지를 둔 부족에게 돌아간다. 그것이야말로 이웃 부족들을 영토 밖으로 몰아내고 접근이나 거주를 허락하지 않는 용맹함의 징표라 여기기 때문이고, 또한 불시에 침략을 당할 위험을

22) 카이사르, 『갈리아 전쟁기』 6. 21, 김한영 역 (서울: 사이, 2005).

23) 『갈리아 전쟁기』 6. 22.

제거하여 보다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침략을 당하거나 다른 부족을 침략하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지휘하고 생사여탈권을 갖는 지휘관이 선출된다. 그러나 평시에는 부족 전체를 지배하는 사람을 두지 않고 대신 각 구역과 부락의 지도자가 판관 역할을 하면서 분쟁을 해결한다. 각 부족의 영토 밖에서 벌어지는 약탈행위는 불명예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젊은이를 훈련시키고 나태함을 몰아내기 위해 그런 일들을 장려하는 편이다. …게르만인은 환대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는다. 어떤 이유로든 손님이 찾아오면 그들을 신성불가침의 대상으로 여기고 보호한다. 어느 가정이나 손님을 맞아들이고 함께 음식을 먹는다.<sup>24)</sup>

‘이광호’는 375년경부터 게르만족이 로마 제국의 영내로 이동한 이유를 두 가지로 집약한다. 하나는 인구 증가에 따른 농경지의 부족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372년경 훈족들이 ‘아틸라’(Attila)의 지휘 아래 볼가(Volga) 강을 건너 동고트족을 정복했기 때문이다. 특히 훈족에 의해 동고트족이 정복당하는 것이 결정적 요인이다. 동고트족의 사태에 위기의식을 느낀 서고트족은 376년경 다뉴브 강을 건너 로마 제국의 영토 안으로 이주를 했다.<sup>25)</sup>

게르만족은 처음부터 로마 제국을 멸망시킬 의사는 없었다. ‘다니엘루’(Jean Danielou)와 ‘머로우’(Henri Marrou)는 4세기 말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로마의 역대로 밀려 들어오는 게르만족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였지만, 로마 제국과 게르만족 사이에는 특별한 긴장이나 마찰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본다. 하지만 게르만족이 훈족의 서진(西進)으로 인한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집단적으로 로마의 국경을 넘어

24) 『갈리아 전쟁기』 6, 23.

25) 이광호,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세계문화사의 흐름』 (서울: 도서출판 실로암, 1993), 115.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충돌이 벌어졌고, 양자의 접경지역에 긴장이 고조되었다.<sup>26)</sup> ‘윌리엄 캐논’(William R. Cannon)에 따르면, 당시 유럽 지도는 로마의 국경을 넘어 침입한 게르만족들의 경로에 의해 결정되었다. 훈족을 제외하고 그들은 병사들이자 이민자들로서 자기들이 정복한 지역에 정착하였다.<sup>27)</sup>

게르만족의 침공으로 인해 로마 제국에 일어난 큰 변란 중의 하나는 알라릭(Alaric)에 의한 ‘로마의 침탈’(the Sack of Rome)이다. ‘에티엔느 질송’(Étienne Gilson)에 따르면, 410년 8월 24일, 로마를 침공한 알라릭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3일에 걸쳐 로마를 약탈한 채 4일째 되는 날 수많은 시체와 폐허를 뒤로하고 막대한 전리품을 챙겨 로마를 떠났다. 이로 인해 로마 제국 전역이 받은 충격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알라릭에 의한 로마의 침탈이 로마의 종언(終焉)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로마인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다.<sup>28)</sup>

‘노울즈’(D. Knowles)에 의하면, 로마가 침탈을 당하자 로마 제국의

26) Jean Danielou and Henri Marrou, *The Christian Centuries Vol. 1: The First Six Hundred Years*, tr., Vincent Cronin (New York: Paulist Press, 1978), 411-419.

27) 윌리엄 캐논, 『중세교회사』, 서영일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15. 캐논에 의하면, 오늘날의 독일에 자리했던 반달족은 아리우스주의자들로서 서고트족과 거의 같은 시기에 이동하여 갈리아를 거쳐 에스파냐에 자리 잡고 왕국을 건설하였다. 그들은 북아프리카를 석권한 뒤(429년) 455년에는 로마까지 약탈하였다. 스페인에 자리 잡았던 비시고트족은 반달족과는 다른 길을 걸었다. 이들 역시 아리우스주의자들이었으나, 비시고트족은 6세기경 자기를 국가를 강화하고 계속 유지하기 위해 라틴족 이웃들에 합류하였다. 비시고트족은 주민들의 정통보편적인 그리스도교 신앙을 자신의 신앙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들은 비시고트 왕국의 건국자인 ‘유릭’(Euric, 466-484)의 천재적 정치수완에도 불구하고 고울(Gaul) 지방에서부터 정통신앙을 가진 프랑크 족속들에게 축출되었다. 그리고 비시고트의 왕 ‘알라릭 2세’(Alaric II, 484-507)는 포이투(Poitou)의 부글(Vouglé) 전투에서 클로비스의 손에 참살 당하였다.

28) Étienne Gilson, “Forward,” *Saint Augustine: The City of God*, tr., Walsh and others (Garden City: Image Books, 1958), 16.

많은 지배 계층이 아프리카로 피난을 왔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이 기독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로마의 쇠락에 대한 열띤 논쟁을 벌였다. 이에 북아프리카의 로마 관리이며 독실한 기독교인 ‘마르켈리누스’(Marcellinus)는 자신의 친구이자 히포의 주교 어거스틴에게 로마 몰락의 직접적 책임이 기독교에 있다고 공박해 오는 문제에 대한 기독교의 해명과 반박 차원에서 저술을 부탁했다.<sup>29)</sup> 이런 점에서 어거스틴의 『신국론』(De Civitate Dei, 413-426년) 집필<sup>30)</sup>은 게르만족의 로마의 침탈과 직간접적 관계를 갖는다.

### 3. 반달족의 북아프리카 침공 양상

어거스틴은 그의 생애 속에 로마가 쇠락하여 게르만족에 의해 무참히 공격을 당하는 시대적 참사를 두 번 겪었다. 한 번은 410년 8월 24일 알라릭에 의한 로마의 침탈이고, 또 한 번은 429-430년에 벌어진 반달족의 북아프리카 침공이다. 게르만족에 의한 두 침탈 사건은 영원한 제국으로 여겨진 로마가 쇠망(衰亡)<sup>31)</sup>하는 가운데 벌어

29) D. Knowles, “Introduction,” *The City of God* (New York: Penguin Books, 1972), xv. 노울즈에 의하면, 로마의 침탈을 둘러싼 논쟁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기독교 교리는 이 세상을 거부하라고 가르쳤기에 국가에 대한 봉사를 소홀히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둘째, 로마의 국가적 운명은 항상 다신(多神) 숭배와 연관된 것으로 믿어 왔는데, 기독교의 공인과 전파는 전통적 신들을 배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로써 로마 몰락의 징벌을 받게 되었다.

30) 이규철, “게르만족의 침탈에 대한 어거스틴의 대응,” 257. 이규철에 의하면, 『신국론』은 어거스틴이 알라릭의 로마 침탈 원인에 대한 로마인들의 물음에 그의 역사철학이 투사된 기독교적 변증으로 신학적 해명을 한 것이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로마는 ‘인간의 도성’이다. 그에 반해 ‘하나님의 도성’은 지상의 가시적 왕국이 아니다. 따라서 어거스틴은 알라릭에 의한 로마의 침탈 참사에 대해 지상왕국이 멸망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성은 새로운 지상 왕국들을 사용하며 영원히 존재하는 것임을 설교하고 저술함으로써 시대를 읽는 신학적 목회적 대응을 하였다.

31) 로마의 쇠망 원인에 대해 사계 학자들은 다양한 평가를 한다. 몽테스키외는 로마의 쇠망 원인이 그리스도교와 야만족들에게 있다고 본다. 로마 제국이 쇠퇴해 가는 시기에 국교가 된 그리스도교는 야만족들에 의해 로마 제국이 쇠퇴하게 되었다고 보는 반면, 야만족들은 로마 제국 쇠퇴의 책임이 그리스도교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몽테

진 일이나, ‘겐세리크’(Genseric, 게이세리크)<sup>32)</sup>가 이끄는 반달족의 북아프리카 침공은 어거스틴의 사역 현장에 참사의 직격탄을 날렸다.

반달족의 북아프리카 침공 양상은 어떠했을까? ‘시오노 나나미’(塩野七生)에 따르면, 이집트를 제외하고 로마 시대 ‘아프리카’라고 불리는 ‘마우리타니아’(오늘날의 모로코와 알제리) 전역을 방위하는 데 로마 병사로 이루어진 1개 군단(6천 명)과 거의 같은 수의 보조병력만으로 충분했다. 북아프리카 방어를 책임진 로마 군단은 초대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따서 ‘제3아프리카군단’으로서 200년 동안이나 북아프리카의 안전을 보장해 왔다.<sup>33)</sup> 그런데 5세기에 이르러 북아프리카를 비롯한 로마의 정세는 불안하기 그지없었다.

당시 로마황제 ‘발렌티니아누스 3세’는 8세였기에 모후 ‘갈라 플

스키외, *op. cit.*, 210; ‘헌팅턴’(E. Huntington)은 로마 제국의 멸망원인을 기후변화와 농업의 피폐에 있다고 지적한다. E. Huntington, “Climatic Change and Agricultural Exhaustion as Elements in the Fall of Rome,”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31 (Harvard University Press, 1917). 지동식, 『로마 제국은 왜 멸망했는가』(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7), 71에서 재인용; ‘웨스트만’(W. L. Westermann)은 일반적 차원에서 로마의 쇠망 원인을 여섯 가지로 집약한다. 곧 고대의 노예제, 인구의 감소, 고대의 세제, 귀족층의 계속적인 동방으로의 유출, 그리스도교, 야만족의 이동 등이다. W. L. Westermann, “The Economic Basis of the Decline of Ancient Culture,”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XX (1915). 지동식, *Ibid.*, 115-116에서 재인용; ‘에드워드 기번’(Edward Gibbon)은 제국으로까지 팽창했던 로마의 융성에 이은 쇠락은 한마디로 “비정상적인 팽창의 필연적 결과”였다. 에드워드 기번, 『로마 제국쇠망사』, 강석승 역 (서울: 동서문화사, 2011), 411.

32) 장 카르팡티에, 프랑수아 르브룅, 『지중해의 역사』, 강민정·나선희 공역 (서울: 한길사, 2006), 167. ‘장 카르팡티에’(Jean Carpentier)와 ‘프랑수아 르브룅’(François Lebrun)에 따르면, 에스파냐 지역을 차지한 반달족은 서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결질을 지휘해 온 ‘가이세릭’에 의해 429년 5월 재규합된다. 가이세릭은 타리파(에스파냐 남단의 항구도시)에서 이민족들과 토착민들로 구성된 8만 명을 에스파냐계 로마인들에게서 동원한 배로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 ‘탕헤르’ 항 근처에 닿는다. 거기서 그들은 동쪽으로 나아가 430년에는 ‘보네’까지 점령하고, 439년에는 소맥 저장소인 카르타고를 점령한다. 이들은 455년에 로마를 약탈하고 에스파냐, 이탈리아와 그리스 해안을 기습한데 이어 서지중해 연안과 동로마제국 간의 교류를 위협했다. 지중해를 장악했던 반달족은 동로마 황제 ‘유스티아누스’가 재건한 강력한 해군에 의해 553년 궤멸된다.

33) 塩野七生, *op. cit.*, 227.

라키디아(Galla Placidia)가 섭정을 했다. 갈라 플라키디아는 ‘아프리카 방면 군사령관’(magister militum per Africae)인 ‘보니파티우스’(Bonifatius, Boniface)가 분리 독립을 꾀한다는 소문을 듣고 황제가 머물고 있는 ‘리벤나’로 보니파티우스를 소환했다. 허나 보니파티우스는 황제의 소환에 불응했다. 이에 격분한 갈라 플라키디아는 2개 부대 토벌군을 보냈지만 이들은 여지없이 보니파티우스에게 격퇴를 당한다. 하지만 갈라 플라키디아는 이에 멈추지 않고 고트족 장수가 이끄는 두 번째 토벌군을 보냈다. 이때 보니파티우스는 두 번째 토벌군을 격퇴시키기보다 회유하는 전략을 폈다. 여기에 더하여 갈라 플라키디아가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보니파티우스는 북아프리카에서 자기 세력 강화를 위해 에스파냐의 반달족에게 병사를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요청을 받은 반달족이 다른 야만족들과의 세력 다툼에서 밀리는 형세가 되었기에, 반달족 족장 겐세리크는 1개 부대가 아니라 거족적(擧族的)으로 보니파티우스의 요청에 응했다. 반달족들은 형세가 불리해진 이베리아 반도를 버리고 북아프리카에서 정착지를 찾을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한 것이다.<sup>34)</sup> 그런데 ‘에이드리언 골즈워디’(Adrian Goldsworthy)는 “보니파티우스가 반달족과 공모하여 이들을 아프리카로 끌어들이었다는 주장은 그저 중상모략일 뿐”이라고 본다. 에이드리언 골즈워디에 따르면, 이민족 집단과 동맹을 맺는 경우는 흔했지만 반달족이 그를 지원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sup>35)</sup> 어쨌든 반달족 약 10만 명이 429년 봄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 북아프리카에

34) *Ibid.*, 231-232.

35) 에이드리언 골즈워디, 『로마 멸망사』, 하현희 역 (서울: 루비박스, 2012), 422.

상륙했다.

사태가 매우 심대하게 중함을 깨달은 보니파티우스는 자신이 회유한 고트족 출신 장수와 야만족 병사들과 함께 북아프리카에 상륙한 반달족을 요격하러 갔다가 예상치 못한 사태에 봉착한다. 가톨릭 교도한테 이단으로 차별받고 배척당해 온 도나투스파 기독교도들이 겐세리크가 이끄는 반달족에게 가세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당시 반달족은 아리우스파였는데, 도나투스파는 같은 이단인 반달족과 힘을 합쳐 가톨릭 교회에 맞섰다. 여기에다가 기독교도가 아니기에 이등시민 취급을 받아온 ‘마우리타니아’(Mauritanie, 무어인) 사람들과 사막의 베르베르인까지 반달족에 가세했다.<sup>36)</sup>

보니파티우스가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은 1만 정도였다. 이 정도의 군력으로 반달족 연합 군세를 막기에는 중과부적이었다. 따라서 보니파티우스와 북아프리카 로마군은 히포 레기우스를 방패로 1년 2개월 동안 반달족 연합군을 저지했지만 역부족이었다.<sup>37)</sup> ‘데이비드 프라이’(David Frye)는 429년 반달족들이 북아프리카에 당도했을 때, 북아프리카인들은 로마에서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었던 반면 그들이 반달족에게 받은 피해는 매우 파괴적이었다고 이렇게 밝힌다.

반달족은 도시 성벽 밖에 엄청난 시체더미를 남겼고, 그들의 공격을 견뎌낸 사람들은 시체 썩는 냄새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반달족은 아프리카를 근거지로 삼아 내면 봄에 이탈리아와 시칠리아를 공격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곳곳의 도시들을 파괴하고 도시민들을 노예로 삼았다. 주교들은 마태복음 10장 23절(내가 한 곳에서 박해를 받거든 다른 곳으로 피하라)이 그들에게 회중을 버

36) 塩野七生, *Ibid.*, 233-234.

37) *Ibid.*, 235.

리라고 허락한 것인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곡과 마곡에 관한 이야기가 떠돌았다. 그러나 시민들의 저항은 계속되지 못했다. 로마의 속주 카르타고에서 도시민들은 그들 주변에서 함락되는 도시들의 참상을 외면했고 여전히 경주와 서커스에 몰두했다. 439년 반달족이 카르타고를 함락한 날에도 무심히 서커스를 보러 간 카르타고 주민들이 있었다.<sup>38)</sup>

### 포시디우스는 그 시대의 크리스천의 시각에서 반달족 연합 군세의 북아프리카 침공을 이렇게 기술한다.

얼마 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갖가지 무기로 무장하고 전쟁에 숙달된 대규모 군대가 몰려왔다. 잔인한 원수인 반달족과 알라니족<sup>39)</sup>이 다른 혈통의 고트족과 연합한 그 군대는 배를 타고 에스파냐 바다 건너편에서 아프리카로 침입했다. 침략자들은 마우리타니아 지방을 두루 거쳐 우리 지방과 지역을 지나면서 온갖 포악한 짓을 저질렀다. 약탈, 학살, 갖은 고문, 방화, 헤아릴 수 없이 극악한 만행과 같이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저지르며 약탈했다. 그들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주교들이나 성직자들뿐 아니라 교회의 장식물이나 제구, 교회 건물마저도 모조리 휩쓸어 버렸다.<sup>40)</sup>

### 포시디우스는 어거스틴과 함께 반달족에 의해 빛어진 상흔을 직접 돌아본 교회(苦懷)를 이렇게 기술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파괴된 도시들을 보셨고 시골에서도 마찬가지로 파괴된 건물과 더불어 잔인한 원수들에게 살해되거나 도망가고 흩어진 주민들, 그리고 주교와 성직자들에게 버림받은 교회들, 뿔뿔이 흩어진 거룩한 동정녀들과 수도승들을 보셨다. 그들 가운데 더러는 고문을 이겨내지 못했고, 더러는 칼에 맞아 죽었

38) 데이비드 프라이, 『장벽의 문명사』, 김지혜 역 (서울: 민음사, 2020), 184.

39) 알라니족은 북카프카스에 있는 이란계 기마민족으로, 4세기 후반 훈족에 패한 뒤 일부가 서쪽으로 이동해 반달족의 북아프리카 건국에 참여했다. 몽테스키외, *op. cit.*, 200.

40) *v. Aug.*, 28. 4-5.

으며, 더러는 노예로 전락하여 영혼과 육신의 온전함과 신앙을 잃어버린 채 악랄하고 가혹한 대우를 받으면서 원수들을 섬기고 있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는 교회에서 사라졌고, 수많은 지역의 교회 건물은 불타버렸으며, 합당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장엄한 희생제는 그쳤고 더 이상 거룩한 성사를 청하는 사람도 없었으며, 설령 청한다 할지라도 성사를 집전할 사람을 쉽게 구할 수도 없었다.

야산이나 암벽굴이나 동굴 또는 다른 요새에 피신한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잡혀 죽었고, 더러는 헐벗고 생활필수품이 부족해서 굶어 죽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적들에게 붙잡히지 않았거나 붙잡혔다가 탈출한 교회 지도자들과 성직자들마저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채 아주 비참하게 알몸으로 구걸해야 했으며, 궁핍한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조금도 채워 줄 수 없었다.<sup>41)</sup>

당시 반달족이 저지른 만행은 ‘반달리즘’(Vandalism)이라는 용어가 지 생성했다. 윌리엄 케논에 의하면, 반달족은 잔인한 아리우스주의자들로서 정통신앙을 가진 주민들을 간헐적으로 핍박하였다. 반달족을 이끌었던 겐세리크는 마지못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였으나, 그의 후계자 ‘후네릭’(Huneric, 477-484년)은 가혹하고 계속적인 박해를 가하였다.<sup>42)</sup>

시오노 나나미에 의하면, 히포를 방어하던 보니파티우스와 휘하 병사들을 태운 선단이 항구를 떠나자 이 도시의 운명은 결정되었

41) *v. Aug.* 28. 7-9.

42) 윌리엄 케논, *Ibid.* 반달족은 아리우스주의 이외의 다른 신앙 고백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짓고 신도들과 정통교회들의 재산을 몰수하였다. ‘카르타고’(Carthago)에 자리잡은 총대주교의 권위 아래 아리우스주의는 북아프리카 반달왕국의 공식적 국교로서 채용되었다. 그렇지만 아리우스주의자들은 534년 동방제국 황제 ‘벨리사리우스’(Belisarius)의 원정에 의한 왕국의 멸망과 함께 탄압을 면치 못하였다. 반달족의 역사란 겨우 1세기 내에 국한된 것으로서 후세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였다.

다. 반달족에 의해 도시를 에워싼 성벽이 파괴되는 굉음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어거스틴은 430년 8월 28일 향년 76세로 생애의 막을 내렸다.<sup>43)</sup>

#### 4. 반달족의 침공에 대응하는 어거스틴의 목회 돌봄

반달족의 침공에 대응하는 어거스틴의 목회 돌봄의 진면과 그 목회 돌봄에 투사된 교회 사역자로서의 자세는 어떠했는가? 포시디우스의 *Vita Augustini*는 반달족의 무자비한 침탈에 의해 북아프리카의 교회와 사람들이 무참히 살육당하는 백척간두의 참상에서 어거스틴이 보여준 위기대응의 목회 돌봄을 자세히 전한다.

##### 1) 고난에의 성찰과 의연한 믿음의 리더십

포시디우스는 반달족의 침탈에 직면한 어거스틴이 일반 다른 사람들이 갖는 공포의 통념에 머무르지 않고 사태의 상황을 냉철히 살피면서 재난의 고통을 함께 짊어졌다고 이같이 밝힌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원수들의 이처럼 잔인한 폭력과 파괴가 왜 일어났고 또 왜 일어나고 있는지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느끼고 생각하였다. 그분은 이 일들을 더 깊고 심오하게 성찰하시면서 그 사건들 속에서 일어나게 될 영혼의 위험이나 죽음을 특별히 예견하셨다. 왜냐하면 “지식에 다다른 자는 고통에 이르며 지혜로운 마음은 뼈를 깎는 고뇌”라고 쓰여 있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어느 때와는 달리 밤낮으로 눈물의 빵을 드셨으며 그 누구보다도 슬프고 쓰디쓴 인생의 마지막을 연만하신 몸

43) 塩野七生, *op. cit.*, 241-242. 시오노 나나미에 의하면, 도나투스파의 보복을 두려워한 히포의 신도들은 어거스틴의 시신을 배에 실어 은밀히 '사르데냐'(Sardinia) 섬으로 피난시켰다. 하지만 중세 사르데냐 섬을 습격한 사라센 해적들이 어거스틴의 유골을 탈취하고 그것을 되찾으려면 몸값을 요구했다. 몸값을 치르고 신자들의 손에 돌아온 유골은 북이탈리아의 '파비아'(Pavia) 교회에 성유물로 보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으로 겨우 지탱하고 참아내셨다.<sup>44)</sup>

특히 어거스틴은 재난의 참혹함을 비관하는 염세주의를 거부하고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는 담대한 믿음의 마음을 유지했다.

어거스틴께서는 이러한 재앙 가운데 (다음과 같은) 현자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위로하셨다. “나무와 돌이 떨어지고, 죽을 존재가 죽는 것을 대단하게 여기는 자는 위대한 사람이 못 된다.”<sup>45)</sup>

‘피터 브라운’(Peter Brown)에 의하면, 어거스틴이 위안을 얻은 그 현자의 말은 ‘플로티누스’(Plotinus)의 “나무 막대기와 돌이 무너지기 마련인데 그것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고 사람이 죽기 마련인데,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위대한 사람이 아니다”<sup>46)</sup>를 인용한 것이다.

이처럼 재난의 참상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목회 삶의 현장에 밀려온 고난의 상황을 성찰하며 고통을 함께하는 어거스틴의 모습은 “악한 일 발생을 허락하신다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선을 행하실 것을 우리는 올바른 신앙고백으로 믿어야 한다”는 어거스틴의 평소 지론과 일치한다.

갓가지 악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해도, 하나님이 선을 행하실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이는 오직 의로운 판단을 통해서만 이를 허락하시기 때문이다. 정말이지, 의로운 것은 모두 다 선하다. 비록 악한 일이 악한 일인 한에 있어서 선한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것뿐 아니라 악한 것

44) *v. Aug.*, 28. 6.

45) *v. Aug.*, 28. 11.

46) Plotinus, *THE ENNEADS*, I, iv, 7. 피터 브라운, 『어거스틴: 생애와 사상』, 차중순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627에서 재인용.

도 존재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선하다. 전능자에게 그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쉬운 것인 만큼, 그가 원하지 않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도 쉽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는다는 우리 신앙고백의 시작부터가 위험해진다. 하나님을 ‘전능자’라 부르는 것이 참인 단 하나의 이유는,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행하실 수 있고, 그 어떠한 피조물의 의지에 의해 전능자의 의지의 유효성이 방해받지 않는 데 있다.<sup>47)</sup>

반달족의 침탈로 인한 재난의 고통을 성찰하며 의연한 믿음으로 견지하는 어거스틴의 목회 돌봄은 주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고난의 십자가를 함께 나눠지는 영적 지도자의 의연한 리더십을 표명한다고 사료된다.

## 2) 눈물의 중보기도

포시디우스에 의하면, 어거스틴은 재앙에 굴레에 예속된 이들을 위해 뜨거운 눈물의 기도와 중보를 멈추지 않았다.

대단히 지혜로우셨던 그분께서는 이 모든 재앙에 날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다. 그 당시 보니파티우스 방백의 방어 덕분에 고트족 연합군에게서 아직은 무사했던 히포 지역을 적들이 포위해 오자 그분의 눈물과 탄식은 더욱 커졌다. 이 도시는 거의 열넉 달 동안 포위되어 있었고, 바다로 가는 길도 막혀 버렸다.

우리도 다른 동료 주교들과 가까운 곳으로 피신하여 포위 기간 내내 함께 있었다. 우리는 “주님, 당신께서는 의로우시고 당신의 법규는 바릅니다”(시 119: 137)이라고 아뢰며, 바로 우리 눈앞에

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에 관해 자주 대화하고 성찰하곤 했다. 똑같이 고통을 겪고 있던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곳곳할 수 있도록 자비로우신 아버지와 모든 위로의 하나님(고후 1: 3)께 탄식하고 울면서 기도하곤 했다.<sup>48)</sup>

한번은,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재앙의 시기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도시가 적들의 굴레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와 다르다면, 당신 종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굳센 힘을 주시거나, 아니면 저를 이 세상에서 거두어 당신 곁에 받아들여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가르치셨고, 그때부터 우리는 그분과 우리 모든 신자와 도시의 주민들과 함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똑같은 기도를 바쳤다.<sup>49)</sup>

포시디우스에 따르면, 어거스틴은 그의 생명의 기운이 다하는 날까지 “자신과 그 도시를 위하여 눈물 섞인 기도를 때에 맞춰 드렸다.”<sup>50)</sup> 특히 어거스틴은 반달족의 침략으로 환난 당하는 성도들의 기도 요청에 기꺼이 기도하여 주었는데, 어거스틴은 사랑의 목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그분은 사제로 계실 때나 주교로 계실 때나 악령이 들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시면, 기도 중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은총을 청하셨고, 결국 악령이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갔음을 나는 알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분께서 앎아누워 계실 때에도 누군가 자신의 병든 친척을 그분께 데리고 와서 치유를 위한 안수를 청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께서는 당신께서 이러한 일을 하는 능력을

47) Aurelius Augustinus, *THE ENCHIRIDION, ADDRESSED TO LAURENTIUS; BEING A TREATISE ON FAITH, HOPE AND LOVE*, 96, PHILIP SCHAFF, ED., *A SELECT LIBRARY OF THE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Vol. III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 CO., 1993). 이하 *A SELECT LIBRARY OF THE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는 *NPNF* 라고 표기한다.

48) *v. Aug.*, 28. 12-13.

49) *v. Aug.*, 29. 1-2.

50) *v. Aug.*, 29. 3.

가졌더라면, 가장 먼저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가 꿈속에서 환시를 보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 주교에게 가서 안수를 받으면 나를 것이다”라고 말하더라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그분은 망설임 없이 (안수를) 해주셨다. 주님께서는 즉시 그 환자를 낮게 해주셨고, 환자는 그분을 떠나갔다.<sup>51)</sup>

특히 어거스틴은 교회의 사역자로서 교우들에게 중보기도를 강조했는데, 『요한 서간 강해』(IN EPISTOLAM IOANNIS AD PARTHOS TRACTATUS, 416년)에서 중보기도를 호소하고 역설한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요일 2: 1). 그러면 거룩한 사람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할 수는 없습니까? 주교들이나 위정자들이 백성을 대신하여 간구할 수는 없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통치자들이 백성들의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골 4: 3). 사도는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백성들은 사도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 모든 지체들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sup>52)</sup>

어거스틴의 생의 최후를 곁에서 지켜본 포시디우스의 증언에 의하면, 어거스틴은 430년 8월 28일 76세를 일기로 임종하던 시점에서 의사도 독서를 금한 연고로 ‘참회의 시편’을 적은 종이를 벽에 붙여 놓고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함으로써 생을 정리했다.

51) v. Aug., 29. 4-5.

52) Aurelius Augustinus., 『요한 서간 강해』, I. 8, 최익철 역 (왜관: 분도출판사, 2012). 포시디우스에 따르면, 어거스틴은 ‘항상 응답되는 기도’의 특권에 대해 강조하면서 “우리는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주시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선이 되는 것을 주심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요한 서간 강해』, 6. 7-8.

그분께서는 아무리 세례를 받고 칭송받는 그리스도인이나 사제로 살았다 할지라도, 마땅하고 적합한 참회 없이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가족 대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곤 했다. 돌아가시게 될 마지막 병환 중에 당신 스스로도 그렇게 하셨다. 그분께서는 참회에 관한 다윗의 시편을 짧게 옮겨 적게 하시고 그 종이를 벽에 붙이게 하신 다음 침대에 앉아누워 계시면서 날마다 그것을 곱곰이 되새기고 읽었으며, 뜨거운 눈물을 끊임없이 흘리셨다. 육신을 떠나기 열흘 전쯤부터 당신께서는 아무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으셨다. 그분은 당신 곁에 있던 우리에게 요청하시어 의사들의 왕진하는 시간과 음식을 날라오는 시간 외에는 아무도 당신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렇게 지켜 행하였고 그분께서는 모든 시간을 기도에 바치셨다.<sup>53)</sup>

이처럼 깊은 기도의 사역자인 어거스틴은 반달족이 침입한 고난 속에 유명을 달리하는 그 순간까지 환난을 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영혼을 다한 중보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영성을 견지했다.

### 3) 아프리카 방면 군사령관에게 ‘의로운 전쟁’ 수행 촉구

포시디우스에 따르면, 어거스틴은 아프리카 방면 군사령관 보니파티우스에게 ‘의로운 전쟁’(Just War)을 수행하여 반달족의 침공을 격퇴할 것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내면서 적극적으로 아프리카의 평화를 모색했다.

보니파티우스, 내 말을 들어 보시오! 아니, 그보다는 내 입을 빌려 주 하나님께의 말씀을 들어 보시오! 그토록 많고도 심한 재앙이 그대에게서 유래하였는데 내 무슨 말을 하여야겠소? 그대는 그렇게 행동할 만한 당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요. 나로서는 양편 이야기를 다 들어 볼 기회가 없었으니까 판단을 내릴 수는 없겠소. 그런데 말이요. 보니파티우스, 왕년의 황제 친위대장, 지금은 아프리카 속주의 총독으로 그토록 막강한 군대와 권력을 쥐고 있는 당신이 아프리카에 와 있는데 야만족들이 저렇

53) v. Aug., 31. 1-3.

게 초토화하면서 진군할 수 있었으리라는 것을 누가 예견을 했겠소? 누가 그런 일이 생기기라고 두려워들 했겠소? 그토록 사람이 많이 살던 지방들을 야만족들이 무인지경으로 만들면서 진군해 오고 있으니 말이오. ...야만족들이 아무런 저지를 받지 않은 채로 아프리카에서 저지르는 지리한 파괴를 두고 무슨 말을 하겠소? 당신은 곤경에 처한 일신상의 입장만을 걱정하고, 이 같은 재앙을 물리치는 데는 아무런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으니 말이오.<sup>54)</sup>

‘이규철’에 따르면, 어거스틴은 A.D. 427년 반달족의 침공에 대응하는 군사적 소집의 도덕적 적합성을 찾고 있던 보니파티우스에게 편지를 보내어 사랑이 율법의 핵심임을 환기시켰다. 특히 어거스틴은 침략해 들어오는 군사적 적을 물리치기 위해 싸우는 것은 기도로써 영적인 적과 싸우는 것과 거의 동일하다며, 전쟁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다면 그 전쟁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서 어거스틴은 보니파티우스에게 “비록 전쟁 중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요구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정복한 사람들에게 평화의 가치를 인식시키기 때문이다.<sup>55)</sup>

어거스틴에게 있어 지상의 평화는 깨어질 수 있기에 항상 불안하

54) Augustine, *Letter*, 220, 7, *NPNF*, Vol. I, 어거스틴이 보니파티우스에게 보낸 편지는 이외에도 *Letter* 185, *Letter* 189 등이 전해진다.

55) 이규철, “어거스틴과 정당한 전쟁,” 『군선교신학』 9 (2011), 126-127. 이규철은 어거스틴의 정당한 전쟁론의 본질적 구형(構形)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전쟁의 궁극적 목적은 평화의 달성에 있다. 둘째, 정당한 전쟁은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을 목적으로 하는 전쟁이다. 셋째, 신약에 나타난 평화주의적 표현이 결코 구약의 성전(聖戰)이나 징벌 전쟁과 상치되는 것은 아니라 상호보완적이다. 넷째, 지상에서 평화 유지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와 그리스도교의 관계는 배타적이지 아니라 협력적인 관계이다. 다섯째, 전쟁의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모든 전쟁이 정당한 것은 아니다. 여섯째, 전쟁은 하나님의 창안물이 아니다. 도리어 전쟁의 궁극적 책임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여러 악들’에 있다. 일곱째, 실질적인 전쟁 결정권은 국가의 원수(왕)에게 있다. 여덟째, 비록 법적으로는 정당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만큼 자신의 목숨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아홉째, 정당한 전쟁론의 구형은 하나님의 도성과 지상의 평화의 연동성에 있다.” *Ibid.*, 132-133.

다. 하지만 천상의 평화는 궁극적인 안식과 행복이 영원하다. 이에 어거스틴은 천상의 평화 유지를 위해 지상 평화의 파괴가 불가피하다면 그것이 전쟁이라 할지라도 용인될 수 있다<sup>56)</sup>고 강조한다.

4) 교회 지도자들에게 참된 사역자로서의 위기대응 목회 돌봄을 강력히 권고

어거스틴은 고난에 처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참된 목회 사역자로서의 위기대응 목회 돌봄을 강력히 권고한다. 포시디우스에 의하면, 반달족의 공세가 강화되자 ‘티아베나(Thiabensis) 교회 주교 호노라투스’가 어거스틴에게 “반달족이 교회에 가까이 쳐들어오면 주교나 성직자들은 교회를 버려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묻는”<sup>57)</sup> 질문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다.

어거스틴은 호노라투스에게 보내는 답신에서 목회 돌봄의 예시를 제시하며 교회지도자로서 적합하게 목자의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단호하게 요청한다.

만약 누군가 이러한 경우에 도망하여, 그리스도의 양 떼들에게 필요한 영적 양식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그는 샅꾼입니다. ‘그는 양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늑대가 오는 것을 보고는 도망해 버립니다.’...지혜롭고 거룩하였던 하나님의 종들은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고, 올바른 마음의 목표를 정하고, 전혀 그 힘을 잃지 않고, 이들을 비웃는 자들을 향하여 힘 있게 대항하였습니다.<sup>58)</sup>

56) Augustine, *THE CITY OF GOD*, XIX, 12, *NPNF*, Vol. II.

57) *v. Aug.*, 30, 1. 호노라투스가 어거스틴에게 보낸 편지에서 예견하는 교회의 정황은 매우 비관적이다. 어거스틴이 전하는 호노라투스의 예측은 이러했다. “만약 우리들이 교회당에 남아 있다면, 이게 감독들이나 혹은 신자들에게 무슨 유익을 가져올지 알 수 없습니다. 남자들은 죽고, 여자들은 유린당하고, 교회당은 불타고, 우리들은 우리가 갖지도 않은 것을 요구하는 고문 아래서 기절할 것입니다.” *v. Aug.*, 30, 16. 호노라투스의 편지는 오늘날까지 전해지지 않았다. 단지 호노라투스에게 보낸 어거스틴의 답장만이 남아 있다.

58) *Letter*, 228, 1.

포시디우스는 호노라투스의 질문에 대한 어거스틴의 답장 편지를 *Vita Augustini* 30장에 수록해 됨으로써 교회가 펴박을 받는 상황에서 교회의 지도자가 취해야 할 적합한 행동준칙을 후대 교회 지도자에게 제시했다.<sup>59)</sup> ‘도날드 코코란’(Donald Corcoran)은 목회 돌봄에 대한 어거스틴의 그 같은 서신을 성직자들의 영적 향상을 지향하는 영적 지도(指導)라고 평가한다.<sup>60)</sup> 이러한 환난에 직면한 성도들과 교회를 돌보는 목회 사역자의 자세에 대한 어거스틴의 지도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롬 12: 15)는 바울의 지침에 근거한 것으로서 목회 사역자들과 양 떼들의 떼 수 없는 결속관계 유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사료된다.

#### 5) 최후까지 헌신을 다하는 경건한 사역자로서의 본을 보임

어거스틴은 삶의 불꽃이 다하는 최후까지 헌신을 다하는 경건한 사역자로서의 본을 보였다. 어거스틴은 히포의 주교로서 사역하는 동안 많은 성직자를 양성하였고 수도원을 세웠다.<sup>61)</sup> 포시디우스

59) 펴박 상황에서 목회자의 적합한 처신에 대한 호노라투스의 질의에 대한 어거스틴의 위기대응 핵심지침은 다음과 같이 집약된다. 첫째, 교회의 사역자들은 사람들의 피난책(避難策)을 간구하되 교회를 돌보고 지키는 목회자의 직무에 충실할 것을 원칙으로 삼으라. 둘째, 환난에 직면한 교회의 사역자들은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마 10: 23)는 말씀의 적용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라. 셋째, 환난에 직면한 성직자가 피난에 오를 수 있는 경우는 “거기에 더 이상 자신들이 섬길 그리스도의 백성이 없을 때, 또는 같은 이유로 피신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성직자들이 필요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이다. 넷째, 돌보아야 할 성도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를 돌보는 직무를 저버리고 도피하는 자는 샅꾼에 불과한 ‘단죄 받을 도주자’이다. 다섯째, 환난의 극심함을 두려워하여 굴복하는 자들에게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라. 여섯째, 환난의 때 일부의 성직자라도 생존해야 할 이유가 있음을 주지하라. 일곱째, 환난에 처한 성직자들이 피난을 가지 않고 성도를 위해 서로 남겠노라고 자원하여 선포 결정하기가 곤란할 때는 토론을 하되 이도 여의치 않을 경우 제비뽑기를 하라. 이규철, “게르만족의 침탈에 대한 어거스틴의 대응,” 262-269.

60) 도날드 코코란, “영적 지도,” 『기독교 영성(1)』, 유해룡 등 역 (서울: 은성, 1997), 709.

61) 이규철에 따르면, 하나님께로 회심한 어거스틴은 금욕적 삶을 결단(『고백록』 VIII, 12, 30)한 이래 언제나 수도적 생활을 하였고, 많은 저작들을 저술하는 등 수도생활의 지성화를 도모하였다. 대표적인 것으로, 어거스틴은 『수도자들의 노동』(*De opere*

에 따르면, 특히 어거스틴은 반달족의 침공이라는 전운이 감도는 비상한 상황에서 그의 필생의 저술들을 손질<sup>62)</sup>하여 교회의 도서관에 비치하는 등 교회의 풍성한 내적 자양분이 되는 지적 자산을 구축하고 확장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분은 교회에 넉넉한 성직자들과 남녀 수도원들을 남게 해주셨는데, 거기에는 함께 수행하는 사람들이 넘쳐났고, 그곳 도서관들은 어거스틴과 다른 성인들의 책과 저술로 가득 찼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되고, 신자들은 그분을 언제나 살아 계신 분으로 만나게 된다.<sup>63)</sup>

‘피터 브라운’(Peter Brown)에 따르면, 어거스틴은 책을 통해 “작은 도시를 크게 만드는 사람”으로서 도서관에 파묻혀 살았다.<sup>64)</sup> 특히 브라운은 어거스틴이 자신의 여가를 “거룩한 성경 속에서 운동하면서 보내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브라운에 의하면, 어거스틴은 구약성경의 역사서에 대한 통독에 집중하려는 듯했고, 어거스틴의 은총과 자유의지에 관한 견해는 사도 바울의 사상에서 발

*monachorum*, 400년)이라는 책을 썼다. 이는 중세 수도 생활의 표어인 ‘기도하라 그리고 일하라’(Ora et labora)의 실제 기원이 되었다. 401년 어거스틴은 『거룩한 동정』(*De sancta virginitate*)을 저술했다. 이를 통해 어거스틴은 봉헌된 동정성과 절제에 관한 가르침을 남겼다. 같은 시기에 쓰여진 ‘서간 243’은 수도생활의 봉헌에 대해 설명한다. 410년경 어거스틴이 그가 사역하는 주교좌 교회에서 한 시편 132(133)편에 관한 설교, 425-426년 사이에 선포된 설교 355, 356 등은 후대 수도 생활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이규철, “타가스테 공동체의 영성,” 『모래와 함께 살던 사람들-故방성규 박사 추모논문집III』 (서울: 기독교영성연구소, 2010), 160-163.

62) *v. Aug.*, 30, 1. 포시디우스에 따르면, 어거스틴은 유명을 달리기 직전까지 그가 저술한 책들을 다시 보정했다. 그 책들은 회심한 어거스틴이 아직 평신도로서 지낼 때 저술한 것들과 사제와 주교로서 사역할 때 저술한 것들이다. 어거스틴은 교회의 관행과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기술했다고 여긴 것은 무엇이나 스스로 고치고 바로잡아 두 권으로 된 『책들의 수정본』(*De recensione librorum*)을 펴냈다. 이 『책들의 수정본』은 『재론고』(*Retratationes*)라고 통칭된다. 『재론고』는 반달족의 침공 전인 426-427년에 완성되었다.

63) *v. Aug.*, 31, 8.

64) 피터 브라운, *op. cit.*, 630.

전시켰다.<sup>65)</sup> 브라운은, 포시디우스가 지적한 것처럼, 무엇보다도 도서관 그 자체가 눈길을 끌었다고 지적한다.<sup>66)</sup> 서가에는 어거스틴의 저작 73종이 놓여 있었다. 브라운은 “어거스틴이 후대에 자신과 동일한 확신에 도달한 성숙한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저서를 전체적인 안목에서 읽어 줄 것을 바랐으리라”<sup>67)</sup>고 본다.

어거스틴이 자신의 저작들로 교회의 풍성한 내적 자양분이 되는 지적 자산을 구축하고 확장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는 동안에도 반달족의 공세는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포시디우스에 의하면, 어거스틴은 외적 고통이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430년 8월 28일 생을 마감했다.

돌아가시게 될 마지막 병환 중에 당신 스스로도 그렇게 하셨다. 그분께서는 참회에 관한 다윗의 시편을 짧게 옮겨 적게 하시고 그 종이를 벽에 붙이게 하신 다음 침대에 앉아누워 계시면서 날마다 그것을 곰곰이 되새기고 읽었으며, 뜨거운 눈물을 끊임없이 흘리셨다.<sup>68)</sup>...당신의 마지막 병환 때까지 끊임없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고 힘차게 맑은 정신과 건전한 판단력으로 설교하셨다. 육신의 모든 지체를 지켜보면서 기도하는 중에 성경에 쓰인 대로 행복한 만년(晩年)을 보내시다가 당신 성조들과 함께 잠드셨다(왕상 2: 10). 우리가 참석한 가운데 시신을 안치하기 위한 성찬제를 하나님께 바친 후 묻히셨다.<sup>69)</sup>

65) *Ibid.*, 630.

66) *Ibid.*, 631. 피터 브라운에 따르면, 어거스틴의 그 저서들은 232권의 날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도서관에는 어거스틴의 서신 다발과, 아마도 그를 칭송하는 사람들이 속기록으로 쓴 설교선집들로 가득 메워져 있었다.

67) *Ibid.*, 635.

68) 이즈음 어거스틴이 줄곧 목상한 ‘참회에 관한 다윗의 시편’이 어떤 시편을 가리키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전통적으로 참회에 관한 다윗의 시편은 일곱 편(불가타역 6, 31, 37, 50, 10, 129, 142)이다. 어거스틴은 참회에 관한 그의 설교에서 시편 31편, 50편, 129편만 인용했는데, 아마도 이 세 시편 가운데 하나일 것으로 추정된다. *v. Aug.*, 31. 2. 역자 각주 136 재인용.

69) *v. Aug.*, 31. 3-5.

최후까지 헌신을 다하는 경건한 사역자로서의 본을 보인 어거스틴을 끝까지 보좌하고 지켜본 포시디우스는 교회의 신실한 사역자 어거스틴의 필생의 목회 돌봄 사역을 이렇게 증언한다.

사실 진리의 빛 안에서 확인되었듯이, 어거스틴의 저술은 그분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소중한 주교였으며, 공교회의 믿음과 사랑과 사랑 안에서 올바르게 온전하게 사셨다는 것을 드러내 준다. ...그분은 하늘나라의 보물에서 새것도 꺼내고 옛것도 꺼내는 박식한 율사요(마 13: 52), 값진 진주를 발견한 다음 가진 것을 팔아 그것을 구입한 상인(마 13: 44-46)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십시오”(약 2: 12)라는 말씀도 바로 그분을 위해서 쓰인 것이었다. 구세주께서도 이런 분을 가리켜 “그렇게 행하고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며”(마 5: 19)라고 말씀하셨다.<sup>70)</sup>

실로 어거스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적 조명을 받은 사람이요 마음에 거룩한 불을 품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세상에 속한 것들을 부인하고 마음의 밭에 묻혀 있는 보물을 캐내어 소유하고 영혼의 촛불을 밝혀...영원한 생명의 학문에 땀 흘려 하나님 나라를 알고 얻고자 한”<sup>71)</sup> 교회의 경건한 사역자이다.

## 5. 나가는 말

이상에서 북아프리카의 교회와 사람들을 참혹하게 유린하는 게르만 반달족의 무력침공에 대응하는 어거스틴의 목회 돌봄 사역의 진면과 그 목회 돌봄 사역에 투사된 교회 사역자로서의 자세를 살펴보았다.

70) *v. Aug.*, 31. 9-10.

71) 니케포루스, “맑은 정신과 마음 지킴에 관하여,” 성산의 성 니코디모스, 고린도의 성 마카리오스 편, 『필로칼리아(5)』, 엄성욱 역 (서울: 은성, 2007), 17.

무엇보다도 반달족의 침공에 대응하여 어거스틴이 보여준 목회 돌봄에 대한 포시디우스의 기술은 매우 일관적이다. 어거스틴은 반달족의 침입으로 히포를 비롯한 북아프리카의 교회와 사람들이 총체적 형극에 처했을 때, 교회 사역자로서의 본연의 '목회 돌봄'으로써 난국에 처한 교회와 사회를 위해 헌신했다. 어거스틴은 반달족의 침공을 냉철하게 성찰하면서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할 수 있도록 자비로우신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 탄식하고 울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어거스틴은 아프리카방면 군사령관 보니파티우스에게 반달족의 침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의로운 전쟁'을 수행하도록 촉구했다. 특히 "반달족들이 교회에 가까이 쳐들어오면 주교나 성직자들은 교회를 버려야 하느냐"는 호노라투스의 질의에 대해 어거스틴은 환난 날에 양 떼를 돌보는 목회 사역자의 도리를 진지하게 조언하는 등 영적 지도에 힘썼다.

반달족의 침공에 의해 북아프리카의 교회들과 사람들이 무수히 참담한 죽음을 당하고 무자비한 피해를 입는 절대적 위기상황에서 보여준 어거스틴의 목회 돌봄은 포시디우스를 비롯한 그 시대의 교회 성도들과 후대의 교회와 크리스천 지도자들에게 위기에 대응하는 크리스천의 영성과 영적 리더십의 진중한 롤 모델이 된다. 특히 반달족의 침공에 대응하여 어거스틴이 보여준 신앙적 목회 돌봄의 자세는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해 풀잎처럼 스러지고 황폐해진 삶의 정황에서 있는 교회 지도자들과 그리스도교 공동체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본이 되고, 후대를 위한 역사의 거울이라 사료된다.

## Abstract

### Augustine's Pastoral Care in response to the Vandal Invasion

Kyu Chul Lee

This study examines the true face of Augustine's pastoral care work in response to the armed invasion of the Germanic Vandals, who are horribly ravaging the churches and people of North Africa, and the attitude as a church worker projected into the pastoral care work.

When the Vandals invaded the churches and people of North Africa, including Hippo, and the church and people in North Africa were in a total crisis, Augustine devoted himself to the church and society in crisis through his natural "pastoral care" as a church worker. As Augustine soberly reflected on the Vandal invasion, he did not stop groaning, weeping and praying to his merciful Father and God for all comfort, so that he could persevere in the midst of the shimmering shadow of death. Augustine urged Bonifatius, the commander of the African army, to wage a "righteous war" to actively counter the Vandal invasion. In particular, in response to Honoratus' question, "Should the bishops or clergy abandon the church when the Vandals invade the church?", Augustine gave serious advice on the duty of a pastor to take care of the sheep in the day of trouble.

Augustine's pastoral care in response to the Vandal invasion serves as a serious role model for Christian spirituality and spiritual leadership in crisis response for Posidius and other church members of the time, as well as future church and Christian leaders.

**Key Words**

Augustine, Germanic peoples, Vandal's Invasion, Pastoral Care, Spiritual Leadership

**논문 기고자 Email**

revphdlee2365@naver.com

**이야기심리학의 이해와 군상담에의 적용**

The understanding of Narrative Psychology and It's application in Military Counseling

» 김상만 Ph. D.\*

**국문초록**

본 연구는 이야기심리학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군성직자에 의한 군상담에의 적용을 다루고 있다. 1장은 장병 상담에 적합한 심리치료 이론 중 하나로서 이야기심리학을 소개하고, 이야기심리학이 왜 장병 상담에 적절한 이론인지에 대한 설명으로 연구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2장은 이야기심리학자인 매카담스의 이론을 이야기심리학에서의 이야기의 의미, 이야기심리학의 위치, 이야기심리학의 발달 구조 6단계, 이야기심리학의 핵심질문 14가지 등으로 소개하였다. 3장에서는 이야기심리학의 치료효과를 연구결과물들을 토대로 검토하였고, 군상담에의 적용 사례로 7명의 용사들을 대상으로 이야기심리학 14가지 핵심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분석하여 치료효과를 검증하였다. 4장 결론에서는 임상 결과로 나타난 이야기심리학의 12가지 치료적 효과와 이야기심리학을 보다 효과적으로 군상담에 적용하기 위한 몇 가지 문제제기로 마무리하였다.

**중심단어**

군성직자, 군상담, 이야기심리학, 부적응 용사, 인생 그래프

• 논문 투고일: 2021년 10월 1일

• 논문 수정일: 2021년 10월 5일

• 게재 확정일: 2021년 10월 7일

\* 한국군선교신학회 실행위원, 연세대 상담코칭학(Ph.D.), 예)군종목사

## 1. 들어가는 말

현재 지구상에는 심리치료 이론이 4백여 개 이상으로 추산된다.<sup>1)</sup> 이러한 이론들 중에 자아정체성의 성취가 주요발달과업인 10대 후반과 20대 초반<sup>2)</sup>의 장병들에게 가장 적합한 이론<sup>3)</sup> 중 하나가 이야기심리학이다. 이야기심리학은 전 생애사를 성찰하는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초기 성인기를 살아가는 장병들에게 역할 혼란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효과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야기심리학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군성직자에 의한 군상담<sup>4)</sup>에의 적용<sup>5)</sup>을 다루고자 한다.

## 2. 이야기심리학의 이해

### 2.1 이야기심리학에서 이야기의 의미

모든 인간은 이야기를 가진다. 이야기에는 그 사람의 삶의 흔적과 의미, 그리고 정체성이 담겨 있다. 인간은 이야기를 떼어 놓고 살아가갈 수가 없다. 왜 이야기가 필요한가? 이야기에는 의미가 담겨 있

1) 권석만, 『현대심리치료와 상담이론』 (서울: 학지사, 2012), 524.

2) 김상만 외 공역,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열 번의 성장』 (서울: 학지사, 2021), 32.

3) 본 연구자는 “군상담의 이해와 발전적 제안”(『군선교신학』 11권, 2013)에서 군상담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이론으로 “발달심리학과 이상심리학”, “대상관계이론과 가족치료”, “개인상담과 집단상담”, “예술심리치료(미술치료, 무용/동작치료, 음악치료, 사이코드라마)”, “체계이론과 전인건강” 등이라고 제시하였다.

4) 본고에서 군상담이란 군성직자가 장병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반 선도 및 상담활동을 말한다. 물론 군대 내 상담활동에 참여하는 군간부를 비롯한 전문상담관 등에게도 해당되겠지만 본 연구는 군성직자에 의한 군상담을 목표로 하고 있다.

5) 본 연구자는 “군성직자에 의한 군상담에의 적용”을 본 한국군선교신학회 논문집을 통해 아래 목록과 같이 지속적으로 소개하였다. “군인교인 신앙성장을 위한 목회상담 임상사례”(2권), “군상담의 이해와 발전적 제안”(11권), “가족미술치료 난화기법의 이해와 적용”(12권), “노래치료 중심 표현예술심리치료 경험분석”(14권), “PTSD 이해와 군상담에의 적용”(17권), “위기상담의 이해와 군상담에의 적용”(18권), “예술심리치료의 이해와 군상담에의 적용”(19권).

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이야기심리학에서 말하는 이야기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야기에는 이야기하는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의 다양한 감정들이 실타래처럼 복잡하지만 일정한 질서 가운데 담겨 있다. 희망의 이야기, 기쁨의 이야기, 미래에 성취하고픈 꿈 이야기, 살아온 삶의 이야기, 그리고 영향을 받은 문화와 사회, 경제적인 위치가 담겨 있다.

둘째, 이야기에는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기능이 있다. 이야기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다. 이야기를 빼면 무의미하고 건조한 삶이 된다. 삶의 의미와 이야기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이야기를 통해 삶을 배우고 자신의 삶을 표현할 수 있다.

셋째, 이야기에는 삶을 설명해 주는 상징과 은유가 있다. 이야기를 통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야기는 인간의 삶에 틀과 의미를 제공해 주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 이야기를 통해서만 그 사람의 세계를 파악할 수 있고, 현실의 세계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이야기가 인간의 삶을 설명해 주는 가장 근원적 은유의 기능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간들에게는 이야기하는 욕구가 존재한다. 이 욕구는 인간성 깊숙이 자리하는 본능과 같은 것이어서 어떤 인간도 이 본능적 욕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은 이야기하는 동물이므로 집단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이 존재한다.<sup>6)</sup>

6) 매카담스, 『이야기심리학』, 양유성 외 공역, (서울: 학지사, 2015), 25.

## 2.2 이야기심리학의 위치

이야기심리학자 매카담스는 심리치료 이론을 크게 네 가지로 범주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무의식의 의식화”가 치료라는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정신역동적 범주이다. 프로이트와 융으로 대표되는 이 방법론에 의하면, 인간은 한마디로 알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존재이다. 인간 내면에 깊숙이 도사리고 있는 무의식의 정체를 파악하고 해석해야만 올바르게 인간을 이해하는 길을 찾게 된다고 말한다.

둘째 범주는 “행동하는 동물”로서 인간을 이해하는 행동치료적 관점이다. 인간은 예측 불가능한 신비스러운 존재가 아닌 개인과 환경 사이에 끊임없이 상호교류하며 행동하는 존재이기에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자신만의 적응방식을 선택하고 그것을 학습함으로써 살아가는 행동하는 동물이라는 견해이다. 행동심리치료 계열이 이에 속한다.

셋째 범주는 “발달심리학적 시각”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다. 인간은 각각의 발달 단계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다. 발달 단계에 따른 과업이 있고, 그 과업을 성취했느냐 아니면 실패했느냐에 따라 삶의 내용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인간은 기질이나 자라온 성장의 과정과 환경, 각자의 발달 단계들에 따라 인격의 내부 안에 외부의 사건을 인식한다. 발달 단계에 따라 기본적 해석의 구조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그 구조 속에서 외부의 실재를 인식하고 반응한다는 것이다.

넷째 범주는 인간을 “이야기하는 존재”로서 보는 것이다. 인간은 심층에 의해 작동되는 것만으로도, 행동에 의해 결정되는 것만으로

도, 그리고 발달 단계의 이슈에 의해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에서 출발한다. 모든 심리학의 제 방법론을 수용하며, 동시에 인간의 삶이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통해 통전된 삶의 이야기로 구성되는지 묻고 답을 찾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인간은 자신이 속한 상황과 문화의 모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결코 백지상태로 존재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문화와 사회의 영향을 받으며 자신에 대한 이해를 구축해 가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를 매카담스는 심리학적 인간이해의 핵심이며 이야기심리학이 제반 심리치료 이론에서 차지하는 위치라고 말한다.<sup>7)</sup>

## 2.3 이야기심리학의 발달구조

권석만은 모든 심리치료 이론을 평가할 있어 기준을 다섯 가지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좋은 심리치료 이론은 내담자의 심리내적 문제와 그 치료에 대한 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내담자의 문제와 치료원리를 아주 적은 수의 명료한 개념으로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주요한 심리치료 이론이 되려면 반드시 과학적인 연구결과에 근거하고 있어야 한다. 넷째, 핵심적인 심리치료 이론은 반드시 유효한 치료효과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좋은 심리치료 이론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치료효과를 거두는 경제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8)</sup>

권석만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매카담스의 이야기심리학 이론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매카담스는 발달적 시각에서 이야기하는 자의 발달구조를 6단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7) *Ibid.*, 35-43.

8) 권석만, *op. cit.*, 39-40.

첫째, 1단계는 0세부터 2세까지 해당되는데 “이야기의 음조”라고 구분된다. 매카담스는 이야기의 음조가 바탕이 되어 삶이 형성되어 가기 때문에 유아기 시절에 경험하는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이해하는 첩경은 이야기의 음조를 파악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의 경험의 이야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이다. 이야기의 음조는 희극적(comedy), 낭만적(romance), 비극적(tragedy), 역설적(irony)으로 구분한다. 희극적 이야기 음조를 가진 자들의 삶의 이야기에는 언제나 신선한 자극이 있고 다른 이들과 관계와 연합성을 중요시하는 요소가 담겨 있다. 낭만적 이야기 음조를 가진 자들은 정열적이고 모험심과 함께 적극성을 갖고 있어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도전하고 성취하기를 염원하는 특징이 있다. 비극적 이야기 음조 가진 자들은 삶과 세상을 보는 태도 속에 이 세상은 행복과 불행이 뒤섞여 있으며 마침내는 죽음과 파멸로 끝나고 만다는 태도를 갖고 있다. 역설적 이야기 음조를 가진 자들은 삶은 비극도 희극도 아닌 혼합된 복합물이라고 보는 입장을 갖고 있다.

둘째, 2단계는 3세부터 6세까지 해당되는데 “이야기의 형상”을 만드는 시기이다. 매카담스는 어린아이들의 이야기에는 동화 속 주인공들과 그들의 배역, 무대 등의 상징적 이미지들이 담겨 있고, 그것들이 그들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의 아이들은 그들이 경험한 이미지들과 그들이 되고자 하는 상상 속 자아 이미지와 연관 지어 기억하고 해석하는 특징이 있다.

셋째, 3단계는 7세부터 13세까지 해당되는데 “이야기의 주제와 주인공”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이때는 심리학적 에너지원이 되는 자신

의 삶의 이야기의 주제를 형성할 뿐 아니라 그 주제에 맞는 주인공들을 수집하여 무의식 속에 깊이 각인시킨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주인공들이 현실의 삶에 등장하거나 특정한 장면 속으로 출현하여 실패와 성공, 행복과 불행, 의미와 권태로움 등의 이야기 줄거리를 형성해 나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넷째, 4단계는 14세부터 18세까지로 “이야기의 사상적 뼈대 혹은 구조”를 만드는 시기이다. 이때는 자아정체성이 확립되며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형성됨으로써 사상적 뼈대와 이야기의 구조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야기를 통해 한 인간이 어떠한 이야기의 뼈대와 구조를 지니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그 인간이 지닌 이야기를 이해하는 필수 불가결한 요인이라고 보았다.

다섯째, 5단계는 19세부터 33세까지 해당되는데 “개인의 신화 만들기” 시기이다. 매카담스는 한 인간이 성인이 된다는 의미는 자신만의 삶의 신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끊임없이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재편집하며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자신이 사는 세계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로 6단계는 33세 이후 시기를 말하는데 “중년의 성숙성의 이야기” 시기라고 한다.

매카담스는 건강한 이야기에는 연속성, 개방성, 신뢰성, 구별성, 화해성, 성숙성이란 이야기의 대본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첫째, 연속성이란 각 발달 단계의 발달 목표에 걸맞은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을 때 건강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둘째, 개방성이란 각 발달 단계에 따른 문화와 환경의 변화와 도전에 민감할 뿐 아니라 창의적으로 대응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추구해 나가는 것을 말

한다. 셋째, 신뢰성이란 비록 한 개인의 이야기 발단에는 그 개인만이 가지는 독특한 삶의 내용들을 편집하고 재편집하는 해석의 과정이 필수적이지만 일관성과 함께 신뢰성이 반드시 공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구별성이란 남이 써준 이야기를 대리해서 살아간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복사해 흉내 내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 개인만이 지닌 삶의 독특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다섯째, 화해성이란 삶의 모호성과 상처를 극복하고 화해하여 이야기의 탄력성과 연속성, 그리고 견고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여섯째, 성숙성이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을 넘어서 자기를 잃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넘어설 수 있는 이야기를 말한다.

매카담스는 타인과 세상에 무언가를 기여하며 공헌하는 건강한 이야기가 존재할 때 비로소 “사랑하며 일할 수 있는” 이야기라 말할 수 있다고 보았다.<sup>9)</sup>

#### 2.4 매카담스의 핵심질문 14가지

매카담스가 제시한 핵심 질문은 7개인데, 두 번째 질문이 내용적으로 8개이므로 총 14개의 질문이 된다. 매카담스는 14가지 핵심 질문을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함으로써 대답하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통해 치료적 경험에 이르게 한다고 보았다. 질문에 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개방하게 된다고 하였다. 물론 14가지 질문을 어떤 대상에게 하느냐와 어떤 조건에서 실시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치료적 효과의 조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매카담스가 제시하는 치료적 효과를 도출해 내는 14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다.

9) 김상만, “예술심리치료를 적용한 이야기심리학이 내담자에게 미치는 효과연구,”(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14-23.

첫째, 삶을 한 편의 책이라 생각하게 하고 그 책들의 장을 분류하게 하여 각 장마다 제목을 정하도록 한다. 장의 구성은 살아온 장소별로, 주요 사건별로, 또는 인생의 주제별 등으로 분류하도록 한다. 둘째, 삶의 성취와 동기를 밝혀 주는 최상의 기억을 말하게 한다. 셋째, 삶의 최저점이라고 생각되는 실패와 상처의 경험을 이야기하게 한다. 넷째, 삶을 새롭게 전환시켰던 경험의 이야기를 하게 한다. 다섯째,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기억되는 가장 오래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한다. 여섯째, 어린 시절의 중요했던 기억들과 그에 얽힌 삶의 이야기를 하게 한다. 일곱째, 사춘기 시절의 중요했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기억들을 이야기하게 한다. 여덟째, 사춘기 시절을 지나 성인이 된 후의 이야기를 말하게 한다. 아홉째, 그 밖의 중요한 삶의 기억들에 얽힌 이야기를 말하게 한다. 열째,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었던 서너 명의 인물들을 기억하게 하고, 그 인물들의 어떤 점이 현재의 삶에 배어 있는지를 말하게 한다. 열한째,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게 한다. 열두째, 아직 자신의 삶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과 갈등에 대해서 말하게 한다. 열셋째, 자신을 지탱하게 하는 신념과 가치관 등을 묻고 답하게 한다. 열넷째, 인생의 커다란 주제를 생각하게 하고, 그것이 만약 책이라고 하면 책 제목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게 한다.

연구 대상자에 따라 14가지 질문을 그대로 하거나 14개의 질문을 여러 형태로 묶거나 흩어서 질문지를 구성하여 사용하기도 한다.<sup>10)</sup>

### 3. 이야기심리학의 치료효과

10) *Ibid.*, 28.

### 3.1 연구결과물에 나타난 치료효과

이야기심리학을 이론적 토대로 하여 치료효과를 제시한 논문들의 내용과 대상을 중심으로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홍경분은 “이야기심리학 관점에서 본 중년 여성의 성숙성과 목회상담의 적용”<sup>11)</sup>에서 이야기심리학이 말하는 중년의 성숙성의 이야기가 무엇이며 목회상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논하고 있다. 즉 이야기심리학의 낙관적 이론이 중년의 성숙성의 이야기 대본을 형성하는 데 유용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또한 전문적인 목회상담가의 필요성, 여성에 대한 구체적 이해와 정확한 인식, 중년은 성숙성의 이야기 대본을 작성할 시기, 중년의 여성은 일, 사랑, 놀이를 병행하고 싶어 하는 나이, 중년 여성들은 성취적이고 관계적인 면에 적응과 조화를 이루고자 함, 중년 여성의 잠재력을 계발하여 성숙성을 가진 중년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함 등으로 새로운 목회상담의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변성미는 “이혼 여성을 위한 목회상담의 한 모델 연구-이야기심리학을 중심으로-”<sup>12)</sup>에서 이혼 여성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자 하는 이야기심리학의 심리전기적 도구를 어떻게 목회상담적으로 접목할지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즉 이혼 여성을 한 인간의 발달 단계 전반으로 바라보는 이야기심리학의 심리전기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목회적 돌봄의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다. 이야기심리학의 심리전기적 접근법이 분열되고 깨어진 삶의 조각들을 연결시켜 이혼 여성들의 전 인생

을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고 재창조할 수 있는 더 큰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게 하는 연구방법론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김형숙은 “목회자 아내의 정체성 연구-이야기심리학적 관점에서”<sup>13)</sup>에서 이야기심리학에 근거한 정체성이론을 중심축으로 하여 목회자 아내들의 정체성이야기에 대한 형태를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토대로 목회자 아내들을 위한 목회상담적 모형의 방법을 모색하였다. 목회자 아내들은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일을 하고 있다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고, 대부분 어려운 환경이지만 자신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고 분석하였다.

이석영은 “군인교회 중년 남성의 성숙에 관한 연구-이야기심리학적 접근-”<sup>14)</sup>에서 매카담스의 핵심질문 14가지를 9개씩 2회로 만들어서 군인교회 중년 남성 4명의 이야기를 담아 성숙성의 대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 중년 남성들은 지나온 삶을 반추해 볼 수 있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 유익했다고 하였고, 모든 중년기 남성들이 이야기심리학의 핵심질문에 응답하는 경험을 했으면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피력하였다.

김상만은 “예술심리치료를 적용한 이야기심리학이 내담자에게 미치는 효과연구”<sup>15)</sup>에서 예술심리치료를 적용하여 여성내담자 6명을 대상으로 14회기 동안 핵심질문을 예술 매체로 표현하게 한 치료

11) 홍경분, “이야기심리학 관점에서 본 중년 여성의 성숙성과 목회상담의 적용,”(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12) 변성미, “이혼 여성을 위한 목회상담의 한 모델 연구-이야기심리학을 중심으로-,”(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13) 김형숙, “목회자 아내의 정체성 연구-이야기심리학적 관점에서-,”(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14) 이석영, “군인교회 중년 남성의 성숙에 관한 연구-이야기심리학적 접근-,”(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5) 김상만, *op. cit.*, 14-23.

효과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첫째, 그림으로 표현함으로써 기억을 구체화하기에 용이하였고, 형상화된 사건들을 위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효과가 있었다. 둘째, 과거의 시점에서 내면의 문제를 해석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현재의 시점에서 내면의 상태를 반영하고 창작을 하도록 하는 특징이 있었다. 셋째, 예술매체로 작품을 만들게 함으로써 내면침투를 위한 과정이 비지시적이어서 저항과 방어 없이 과거의 사건과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특징이 있었다.

박순은 “학대받은 존속살해 무기수의 이야기심리학적 전기”<sup>16)</sup>에서 학대받은 존속살해 무기수의 삶의 이야기를 심리전기적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이야기심리학에서는 흩어져 있는 한 인간의 이야기를 하나의 이야기로 전환시켜 심리학적 이론으로 체계화시킨 것이 심리전기이며, 인간탐구의 새로운 방법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박순은 이야기심리학적 심리전기를 통해 존속살해 무기수의 삶을 “바른생활 십자가 사나이”와 “분노하는 도덕군자”라는 상징어로 표현함으로써 낮은 자존감, 사회 기술의 부족, 감정표현의 어려움, 무력감, 공포증 등의 이야기로 반전시키고 있다.

황해국은 “삼애 배민수 목사의 사회적 성숙성 연구-심리전기적 방법론을 중심으로-”<sup>17)</sup>에서 배민수 목사의 삶을 이야기심리학적 심리전기방법론으로 재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발견된 그의 삶의 이야기를 “사회적 성숙성”이라고 명명하였다. 그의 삶의 주요 주제를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 땅을 위해 헌신하리라”라고 보았고, 그 신념

을 실천하기 위해 “자기 부정”의 삶을 삼애사상-하나님을 사랑하고 농촌과 약자를 사랑하고, 노동을 사랑하고-으로 구체화하였다는 것이다. 그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도출해 낸 “사회적 성숙성”의 이야기는 개인과 사회와 현재적 삶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순환적이며 확장된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신송이는 “집단이야기치료를 통한 양육초기여성의 정체성 변화 경험에 관한 연구”<sup>18)</sup>에서 이야기치료가 양육초기여성의 부정적 정서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정체성의 변화 과정과 경험을 발견하고 의미를 찾으려 하는 돌봄 모형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이들은 집단이야기치료를 통해 이상적 어머니 역할에 대한 신념을 갖게 되었고, 정체성 혼란에 대한 도전을 인지하였고, 그러한 정체성 혼란은 9단계를 거치면서 변화하고 진행된다고 보았다.

양윤정은 “한국 기혼남성의 50대 삶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sup>19)</sup>에서 한국 기혼남성의 50대 삶의 경험을 이야기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면담질문지를 통해 탐색하였다. 면담질문지는 매카담스의 핵심질문 14가지를 일반적인 삶, 중년에 대한 인식과 자각, 과거 삶에 대한 해석, 관계, 일, 미래의 꿈, 죽음 등으로 재구조화하여 제시하였다. 응답을 통해 분석한 50대 기혼 남성들의 삶의 경험 현상을 “할로우 트리 현상”(Hollow Tree Phenomenon)이라고 명명하고, 가부장적인 “체화된 남성성의 대본을 따라 사는 삶”으로 규명하였다. 이를 치료할 대안으로는 새로운 남성성의 개발과 의식화로 보았고, 그것

16) 박순, “학대받은 존속살해 무기수의 이야기심리학적 전기”(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17) 황해국, “삼애 배민수 목사의 사회적 성숙성 연구-심리전기적 방법론을 중심으로-,”(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18) 신송이, “집단이야기치료를 통한 양육초기여성의 정체성 변화 경험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19) 양윤정, “한국 기혼남성의 50대 삶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이 목회적 돌봄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제안하였다.

이상으로 9명의 연구결과물에 나타난 이야기심리학의 치료효과를 살펴보았다. 홍경분은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변성미는 이혼 여성을 대상으로, 김형숙은 목회자 아내들을 대상으로, 이석영은 군인교회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김상만은 언어적 표현이 제한적인 여성내담자를 대상으로, 박순은 자기표현이 어려운 청년을 대상으로, 황해국은 삼애 사상을 실천했던 목회자를 대상으로, 신송이는 양육초기 여성을 대상으로, 양윤정은 50대 남성을 대상으로 이야기심리학의 치료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밝히고 있다. 또한 홍경분은 이야기심리학 이론에서 중년의 성숙성의 이야기를 통해, 변성미는 이야기심리학의 심리전기적 방법론으로, 김형숙은 이야기심리학의 정체성 이론을 바탕으로, 이석영은 이야기심리학 핵심질문 18개를 만들어, 김상만은 예술심리치료를 접목하여, 박순은 감옥에서 보내온 편지를 통해, 황해국은 전 재산을 기증한 것을 통해, 신송이는 산후우울증의 복합감정을 다룸으로써, 양윤정은 50대 남성들의 삶의 무게를 이야기의 내용으로 삼아 이야기심리학의 치료효과를 검증하였다.

### 3.2 연구참여자 이야기에 나타난 치료효과

연구참여자들은 현역 용사들 중에서 복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무 부적응 용사로 군내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석했던 이들에게 선정했다. 연구참여자들에게 면담질문지를 제시하고 그들의 진술을 받았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연구분석 부분은 연구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징과 연구결과 분석으로 구성된다. 연구결과는 각 질문별 응답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로 참여한 용사들은 모두 현역이었고, 나이는 모두 20대 초반이었다. 연구참여자 모두는

전문적인 상담 경험이 없었다. 상담 전에 스스로에게 별명을 붙이도록 했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징〉

	성 별	나 이	입대 전 학력	종 교	상담 경험	별 명
연구 참여자1	남자	22세	대재	천주교	무	달팽이
연구 참여자2	남자	22세	대재	무교	무	락스
연구 참여자3	남자	22세	대재	무교	무	네오
연구 참여자4	남자	23세	대재	무교	무	하루
연구 참여자5	남자	22세	대재	무교	무	짱
연구 참여자6	남자	22세	대재	불교	무	뉴런이
연구 참여자7	남자	23세	대재	무교	무	연

질문 1: 연구참여자에게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게 한다. 연구참여자의 삶을 한 편의 책이라고 생각하게 한다. 그 책의 장들을 분류해 보고, 각 장마다 적절한 제목들(Life-Chapters Question)을 붙여 보도록 한다. 연구참여자 면담질문지에 그 느낌을 적도록 한다. 마치 엄마가 어린아이의 말을 들어 주듯이 질문과 경청을 통해 연구참여자가 이야기를 재구성하도록 하고, 제목을 붙여 보게 하였다.<sup>20)</sup>

20) 김상만, *op. cit.*, 37.

〈표 2. 질문 1 ‘인생구분’에 대한 연구참여자별 분석〉

	제목	내용 요약	핵심어
연구 참여자1	막	1막 0-11세까지 유년기 2막 11-18세까지 소년기 3막 18-20세까지 성인기 4막 20-현재까지 군인의 길	막
연구 참여자2	나이	1-7세 유년기 8-10세 아무것도 모른 채 까불었던 시기 11-13세 어설픈 사춘기 14-19세 최고로 재밌었던 학창 시절 20-21세 성인 그리고 군인	최고의 학창 시절
연구 참여자3	내 인생의 단계	1단계 아기일 때 2단계 유치원일 때 3단계 초등학교일 때 4단계 중학교 때 5단계 고등학교 때 6단계 대학교 때 and 그 밖의 생활	학교
연구 참여자4	배움의 여정	1. 내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2. 중학교 입학하고 졸업할 때까지 3. 고등학교 입학하고 졸업 4. 대학교 입학, 그리고 군 입대 5. 나의 미래계획 6. 인생목표	학교
연구 참여자5	인생 그래프	1장 부모님 곁에서 자라왔던 나 2장 집 떠나 새로운 환경에서 외지생활을 했던 나 3장 군에 입대하여 생활하고 있는 나 4장 바로 내일, 그 후의 나의 인생	생활
연구 참여자6	기억	첫 번째 어렸을 때의 철없던 인생 두 번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을 때의 아까운 인생 세 번째 현재 계획 없는 인생	학교
연구 참여자7	여러 인생	인생이란 자기가 생각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변하고 개척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을 비하하고 싫어하면 아무리 도움이 있어도 행복할 수 없다. 인생이란 지금 환경에 얼마나 순응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가에 따라 다르다.	자신의 생각

분석 1: 연구참여자들 중에 절반 이상은 그동안의 인생의 큰 축이었던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자신의 인생을 구분하였다(연구참여자 2,3,4,6).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이 살았던 장소나 환경의 변화(전학이나 이사 등)를 중심으로 인생을 구분한 연구참여자도 있었다(연구참여자 1,5). 인생의 막(chapter)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인생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연구참여자도 있었다(연구참여자 7).

다음은 매카담스가 제시한 두 번째 질문 내용인데 본고에서는 질문 2부터 질문 9까지에 해당되는데 삶에 얽힌 8가지 중요한 사건들(Eight Key Events)에 얽힌 기억들을 회상해 보도록 인도하는 과정이다. 이 8가지 중요사건들이란 말 그대로 연구참여자의 삶의 이야기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기억의 모습들을 끌어내는 방법이다. 때문에 이는 추상적이기보다 구체적 사건들에 대한 기억을 회상하는 일이고, 때문에 기쁨과 고통의 과정, 숨기고 싶은 기억들을 회상해 내는 과정이란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8가지 중요사건들에 대한 기억의 회상은 말하는 자로 하여금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다시금 되돌아보며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편집 혹은 재편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료적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연구자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기억들의 회상을 통해 흘러나오는 내담자의 이야기 형태, 그에 얽힌 내담자의 감정과 태도 등은 내담자의 삶과 그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조명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전기적이며 심리학적인 자료들을 확보하게 되는 질문들이 된다. 동시에 연구참여자가 이러한 8가지 중요사건들에 얽힌 과거의 기억들을 현재 말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구성하여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분석해 볼 때, 내담자의 “성취와 관계에 얽힌”(Love and Power) 이야기 동기

와 이야기 주제들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 된다.

질문 2: 삶의 성취와 동기를 밝혀 주는 최상의 경험(Peak experience)에 얽힌 이야기를 회상하게 한다.<sup>21)</sup>

〈표 3. 질문 2 ‘최고의 기억’에 대한 연구참여자별 분석〉

	제목	내용 요약	핵심어
연구 참여자1	일상, 친구	중학교 2학년 때, 인생에서 최고의 친구라 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났다. 언제나 의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갔으며, 성격은 달랐지만...같은 날 입대한 친구를 가진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억.	친구
연구 참여자2	아르바이트	21살 때 처음으로 돈을 벌어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필요한 선물을 사드린 기억. 내 손으로 번 돈을 가족에게 써서 최고였다.	첫 월급
연구 참여자3	SF 개봉 영화	수능시험 끝나고 당시 개봉했던 SF 영화를 보기 위해 시험 끝나자마자 영화관으로 달려가 영화 보고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한 것. 이것이 해방이란 것을 느꼈다.	영화
연구 참여자4	행복한 경험들	건강하게 태어난 것, 세월이 흐르고 학교를 다니며 친구들과 어울려 놀던 것, 게임에 빠져 있다가 적당한 나이가 되어 군대에 온 것, 세계 10대 강군 중 하나인 00부대에 온 것	출생, 친구, 군대 등
연구 참여자5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	고등학교 첫 시험에서 중간 정도 성적에 맴돌다가 정말 열심히 공부한 것. 성적이 좋아져서 가 아니라 그렇게 어떠한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마음 잡고 열심히 공부
연구 참여자6	지울 수 없는 기억	핸드폰 문자 보내는 줄 모르셨던 부모님께서 몰래 열심히 배우신 후, 핸드폰으로 '사랑한다 아들이'라는 문자를 보내셨을 때	부모님의 사랑
연구 참여자7	여자친구	특별한 인연 없이 우연히 알게 되어 서로 좋아하고 행복했고, 다른 어떠한 것에도 눈 돌리지 않던 시절	특별한 인연

21) Ibid., 41.

분석 2: 최고의 기억에 있어서는 가족이나 친구, 연인 등 자신에게 가깝고 의미가 되는 사람과 관련된 기억이 많았다. 의미 있는 사람을 만나거나(연구참여자 1,7), 가까운 사람에게 의미가 되는 것을 주거나(연구참여자 2) 받는(연구참여자 6)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 인생에 있어 힘든 시간을 지나거나 새로운 결심으로 돌파했을 때를 최고의 기억으로 꼽는 경우도 있었다(연구참여자 3,5). 그러나 최고의 기억 없이 그냥 즐거운 기억을 나열한 경우도 있었다(연구참여자 4).

질문 3: 삶의 최저점이라 생각되는 실패와 상처의 경험(Nadir experience)을 이야기하게 한다.<sup>22)</sup>

〈표 4. 질문 3 ‘최저의 기억’에 대한 연구참여자별 분석〉

	제목	내용 요약	핵심어
연구 참여자1	최저... 이별	낙천적이라 별로 최저의 기억은 없으나 굳이 이야기한다면 이별이라 하겠다. 가족, 친구, 친척들과의 이별. 수없이 많은 이별을 했지만 아직 익숙해지지 못하는 건...인간이기 때문이겠지...	이별
연구 참여자2	군대	남들 다 오는 군대에 오는 것이라지만...충도 싫고 무기도 싫어하는데 강제로 군대에 끌려왔습니다. 너무 제가 과잉보호를 받은 것 같기도 합니다. 혼자서 무슨 일이든 해야 한다는 것이 제겐 부담인 것 같습니다.	군대
연구 참여자3	배우의 사망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가 000입니다. 갑자기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믿기 힘들 정도로 놀랐고, 충격이 컸습니다. 지금은 많이 사그라들었지만...단 하루라도 그 배우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게 지내기를.	좋아했던 배우의 죽음

22) Ibid., 44.

연구 참여자4	슬픈 기억들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가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가질 수 없었던 것. 나쁜 짓도 많이 했던 나, 아버지에게 많이 맞았던 나.	가난, 나쁜 짓, 아버지
연구 참여자5	아버지의 사업 실패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시고 집에 계시던 어머니도 생계를 위해 일을 나가셨습니다. 나날이 늘어가는 빚. 지금도 축 늘어졌던 아버지의 어깨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극복하고 집안 사정이 좋아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
연구 참여자6	아련한 기억	어렸을 때 아버지와 놀던 기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항상 바쁘게 일하시느라 자주 보지 못하고, 놀지 못한 것	아버지
연구 참여자7	불효	부모님께 실망감을 드렸을 때. 언제나 나를 믿어 주시고,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믿고 따를 수 있는 부모님께 죄를 지어 눈물을 흘리게 하고 아프게끔 했을 때...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해야겠다는 의지와 행동만 가졌었다.	부모님께 실망감을 드렸을 때

분석 3: 최저의 기억 또한 가깝고 의미가 있는 사람과 연관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가까운 사람과 이별하거나(연구참여자 1), 상처를 주거나 혹은 받은 사건이 있었던 경우(연구참여자 4,6,7)가 그것이다. 특이한 점으로 주변의 사람은 아니지만 자신에게 의미가 되는 연예인의 죽음이 최저의 기억으로 꼽힌 경우가 있었다(연구참여자 3). 최저의 기억은 환경과도 관련이 많아서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또한 최저의 기억에 영향을 끼쳤다(연구참여자 4,5). 주목할 점은 현재의 군생활을 최저의 기억으로 표현하는 연구참여자가 있었다(연구참여자 2).

질문 4: 삶을 새롭게 전환시켰던 경험의 이야기(Turing point)를 기억하게 한다.<sup>23)</sup>

23) Ibid., 47.

〈표 5. 질문 4 ‘전환기’에 대한 연구참여자별 분석〉

	제목	내용 요약	핵심어
연구 참여자1	Now	전환기...지금 이 아닐까? 부모와 친구, 사회의 보호 속에서 편안히 자유롭게 지내다가 처음으로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불안감들이 찾아왔지만, 다른 이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적응하며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점.	지금(군대)
연구 참여자2	아버지와 의 싸움	고3 때 아버지와 싸운 적이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었는데, 매일 술 드시는 아버지가 그때는 너무 싫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생각을 하시는 것이었는데... 하여간 그 사건이 저에게 전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의 싸움
연구 참여자3	힘겨운 고3 생활을 끝내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턱걸이로 들어오고, 반에서도 그다지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점수도 안 나오고 미래도 불투명해서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능을 치르고 원하는 대학에 결국 들어가게 되었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기에 결과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때가 전환기가 아닐까 합니다.	대학 합격
연구 참여자4	아버지의 병	아버지가 몸이 아프셔서 어머니께서 대신 일을 나가시게 되었다. 어머니의 직업은 파출부였고 돈을 벌기 힘든 직업이다. 그런데도 나는 용돈을 많이 받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아버지의 병과 어머니의 생계
연구 참여자5	군입대 이후	군입대 이후라 생각합니다. 군입대 전만 해도 말썽 부리지 않고 잘 지내왔고,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군에 와서는 모든 것이 낯설고 작은 일 하나도 서툴러 어려웠습니다. 군입대 전의 희망적인 생각과 각오보다는 이때까지의 실수가 나를 움츠러들게 만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군입대
연구 참여자6	반성	중학교 때부터 전환기가 온 것 같다. 그때부터 가정의 어려움이 있었고, 나름대로 어른이 되어가는 걸 느꼈다.	가정의 어려움

연구 참여자7	군대	군대 오기 전까지는 부모님과 사랑과 돈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살았다. 군에 오고 나서 집을 떠나 살다 보니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정리된 일과를 행하다 보니 그동안 내가 너무 안일하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과 전역 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가지게 되었다.	군대 와서 배운 점
---------	----	---	------------

분석 4: 부모님과 갈등을 겪거나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로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를 전환기로 꼽은 경우가 있었다(연구참여자 2,4,6). 나머지는 모두 대학교 이후 성인기를 전환기로 꼽았다(연구참여자 1,3,5,7). 특히, 연구참여자의 절반가량인 3명이 군 입대를 자신의 인생의 전환기로 보았다(연구참여자 1,5,7).

질문 5: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기억되는 가장 오래된 어린 시절의 이야기(Earliest memory)를 떠오르게 한다.<sup>24)</sup>

〈표 6. 질문 5 ‘최초의 기억’에 대한 연구참여자별 분석〉

	제목	내용 요약	핵심어
연구 참여자1	첫 장	내 기억의 첫 장이라 한다면 내 기억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5초짜리 동영상이라 할 수 있겠다. 어렸을 때 외할머니가 나를 키워 주셨는데, 외할머니께서 내 코를 닦아 주시는 짧은 기억의 단면.	외할머니
연구 참여자2	고모의 귀	어렸을 때 막내고모께서 저를 잘 돌봐주셨는데 어렸을 때 제가 고모의 귀를 만지던 생각이 납니다. 그게 어렸을 때 제 기억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고모의 귀

24) Ibid., 50.

연구 참여자3	7살 때의 사고	최초의 기억은 7살 때 유리창에 얼굴을 박은 사고입니다. 친구랑 놀다가 넘어져서 창문 유리창에 얼굴을 그대로 들이밀어 코에 유리창이 박혔습니다. 옆에 계시던 큰이모가 제 코를 막아 주셨고, 어머니가 옆집 아저씨를 부르러 가신 기억이 납니다. 지금에도 제 코엔 그때의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유리창에 박힌 코
연구 참여자4	어머니와 나	어머니께서 나를 업고 길을 가시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귀엽다고 다들 한 번씩 안아봐줬다고 했다.	귀여움
연구 참여자5	가족소풍	5살 때, 아버지, 동생을 업고 계신 어머니와 댄 유원지에 놀러 가서 음료수를 마시며 즐거워하던 기억이 납니다.	댄 유원지 즐거웠던 가족 소풍
연구 참여자6	아픔	내가 태어난 곳에서 같이 놀던 친구의 얼굴이 생각난다. 이름도 생각나지는 않지만 같이 놀았던 장소가 생각난다.	친구 얼굴
연구 참여자7	가족여행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아주 어렸을 때 가족들과 함께한 여행들이다. 그 여행을 했을 때 행복감과 즐거웠던 추억들	가족 여행

분석 5: 최초의 기억은 어렸을 때 사고를 입은 경우(연구참여자 3)를 제외하고 모두 긍정적인 기억이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이나 관심을 받거나(연구참여자 1,4)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연구참여자 2,5,6,7) 최초의 기억이었다.

질문 6: 어린 시절의 중요했던 기억들과 그에 얽힌 삶의 이야기 (An important childhood memory)를 표현하게 한다.<sup>25)</sup>

25) Ibid., 53.

〈표 7. 질문 6 ‘유년의 기억’에 대한 연구참여자별 분석〉

연구 참여자	제목	내용 요약	핵심어
연구 참여자1	변절	11세를 유년기라 칭한 것은 11세에 이사를 갔기 때문이다. 유치원을 다닐 때부터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애는 나를 피했고, 급기야 아는 척도 안 하는 사이가 되었다. 근 6년을 같이 놀던 친구였는데... 이사 가는 날 내 연락처를 그의 집 문에 끼워놨는데 연락은 오지 않았고, 근래 들어 우연히 그 근처를 가다가 멀리서 그를 보게 되었는데 나는 단지 건강하라는 기도밖에 올리지 못했다.	친구
연구 참여자2	장난감을 좋아하는 나	어렸을 때 저는 장난감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로봇 장난감을 하루에 몇 개씩 사서 놀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명절에는 고모와 새벽부터 자전거를 타고 장난감을 사기 위해 문방구를 돌아다녔던 생각이 납니다.	장난감
연구 참여자3	교통사고	제가 8살 때 아버지와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차가 앞 차와 충돌했는데, 저는 안전벨트를 안 매고 있어서 앞으로 튕겨 나가 왼쪽 다리를 크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연구 참여자4	유년의 기억들	어렸을 때 집 밖에서 놀다가 교통사고가 났었다.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다. 내가 5살 때 동생이 태어났다. 어렸을 땐 귀엽기만 했는데, 요즘엔 크니까 점점 이상해진다. 아버지께서 병이 나니까 짜증이 나서 우리에게 자주 매를 드셨다. 머리에서 피가 난 적도 있었다. 아버지에게 맞는 것도 싫고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싫어서 할머니 집에 살게 되었다.	교통사고 동생 아버지의 매
연구 참여자5	유년기의 추억들	유년기에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별 문제없이 지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하는 것 다 하면서 그렇게 걱정 없이 지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항상 좋기만 했던 분이 바로 부모님 같습니다. 또 항상 어울려 다니던 동네 친구들, 언제나 같이 붙어 다니던 친구들. 지금도 그립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그리운 친구
연구 참여자6	허무함	유년기 시절에는 친구들과 사귀면서 노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때의 성격이 지금까지 전해오는 것 같다.	성격

연구 참여자7	개구쟁이	유년 때 한참 집을 떠나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친구들과 여러 재미있는 놀이를 하며 우정을 쌓고, 그 용돈 500원에 세상을 얻은 듯한 기분을 가졌던 적은 유년기뿐이다.	개구쟁이
---------	------	---	------

분석 6: 유년의 기억은 교통사고와 같은 외부적인 큰 사건(연구참여자 3,4)을 제외하고는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했던 기억, 재미있게 놀았던 기억이 대부분이었다(연구참여자 1,2,5,6). 연구참여자들의 유년기 기억에 있어 긍정적인 기억보다 부정적인 기억이 절반 이상(연구참여자 1,3,4,6)이었으며, 특히 한 연구참여자의 경우(연구참여자 6)에는 유년기의 부정적인 기억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질문 7: 사춘기 시절의 중요했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기억들(An important adolescent memory)을 표현하게 한다.<sup>26)</sup>

〈표 8. 질문 7 ‘청소년기 기억’에 대한 연구참여자별 분석〉

연구 참여자	제목	내용 요약	핵심어
연구 참여자1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이들	11세에 전학을 와서 아는 이 하나 없이 시작했지만 나에게 있는 단 하나의 재주 '좋은 사람을 만나는 재주'가 발동되어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앞서 말했던 친구도 만나게 되었다. 중3 때 또 이사를 가서 고등학교 친구들을 또다시 새로이 사귀게 되었지만 역시 좋은 친구들을 만났다. 고2 때 나에게 바른 어른상을 보여주신 담임선생님을 만났고, 지금의 가치관이나 성격들을 만든 시기였다고 생각된다.	좋은 사람들 만남
연구 참여자2	술	중/고등학교 때 부모님 몰래 술 마셨던 것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집에 들어올 때 얼굴이 붉어져 있어서 부모님께서 너 술 마시고 들어왔지 하시면 집까지 뛰어와서 그렇다고 거짓말 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부모님 몰래 술 마심

26) Ibid., 56.

연구 참여자3	게임	청소년 땀 유달리 컴퓨터 게임을 많이 했습니다. 매일 밤 새벽 늦게까지 컴퓨터 게임을 하고 다음 날 학교에 가서 잠자기 일쑤였습니다. 게임에 엄청 중독되어서 하루라도 안 하면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한테 많이 혼나고 그랬습니다.	게임 중독
연구 참여자4	중고등학교 때의 추억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거의 버스를 타며 통학을 했다. 버스 안에서 졸다가 종점까지 가기도 했고, 종점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집까지 오곤 했다. 고등학교 때 컴퓨터를 사서 게임을 하게 되었는데 밤을 새워 하다 보니 자꾸 졸았나 보다. 중학교 때 가정형편이 좋지 않았던 나는 준비물 같은 것을 잘 챙기지 못했고, 선생님들도 그런 나를 잘 이해해 주셨다. 고등학교 때에는 담임선생님께서 무료 급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다.	버스에서 즐기, 어려운 가정형편과 준비물
연구 참여자5	행복한 기억들	청소년기부터는 부모님의 의지보다는 거의 대부분의 일을 저 스스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문제없이 자랐습니다. 중학생 때 도시락 같이 까먹던 기억, 건물 뒤편에서 매일 말뚝박기를 하던 기억, 그러면서도 항상 웃던 좋은 기억들만 가득한 시절이었습니다.	문제없이 스스로 일함, 좋은 기억만 가득
연구 참여자6	게으름	청소년기 시절에는 시간을 아낄 줄 몰랐다. 그만큼 노는 시간이 많았고 하루하루를 계획하지 않고 살았다.	계획 없이 놀기
연구 참여자7	우정	한창 공부하던 시기, 어찌나 공부가 그리도 싫던지,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피해 이리저리 돌아다녔고, 놀고 웃고 하면서 우정을 많이 쌓았던 시기	우정

분석 7: 사춘기 시절의 기억들은 연구참여자들마다 제각각이어서 일정한 공통점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목직한 기억보다는 에피소드류의 기억으로 청소년기의 기억을 진술한 연구참여자들이 더 많았다(연구참여자 2,4,5,6,7).

질문 8: 사춘기를 지나 성인이 된 후의 이야기(An important adult

memory)를 표현하게 한다.<sup>27)</sup>

〈표 9. 질문 8 '성인기의 기억'에 대한 연구참여자별 분석〉

	제목	내용 요약	핵심어
연구 참여자1	Now	대학 진학을 그다지 고민하지 않았다. 어렸을 때 부터 조리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자격증 공부와 더불어 입대 후에도 취사병이 되어 꿈에 도전중이기 때문에... 집 떠나 오랜 시간을 보냈고, 더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기에 걱정도 되고 불안하지만, 지금의 가치관이나 성격들을 만든 시기였다고 생각한다.	꿈이었던 조리사로의 과정
연구 참여자2	심심함	성인이 되어 술 마시고 싶을 때 다 할 수 있고, 청소년기에 하지 말라고 했던 것 다 할 수가 있으니 그만큼의 스릴감 같은 것이 없어진 것 같아 재미가 없습니다. 졸업을 하고 친한 친구들이 뿔뿔이 흩어져서인지 몰라도 심심하게 지낸 것 같습니다.	심심함
연구 참여자3	대학생활	성인이 되어 딱히 떠올려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저 남들처럼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이랑 술 먹고, 놀고, 공부도 했던...잠시 백화점 주차요원도 했습니다.	평범한 대학생
연구 참여자4	여러 기억들	대학교에 입학했다. OO에 있는 대학교였는데 차비가 만만치 않았다. 어머니께서 용돈을 딱 맞게 주셔도 나는 약간씩 점심을 안 먹으며 아껴 쓰게 되었다. 입학 초기 같은 과 사람들과 함께 술자리에서 실수를 해서 술을 잘 안 마시게 되었다.	통학 차비, 술자리 실수
연구 참여자5	후회	어리석게도 나 자신을 어른이라 규정해 버리고 철없이 행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나에게 똑같은 그때의 행동을 되돌려 받는다면 내 기분은 어떨까 생각도 해봅니다. 군에 가기 직전이란 이유로 그런 계획 없고 방탕한 삶을 한 것도 후회됩니다.	철없는 행동, 후회
연구 참여자6	다짐	성년이 되어 이제 나 나름대로의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며 부지런히 내 할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다. 하지만 잘 지켜지지 못하는 것 같다.	인생 설계와 다짐

27) Ibid., 60.

연구 참여자7	애인	대학도 들어가고 집에서 떨어져 살다 보니 외로움이 생겨 그것이 친구들로는 풀리지 않아 많은 여자들을 접하게 되고 그 여자들 중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 여자와의 행복했던 기억이 남는다.	애인과 행복했던 기억
---------	----	---	-------------

분석 8: 성년이 된 이후의 기억에 있어서 연구참여자들은 뚜렷한 사건이나 목적의식보다는 평범하거나 지루한 일상을 소개한 경우가 더 많았다(연구참여자 2,3,4,5). 긍정적인 기억보다는 중립적이거나 부정적인 기억이 더 많은 것도 특징이라 하겠다(연구참여자 2,3,4,5,6).

질문 9: 그 밖의 다른 중요한 삶의 기억들에 얽힌 이야기(Other important memory)를 표현하게 한다.<sup>28)</sup>

〈표 10. 질문 9 ‘그 밖의 기억’에 대한 연구참여자별 분석〉

	제목	내용 요약	핵심어
연구 참여자1	unknow	그 밖의 기억... 인생의 대부분을 나는 만남이라 생각한다. 그 밖의 기억이라 딱히 정할 수가 없다. 사람과의 만남이 즐거울 뿐...	사람과의 만남
연구 참여자2	여자	지금까지 여자친구를 사귀지 못한 것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여자에게 몇 번 차여 봤는데, 그것 때문에 자신감이 많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
연구 참여자3	다툼	제가 중학교 때 친한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크게 한 번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냥 철이 없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아직까지 화해를 못해 좀 그렇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화해를 하고 싶습니다.	다툼과 화해
연구 참여자4	훈련소	군대에 입대해서 훈련소 동기들과 훈련도 하고 같이 웃고 떠들고 한 것. 솔직히 훈련은 힘들었다. 각개전투 때에는 먼지를 너무 많이 먹은 데다 물도 없어서 힘이 들었고, 탈진도 나고 그랬다. 행군할 때에도 주간 행군 끝나고 바로 몸살이 나서 야간 행군 때에는 군장을 못 맬 정도로 힘들었다.	훈련소에 서의 힘든 훈련과 동기들

28) Ibid., 63.

연구 참여자5	그때 그 친구	초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가 전학을 갔습니다. 그래도 그 친구는 나와 자신의 할머니를 보기 위해 자주 찾아왔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친구를 외면했습니다. 참 많은 충격을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너무 미안한 마음에 입대 전에 연락을 해보려 했으나 연락이 안 되어 너무 안타깝습니다.	친구
연구 참여자6	아름다움	군대 들어오기 전 부모님의 얼굴과 표정이 생각난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표정과 가장 기쁜 표정이 반반씩 섞여 있었다.	
연구 참여자7	사고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그 죄 중에 엄마를 속이고 돈을 얻어 쓰고 나중에 그 사실을 엄마가 알게 되었을 때 엄마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다. 그 안타까운 표정과 힘들어하는 표정 등 너무나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자는 기억을 가지게 되었다.	엄마를 속였다는 사실을 엄마가 알게 되심

분석 9: 그 밖의 기억 또한 연구참여자별로 다양했다. 과거의 사건에 대하여 아쉽거나 안타까워하는 기억을 표현한 연구참여자가 많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연구참여자 2,3,5,7).

질문 10: 삶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준 주요 인물들을 적어도 3-4명 떠올려보고, 그에 얽힌 이야기를 떠올리게 한다. 각 중요인물들에 얽혀 있는 연구참여자의 기억들과 왜 그들을 선택하여 삶의 중요한 영웅의 이미지로서 보관하고 있는지의 의식적 무의식적 이유를 말하게 한다.<sup>29)</sup>

29) Ibid., 67.

〈표 11. 질문 10 ‘영향 받은 인물’에 대한 연구참여자별 분석〉

연구 참여자	제목	내용 요약	핵심어
연구 참여자1	만남	내 인생에 영향 받은 인물.. 딱히 1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타인과 5분만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고 한다. 20여 년을 살면서 내 곁에 있던 가족, 친척, 친구, 선생님들...이들 모두 내 삶과 가치관을 정립시켜 주신 것 같다. 그들을 사랑하고 기억한다.	내 가족, 친구, 친척, 선생님들
연구 참여자2	아버지	아버지는 무척 강하신 분입니다. 어떤 일을 하셔도 그 일을 어느 정상 궤도까지 올려놓으십니다. 저 같으면 포기했을 텐데... 하시는 일을 다 완성시키시니까 저는 아버지를 제일 존경합니다.	아버지
연구 참여자3	부모님	저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분들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없었다면 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은 부모님에게서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
연구 참여자4	수많은 인물들	영향 받은 인물이 아주 많다. 삼국지 게임을 하면서 조조나 유비의 영웅성, 관우와 조운의 용맹함, 제갈량이나 주유의 지략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 또 수호지의 108영웅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인물이라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 링컨이 이런 말을 했다. “내가 성공을 했다면 오직 천사와 같은 어머니의 덕이다.” 내가 정말 성공을 한다면 어머니 덕분에 성공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삼국지와 수호지의 인물들, 어머니
연구 참여자5	아버지	누가 뭐래도 제 아버지입니다. 넉넉한 집에서 태어나지 못해서 어려서부터 고생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렇습니다. 하나도 없이 시작하셨지만 너무나도 힘들게 일구어 놓으신 것들, 그중에서도 있다고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뿌듯합니다.	아버지
연구 참여자6	동반자	내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여자 친구이다. 나랑 성격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여자친구
연구 참여자7	엄마	언제나 감사 주시고 생각해 주고 어렸을 때 공부도 열심히 가르쳐 주신 스승과 어머니의 모정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우리 어머니야말로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다.	어머니

분석 10: 주요한 특징은 7명의 연구참여자 중에서 5명이 자신의 부모님을 가장 영향받은 인물로 꼽았다는 점이다. 그중 부모님 모두 라고 답한 연구참여자는 1명이었으며(연구참여자 3), 아버지라 대답한 연구참여자는 2명이었고(연구참여자 2,5), 어머니라 대답한 연구참여 자도 2명이었다(연구참여자 4,7), 가족보다는 연인을 영향 받은 인물로 꼽은 연구참여자도 있었다(연구참여자 6). 연구참여자 4는 실제 인물 보다는 책 속의 인물에서 더 영향을 받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연구 참여자 1은 계속해서 자신의 주요한 기억이나 영향 받은 인물에 대해 우선 가치를 두어 표현하지 않고 떠오르는 대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표현했다.

질문 11: 연구참여자로 하여금 이제 과거의 회상에서부터 시선을 돌려 미래의 설계에 대해서 표현하게 한다. 이 질문들의 심리학적 동기는 앞서 말한 “삶의 중요한 8가지 사건”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연구참여자의 삶에 대한 꿈과 희망을 말하게 함으로써 그 안에 담긴 이야기의 동기와 주제들을 읽어 내기 위함이다.<sup>30)</sup>

〈표 12. 질문 11 ‘가치관 and 신념’에 대한 연구참여자별 분석〉

연구 참여자	제목	내용 요약	핵심어
연구 참여자1	신념, 의지...	거짓말하지 말자. 매사에 성실하자. 포기하지 말자. 나쁜 기억을 잊어버리자. 배신하지 말자.	거짓말, 포기, 성실, 배신, 기억

30) Ibid., 70.

연구 참여자2	불가능, 그것은 나 약함이다.	이 문구는 한 스포츠 회사의 광고 문구입니다. 그냥 이 문구가 멋있고 저는 항상 이 문구를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일들을 잘못된 것 같은데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연구 참여자3	절대 포기 하지 말자	제가 생각하는 가치관 and 신념은 '절대 포기하지 말자'입니다. 중간에 포기를 해버리면 그것은 인생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쓰러지면 힘닿는 데까지 계속 일어나면 됩니다.	포기
연구 참여자4	노력	열심히 산 자에게는 그만큼의 대가가 있다고 생각한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정말로 승리하는 사람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나에게 있어 최대의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노력, 다시 일어나기
연구 참여자5	완벽주의	저는 완벽주의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만 제 좁은 생각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많은 일을 거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다짐한 일을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해내고 마는 악바리 기질이 있습니다. 이런 신념이 제 인생에 도움 되는 것도 많았지만 해를 끼친 적도 많습니다.	완벽주의, 악바리 기질
연구 참여자6	모름	나의 가치관과 신념을 전혀 모르겠다. 어떻게 하고 생각하는 것은 있지만 아직은 제 자리에 잡혀 있지 않다.	모름
연구 참여자7	나의 신념	전역하면 꼭 전에 생활했던 방탕한 생활을 잊고, 열심히 일해서 부모님과 같이 행복하게 모시고 살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열심히 일함

분석 11: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며 계속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자신의 가치관 또는 신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 진행형인 진취적인 신념이라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당위적인 표현이 더 많았다고 볼 수 있다. 여러 가치관을 열거식으로 나타낸 연구참여자도 있었으며(연구참여자 1), 솔직하게 자신에

게는 아직 가치관이 없다고 밝힌 연구참여자도 있었다(연구참여자 6).

질문 12: 연구참여자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서 아직 풀리지 않은 삶의 문제들과 갈등에 대해서 표현하게 한다. 그동안의 연구참여자와의 이야기를 경청함으로써 형성된 신뢰의 관계를 바탕으로 연구참여자의 삶 속에 담겨 있는 삶의 고뇌와 갈등, 아직 풀지 못한 숙제들, 원망들, 무거운 짐 등에 대한 이야기로 깊이를 더할 수 있게 된다. 좀 더 자유스럽고 무비판적이며 공감적 분위기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참여자에게 깊이 감추어져 있는 그의 내부의 이야기, 갈등과 고뇌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와 장을 가지게 될 수 있고, 이는 연구참여자의 이야기의 입체적 이해에 필수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다.<sup>31)</sup>

〈표 13. 질문 12 ‘풀리지 않는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참여자별 분석〉

	제목	내용 요약	핵심어
연구 참여자1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 세상 만물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까? 나도 언젠간 죽을 것이라는 망상. 하지만 결론은 항상 나온다. '살아 있을 때 잘하자.'	죽음의 공포
연구 참여자2	두려움 and 겁	저는 어떤 새로운 일을 하거나 시작하게 되면 그 일을 제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에게 막 질타를 하고 욕을 하면 눈물이 자꾸 나서 그것이 제겐 스트레스입니다.	일의 시작, 질타와 욕
연구 참여자3	약한 의지력	전 의지력이 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일이 저에게 다가오면 전 맞서 싸우려 하기보다는 피하려고 합니다. 저의 이런 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같습니다.	의지력
연구 참여자4	인기가 없는 게임들	내가 하는 온라인 게임마다 거의 인기가 없는 게임들이다. 인기가 있을 만한데 인기가 없는 것 같다.	온라인 게임

31) *Ibid.*, 74.

연구 참여자5	과거의 기억들	저는 제가 한 일에 대해 곧잘 후회합니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선 과거에 한 행동에 대해 스트레스를 갖습니다.	과거의 행동, 후회
연구 참여자6	노력	내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라면 남들보다 체격이 왜소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운동을 좋아하지도 않는다.	왜소한 체격
연구 참여자7	일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구상과 가끔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서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함. '돈'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다.	해야 하는 일의 구상, 성공의 가능성, 돈

분석 12: 풀리지 않는 스트레스도 물론 연구참여자마다 다양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성취와 자신의 행동, 그와 관련한 자신에 대한 주변의 평가에 대해 받는 스트레스가 가장 많았다(연구 참여자 2,3,5,7). 자신의 외모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연구참여자도 있었다(연구참여자 6). 기타 스트레스로 죽음의 공포(연구참여자 1), 온라인 게임(연구참여자 4)이라 답한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질문 13: 연구참여자의 개인적 신념과 가치관, 종교적 신념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하게 한다.<sup>32)</sup>

〈표 14. 질문 13 ‘미래의 계획’에 대한 연구참여자별 분석〉

	제목	내용 요약	핵심어
연구 참여자1	뒷이야기	조리사의 길을 걸어 가정을 이루고 그때그때 즐기다가 행복한, 부족한 것 없는 삶을 살고 싶다. 원대한 꿈이 있다면 중고등학교 사회학에 내 이름이 실리는 업적을 남기는 것이다.	조리사, 교과서에 실린 내 이름

32) Ibid., 76.

연구 참여자2	평범한 사람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 되거나 공장에 다니고 싶습니다. 좀 큰 기업이면 좋겠지만 저를 필요로 하고 그리고 제가 그곳에 맞는 공장 같은데서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평범한 직장인
연구 참여자3	나의 미래	일단 전역을 하고 나면 대학교에 복학할 것입니다. 제 전공을 잘 살려서 거기에 맞는 일에 취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남부럽지 않을 만큼 행복하고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남부럽지 않을 만큼, 평범한 직장, 결혼과 가정
연구 참여자4	일본 취업	지금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더 공부할 생각이고, 전역 후 복학, 졸업 후에 취업 자리를 알아볼 생각이다.	일본어 공부, 전역, 복학, 취업
연구 참여자5	헌신의 삶	저는 너무 모나지 않은, 그렇다고 남들과 같은 획일적인 일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나 자신을 한번 세상에 빛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빛나는, 돕는, 인정받는 사람
연구 참여자6	설계	나의 미래는 일반 군복무를 무사히 잘 마치고, 다시 학교를 다니면서 전공을 살려 평생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다.	전역, 전공, 평생 직업
연구 참여자7	확립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에 대해 우선 안 되어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파고들어 내 인생의 출발점을 만들어 열심히 살겠다는 것이다.	최선의 노력

분석 13: 미래의 계획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대부분이 긍정적인 설계를 하는 데 비해 상대적으로 그 계획은 구체적이기보다는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열심히 살고, 평범한 직장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어떠한 인생 경로를 통해서 그 꿈을 어떻게 이룰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대했기에 그런 것이 아닌가! 유추해 본다.

질문 14: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연구참여자로 하여금 자신의 삶

을 지배해 왔던 커다란 삶의 주제에 대해서 회고해 보도록 하고, 이를 표현하게 한다.<sup>33)</sup>

〈표 15. 질문 14 ‘인생 제목’에 대한 연구참여자별 분석〉

	제목	내용 요약	핵심어
연구 참여자1	달팽이 전기	내 별명(달팽이)을 따서 ‘달팽이 전기’라 이름 하겠다. 내 인생의 간 길이라는 뜻이다.	달팽이 전기
연구 참여자2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살아오면서 겁먹고 두려워하는 것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과 공포를 싸워 이겨 내고 싶습니다.	두려움을 이김
연구 참여자3	항상 최선을 다하자	자기 인생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이루고자 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만 보여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최선을만큼 좋은 단어는 없다고 봅니다.	최선
연구 참여자4	One Love	제목을 붙이지니 자서전 같고, 별다른 제목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내가 좋아하는 팝송 이름을 써 봤다.	자서전
연구 참여자5	매끈한 돌이 될 때까지	지금까지는 좋은 일도 있었지만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저는 모난 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갈고닦아 매끄러운 돌이 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모난 돌, 매끄러운 돌
연구 참여자6	The End	제목을 ‘The End’로 한 것은 이것이 인생이 끝났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현재의 허무한 인생을 접겠다는 의미에서이다.	허무함의 끝, 시작
연구 참여자7	변하는 인생	인생은 얼마든지 변하고, 거기에 꼭 맞추어 살지 않고 나만의 인생을 개척해서 행복을 느끼고 살 수 있는 가치관이다.	개척

분석 14: 인생 제목에 있어서 연구참여자들은 정말 다양한 의미와 표현 양식을 지닌 제목을 나타냈다. 그러나 절반 이상의 연구참여자들도 현재부터 앞으로 더욱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살고파

하는 의미를 담은 제목을 이름 붙였다(연구참여자 2,3,5,6), 자신의 별명을 가지고 제목을 짓기도 하고, 인생관을 서술한 제목도 있었다(연구참여자 1,7).

#### 4. 결론

결론으로 연구참여자들의 소감과 임상결과로 나타난 이야기심리학의 12가지 치료적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이야기심리학을 보다 효과적으로 군상담에 활용되기 위한 발전적 제언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매카담스의 14가지 질문에 덧붙여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의 소감을 물었다. 아래 표와 같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표 16. 질문 15 ‘소감문’에 대한 연구참여자별 분석〉

	제목	내용 요약	핵심어
연구 참여자1	인생	나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자신을 돌아봄, 계기
연구 참여자2	되돌아본 나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던 것이 좋았던 것 같고,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 부족했던 점들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돌아봄, 부족함을 알게 됨
연구 참여자3	정체성의 재정립	인생구분부터 이렇게 소감문까지... 돌아보니까 저의 잠재되어 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라서 자아 정체성을 찾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돌아봄, 자아 정체성 도움
연구 참여자4	새로운 기쁨	마음 아픈 기억까지 표현할 줄이야... 글로 정리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았다.	아픈 기억까지
연구 참여자5	유익한 경험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 유익한 경험이었다고 같습니다.	많은 생각, 유익한 경험

33) Ibid., 79.

연구 참여자6	새로움	기억들을 다시 되살리면서 좋은 기억, 나쁜 기억 모든 것이 생각났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 좀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기억, 성숙의 기회
연구 참여자7	생각	이것을 쓰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 나의 의지를 알게 되고, 예전의 기억들을 떠올려 안 좋은 일은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생겼고, 행복한 기억들은 다시 생각함으로써 행복했다.	많은 생각, 많은 도움

7명의 연구참여자들은 14회기 동안 14개의 질문에 답을 말함으로써 마음이 후련했다고 증언한다. 거의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에 대해 돌아보는 가운데 많은 생각과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의 느낌들이 객관화되고 종합되고 연속성이 있는 하나의 이야기로 체계화되는 경험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소감을 종합해서 정리하면 첫째, 연구참여자인 복무 부적응 용사들이 상담 과정을 통해 새로운 자신감을 찾게 되었다. 둘째, 막연하고 추상적이었던 자신에 대한 느낌들이 객관화되고 종합되고 연속성을 갖는 하나의 이야기로 체계화됨을 느꼈다. 과거에 대한 단편적인 느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정리함으로써 그 가운데 더 ‘성숙하게 되는 기회’였다고 말한다. 셋째, 자신의 삶의 이야기 안에 깃들인 방어적 장애물의 모습들을 보다 구체화시킬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4의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은 부분까지 이야기했다고 하였다. 넷째, 과거의 사건들에 대한 회상이 곧 현재와 미래의 삶에 대한 목표들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음을 느꼈다. 다섯째, 이는 곧 삶의 소명감에 대한

새로운 눈뜸으로 연결됨을 깨닫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설계를 해볼 수 있었다.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설계를 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삶의 순간마다 깃들여진 만남과 관계들이 우연이 아닌 사건들로 인식되었다. 일곱째, 과거를 회상함으로써 까마득히 묻혀진 기억들을 새롭게 기억해 내는 과거의 현재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 여덟째, 지금의 나의 모습은 과거로부터 연속된 시간과 사건들의 연속체임을 깨닫게 되었다. 아홉째, 자신의 이야기를 회상해 봄으로써 자신의 이해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었다. 열째, 삶의 전환기마다에 자신의 선택들이 중요한 계기들을 이루어 왔음을 깨닫게 되었다. 열한째, 나의 이야기는 가족을 비롯한 공동체 안에서의 이야기임을 깨닫게 되었다. 열둘째, 나의 이야기를 말하고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카타르시스 효과와 감정분출의 효과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진술한다.

연구참여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리된 내용을 보면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표현함으로써 새로운 자기 인식과 변화의 가능성을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연구참여자들의 소감의 어조가 모두 긍정적이었다는 점이다. 이는 연구참여자들이 복무 부적응 용사들임을 고려해 볼 때 긍정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복무 부적응 용사들에게 새로운 시작이라는 돌파구를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야기심리학을 통한 장병 치료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만약 복무 부적응 용사들의 부적응 원인이 심리내적인 것보다는 복무 환경과 같은 구조적인 부분에 원인이 있었다

면 복무환경 속에서 다시 부적응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인생계획이나 다짐이 구체적이기보다는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군대라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인생과 심리에 대해 사회에서만큼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없는 제한 요소가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긍정적인 효과가 계속해서 의미 있는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대책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Abstract

### The understanding of Narrative Psychology and It's application in Military Counseling

Sang Man Kim

This study deals with the application of military counseling by military chaplain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narrative psychology. Chapter 1 introduces narrative psychology as one of the psychotherapy theories suitable for soldiers counseling, and clarifies the purpose of the study by explaining why narrative psychology is an appropriate theory for soldiers counseling. Chapter 2 introduces McAdams' theory, a narrative psychologist, with the meaning of the story in narrative psychology, the location of narrative psychology, the developmental structure of narrative psychology, and 14 key questions in narrative psychology. In Chapter 3, the therapeutic effect of narrative psychology was reviewed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and the therapeutic effects were verified by analyzing the response results of 14 key questions in narrative psychology for 7 soldiers as an application to military counseling. In the conclusion of Chapter 4, the 12 therapeutic effects of narrative psychology, which appeared as clinical results, and several questions were raised for the application of narrative psychology to military counseling more effectively.

#### Key Words

Military Chaplain, Military Counseling, Narrative Psychology, Mal-Adaptation Soldier, Life Graph



논문 기고자 Email

spalan77@yonsei.ac.kr

## 효과적인 군상담을 위한 전인건강과 치유의 이해

Effective Method for Military Counseling through Understanding of  
Wholistic Health and Healing

» 전요섭 Ed. D.\*

### 국문초록

이 연구는 효과적인 군상담을 위한 전인건강과 치유의 이해를 다룬 문헌연구이다.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인간의 전인성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인'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다양한 개념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기독교상담에서 전인은 신체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물론, 정신과 영적 측면이 고려된 건강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기독교(목회)상담에서는 반드시 영성/영적 문제를 다룸으로써 치료에서 치유로 나아가야 하며, 상담자는 단지 심리치료를 넘어 전인치유를 통해 온전한 변화와 회복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군상담에서는 장병의 전인건강을 위한 상담방법으로 첫째, 임마누엘 목상치료, 둘째, 고백과 자기대화 및 논박의 활용을 통해 치료, 치유, 회복이 가능하다. 이러한 방법은 심리적으로 선한 영향을 주며, 신체적으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영적 변화를 초래하게 한다.

### 중심단어

기독교상담, 전인, 전인건강, 치유, 임마누엘 목상치료

• 논문 투고일: 2021년 9월 26일 • 논문 수정일: 2021년 9월 28일

• 게재 확정일: 2021년 10월 8일

\* 군선교신학 실행위원, 성결대학교 파이데이아(교양교육)대학 학장, 예)군종목사

## I. 여는 글

‘전인’이라는 단어는 영어권에서 ‘holistic’, ‘wholistic’ 또는 ‘wellness’ 등의 용어들이 사용된다.<sup>1)</sup> holistic은 교육적 성격이 강한 용어인 반면, wellness는 생활의 의미가 강조된 어감을 주고 있다. 전인(全人)을 뜻하는 영어 표현은 wellness를 많이 사용하고, holistic 또는 whole/wholistic person이라는 단어들이 주로 사용된다.<sup>2)</sup> 전인에 대한 영어 단어나 한자 표기는 모두 온전한(全) 인간(人)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여기서 ‘온전’이란 의미는 균형과 통합을 포함한다.<sup>3)</sup>

전인은 인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물론, 정신을 주제로 삼고 있으며, 이것의 온전함을 일컬어 이른바 ‘전인건강’이라고 한다. 전인건강은 의학, 정신의학, 간호학, 심리학, 상담학, 사회학, 신학 등의 학문분야에서 추구하는 주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인의 개념은 학문분야마다 상이하여 단순하게 정의되지 않고, 일치된 견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일각에서는 전인건강에 대하여 ‘신체적 건강을 기본으로 하여 정신건강과 사회적 건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sup>4)</sup> 또 다른 입장에서 전인건강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측면이 고려된 건강으로 개념화하고 있다.<sup>5)</sup> 또한 전인을 삶의 질이나 행복으로 이해하고 전인건강이야말로 행복의 조건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sup>6)</sup>

군인은 기본적으로 통제된 특수사회에 존재하기 때문에 전인건강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상황과 상태에 놓여 있다. 하지만 군인도 전인과 전인건강에 있어서 예외로 할 수 없는 대상이며, 기독교(목회)상담과 군 상담분야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다. 전인건강이 확보되지 않은 군인은 삶의 질이 저하되며, 이는 단지 군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투력으로 이어지며, 군 전체의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 그래서 군은 군인의 전인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제인 메이어스 등(Jane E. Myers et al)은 전인건강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음의 12가지 요소들이 통합, 유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그 12가지 요소들의 내용은 첫째, 가치감, 둘째, 통제감, 셋째, 현실적 신념, 넷째, 감정적 인식 및 대처, 다섯째, 문제해결 및 창의성, 여섯째, 유머감각, 일곱째, 영양상태, 여덟째, 운동, 아홉째, 자기관리, 열째, 스트레스 관리, 열한째, 성 정체성, 열둘째, 문화적 정체성 등이다.<sup>7)</sup>

메이어스 등이 주장한 12가지 요소들의 통합과 유지, 조화가 전

1) Investment Weekly News, “New Holistic Counseling Center Announces Grand Opening in Aurora, CO,” (2011. 5. 14), 681.

2) Jane E. Myers, Thomas J. Sweeney & Melvin Witmer J., “The Wheel of Wellness Counseling for Wellness: A Holistic Model for Treatment Planning,”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8(3) (2000), 251-66.

3) Patricia L. Dobkin, “The Weight of Words in Whole Person Care,” *International Journal of Whole Person Care* 8(2) (2021), 1-2.

4) Valerie Michaelson et al, *Holistic Health in Children* (Cham, Switzerland: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2018), 3.

5) Kim-wan Young et al, “The Effects of Holistic Health Group Interventions on Improving the Cognitive Ability of Persons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Clinical Interventions in Aging* 12 (2017), 1543-52.

6) Ruth Dykstra & Jason Paltzer, “A Review of Faith-based Holistic Health Models,” *Christian Journal for Global Health* 7 (2020), 120-32.

7) Myers, Sweeney & Witmer, “The Wheel of Wellness Counseling for Wellness,” 251-66.

인을 구성한다는 내용을 정리하면 신체적인 내용(영양상태, 운동), 심리정서적인 내용(가치감, 통제감, 현실적 신념, 감정적 인식 및 대처, 문제해결 및 창의성, 유머감각, 자기관리, 스트레스 관리)과 사회문화적인 내용(성 정체성, 문화적 정체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분류는 신앙적, 영적 차원을 고려하지 않아 기독교(목회)상담 입장에서 그대로 수용하기는 곤란하다. 또 전인건강의 개념과 조건 및 이에 미치는 요인들을 다양하게 나열, 분류하면 구체적인 이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사실상 전인건강의 조건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개념이 모호해지거나 이를 추구한다는 것이 요원해질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된다.

라이트시(Lightsey)는 어떤 조건, 사건, 상황, 경험에 처해 있는지 첫째, 긍정적 생각, 둘째, 강인함, 셋째, 자기효능감, 넷째, 낙관주의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일컬어 '전인건강'이라고 주장했다.<sup>8)</sup>

하지만 라이트시의 주장도 마찬가지로 전인 개념에서 신앙 및 영성관련 내용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목회)상담 입장에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주장이다. 기독교(목회)상담은 영적(spiritual), 영성(spirituality)을 다루는 차원에서 전인을 고려해야만 한다.<sup>9)</sup> 라스 맨델코 등(Lars Mandelkowitz et al)은 영성을 다루지 않는 상담을 과연 기독교상담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sup>10)</sup> 만일

8) O. R. Lightsey, "What Leads to Wellness? The Role of Psychological Resources in Well-being," *Counseling Psychologist* 24 (1996), 589-735.

9) Eric L. Johnson, *Foundations for Soul Care: A Christian Psychology Proposal* (Downers Grove, IL: IVP, 2007), 112.

10) Lars Mandelkowitz, Anne Austad & Henning Freund, "Stepping Carefully on Sacred Ground: Religion and Spirituality in Psychotherapy," *Journal of Spirituality in Mental Health* (2021), 1-21.

상담자가 내담자의 영적 차원, 영성 차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코 온전한 기독교(목회)상담을 해낼 수가 없을 것이다.<sup>11)</sup>

신앙과 영성관련 전인건강의 개념에 대한 대표적인 내용은 에드워드 캔다 등(Edward R. Canda et al)의 주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캔다 등은 전인건강의 영역을 크게 네 가지(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건강)로 범주화하였고,<sup>12)</sup> 하위 일곱 가지 요소에 신앙과 영성을 포함시켜서 이해했다.<sup>13)</sup> 그 내용으로는 첫째, 공동체의 건강과 신앙, 둘째, 신체적 건강과 신앙, 셋째, 정신적 건강과 신앙, 넷째, 영적 건강과 신앙, 다섯째, 교회의 건강과 신앙, 여섯째, 사회의 건강과 신앙, 일곱째, 글로벌 건강과 신앙을 다루었다.

이러하면 가정 등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병든 상태이면 개인의 신앙도 바르게 유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병적 상태에 대한 영향(전염, 전이)을 주고받게 되어 전인건강을 해칠 수 있다. 또한 캔다 등이 제시한 일곱째 내용인 글로벌 건강과 신앙의 경우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심각한 문제를 경험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한 개인의 건강은 그 개인의 건강 차원을 넘어 관련된 여러 상태들과 맞물려 전인건강을 이루고 그것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전인건강에 대한 증가된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 구성개념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일치된 견해를 발견하기 어렵다.

11) Mark R. McMinn, *Sin and Grace in Christian Counseling: An Integrative Paradigm* (Downers Grove, IL: IVP Academic, 2008), 75.

12) Edward R. Canda et al, *Health through Faith and Community: A Study Resource for Christian Faith Communities to Promote Personal and Social Well-being* (New York: Haworth Pastoral Press, 2006), 21.

13) Canda et al, *Health through Faith and Community*, 6-196.

## II. 펴는 글

### 1. 전인의 기본요소로서 심신상관

일반학문에서 전인의 의미는 주로 심신(心身, psycho-somatic) 차원에서 고려되고 있다. 그래서 정신(心)과 신체(身)의 건강을 일컬어 '전인'으로 이해하는 추세이다.<sup>14)</sup> 영적인 차원(spiritual perspective)을 인정하지 않는 일반학문에서 이 같은 이해는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심리학, 상담학, 정신의학 등에서는 이 용어를 사용할 때 그 개념 설정에 있어서 무게중심을 심(정신)에 두는 추세이고, 의학에서는 신(몸)에 두는 현상이 나타난다. 양자에서 공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정신과 육체 간의 상호작용(interaction) 및 상관관계(correlation)이다. 상호작용은 심신 간에 서로 원인과 결과가 되는 관계개념이며, 상관관계는 심신 가운데 어느 것 하나에 (긍정적, 부정적) 변화가 발생하면 다른 한쪽도 그에 따라서 (긍정적, 부정적)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개념이다. 이때 어느 한쪽이 증가하면 다른 한쪽도 증가할 수 있지만, 감소될 수도 있는데 이는 서로 밀접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온전한 건강을 갖기 위한 조건으로 심신의 건강을 강조하고 있으며, 아울러 온전히 건강한 사람의 특성은 심신의 건강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신상관은 개념이 명확하기는 하지만 매우 광범위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필요로 한다.

심신상관의 의학적인 표현은 'PNI & E'(PsychoNeuroEndocrinolimm

14) Myers, Sweeney & Witmer, "The Wheel of Wellness Counseling for Wellness," 251-66.

unology)이다.<sup>15)</sup> 이는 '심리(P), 신경(N), 면역(I), 내분비(E)'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심리를 기초로 하여 그것이 신경, 면역, 내분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즉 스트레스 등 심리적인 문제(P)는 신경(N)마비를 초래할 수 있고, 내분비(E)호르몬, 신경전달물질 분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면역(I)체계도 교란을 시켜 염증촉진 등 질병상태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것의 사례로서 충격적인 사건은 심리적으로 스트레스(심리, P: Psycho)가 되어 자율신경계의 불균형, 교감신경계의 활성화 상태에 이르게 하고(신경, N: Neuro), 이로 인해 혈중 코티솔의 농도가 증가하여 긴장상태가 지속되어 심계항진과 과호흡증후군이 유발되고 세로토닌 및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어 우울해지며(내분비, E: Endocrino),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면역력이 약해져 질병에 노출된다(면역, I: Immunology).

따라서 전인건강을 논할 때 심리적 안녕감, 안정 및 심리적 항상성(homeostasis)의 유지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가 된다. 마음(心)의 평안과 정서(情)적 균형은 심리적 건강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조건으로서 우울증, 불안증, 공포증, 강박증, 망상증 등의 정신질환 없이 건강한 상태를 의미한다.

전인건강을 성경에 언급된 단어로 표현한다면 '평안'이다. 신약성경에 나타난 평안(에이레네, ειρήνη)은 구약성경의 샬롬(shalom, 평안, 평

15) Elsa Vitale et al, "A Psycho-neuro-endocrino-immune Approach in the Nursing Treatment of Anorexia and Bulimia Nervosa," *Immunopharmacology & Immunotoxicology* 31(1) (2009), 39-50. cf. D. H. Kim, "An Overview of Psychoneuroimmunology," *Korean Journal of Biological Psychiatry* 15(3) (2008), 147-51. cf. 이도영, 현명선, "웃음치료프로그램이 비만여성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심리-신경-내분비-면역 반응에 미치는 효과," 『한국간호과학회지』 제48권 3호 (2018), 298-310.

화, 화평)을 헬라어로 번역한 용어인데, 이것의 본래적 의미는 신체건강을 포함하여 정신적이고 영적인 완전한 건강상태를 의미한다.<sup>16)</sup> 살롬은 신체적, 심리적, 영적,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인 평안의 상태를 기본의미로 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논하는 전인건강의 개념을 충분히 함축한 용어라 할 수 있다.<sup>17)</sup>

## 2. 영성, 전인관계의 핵심

인간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이른바 '삼분설'(trichotomy)을 주장하던 '이분설'(dichotomy)을 주장하던, 정신(魂, ψυχη)과 육체(肉, σωμα)가 아닌 영(靈, πνευμα)의 영역을 인정, 인식하지 않으면 성경적인 기독교(목회)상담 개념을 수립할 수 없게 된다. 바로 이 점이 일반상담학과 기독교상담학의 차이라 할 수 있다.<sup>18)</sup>

마크 맥민 등(Mark R. McMinn et al)의 분석에 따르면, 심리학에서는 영성이 비심리적 분야라고 여기고 이 내용을 심리학에서 분리하거나 배제하는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sup>19)</sup> 그런가 하면 심리학 일각에서는 서슴없이 '영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개념은 기독교상담에서 의미하는 것과 상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심리학에서 영성을 다루는 경우에는 대부분 인간의 본성을 나타내며, '철학', '가치관'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sup>20)</sup>

16) R. Laird Harris et al, *Theological Wordbook of the Old Testament*, 번역위원회 편, 『구약원어신학사전』 (서울: 요단출판사, 2004), 2401.

17) John Wilkinson, *Health and Healing*, 김태수 역, 『성서와 치유』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2001), 36.

18) Jeffrey H. Boyd, "Self-concept," in Mark R. McMinn & Timothy R. Phillips (eds.), *Care for the Soul*, 4.

19) Victor E. Frankl, *The Doctor and the Soul: from Psychotherapy to Logotherapy*, 이현주 역, 『정신세계의 병리와 해부』 (서울: 양영각, 1983), 19.

20) Cynthia K. Chandler, Janice M. Holden & Cheryl A. Kolander, "Counseling for

실존주의심리학자 빅터 프랭클(Victor E. Frankl)은 인간 실존의 특성과 본질적 요인으로서 영성을 꼽았으며, 그것을 강조했다.<sup>21)</sup>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은 동물과 달리 영성(spirituality)이 있다고 했으며, 인간의 육체적, 심리적, 영적인 면 가운데 어느 한 차원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야 함을 피력했다 아울러 프랭클은 인간은 생물학적 욕구나 사회적 환경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지만 진정한 모습은 그러한 제약을 넘어선 영적 차원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특히 그는 수용소 생활을 통해 영이 인간을 목적지향적으로 만든다고 보았다. 그는 기독교심리학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성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나타냈는데, 이때까지 대부분의 심리학에서 인간의 영을 다룬 이론은 거의 발견하기 어려웠고 의미요법이 매우 이례적으로 그것을 강조했다. 프랭클은 '심인성 신경증'(psychogenic neurosis)과 '영인성 신경증'(noögenic neurosi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신경증을 구별하기도 했다. 여기서 '영인성 신경증'이란 인간 실존의 심리적 차원에서 초래된 것이 아니라 영적 차원에서 비롯되는 신경증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영인성 신경증의 경우에 일반적인 심리치료를 통해서서는 치료될 수 없고, 인간 실존의 영적 차원을 취급하는 의미요법을 통해서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의미요법에서 다루는 영적 문제는 성경, 기도 등 은혜의 방편을 통한 치료개념이 아니었다. 결국 '영성', '영적'이라는 용어는 단어만 같을 뿐,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것과 다른 개념이었다.

"Spiritual Wellness: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1(2) (1992), 168-75.

21) Jeffrey H. Boyd, "Self-concept," in Mark R. McMinn & Timothy R. Phillips (eds.), *Care for the Soul*, 4.

일반 영성의 정의에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기독교의 것으로 가져오기는 어렵다. 이를테면 잉거솔(Ingersoll)이 분석한 영성개념으로 영성이란 삶의 물질적인 차원을 초월하여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신념, 가치, 종교를 다루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좁은 개념의 영성개념이라고 했다.<sup>22)</sup> 그런가 하면, 마크 페난데즈와 벤자민 워커(Mark Fernandez & Benjamin R. Walker)는 영성을 논할 때 종교와 관련성을 맺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sup>23)</sup> 종교와 관련을 맺지 않는 영성을 건전한 영성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발생한다. 또한 종교적으로도 불교에서 영성을 다루고 있고,<sup>24)</sup> 천주교에서도 영성을 다루고 있으며,<sup>25)</sup> 심지어 요가에서도 이를 다루며,<sup>26)</sup> 모든 종교에서 ‘영성’이라는 용어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그 의미는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바와 일치하지 않는다. 자신과 타인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루지 않는 영성은 기독교(목회)상담에서 다루는 영성으로 보기는 어렵다.<sup>27)</sup>

치료(治療, therapy)가 부분적(partial) 개념이라면, 치유(治癒, healing)는 영, 혼, 육, 전인적 회복과 온전함을 뜻한다. 치료를 뜻하는 영어 단어 therapy는 헬라어 θεραπεία(테라페이아)에서 비롯되었으며, 육체적, 부분적 회복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치과치

22) R. E. Ingersoll, "Spirituality, Religion & Counseling," *Counseling & Values* 38 (1994), 98-111.

23) Mark Fernandez & Benjamin R. Walker, "Spirituality in the Stands," *Journal of Spirituality in Mental Health* 23(2) (2021), 122-54.

24) 윤희조, "불교의 영성에 대한 두 가지 관점," 「동서철학연구」96 (2020), 189-212.

25) 최준규, "가톨릭 사제 양성과정에서의 영성개발," 「종교교육학연구」43 (2013), 25-49.

26) 김선미, 이거룡, "전인치유로서의 요가," 「남아시아연구」23(1) (2017), 1-26.

27) Dykstra & Paltzer, "A Review of Faith-based Holistic Health Models," 23.

유’라는 용어는 적합하지 않으며, ‘치과치료’라는 용어가 적합한 것이다. 치과는 영, 혼, 육에서 육에 해당하는 영역이며, 육에서도 신체의 특정부분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동일개념으로 ‘심리치유’(psycho-healing)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바른 개념의 용어가 될 수 없으며,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심리치료’(psycho-therapy 또는 정신치료)가 맞는 말이다. Ψυχη(푸시케, psych, 정신, 심리, 魂)는 전인 가운데 정신 또는 심리라는 일부분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영적 회복이라고 하여 healing이라는 단어보다는 therapy를 사용하는 것이 옳은 표현이다. 영어권에서는 영적 치료를 ‘spiritual therapy’라고 표현하고 있으며,<sup>28)</sup> 일각에서는 ‘spirituotherapy’라고 표현하고 있다.<sup>29)</sup> 아울러 ιατρία(이아트리아)도 같은 개념이다. 심리치료를 psychiatry라고 하는데 이 말은 Ψυχη(프쉬케, 마음)가 영어로 변한 psych와 ιατρία(치료)가 영어로 바뀐 -iatry의 합성어로서 부분적, 육체적, 의료적 처치를 의미한다.

### 3. 전인건강을 위한 군상담

#### 1) 임마누엘 묵상치료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과 함께하신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임마누엘’(Immanuel)이라고 하며, 이 용어는 이사야 7장 14절과 마태복음 1장 23절에 기록되었다. 이는 영어 전치사 with와 동일개념의 히브리어 ‘임’(im)과 1인칭 복수 ‘우리’를 의미하는 ‘마누’(manu)가 합해져

28) Richard K. Young, *Spiritual Therapy* (New York: Harper Bros, 1960), 1. cf. Ambrose A. Worrall et al, *The Gift of Healing: A Personal Story of Spiritual Therapy*, (Columbus.: Ariel Press, 1985), 1.

29) Charles R. Solomon, *Handbook for Christ-centered Counseling: The Dynamics of Spirituotherapy* (Sevierville, TN.: Solomon Publishment, 1993), 1. cf. Robert Q. Hendershott, "An Investigation of 'spirituotherapy'," (Ed.D. Dissertation: Western Michigan University, 1980), 1.

서 ‘임마누’(immanu)가 되었다. 즉 ‘우리과 함께’라는 ‘임마누’에, 하나님의 이름인 ‘엘’(el)이 합성된 히브리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는 뜻이다.<sup>30)</sup>

임마누엘 묵상치료는 인지행동치료의 상담기법 가운데 하나이지만 군상담에서는 매우 유효한 상담기법이 될 수 있다. 군은 기본적으로 전쟁을 전제로 하여 그것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거나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집단으로서 불안과 스트레스가 기본적인 심리정서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남북대치 상황에서 전쟁 억제 또는 전쟁 발발 시 적을 제압하기 위해 존재하는 군은 위협과 위협, 불안과 스트레스 관련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불안과 스트레스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신체화 증상, 심리적 불안정서, 영적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sup>31)</sup> 그것의 영역이 분명히 심리정서적 차원이지만 신체적 증상은 물론, 영적인 차원에서도 영향을 주어 결국 전인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군대는 다른 어떤 사회단체보다도 불안과 스트레스가 상존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것의 문제로 인해 전인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리자베스 로머(Lizabeth Roemer)는 주장하기를,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그것을 극복하는 마음의 묵상, 심상, 상상이라고 했다.<sup>32)</sup> 기독교인지행동치료학자

윌리엄 배커스(William D. Backus)도 불안과 스트레스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신다는 임재의 확신을 통해 심리적인 해소는 물론, 영적 안정감을 얻게 되므로 묵상, 심상, 상상을 기독교(목회)상담에서 치료기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sup>33)</sup> 셰퍼(Frauke C. Schaefer & Charles A. Schaefer)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신다는 임재 의식만으로도 불안과 공포를 포함한 다양한 심리정서적 문제와 외상(trauma)까지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일컬어 ‘하나님을 내재화하는 신앙’이라고 표현했다.<sup>34)</sup> 기독교상담학자 노만 라이트(H. Norman Wright)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부정적 심상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기본적인 노력은 일차적으로 개인에게 있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바른 묵상, 심상, 상상을 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묵상, 심상, 상상하는 것은 심리치료에도 상당한 유익을 얻게 되지만 영적이며 전인적인 회복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sup>35)</sup>

이러한 경건묵상(faithful meditation)은 일반 심상, 상상, 명상, 초월 명상 등과는 다르며, 이른바 ‘임마누엘 묵상’이라고 한다. 미국 풀러(Fuller) 신학교 기독교상담학교수 아치발드 하트(Archibard Hart)는 이를 ‘기독교 묵상’이라고 하면서 시편 1: 1-2 “복 있는 사람은…오직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와 시편 19: 14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

30) James E. Wilder & Chris M. Coursey, *Share Immanuel: The Healing Life Style*, (Pasadena: Shepherd's House, 2010), 1.

31) Louis Cozolino, *The Neuroscience of Psychotherapy*, 강철민, 이영호 공역, 『정신치료의 신경과학』 (서울: 학지사, 2014), 308.

32) Lizabeth Roemer, *The Mindful Way through Anxiety*, 한소영 역, 『불안을 치유하는 마음챙김』 (서울: 소울메이트, 2014), 24-73.

33) William D. Backus, *Telling the Truth to Troubled People* (Minneapolis: Bethany House, 1985), 165-66. cf. Mark A. Yarhouse, & James N. Sells, *Family Therapie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8), 6.

34) Frauke C. Schaefer & Charles A. Schaefer, *Trauma and Resilience*, 도문갑 역, 『고통과 은혜』 (서울: 디모데, 2016), 246.

35) Wright, *Making Peace with Your Past*(Revell: Baker Pub., 1984), 78-79.

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구절에 기초한다고 보았다.<sup>36)</sup> 하트는 ‘십상’, ‘상상’, ‘명상’, ‘초월 명상’ 등의 용어들이 뉴에이지(New Age movement)나 동양종교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라고 거부를 나타내며, 그것들과 구별을 하기 위해 기독교 묵상이라고 표현했다.<sup>37)</sup>

임마누엘 묵상을 통한 치료를 소위 ‘임마누엘 치료’라고 하는데,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고 기독교상담에 처음 도입한 학자는 제임스 와일더(James Wilder)이다. 1970년에 와일더는 ‘임마누엘 중재’(intervention) 또는 ‘접근’(approach)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하나님과 자신과 함께하신다는 임재를 의식하고, 경건묵상을 통해 불안 및 스트레스와 다양한 심리정서적 문제와 고통 등을 완화, 감소 및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했다.<sup>38)</sup> 뇌 신경학자 알렌 쇼어(Allen N. Schore)는 1994년부터 뇌 연구를 통해 임마누엘 묵상치료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시도했다. 칼 레흐만(Karl D. Lehman)은 정신과 전문의로서 임마누엘 묵상치료의 효과를 구체화하며, 조직적인 연구를 했다. 레흐만은 하나님께서 생물학적 인간의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sup>39)</sup>

임마누엘 묵상치료는 ‘Theophostic therapy’(테오파스틱 치료)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1990년대 중반에 레흐만이 에드워드 스미

36) Achibard Hart, *The Anxiety Cure*, 오태균 역, 『불안치료』(서울: 눈 출판그룹, 2014), 329.

37) Achibard Hart, *The Anxiety Cure*, 340.

38) James G. Friesen et al, *Living from the Heart Jesus Gave You* (Pasadena: Shepherd’s House, 1999), 7-8.

39) William James,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New York: Penguin Books, 1985), 274. cf. Vicky Genia, *Counseling & Psychotherapy of Religious Clients*, 김병오 역, 『영적 발달과 심리치료』(서울: 대서출판사, 2010), 212.

스(Edward D. Smith)와 함께 이 신조어를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다. Theophostic은 우리말로 용어화하기는 어렵고, 음역하여 ‘테오파스틱’(하나님의 빛)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개념에 있어서는 심리적 불안상태에서 거대한 힘으로서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시는 임재의식으로 자신의 내면에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와 어둠이 물러나고 진리의 빛으로써 극복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sup>40)</sup> 이것은 하나님이 현재의 불안상황에서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자신과 함께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며, 우울, 공포, 강박 등 어떤 상황에서도 심리정서적, 영적 안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sup>41)</sup>

기독교상담학자 데이비드 벤너(David G. Benner)는 임마누엘 묵상치료와 유사한 개념으로 ‘kataphatic’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하나님 의식을 통한 심리치료적 가능성을 모색했다.<sup>42)</sup> 이 개념 역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심에 대한 경건묵상을 통해 불안을 극복하는 것으로서,<sup>43)</sup> 레흐만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경건묵상을 함으로써 불안을 감소하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듯이,<sup>44)</sup> 임마누엘 묵상, 임마누엘 중재, 임마누엘 치료 등은 심리적, 영적 안정감을 얻게 하는 중요한 방편이다.

임마누엘 묵상치료의 방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경건

40) Edward M. Smith, *Healing Life’s Deepest Hurts* (Ann Arbor, MI.: New Creation Publishing, 2002), 13.

41) S. Brandon et al, “Reported Recovered Memories of Child Sexual Abuse,” *Psychiatric Bulletin* 21(10) (1997), 663-65.

42) David G. Benner, *Psychotherapy & the Spiritual Quest*, 이만홍, 강현숙 공역, 『정신치료와 영적 탐구』(서울: 하나의학사, 2000), 113-15.

43) Brandon et al, “Reported Recovered Memories of Child Sexual Abuse,” 663-65.

44) www.kclehman.com/Lehman, “Brain Science, Emotional Trauma & The God Who is with Us, Part I,” 8 (2016. 6.12).

묵상을 하는 데 특정 시공간적 제약은 없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을 의식함으로써 가능하다. 데이비드 벤너(David G. Benner)는 영적 또는 영성에 접근한다는 것은 인간의 심리적 작용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접근 통로가 같다고 보았다.<sup>45)</sup> 이를테면 성경을 읽는 것은 영적인 활동이지만 이지적인 이해의 과정을 필요로 하는데 그런 것은 심리적인 작용이다. 그래서 이를 ‘심리영적’(心理靈的, psycho-spiritua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는데, 심리와 영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그것을 명백하게 분할, 분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묵상도 심리적인 것이라 할 수 있지만, 단지 심리적인 작용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신다는 임마누엘 묵상을 통해 영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명상이나 심상 또는 임마누엘 묵상도 중요한 조건은 ‘집중’이다. 그래서 하트(Hart)는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심상할 수 없다.”<sup>46)</sup>고 주장한 바 있다. 하나님을 심상하는 것이 사실상 기독교상담 현장에서 적용하기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형상이 아니신 하나님의 임재를 심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sup>47)</sup> 미국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신학교 목회상담학 교수 데이비드 포우리슨(David Powlison)은 ‘the personal God’(자신의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표현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추상적으로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

45) David G. Benner, *Care of Souls: Revisioning Christian Nurture and Counsel* (Grand Rapids: Baker, 1998), 55.

46) Hart, *The Anxiety Cure*, 338.

47) Hart, *The Anxiety Cure*, 344.

의 개별적 상황에도 함께하시는 존재로서 이를 인식할 때 불안이 극복될 수 있다고 보았다.<sup>48)</sup>

영이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신다는 임재의 확신을 심상하며, 그분에게 집중할 때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그려진 초상화나 성화를 떠올리는 경우도 있다. 하트도 하나님을 시각화하거나 심상하도록 도와주는 형상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권장한 바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것도 아니며, 기독교적인 좋은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spirit)이시기 때문에 시각화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영이 자신과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성경말씀의 의미를 묵상함으로써 임재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에 대해 고든 맥도날드(Gordon MacDonald)는 묵상은 생각을 집중시키는 심상을 요구하는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내면세계로 입력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렇게 말씀에 집중된 심상일 때 성령께서 경건 묵상을 인도하시게 된다고 보았다.<sup>49)</sup> 감각을 추구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하지 않게 비성경적, 비신학적, 비신양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sup>50)</sup>

불안 및 스트레스 극복의 요인은 신앙적 견고함(stability)과 강인성(hardness)이므로 상담자는 어떤 상황에도 내담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신다는 임재의식을 통해 안정성을 갖도록 하는

48) David Powlison, “The Personal God,” *The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28(2) (2014), 2-8.

49) Gordon MacDonald, *Ordering Your Private World*, 홍화옥 역, 『내면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서울: IVP, 2017), 262-63.

50) 전요섭, “범불안장애 극복을 위한 임마누엘 묵상치료,” 『복음과 상담』 제25권 2호 (2017), 211-39.

것이 상담적 접근이 되어야 한다.<sup>51)</sup> 기독교상담학자 에드워드 워벌리(Edward P. Wimberly)는 대개 고난과 고통을 극심하게 느끼는 경우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이 부족한 경우라고까지 분석한 바 있다.<sup>52)</sup> 페리 노블(Perry Noble)은 다니엘 3: 24-25의 주석을 통해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신다는 임재의식을 기초로 신앙의 견고함과 강인성으로 불안을 극복한 내용을 소개했다.

캔다 등은 미국 코네티컷 주 뉴헤이븐에서 무작위로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신앙과 고통에 대한 연구결과(n=720),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리적 고통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신앙'이라 함은 자신이 크리스천 정체성을 가진 사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등을 의미한다. 이들의 신앙은 삶의 스트레스 상황에 대하여 강력한 대처전략일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구결과이다.<sup>53)</sup>

이런 연구결과는 삶의 스트레스가 극심하고 혼란 등으로 신체적 고통이 많은 군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영적 건강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못할 때 불안이나 고통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는 어렵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신다는 분명한 임재의식을 갖는다면 그것은 불안 및 군 생활의

51) Gary Thomas, *The Glorious Pursuit*, 윤종석 역, 『일상 영성』 (서울: CUP, 2015), 280.

52) Edward P. Wimberly, *Pastoral Counseling and Prayer* (Louisville: Westminster, 1990), 12.

53) Canda et al, *Health through Faith and Community*, 71-72.

고통스러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자원이 된다.<sup>54)</sup>

에밀 쿠에(Emile Coue)는 자기 스스로 불안을 극복해 내리는 상상과 반복된 암시만으로도 얼마든지 극복해 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sup>55)</sup>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에게 불안을 덜 느끼라고 명령할 수는 없고, 불안 자체보다 더 위대하고 강한 실존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영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묵상을 통한 치료이다.<sup>56)</sup>

이것은 묵상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기도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방법이다. 기도를 통해 치유의 통로를 확보하는 것은 은혜의 방편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sup>57)</sup> 내담자에 의한 의미 있는 진정한 기도는 가장 바람직한 것이기는 하지만 일부 군인 가운데 그것을 쉬운 일로 여기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 및 상담자가 기도예문을 작성,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프린스턴신학교 목회상담학 교수 도날드 캡스(Donald E. Capps)는 은혜의 방편 가운데서 묵상을 매우 강조했다. 그는 기도를 묵상으로 이해하면서 기도가 아니더라도 깊은 묵상으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심을 신뢰하여 두려움, 불안, 공포, 우울, 망상, 강박, 스트레스 등을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심리적 이상이나

54) Perry Noble, *Overwhelmed*, 정성목 역,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서울: 두란노서원, 2014), 126.

55) Emile Coue, *Self Mastery through Conscious Autosuggestion* (New York: American Library Service, 1922), 최준서 역, 『자기 암시』 (서울: 하늘아래, 2006), 14-15.

56) Michael Frost & Alan Hirsch, *The Faith of Leap*, 김선일 역, 『모험으로 나서는 믿음』 (서울: SFC출판사, 2015), 136.

57) Mark R. McMinn & Timothy R. Phillips, (eds.) *Care for the Soul* (Downers Grove, IL.: IVP, 2001), 4.

그러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내담자라 할지라도 임마누엘 묵상치료의 회복은 명명백백한 일이라고 주장했다.<sup>58)</sup>

불안에 노출된 군인들에게 임마누엘 묵상치료가 그에 걸맞은 치료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군대 구조상 군인은 통제된 사회에 존재하기 때문에 신체적 제약 가운데 생활한다. 하지만 군대가 군인의 생각까지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군인에게 군대 밖에서 발생한 문제들, 이를테면 부모문제를 포함한 가족문제, 연인관계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수없이 반복되는 상상을 하게 될 것이며, 이때 부정적 상상은 더욱 악화된 부정적 상상을 낳아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에게는 전인건강을 얻기 위해 무엇보다도 임마누엘 묵상치료가 현실적으로 훌륭한 상담방법이 될 수 있다.

군인은 극한 상황에 처하는 일이 빈번하고, 전쟁과 전투 상황이라면 불안과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게 된다. 군종목사로부터 영적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지지받지 못하는 고립 상황에서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임마누엘 묵상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다. 군대는 전쟁을 위해 예비된 존재이며, 전쟁과 전투를 준비하는 훈련상황에서도 임마누엘 묵상을 치료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연습함으로써 전인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 2) 자기대화 및 논박의 활용

자기 스스로 자신에게 선언하는 긍정적인 자기대화(self talk)는 인지행동치료의 상담기법 가운데 하나로서, 군 상담에서 효과적인 기

58) Donald E. Capps, *Pastoral Care: A Thematic Approach* (Philadelphia: Westminster, 1975), 35-42.

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치료가 치유가 되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신앙요소라 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means of grace)이 활용되어야 한다. 은혜의 방편이 활용되지 않으면 일반상담과 기독교(목회)상담의 경계는 모호해지고 혼란스러워진다.

영적 건강이 심리와 육체에도 영향을 미쳐 전인건강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다루어 그것을 해소함으로써 내담자가 심리적 해방감, 안전감을 얻음으로 평안이라는 치료에 이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가 필수적인데, 이는 전인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초래하는 접근이며, 영혼을 돌보는 것이다.<sup>59)</sup> 바른 치료를 위해서는 바른 진단을 전제로 하는데, 대부분의 치료와 치유를 필요로 하는 문제는 죄와 결부되어 있다.<sup>60)</sup> 기독교상담학자 게리 콜린스(Gary R. Collins)는 고백하지 않은 죄는 죄책감을 유발하고, 죄책감은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 및 수많은 정신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분석했다.<sup>61)</sup> 즉 평안을 얻어가는 요인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면 전인건강의 회복을 위해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도 인식할 수 있다.

자기대화는 자신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죄악된 생각들을 스스로 물리치고 극복하는 혼잣말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자기대화의 근거는 성경말씀이 되어야 한다. 자기대화는 죄악이 자신의 마음 상태에 착상되는 것을 막고, 영적 저항력(면역력)을 키우는 영적 과정이

59) McMinn & Phillips, *Care for the Soul*, 6.

60) Timothy S. Lane & Paul D. Tripp, *How People Change* (Winston-Salem, NC.: Punch Press, 2006), 10.

61) Gary R. Collins, *New Christian Counseling*, 전요섭 외 공역, 『뉴 크리스천 카운슬링』 (서울: 두란노서원, 2008), 23장.

다. 이를 인지행동치료에서는 ‘논박’(論駁, disput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전인건강을 얻기 위한 방편의 하나이며, 치료가 치유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인지행동치료를 창안한 알버트 엘리스(Albert Ellis)는 논박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이나 부정적 자동적 사고 등에 대해서 그것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했다.<sup>62)</sup> 엘리스의 이론은 기독교(목회)상담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죄’라는 용어나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독교(목회)상담에서는 반드시 논박에 ‘죄’의 개념이 포함되어야 한다. 비합리적 신념이 반드시 죄를 의미하지는 않고, 비합리적이지만 성경적인 일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비합리적 신념이 죄와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기독교상담학자 제이 아담스(Jay E. Adams)는 논박을 일컬어 ‘대적’(resistance)이라고 불렀다. 대적은 죄에 대한 거부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아담스는 주장하면서 이 대적의 성경적 근거는 야고보서 4:7(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께서 사용하신 방법임을 들어 성경적 기초를 제시했다.<sup>63)</sup> 배커스는 이를 진리요법(TRUTH Therapy)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에게 진리를 선포(telling myself the truth)하지 않으면 죄를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sup>64)</sup>

따라서 기독교(목회)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비합리적 신념체

계는 물론 죄악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대적할 때 비로소 영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비합리적이고 왜곡된 자동적 사고, 죄악된 생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박 및 대적하지 않는 것은 그 생각에 대한 무언의 동의가 되기 때문에 심리치료와 회복이 가능하지 않게 되고, 더 나아가 영적 회복과 전인치유는 요원해진다.<sup>65)</sup>

데이브 그로스만(Dave Grossman)과 로렌 크리스텐슨(Loren W. Christensen)은 불안과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긍정적 독백을 ‘자기대화’라고 하면서 이는 심리영적 문제극복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sup>66)</sup> 자기암시로서 ‘나는 이 불안을 잘 극복할 수 있어!’, ‘나는 이 불안상황에 압도되지 않을 거야!’ 등을 통해 불안 극복의지를 확산시키는 것은 주로 인지행동치료적인 방법이다. 기독교상담에서 긍정적 자기대화는 경건묵상, 임마누엘 묵상치료와 더불어 활용할 수 있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시 23: 4)는 말씀 등을 스스로 묵상할 뿐만 아니라 입 밖으로 소리 내고 암송하여 내면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위험, 위협, 고립, 불안, 공포로 묘사될 수 있는 장면으로서 군인의 경우, 전쟁과 전투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62) Albert Ellis, *Anger: How to Live with and without It*, 홍경자, 김선남 공역, 『화가 날 때 읽는 책』 (서울: 학지사, 1999), 15.

63) Jay E. Adams, *The Christian Counselor's Manual* (Grand Rapids: Zondervan, 1995), 197.

64) William D. Backus & Marie Chapian, *Telling Yourself the Truth* (Minneapolis: Bethany, 1980), 17.

65) Mark R. McMinn, *Cognitive Therapy Techniques in Christian Counseling*, 정동섭 역, 『기독교상담과 인지 요법』 (서울: 두란노, 1997), 135.

66) Dave Grossman & Loren W. Christensen, *On Combat: The Psychology & Physiology of Deadly War and in Peace*, 박수민 역, 『전투의 심리학』 (서울: 열린책들, 2013), 180. cf. 전요섭, “심리정서적 ‘자기대화’에 대한 이해와 기독교상담방안,” 『복음과상담』 제21권 (2013), 255-91.

### III. 닫는 글

인간의 변화가 전인적이지 않을 때는 온전한 변화가 아니므로 의미가 없다.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지만 건강하지 못한 정신과 영성을 가지고 있을 때 전인건강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동일한 용어 '전인'을 다루는 다양한 학문에서 다양한 개념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기독교상담에서 전인은 신체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물론, 그것의 주체인 정신을 주제로 삼을 뿐 아니라, 영적 측면이 고려된 건강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영적 차원, 영성 차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코 온전한 기독교(목회)상담을 해낼 수가 없을 것이다. 심신(psycho-somatic)상관의 개념을 넘어 영심신(spiritual-psycho-somatic)상관의 개념을 가져야 바른 전인을 이해할 수 있다.

기독교(목회)상담에서는 반드시 영적 문제에 다룸으로써 치료에서 치유로 나아가야 하며, 상담자는 단지 심리치료를 넘어 전인치유를 통해 온전한 변화와 회복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군상담에서는 장병의 전인건강을 위한 상담방법으로 첫째, 임마누엘 묵상치료, 둘째, 고백과 자기대화 및 논박의 활용을 통해 치료, 치유, 회복이 가능하다. 이러한 방법은 심리적으로 선한 영향을 주며, 심리적 영향은 신체적으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영적 변화를 초래하게 한다. 특히 극한 상황에 놓여 있는 장병들은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로 신체적 악영향을 받을 수 있고 영적으로도 취약한 상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 묵상치료와 고백, 자기대화 및 논박으로 전인적 건강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 Abstract

#### Effective Method for Military Counseling through Understanding of Wholistic Health and Healing

Joseph Jeon

This article as literature study was to clarify that the understanding of holistic health and healing for effective military counseling. Human change and health are meaningless when it is not wholistic. When a person has a healthy body but an unhealthy mind and spirituality, it is difficult to say that it is in a state of holistic health. Various academic parts dealt with the wholistic person as various concepts. In Christian counseling, the wholistic person not only means the body but also the mind, which is its subject, is conceptualized as health in consideration of the spiritual aspect.

If a counselor does not understand the spiritual dimension and the spirituality of a client, the counselor will never be able to complete Christian(pastoral) counseling. Beyond the concept of psycho-somatic correlation, it is necessary to have the concept of spiritual-psycho-somatic correlation to understand the right wholistic person. The biblical concept of the wholistic person is 'Shalom,' and the concept of wholistic person health is fully implied in this term.

In Christian(pastoral) counseling, it is necessary to go from therapy to healing by dealing with spiritual problems, and a counselor must go beyond just psychological therapy to achieve complete change and recovery through wholistic healing. In particular, soldiers in extreme situations can be physically adversely affected by psychological anxiety



and stress and can reach a spiritually vulnerable state. In military counseling, treatment, healing, and recovery are possible through the use of first, Immanuel meditation therapy, and second, confession, self-talk, and disputation as a counseling method for the overall health of soldiers. This method has a positive effect to military personnel psychologically, and the psychological positive influence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body and causes a spiritual change and healing.

### Key Words

Christian counseling, wellness, wholistic healing, healing, Immanuel meditation therapy

### 논문 기고자 Email

jeon8182@gmail.com

## 사회적 책임(CSR, CSV)과 군선교의 과제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Military Evangelism and its challenges

» 강찬영 Ph. D.(cand.)\*

### 국문초록

코로나19 사태로 한국교회가 많은 비판과 오해를 받고 있다. 본의 아니게 교회가 집단감염의 중심지처럼 비쳐지고, 방역지침과 관련하여 정부와 갈등을 빚으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물론 부당한 측면도 있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공신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교회가 공적 신학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것이 사회적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한 좋은 도구이거나 교회 성장의 수단이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본질적인 책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보여준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와 실천은 대부분 교회 중심적인 수준에 그쳤고,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공적 가치를 창출하고 실천하는 수준에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교회는 양적 성장에만 관심을 가졌던 과거를 지나,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까지 요구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군선교 또한 공공의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이 되어야만,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경영학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공유가치창출(CSV)의 개념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에 적합한 군선교의 사회적 책임과 그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중심단어

사회적 책임, 공유가치 창출, 공공신학, 물량주의, 군선교

• 논문 투고일: 2021년 10월 4일 • 논문 수정일: 2021년 10월 5일

• 게재 확정일: 2021년 10월 8일

\*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육군3사관학교 충성대교회, 기독교윤리학 박사과정 수료

## 1. 들어가는 말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Pandemic)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많은 비판과 오해를 마주하고 있다. 본의 아니게 집단감염의 중심에 선 교회의 모습과 방역지침과 관련된 정부와의 갈등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물론 억울하고 부당한 측면이 많고, 역사적으로 교회가 사회적인 비판에 직면했던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sup>1)</sup> 과거 교회가 겪었던 어려움에 비해, 지금의 문제들은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감내해야 할 성격의 것이라기보다, 교회가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 것들도 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어야 할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못하고, 오히려 전 방위적인 비판과 공격 앞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성에 대한 교회의 관심은 더 많아지고 있으며, 공공신학(Public Theology)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교회가 공적 영역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단지 그것이 교회에 대한 비판과 관련하여 국면전환을 위한 좋은 도구이거나 양적 성장의 수단이기 때문이 아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는 기독교의 본질과 맞닿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보여준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와 실천은 다분히 교회

1) 에케하르트 슈테게만, 볼프강 슈테게만, 『초기 그리스도교의 사회사』, 손성현, 김판임 역 (서울: 동연, 2009), 523-524. 기독교인들에 대한 비난은, 폭동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의심에서 시작되었으나, 2세기 초에 들어서면서 이들에 대한 고발의 초점이 부도덕한 외래 종교로서의 기독교 신앙 자체로 이동하였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범죄와 결부되었으며, 플리니우스 치하에서는 기독교는 본디 범죄적인 것이라고 취급되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범죄시키는 데에서 기독교인인 것을 범죄시키는 데로 나아가게 되었다.

중심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sup>2)</sup>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Church Social Responsibility)은 교회의 한계를 넘어, 공적인 가치를 만들어 내고 실천하는 수준이 되어야만 한다. 특히 복음의 최전선에 있는 군인교회와 군선교의 상황은 더욱 그러하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관련된 고민 없이, 그저 양적인 성장만을 추구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 군선교의 현상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본질적이고 시대적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최근 경영학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공유가치창출(CSV)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에 적합한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군선교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CSR

### 1)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이란 전통적인 기업의 경제적 역할을 넘어, 폭넓은 사회에 대한 책임 활동

2) 1997년 한국교회는 IMF와 관련하여 이는 한국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며,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IMF가 경제적인 문제 이전에 교회의 갱신을 위한 하나님의 징계이고, 이 모든 것이 교회의 책임이라면서 회개운동을 전개해 나갔지만 말뿐이었다. 물론 일부 교회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과 같은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기도 했지만 경미한 수준에 그쳤다. 자신들의 책임이라 말은 했지만, IMF로 인한 사회 병리적 현상들에 대해서 책임지려 하지는 않았다. IMF로 인해 교회에 위기가 찾아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교회가 성장하는 반대현상이 벌어지자, 교회의 태도는 바뀌었다. “IMF시대-한국교회, “빛과 소금으로 다시 선다” 「국민일보」 (1998. 1. 1), “이웃에 대한 사랑과 죄의 회개(말씀),” 「국민일보」 (1998. 3. 5), “위기 해결책은 우리 자신의 변화,” 「국민일보」 (서울, 1998. 3. 27).

을 말한다. 책임이란 용어 자체가 가지는 다양한 의미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정의를 내리는 것을 쉽지 않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기업이 단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보다 넓은 영역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sup>3)</sup>

CSR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산업의 발전으로 야기되는 모순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되면서, 19세기 영미권의 기업가들에게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CSR은 전통적인 기업의 경제적 역할을 넘어서, 보다 폭넓은 사회적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기업전략 및 공공 정책의 주요한 의제로 등장하고 있다.<sup>4)</sup>

물론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과 같은 경제학자들은 기업의 역할과 본질은 이윤추구이고,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좋은 서비스와 제품을 만들어 소비자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논의들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그가 주목한 것은 사회적 책임(CSR)이 시장의 원리를 해치면서, 경제 전체의 파이를 줄어뜨리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sup>5)</sup>

하지만 반대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고 자신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데 집중하게 되면, 결국 사회에 대한 기여나 환경보전과 같이 추가비용이 드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소홀할 수밖에 없고, 이는 사회적인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3) 김성택, 『CSR 5.0: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서울: 도서출판 청람, 2012), 3.

4) 노광표, 이명규, 『노동운동의 미래의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서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7), 18. “CSR 연구가 경영학뿐 아니라 윤리학, 철학, 정치학 등 다양한 학문의 시각에서 접근되고 있기 때문이다.”

5) 김성택, *op. cit.*, 16.

기업의 이윤추구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추가 비용을 지출하게 만드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이윤추구와 더불어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결론이라 할 수 있다.

사실 CSR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sup>6)</sup> 우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수행하는 것은 기업 자체에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면서 기업 브랜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구매를 촉진할 수 있고, 우수한 인재들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우호적 관계 형성 및 규제 감소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만족을 증대시킴으로 경영 전반에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기업은 CSR을 통해 사회의 형평성에 기여할 수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은 정부의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도 있고, 이를 통해 신뢰사회를 만들어 가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CSR은 사회경제체제의 효율성을 증진시킨다. 기업이 비윤리적이고 탈법적인 행위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가지게 될 때, 사회적 감시망과 관련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것은 결국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밖에 없다.

넷째, 기업의 CSR은 경제적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황금만능주의 사고에서 벗어나, 이윤추구와 사회적 동기가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만든다. 경제적 이익에만 급급한 기업경영이 아니라, 사회 전반

6) 김성택, *op. cit.*, 12-14.

의 문화, 교육,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경영을 돕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사회적 요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사회의 요구를 외면하게 되면, 결국 사회 전체의 비용으로 되돌아와 기업체의 지출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사회적 책임(CSR)은 사회는 물론이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실천하는 기업의 발전에도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다.

기업의 CSR과 관련하여 교과서적인 대응이라 평가받으며, 가장 잘 알려진 사례는 1982년 미국 시카고에서 발생한 타이레놀 독극물 주입 사건(Chicago Tylenol Killings)이다. 타이레놀과 관련된 사망사건이 발생하자, 제조사인 존슨앤존슨(Johnson&Johnson)은 사망 원인과 자사 제품의 관계를 인정하고 사건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시작했다. 사건 발생은 시카고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고, 추적 결과 독극물이 주입된 타이레놀들은 서로 다른 공장에서 생산된 것이었기 때문에 생산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존슨앤존슨은 1억 달러가 넘는 손해를 감수하고, 미국 전역의 해당 제품의 타이레놀을 전부 리콜하였다.

실제로 범인은 슈퍼마켓과 약국에 진열된 타이레놀에 독극물을 주입한 것으로 밝혀져서 존슨앤존슨사는 누명을 벗었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문제의 타이레놀 제품을 재출시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포장지를 바꿨다. 새로운 포장 박스는 입구가 접착되어 있어 누군가 뜯으면 확인이 가능했고, 통의 덮개는 플라스틱으로 한번 더 봉인되어 있었으며, 입구 안쪽의 호일을 뜯어야만 타이레놀을 꺼낼 수 있도록 했다. “안전 포장이 벗겨져 있으면 사용하지 마

십시오”라는 문구 또한 추가했다. 삼중 포장을 위해서는 2.4센트의 비용이 더 들어갔지만, 소비자들의 안정과 신뢰 회복을 위해 존슨앤존슨은 이를 기꺼이 지불했다. 자사의 책임이 없음에도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윤보다 소비자의 안전을 더 우선하는 존슨앤존슨의 모습은 소비자들을 감동시켰고, 이는 독극물 사건 직후에 37%에서 7%로 뚝 떨어졌던 타이레놀의 시장 점유율이 사건 6개월 만에 30%까지 회복되는 것을 통해 증명되었다.

독극물 사건에 대한 존슨앤존슨의 대처 방식의 배경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경영철학이 있었다. 1886년에 설립된 존슨앤존슨은 윤리경영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같은 개념이 없었던 1943년에 이미 우리의 신조(Our Credo)<sup>7)</sup>를 채택하여 윤리경영을 실천한 기업이었다. 이러한 경영철학이 있었기에 독극물 주입사건과 관련하여 기업의 이익보다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대처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신뢰회복을 통한 성장과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가 있었다. 사회적 책임이 결국에는 기업의 위기를 극복하게 했고, 장기적인 이윤과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 2) 교회의 사회적 책임(CSR)

교회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책임과 관련된 고민들이 필요한 것인가? 성경은 교회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정의한다.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는 세상과의 단절을

7) 신조(Our Credo)는 2대 창업자 ‘로버트 존슨’(Robert Wood Johnson)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는 제품의 모든 수요자들에게 책임감을 가진다. 둘째, 우리는 직원 모두에 대해 책임을 지며,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며, 고용을 안정시키고, 정당한 처우를 제공한다. 셋째, 우리는 지역사회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책임을 다한다. 넷째, 우리는 회사의 주주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며, 적절한 이윤을 남길 수 있어야 한다. <https://www.jnj.com/credo/>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자연스럽게 사회를 향한 교회의 책임으로 이어진다.

사실 교회는 사회적 책임(church social responsibility)이라는 용어<sup>8)</sup>를 즐겨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사회의 책임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실천해 왔으며, 교회의 역사는 이것을 공동체의 중요한 사명으로 인식해 왔다. 성경이 말씀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 이웃을 향한 사랑,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표현은 교회가 사회적 책임에 대해 무관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전히 교회에서는 경영학에서 말하는 사회적 책임(CSR)이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CSR의 개념은 성경의 본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분명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일련의 논의들과 교회의 관심은 사회적 요구에 대한 교회의 반응이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논의들이 사회의 요구 이전에 교회의 본질과 관련된 요소라는 것이다. 물론 기업의 CSR과 관련해서도 “사회에 대한 기업의 생래적 의무”<sup>9)</sup>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의 경우 그러한 성격이 더욱더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교회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것만큼이나 오래전부터 이러한 영역에 관심을 가져왔다. 이미 50년 전인 1974

8) 경영학 분야에서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김성진, 유연우, “교회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을 통한 적합성이 교회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로고스경영연구」 18(1) (2020), 37-56; 김성호, “글로벌시대의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참된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에서의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로고스경영연구」 10(4) (2012), 180-203; 김찬목, “교회의 사회적 책임 지각수준이 이행 평가와 교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로고스경영연구」 6(1) (2008), 41-64.

9) 안영도, 「전략적 사회책임 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전략적 선택」 (서울: 필맥, 2011), 117.

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세계 복음화 대회’(The First International Congress on World Evangelization, COWE)에서 채택된 ‘로잔 선언문’(The Lausanne Covenant)에서는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christian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면서, 교회의 활동인 전도와 사회적 책임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임을 강조했다.<sup>10)</sup>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창조자이신 동시에 심판자이심을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사회 전체에 정의와 화해를 구원하시고, 인간을 모든 종류의 압박에서 해방시키려는 하나님의 관심을 공유해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인종, 종교, 피부색, 문화, 계급, 성 또는 연령의 구별 없이 누구나 타고난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서로 존경과 섬김을 받아야 하며, 누구도 착취당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 점을 등한시해 온 것과 종종 전도와 사회참여가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한 데 대해 참회한다. 사람과의 화해가 곧 하나님과의 화해는 아니며, 사회활동이 곧 전도가 아니며, 정치적 해방이 곧 구원이 아닐지라도 전도와 사회·정치적 참여는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의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모두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우리의 교리, 이웃을 위한 우리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순종의 필수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또한 구원의 메시지는 모든 종류의 소외와 압박과 차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내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과 부정이 있는 곳 어디서나 그것을 비난하는 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의 나라에 중생하며,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그 나라의 의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전파하기에 힘써야 한다. 우리가 주장하는 구원은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총체적으로 감당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

10) 로잔 선언문의 제5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christian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https://lausanne.org/ko/content-ko/covenant-ko/lausanne-covenant-ko>

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 책임이란 기독교의 본질적인 요소이고, 역사적인 선언문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하지만 교회는 개인구원의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양적인 성장에 매달리게 되면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무관심했던 것 같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한국교회의 경우, 과거와 달리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이는 공공신학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관련이 있다. 한국의 공공신학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새세대 교회윤리연구소(NICE)<sup>11)</sup>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많은 신학자들의 연구결과물이 쏟아지고 있다.<sup>12)</sup>

사실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사회의 관계를 공공성의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을 공공신학 혹은 공적신학이라 정의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한국교회의 위기와 관련하여 더욱더 부각되고 있다.

물론 공공신학은 새롭게 만들어진 신학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재조명, 재강조라고 봐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미국의 공공신학자인 '맥스 스택하우스(Max L. Stackhouse)는 공공신학이 빠른 속도로 통용된 것이, 용어의 참신함이나 새로운 신학적 관점을 제시해 주었기

11) 새윤연(New-generation Institute of Church and Ethics)은 2006년 장로교 통합 측 윤리학교수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공공신학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등의 세미나와 출판활동을 통해 공공신학(public theology) 관련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2) 학술정보연구시스템(RISS)에 검색(2021.9)해 본 결과, 공공신학 관련 학술 논문은 493건에 달했고, 학위 논문은 370건인데, 그중에 박사는 국내 109, 해외 2편의 논문이 나왔다. 이는 공공신학에 대한 한국 신학계와 교회의 관심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전통적인 신학에서 성경적 통찰, 철학적 분석, 역사적 인식, 사회 구성체 간의 대화 등과 같은 요소를 찾아낸 덕분이라 밝힌다.<sup>13)</sup>

이처럼 교회의 사회적 책임은 본질적인 문제이며, 현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불식시키기 위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공공신학은 교회의 사회적 책임의 이론적 바탕이 되는 것이고, 그것 자체로 일종의 사회적 책임(CSR)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3.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CSV

#### 1) 기업의 공유가치창출(CSV)

이제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좀 더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CSV에 대해 살펴보자. 기존의 사회적 책임(CSR)에서는 기업들이 이윤창출 이후 수익의 일정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 왔다면,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은 보다 본질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에서 접근하는데, 기업의 수익창출 그 본연의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더불어 이윤을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해 문제를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시장, 가능성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과거 문제는 기업이 추가 비용을 통해 보완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CSV는 그 문제를 개선하는 사업 모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윤까지 창출해내는 방식이다. 그러다보니

13) Max L. Stackhouse, 이상훈 역,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미국 기독교의 관점에서,” 새세대 교회윤리연구소 편, 「공공신학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서울: 북코리아, 2008), 21.

CSR이 가진 자선에 비해,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방식이라 할 수 있다.<sup>14)</sup>

CSV는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포터(Michael Eugene Porter)와 미국의 비영리 컨설팅 회사인 FSG(foundation strategy group)의 마크 크레이머(Mark R. Kramer)가 2011년 “How to fix the capitalism?” 논문에서 처음 주장하였다. 자본주의로부터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기업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여서, 이를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었다.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기존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기업이 경제적, 법적인 책임을 넘어, 폭넓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적극 수행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보니, 점점 CSR이 가진 태생적인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CSR은 어디까지나 기업이 만들어낸 부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의 문제를 단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등 진정성이 부족했고, 기업의 기본 역량과는 상관없는 일로 인해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sup>15)</sup> 결국 기업은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데, 새로운 가치의 창출 없이 기존에 생산된 몫의 재분배에만 초점을 맞추게 될 위험성이 있었다.

새로운 방법론의 등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마이클 포터는 이미 ‘전략적 자선’, ‘사회적 투자’, ‘전략적 CSR’ 등을 주창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전략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었다. 포터의 핵심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업

14) 박홍수, 『공유가치 창출전략: CSR에서 CSV로』 (서울: 박영사, 2014), 14.

15) 서영우, 『CSR 실천방법론: 사회적 책임경영의 체계 확립』 (서울: 시그마인사이트컴, 2011), 136.

과 사회의 상호연관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접근은 자연스럽게 대의명분이 아니라 얼마나 실질적이고 공유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를 강조하게 된다.<sup>16)</sup> 이러한 전략적인 CSR의 연구는 결국에 공유가치창출(CSV)의 토대가 되었다.<sup>17)</sup> 포터는 사회에서의 기업의 역할이 바로 공유가치창출이라고 말하면서, 기업들이 단지 자신들의 발전만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활동의 주요한 변화와 관련된 새로운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활동이 사회문제의 원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마저 기업에게 요구되는 현실에서, 기업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CSR은 부담스러운 측면이 많았다. 하지만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사회발전을 경제가치 창출 안으로 통합하는 방식을 통해, 기업의 실질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공유가치창출(CSV)의 개념은 기업들로부터 더 환영을 받게 되었다.<sup>18)</sup> CSV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과 업무인 동시에, 사회 공동체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는 방법이었다.

CSR과 CSV의 차이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시는 아마도 공정무역 커피일 것이다. 공정무역(Fair trade)은 생산자에게 공정하지 못한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가난한 농부들에게 더 많이 돌려주는 공정무역 제품을 생산하고, 착한 소비를 통해 생산자의

16) 김세중, 전병길, “통일시대 한국적 공유가치 창출에 관한 성찰: CSV(공유가치 창출) 경영이론을 중심으로,” 4-5(비출판논문).

17) 김태영, 도현명, 『베스트 챔피언-경쟁 없이 지속가능한 시장을 창조하는 CSV』 (서울: 흐름출판, 2019), 37.

18) 김성택, *op. cit.*, 284-285.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정무역은 생산자들의 입장에서는 덜 가난하게 만드는 것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sup>19)</sup> 게다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원두 혹은 기호에 맞지 않는 원두를 더 비싸게 사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결국 사업이라는 것이, 소비자의 선한 의지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어려움과 한계가 있기 마련이기에,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이 필요하다. 단순히 불공정 무역으로 인해 생기는 생산자의 피해를 CSR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통해 새로운 방향성과 가치로 창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단지 생산자에게 물건 값을 더 주는 것보다, 작물의 수확량과 품질 그리고 유통구조개선 등의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위해 투자하고 이를 통해 책임을 지는 CSV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sup>20)</sup>

다국적기업인 네슬레(Nestlé)의 ‘네스카페 플랜’(NESCAFÉ Plan)이 대표적인 CSV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네스카페 플랜은 2010년 도입된 네슬레의 농촌 개발 프로그램으로, 당시 커피 가격의 하락으로 커피농가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는 커피의 품질 악화로 이어졌다. 대부분 커피농가들은 영세하여 생산기술에 대한 투자가 불가능했고, 커피를 직접 판매할 판로가 없어 중간 상인에게 혈값에 커피를 넘기는 유통구조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19) “착한 커피? 공정무역의 빛과 그늘,” 『국민일보』 (2010.12.28).

20) 공유가치는 세 가지의 영역에서 창출될 수가 있다. 첫째, 제품과 시장의 재정의: 제품이 어떤 사회적 요구를 담고 있는지 파악, 시장에서 충족되지 못한 사회적 욕구 인식,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에서 구매 가능한 단순화된 제품 개발, 둘째, 가치사슬의 혁신: 운송과 유통단계 혁신, 구매조달 프로세스 개선, 생산과정에서 환경, 인권 등 사회적 요소 고려, 셋째, 지역 클러스터의 개발: 지역 내 조달, 인프라 활용, 협력업체와 기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 김세중, *Ibid.*, 5.

위해 네슬레는 커피농가에서 직접 수매하고, 수확량이 높은 품종을 무상 또는 소액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보급하여 농업기술을 증진시켰다. 이로 인해 네슬레와 직거래하는 농가들은 수익이 평균 2배 이상 증가하고, 전체 커피농가의 수익이 40% 이상 증가했다. 이를 통해 커피농가들은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며 품종 개량이 가능하게 되었고, 소비자들은 안정적으로 고품질의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CSV는 제품의 생산과 유통과 관련된 근본적인 요소들의 개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방식으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한다. 기업은 자본주의의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는 주범이기도 하지만,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 사실 NGO와 같은 많은 사회단체들의 경우 조직의 규모나 자원 등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기업은 대규모의 자원을 가진 주체이고, 공공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기업의 이윤과 연결될 때,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업과 사회는 교집합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마이클 포터는 과거 기업의 사회공헌(Philanthropy)이 CSR이라는 이름으로 단순히 기부와 자선활동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사회적 책임의 역할은 어느 정도 감당했을지 몰라도, 정작 기업의 이익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 공유가치창출을 통한 윈-윈 모델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CSR보다 공유가치창출이 더욱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sup>21)</sup>

21) 김세중, *Ibid.*, 8.

물론 CSV가 CSR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유가치 창출은 경영전략이지만 사회적 책임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공유된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의 전체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경영 전략적으로 모든 것을 아우를 수는 없다. CSV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경영전략에 관련된 것이라면, CSR은 기업 전체의 행동에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윤창출과 관련된 CSV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기업이 전통적으로 해야 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야는 놓칠 수 있다. 기업이 속한 산업 특성과 업종별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어 해당 산업에서 원칙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나 사회문제가 무엇인지, 또 그러한 가치나 문제들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 그래서 공유가치창출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sup>22)</sup>

공유가치창출은 사회적 책임의 다음 단계도 아니고, 공유가치창출 개념의 등장으로 더 이상 사회적 책임이 의미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둘은 각각의 영역이 있고, 서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2) 교회의 공유가치창출(CSV)

과연 기업경영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온 CSV의 개념이 교회에 적용 가능한 것인가? 이를 통해 새로운 사역의 방향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교회의 사역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도 사회적인 필요를 충족하고, 교회의 양적인 성장을 도모하면서 사회

22) 강주현, 『혁신 리더의 글로벌 경쟁력: CSR 전략과 CSV 인재』(서울: 스타북스, 2015), 149-150.

에 필요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이상적이고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sup>23)</sup>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비판해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진 집단이기도 하다.<sup>24)</sup> 특히 한국교회는 비영리단체 중에서 그 어떤 조직보다 재원과 영향력 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교회 성장에 대한 관점과 이를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 효율적이면서도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교회의 성장과 사회의 필요가 만나는 교집합으로서의 공유적 가치를 발견하고 실천에 옮긴다면 그 효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교회의 사회적 책임은 단순한 기부와 자선을 통해 사회에는 어느 정도 선한 영향을 끼쳤을지 몰라도, 정작 교회 입장에서는 그리 효율적이지 못했다. 아무래도 양적인 성장이며, 교회에 당장을 변화를 가지고 오지 못하다 보니,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었다. 게다가 교회는 규모면에서 정체기를 지나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인구감소나 종교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이 적어진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책임에는 무관심한 채 양적 성장만을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은, 사회적 책임에는 무관심한

23) 이상훈,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관한 신학윤리적 이해” 『기독교사회윤리』 40 (2018), 147-178. 논자는 사회적 자본과 관련하여, 종교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면서, 교회가 가진 공유가치창출의 가능성을 선교적 교회론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24) 로버트 퍼트남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과 관련하여, 교회(종교)가 유의미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역설한다. 특히 그는 교회의 활동이 시민활동이 갖추어야 할 기술, 시민적 규범, 지역 공동체의 관심사, 시민충원을 위해 중요한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한다고 본다. 로버트 퍼트남, 『나홀로 불링: 사회적 커뮤니티의 붕괴와 소생』, 정승현 역 (서울: 페이퍼로드, 2019), 104. 로버트 퍼트남, 『아메리칸 그레이스: 종교는 어떻게 사회를 분열시키고 통합하는가』, 정태식 외 역 (서울: 페이퍼로드, 2013), 13장 “종교와 좋은 이웃관계,” 534-590.

채, 이윤만을 추구하는 반사회적 기업과 비슷하게 비쳐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국 대형교회들의 문제점을 지적한 “퀴바디스”(Quo Vadis)라는 영화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으며,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라는 미국 상원 목사였던 리처드 헬버슨(Richard Halverson)의 유명한 말<sup>25)</sup>에 덧붙여, “교회는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을 되었다”라는 말로 마무리하고 있다.

성장만을 추구하는 교회를 향한 한국사회의 시각과 관련하여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물론 교회는 과거로부터 구제라는 이름으로, 최근에 들어서는 공공신학과 공공선이라는 개념으로 사회에 대한 교회의 책임에 대해 고민하고 나름의 실천을 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기업의 비전략적 CSR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어려움과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교회의 본질과 직접적인 연결보다는 그저 보기 좋은 사역에 관심을 쏟아왔다. 교회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예산과 에너지를 사용했지만,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나 복음의 특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물론 자선으로 대표되는 CSR이 교회 성장을 위한 의도와 목적이 강조되어 진행된다면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교회의 성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역을 지속한

다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다. 노숙자나 소외계층에 대한 사역들이 지속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이것이 교회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한국교회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교회 성장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역을 감당하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교회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사역까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제 한국교회는 성장과 책임을 통합할 수 있는 공유가치(CSV)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의 분리를 종식하고, 본질적인 통합을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하면서 효율적인 방법론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물론 이러한 논의 자체가 매우 이론적이고 이상적일 뿐, 현실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세속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사역의 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교회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교회가 성장과 책임의 두 가지 사역을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에, 그것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면, 그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4. 사회적 책임과 군선교의 과제

##### 1) 물량주의와 군선교

공유가치창출의 군선교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먼저 지금까지 군선교의 대표적인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과거의 사역과 관련하여 물량주의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고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지만, 적당한 다른 용어를 찾는

25) “In the beginning the church was a fellowship of men and women centering on the living Christ. Then the church moved to Greece, where it became a philosophy. Then it moved to Rome, where it became an institution. Next, it moved to Europe, where it became a culture. And, finally, it moved to America, where it became an enterprise.”

것이 쉽지 않은 것 같다. 과거의 물량주의적 선교전략은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의 경영방식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결국 그러한 문제가 부메랑으로 돌아 오기 마련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 공유가치 창출 등의 새로운 방법론이 등장했다. 군인교회의 현실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성장한 것은 단정적으로 말하면 물량주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량주의란 교회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수치를 중시하면서 그것을 확장하는 데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태도”라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물량주의는 한국교회 성장은 물론 위기와 깊은 관련이 있다. 물론 물량주의가 한국교회 위기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겠지만, 물량주의는 교회 안에 많은 문제를 만들었다.<sup>26)</sup> 군선교에 있어서 물량주의와 관련된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sup>27)</sup>

첫째, 복음의 훼손이다. 물량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는 복음보다는 조직으로서의 교회를 강조하여 복음의 정신이 훼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량주의적 교세 확장 정책은 복음으로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요구에 복음을 변질시킬 위험이 존재한다. 사실 군사역의 현장은 ‘선교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에 어느 정도는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필요악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사회적 책임(CSR)과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CSV)한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

26) 노치준, 『한국 개신교사회학: 한국교회의 위기와 전망』(서울: 한울아카데미, 1998), 105-111 참조.

27) 강찬영, “군선교의 공공성 회복과 그 과제,” 『군선교신학』 18 (2019), 333-336 참조.

까지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앞에서 보이는 물량주의적 성장 뒤에, 기독교에 대한 깊은 오해와 부정적 선입관이 자리 잡을 수도 있는 것이다.<sup>28)</sup>

둘째, 교회의 물량주의는 사회적 무관심을 초래한다. 물량주의는 개교회주의가 되기 마련이고, 개교회주의가 물량주의와 결합하면 교회 간의 불균형은 심화된다. 또한 개교회주의와 결합된 물량주의는 대사회적인 관심은커녕 교회 내의 자원을 내부로 집중시키기 바쁘다. 실제로 한국교회가 ‘교회왕국주의’를 표방한다거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교회’를 섬기는 집단 혹은 심지어 종교기업이라는 비판은 이를 잘 보여준다. 대부분이 교회의 성장에만 관심을 가질 뿐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여, 중세의 수도원과 같은 태도를 보인다. 다행히 군인교회의 경우에는 태생적인 특성상 공적인 일들에 대해 전혀 무관심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소극적이며, 교회 내부의 문제에 집중하기 쉽다. 주주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사회에 대한 책임에는 무관심한 기업은 존속될 수 없는 것이다.<sup>29)</sup>

셋째, 물량주의 교회는 도덕성의 위기와 양적 성장의 한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물량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는 교인들이 교회의 모임에 참석하는가의 문제에 일차적인 관심을 가질 뿐, 그들 개개인의 일상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다. 이로 인한 도덕성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로 돌아온다. 군인교회 현실도 다르지 않다. 교회 구성원이 직장동료라는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교회와

28) 저자는 전군신자화 운동을 “군대는 선교의 황금어장이라는 믿음을 부동산 신화의 경지로 끌어올린 결정적인 계기”라고 평가한다. 강인철, 『종교와 군대: 군중, 황금어장의 신화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서울: 현실문화, 2017), 186.

29) 김성택, *op. cit.*, 16.

직장에서 전혀 다른 모습과 태도를 보이는 교인들로 인한 갈등의 가능성이 높다. 교회의 출석이나 헌금생활 등은 나무랄 것이 없는 백점짜리 교인이지만,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는 낙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드러나게 된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기업도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가치창출을 위해 고민을 한다면, 교회는 더욱더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 2) 사회적 책임과 군선교

조직적인 접근이 필요한 군선교에서 전략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비전2020실천운동을 통해 한국교회는 청년선교를 위해 하나가 되었고, 이를 통해 많은 청년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를 통해 교회의 규모와 영향력은 확장되었다. 이는 시대적 상황과도 잘 들어맞는 성공적인 전략이었다. 또한 군대의 환경에도 적합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과거의 방법론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군선교의 상황이 예전과 많이 다르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비전2030전략이 준비되었지만, 공유가치창출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복음의 본질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교회와 군이 공유할 수 있는 가치창출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될 것인가? 물론 이는 신학적이고 세계관적인 고민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연 시대의 요구를 묵상하는 역방향의 가치 창출을 통해, 신학적이고 복음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동안 군인교회가 시행했던 선샤인운동<sup>30)</sup>과 같이 전략적 CSR

30) 선샤인운동은 사단법인 군선교연합회(기독교연합군종교구, MEAK)에서 주도하는

의 사역도 의미 있고 가치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의 군선교 환경은 좀 더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CSV적인 군선교전략의 경우에는 2018년에 군선교연합회 주도로 시작된 예스미션운동<sup>31)</sup>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비해 종교에 대한 관심 자체가 사라진 세속화시대에, 신앙의 본질과 사회의 필요 가치를 함께 추구할 수 있다면, 복음의 접근성과 접촉점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교회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물론 군인교회와 군선교기관은 그동안 한국교회로부터 무한 신뢰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려나 전략적 CSR이나 공유가치창출(CSV)에 관련된 군선교 전략에 대한 고민이 없었는지도 모른다.<sup>32)</sup> 하지만 이러한 지원이 계속될 것이라 기대할 수는 없다. 언젠가는 군인교회가 자립으로 선교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지속가능한 효율

공공성 회복 성격의 운동으로, 대한민국 병영 내에 있는 1004 군인교회를 섬기는 건 강한 기독교장병들이 병영생활에서 천사가 되어,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전우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아픔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내는 데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고, 병영 내 잘못된 관행과 악습이 있다면 올바르게 개선시키는 등 더 좋은 군사가 되어 사고 없는 건강한 병영을 만들자는 캠페인이다.

31) 정세준, “비전2020실천운동의 평가와 향후 전망,” 『군선교신학』 18 (2019), 98-106. 참조. 양적 성장에 집중했던 군선교의 문제점에서 시작되어, 양육 네트워크를 통해 대안 모델을 만든 예스 미션(YES! Mission)운동은 지역교회, 대학캠퍼스, 군대, 직장의 영역확대를 통해 청년복음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전략이다. 특히 한국 기독교계의 광의적 연합을 통해 선교 대상의 확대, 환경 변화의 변수를 고려하여 '청년공동교구'의 비전을 추구하며, 청년들의 실질적인 필요에 반응하고 문화선교를 지향하며, 개별교회는 물론 선교단체까지 연결하는 네트워크 사역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32) 박형진, 「교회의 전략경영」,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2007), 11-19. 참조. 저자는 교회가 비영리기관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일반적인 비영리기관들이 성과보다는 동기 중심으로 운영되고, 대표와 경영진들을 견제할 세력이 없고, 이로 인해 경영상의 한계에 빠진다는 점에서 문제에 봉착할 위험이 많은데, 교회 또한 비슷한 문제점을 가진다는 것이다. 특히 각종 비리에 취약한 원인을 이러한 내부구조 분석에서 찾는다. 근본적인 구조상의 모순이 구성원의 타락을 유도하는데, 이는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까지 파괴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단순한 상식에 근거한 경영이 아니라 보다 전략적인 경영의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군선교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아니, 그런 시기가 오지 않더라도,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략을 찾을 의무와 책임이 군선교 사역자들에게 있는 것이다. 기존의 물량주의적 접근이나 소극적인 사회적 책임 방식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과 사회의 필요를 동시에 충족하는 지속가능한 공유가치적인 선교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우리는 먼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CSV도 모든 영역에서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불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문제와 기업이 영향을 미치거나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구분하고, 공유가치의 개념은 거기에서 시작된다. 군이라는 조직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 그 모든 것에 대해 군인교회나 군선교기관, 나아가 한국교회가 역할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교회의 선교사역이 영향을 미치거나 선교사역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기업의 공유가치창출의 입장에서처럼 그러한 문제점을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가치를 도출하여, 이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군선교 전략을 전개한다면, 효과적이며 지속성 있는 사역의 긍정적 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결과보다는 장기적인 성과와 영향력을 목표로 해야 한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양적 성장인가? 그렇지 않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이는 단순한 양적인 성장으로 구현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물량주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면, 또 하나의 중세에 그칠 뿐이다. 공유가치창출과 관련

된 선교전략은 당장의 가시적인 결과보다는 장기적인 성과와 영향력 강화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특히 한국교회에 대한 청년들의 이미지는 매우 좋지 않은데, 군인교회가 단지 사람들을 교회로 많이 모으는 사역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이러한 상황은 더 악화될지 모른다. 군은 재사회화(resocialization)의 기관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군에 온 청년들의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군생활 동안에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왔던 복음의 에센스를 가감 없이 전하는, 씨를 뿌리는 사역도 필요하고, 지속되어야 하겠지만 그것과 동시에 믿음의 자리로 나오려는 사람들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는 전략 또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다.<sup>33)</sup>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영향력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셋째, 복음의 본질과 사회의 필요에 대한 깊이 있는 안목과 역량을 키워야 한다. 군선교의 전략, 특히 공유가치창출과 같은 순환 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복음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모두 고려한 고도의 설계가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복음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접착점이 어디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군사역의 전체적인 사역 프로세스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군인교회의 사역 환경인 군대 안에, 선교사역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전략적인 사고와 분석력

33) 김형국,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행 안내』(서울: 비아토르, 2017). 저자는 첫 번째 장에서, 기독교 신앙을 시작하는 세 가지 방식과, 기독교 신앙을 가지기 어렵게 만드는 세 가지 장애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을 갖추어야 한다.<sup>34)</sup>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봉사(diakonia)와 증거(marturia)는 분리될 수 없는 쌍둥이와 같은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증인이면서 동시에 종이어야 한다.<sup>35)</sup> 우리는 복음에 대해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섬겨야 할 세상, 특히 군선교의 환경에 대해 이해하고 고민해야 한다.

## 5. 나가는 말

우리는 이윤창출이 유일한 목적인 기업조차 사회적 책임과 공유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런 시대적 요청 앞에서, 태생적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의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교회의 모습은 사회적 책임은 고사하고, 대사회적 비난에 직면해 있다. 이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무지 이전에, 교회의 본질적인 거룩성의 상실 때문이다. 기독교가 잃어버린 거룩함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은, 단순한 이미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독교인이 자신의 삶에서 거룩함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세상과 엄격하게 분리된 이원론적인 수도원식 영성이 아니라, 초월성을 견지하면서도, 현대사회 속에서 적실성을 갖는 성스러움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와 군선교의 현장은 과거의 전략에 머물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와 도전 앞에 서야 한다. 새로운 시대의 요청

앞에, 사회적 책임과 공유가치창출이라는 경영학의 방법론은 교회의 변화를 위한 통찰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러한 방법론은 많이 생소하고, 교회와 어울리지 않는 개념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군선교 전략에 대한 고민은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노력과 시도를 통해 군선교의 현장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능력 있게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34) 강주현, *op. cit.*, 303-304. 참조. 흔히 경영학에서 비즈니스만 하는 사람이나 사회공헌만 하는 사람보다, CSV를 하는 사람들이 두 배 이상 고도의 역량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는 언제, 어디서, 무슨 업무를 하든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혼합하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공유가치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5) 존 스토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서울: IVP, 1986), 64-67.

## Abstract

###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Military Evangelism and its challenges

Chan Young Kang

The Korean church is receiving a lot of criticism and misunderstanding due to the COVID-19 crisis. Negative public opinion about the church is spreading due to the social atmosphere that regards the church as a center of mass infection and conflicts with the government over quarantine guidelines. Of course, there are also unfair aspects, but the church, which should be the light and salt of the world, is struggling because it cannot do its job. Under these circumstances, as interest in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church increases, research on Public Theology is being actively conducted.

The church is interested in public theology, not because it is a good tool for dispelling social criticism or a means of church growth, but because it is the essential Christian responsibility to live as the light and salt of the world. Unfortunately, however, most of the discussion and practice of social responsibility that the Korean church has shown so far has only been at the church-centered level, and has not reached the level of creating and practicing public values demanded by our time.

The church is living in an era that is not only focused on quantitative growth, but also requires responsibility to the community. Military Evangelism in this era need to be a means of creating public value to be effective and sustainable. For this pa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Military Evangelism suitable for the

changing times and their duties through the concepts of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CSV(Creating Shared Value), which are actively being discussed in the business academia.

#### Key Words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V(Creating Shared Value), Public Theology, Materialism, Military Evangelism

#### 논문 기고자 Email

hymnka1976@gmail.com

## 한국군선교신학회 운영규칙

### 제1조 (정의)

이 규칙은 (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내 부설기구로 조직된 “한국군선교신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정된 “한국군선교신학회 운영규칙”이다.

### 제2조 (명칭)

(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부설 “한국군선교신학회”라 칭한다.

### 제3조 (소속)

(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내에 둔다.

### 제4조 (목적)

1. 군선교사역을 통한 민족복음화의 전략인 비전2030 실천운동을 신학(선교, 실천)적으로 정립
2. 다원종교 사회속에서의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군선교 전략 및 전술의 계속 개발 및 적용
3. 21세기 세계 종교 상황과 문명충돌 현상에서의 교회의 역할과 군선교사역 방향확립

4. 전쟁에 대한 바른 이해와 사이버 이단 세력들에 대한 단호한 대처
5. 실천신학 분야는 군종목사, 군종목사후보생, 군선교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6. 한국교회 성장에 군선교가 미친 영향을 역사신학적 측면에서 정립 및 미래방향 제시
7. 군선교사역이 한국교회의 21세기 청년전도의 중심 및 교회부흥을 향한 비전2030 실천운동과 병영 및 사회에서의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삶을 위한 사역의 결실을 맺도록 역할

### 제5조 (조직 및 임기)

1. 군선교신학회는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신학연구위원장 1명, 교육위원장 1명, 일반 연구위원 등 30명 내외로 조직한다.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전체사역을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이 유고시에 대행한다.
2. 분과별 연구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선교신학, 정책위원, 군종목사위원
3. 연구위원 임기는 3년으로 연임 가능하다.
4. 군선교연합회 사무총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5. 효율적인 학회운영을 위해서 신학연구위원회를 둔다.
6.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을 위해서 교육위원회를 둔다.

### 제6조 (연구위원 선발)

1. 각 신학분야별로 초교과적으로 선임한다.
2. 본 학회 실행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본 학회 정기회의에서 선임하여 본회 법인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 제7조 (신학연구위원회)

1. 구성 : 신학연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 7개 분야별 각 1명씩 7명, 당연직 사무총장 1명 등 9명으로 구성한다.
2. 회의 : 정기회의는 3월, 7월에 개최하며, 필요시에 임시회의를 갖는다.

### 제8조 (교육위원회: 군복음화 아카데미)

1. 구성 : 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3명, 당연직 사무총장 1명 등 6명으로 구성한다.
2. 회의 : 정기회의는 3월, 7월에 개최하며, 필요시에 임시회의를 갖는다.
3. 교육프로그램 전담(군종목사, 군종목사후보생, 군선교사, 기독교준부사관단 수련회)

### 제9조 (운영방향)

1. 전체회의 : 회장이 소집한다.
  - 가. 정기회의는 연 1회 10월 중 소집한다.
  - 나. 임시회의는 필요시에 소집한다.
2. 한국교회 군선교신학 심포지엄 개최

가. 매년 정기적으로 현장 또는 사회상황에서 발생하는 핵심이슈를 정하여 개최한다.

나. 대주제는 '비전2030실천운동의 신학적 조명과 미래'로 한다.

다. 매년 주제는 정기회의에서 정한다.

### 3. 군선교신학 연구논문집 출판 사업

가. 매년 정기적으로 발간(EBook, PDF파일, 책도서)하도록 한다.

나. 각 분과별 연구위원들은 격년마다 1편씩 제출을 의무적으로 한다.

다. 군선교신학논문집에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인 기획논문을 우선하여 논문집에 수록한다.

라. 편집 등 효율적인 출판을 위하여 제반업무는 신학연구위원회에서 관리한다.

4. '군선교교역자'라는 호칭을 '군선교사'와 병행하여 사용한다.

5.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 군종목사, 군선교사, 군종목사후보생 등의 선교, 목회, 상담 등을 위한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한다.

### 제10조 업무관리

1. 본 학회와 관련한 제반적 업무관리 및 운영 등 실행은 본회의 사무총장과 사무국(선교팀)에서 총괄한다.

2. 본 학회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연구위원은 필요한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한다.

3. 본 학회의 운영규칙 개정은 본 학회 정기회의에서 개정하여 본회 법인이사회 인준으로 개정한다.

## 4. 이단 사이버 대책

가. 군내 이단 사이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나. 군내 이단 사이버 침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예방활동을 한다.

다. 1004군인교회 이단 사이버 기준설정 결의

① 군내 침투 이단에 대한 예방 및 대처 기준 설정

- 군중목사파송 10개 교단 중 1개 교단이라도 이단/사이비로 판명 시에는 이단으로 제재

② 교단 차원의 이단/사이비로 규정된 것을 한기총 등 연합기관에서의 상이한 조치가 나올 시에는 교단 결정사항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 5. 군선교 정책발전

한국교회 군선교사역의 신학적 발전과 정책, 전략, 전술 등 발전에 책임적인 역할을 다한다.

6. 연구위원은 군선교신문, 단행본, 교계언론매체, 각종학술지 등에 군선교 관련 기고를 적극 실천한다.

7. 본 학회는 한국교회 군선교사역을 위하여 본 학회의 설립목적 을 중심으로 제반사항을 적극 실천한다.

제 정 : 2004. 11. 19

1차개정 : 2009. 7. 27

2차개정 : 2012. 10. 23

3차개정 : 2013. 11. 18

4차개정 : 2017. 2. 2

5차개정 : 2019. 10. 31

6차개정 : 2021. 3. 17

## 군선교신학회 연구윤리 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군선교신학회(이하 본 학회)의 연구와 학술 활동이 군선교를 위한 신학의 정립을 모색하며, 교회의 복음 전파와 신자들의 신앙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연구와 논문 작성 시 건전한 윤리적 도덕적 책임을 다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복음화된 통일조국건설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윤리적 선언)

1. 본 학회는 학술활동과 신앙적 양심에 책임을 다하는 연구를 지지한다.
2. 본 학회를 통하여 발표되는 모든 학술 활동에 있어 날조, 위조, 표절 등 연구 수행에 있어서의 직, 간접적 부정행위를 배제하며 이를 부인한다. 만약 이러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본 학회는 그것을 본회의 연구 발표물로서의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3. 본 학회는 이중투고를 금지하며 공동연구에 있어 합리적 저자 배분과 공정한 권리배분을 권장하고 지지한다.
4. 본 학회는 모든 학자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참여와 의견교환

을 통하여 생명의 존엄성이 높아지고 그 연구결과가 풍성해지는 것을 지지한다.

5. 논문 작성시 '논문 제목, 필자 성명, 소속, 전공,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영문 제목, 영문 성명, 영문 소속, 영문 요약, 영문 주제어 6개순'의 제반 항목을 창의성 있게 충실히 완성한다.

### 제3조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1. 연구부정행위의 제보는 개인적인 제보 혹은 심사위원에 의한 확인 및 논문 검증시스템 활용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이러한 제보자의 신상은 철저히 보호한다.
2. 연구부정행위의 제보로 그 내용이 확인되었을 경우 일차 본인에게 연구윤리의 위반이 없었는지의 여부를 확약 받은 후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순서로 시행한다.
3. 모든 연구윤리에 대한 검증은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한 지침(2012년 8월)에 의거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최종 승인하며, 그 내용이 심대한 연구부정행위일 경우 정부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다.

###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1. 본 학회는 타 학술기관이나 학술 활동에서 본 학회를 통하여 발표된 논문이나 학술활동에서 기독교 정신과 명백하게 위배되는 쟁점이 발생한 경우(이 경우 본인의 투고신청서에 윤리규정을 위배하지 않았음을 확약하게 한다)와 연구부정행위가 발생되었다는 고발이나 정황이 발생하였을 때(이 경우 적극적으로 고발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연구 논문의 심사에 반드시 윤리규정을 이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10인 이상 회원의 요청과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본 학회의 학회장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이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5인의 임시 위원회로서 그 사안의 발생부터 종료까지 존속한다. 본 학회의 회장은 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연구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되며 나머지 위원은 이사회와 협의, 학계의 중진 가운데서 학문의 명망이 높은 자 또는 교계의 중진 가운데서 목회의 명망이 높은 자로 이사회와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3. 위원회는 그 운영과 활동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4.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5.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6. 조사 대상자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7.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실행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그 활동을 종료한다.

###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내용)

1. 위원회는 해당 건을 심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가. 승인 : 기존의 연구가 모든 점에서 혐의 없음

나. 조건부 승인 : 기존의 연구가 본 학회가 추구하는 기독교 가치관과 심각하게 상반되지 않지만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음

다. 보완 후 재심사 : 기존의 연구가 상당히 본 학회가 추구하는 기독교 가치관과 충돌한다고 해석될 수 있지만 연구의 가치가 있고 보완의 가능성이 있음

라. 부결 : 기존의 연구가 본 학회가 추구하는 기독교 가치관과 심각하게 충돌되거나 윤리적 도덕적 책임과 현저하게 충돌되기에 본 학회의 연구물로서 인정될 수 없음

2.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부칙 (2016. 7. 27. 연구윤리규정 제1호)

이 규정은 2017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군선교신학회 논문투고 규정<sup>1)</sup>

### 1. 논문작성 시 주의 사항

- 1) 동일 필자는 한 호에 한 편의 논문만 게재할 수 있으며, 투고한 논문은 다른 학술지(학위 논문 포함)에 게재하지 않은 미발표 논문이어야 한다.
- 2) 분량은 A4 용지 15~25매를 기준으로 한다.
- 3) 주는 각주를 사용하고 논문(발제 기고, 자유 기고) 마지막 부분에 참고문헌을 작성하여 첨부한다.
- 4) 영문 제목과 영문 이름 및 영문 초록(Abstract)을 제출하되, 영문 초록은 논문의 대의와 논지가 잘 전달되도록 300단어 정도로 작성한다. 초록의 끝에는 필자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E-mail)를 첨부한다.
- 5) 주제어(Key Words)는 한글과 영문을 병기한다.
- 6) 논문의 글꼴은 신명조 11호, 행간은 160%, 각주는 바탕 9호 행간 130%로 한다. 용지 여백은 좌/우 30, 위 20, 아래 15로 한다.
- 7) 게재 원고 작성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 논문 제목 (2) 필자명(간략한 프로필) (3) 논문 본문 (4) 참고문헌

1) 군선교 논문집 투고자는 반드시 <군선교신학회 논문투고 규정>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반려되지 됩니다.

(5) 영문 초록 (6) 주제어(Key Words)

8) 투고 논문이 2인 이상의 공동 연구일 경우 제1저자 및 공동저자를 구분하고 그 소속을 명기한다.

9) 논문 작성법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투레비안' 양식에 따라 논문을 작성한다.

<참고> Turabian, Kate L. *A Manual for Writers of Term Papers, Theses, and Dissertation*, 6th 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10) 원고 접수처는 아래와 같으며, 원고 파일을 이메일로 제출한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부설 한국군선교신학회> E-mail: meak2020@hanmail.net

11) 투고된 논문은 한국군선교신학회의 심사 규정과 절차에 의거하여 「군선교신학」 논문집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2. 각주와 참고문헌 표기의 실례

#### 1) 단행본<sup>2)</sup>

#### <단행본의 기본 표기 양식>

국내서적	N	저자명, 『서명』 (출판사: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 페이지.
	B	저자명, 『서명』, 출판사: 출판사, 출판연도.
외국서적	N	저자명, 서명(이탤릭체로) (출판사: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 페이지.
	B	저자명, 서명(이탤릭체로), 출판사: 출판사, 출판연도.

#### <저자 1인의 경우>

N 허도화, 『한국교회 예배사』 (서울: 한국강해설교학 교 출판부, 1998),

2) 아래에서 N은 각주를, B는 참고문헌을 각각 의미한다. 한글 서적 표기는 '아래 한글'의 'Ctrl F10'을 누른 후 '반각기호(도형)'에 들어가, 책은 「 」로, 논문집일 경우 「 」로 표기한다.

97.

B 허도화. 『한국교회 예배사』. 서울: 한국강해설교학교 출판부, 1998.

N Nathan E. Han, *A PARSING GUIDE to the GREEK NEW TESTAMENT* (Scottsdale: Herald Press, 1971), 57.

B Han, Nathan E. *A PARSING GUIDE to the GREEK NEW TESTAMENT*. Scottsdale: Herald Press, 1971.

<저자가 2인 이상의 경우>

N 장중현, 최갑중, 『사도바울: 그의 삶, 편지, 그리고 신학』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2001), 22.

B 장중현, 최갑중. 『사도바울: 그의 삶, 편지, 그리고 신학』.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2001.

N Stanley M. Honor and Thomas C. Hunt, *Invitation to Philosophy: Issues and Options* 3rd ed.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 1978), 37.

B Honor, Stanley M. and Hunt, Thomas C. *Invitation to Philosophy: Issues and Options*. 3rd ed.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 1978.

2) 편저

N 김우창, 김형규 (공편), 『문학의 지평』 (서울: 고려대출판부, 1984), 12.

B 김우창, 김형규 (공편). 『문학의 지평』. 서울: 고려대출판부,

1984.

N Carl F. Henry ed., *Basic Christian Doctrine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9), 25-26.

B Henry, Carl F. ed. *Basic Christian Doctrine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9.

3) 번역서

N 자크 르고프, 『서양 중세 문명』, 유희수 역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1), 100.

B 르고프, 자크. 『서양 중세 문명』. 유희수 역.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1.

N Michel Foucault, *The Archeology of Knowledge*, trans. A. M. Scheridan Smith (New York: Harper & Row, 1972), 150.

B Foucault, Michel. *The Archeology of Knowledge*, trans. A. M. Scheridan Smith (New York: Harper & Row, 1972), 150.

4) 논문

학술지	저자, "논문 제목(명)," 『학술지명』 권수(발간연도), 인용 페이지.
논문집	<논문 저자와 논문집 저자가 동일한 경우> 저자, "논문 제목(명)," 『도서명』 (발행자: 출판사, 연도), 인용 페이지.
	<논문 저자와 논문집 편집자가 상이한 경우> 저자, "논문 제목(명)," 『도서명』 편집자 (발행자: 출판사, 연도), 인용 페이지.

<논문의 기본 표기 양식>

<학술지>

N 이규철, "클로비스의 세례," 『인문학 연구』 47 (2013), 159.

- B 이규철. “클로비스의 세례.” 『인문학 연구』 47 (2013).
- N Gerald Bonner, “Pelagianism and Augustine,” *Augustinian Studies* 23 (1992), 35.
- B Bonner, Gerald. “Pelagianism and Augustine.” *Augustinian Studies* 23 (1992).

<논문집: 논문 저자와 논문집 저자가 동일한 경우>

- N 김명수, “한국의 교회 부흥,” 『현대교회의 동향: 선교신학을 중심으로』 (서울: 성광문화사, 1987), 34-35.
- B 김명수. “한국의 교회 부흥.” 『현대교회의 동향: 선교신학을 중심으로』. 서울: 성광문화사, 1987.

<논문집: 논문 저자와 논문 편집자가 상이한 경우>

- N 홍수길, “신약신학의 동향,” 『진리와 자유』 신학대학협의회편 (서울: 자유출판사, 2001), 380-381.
- B 홍수길. “신약신학의 동향.” 『진리와 자유』 신학대학협의회편. 서울: 자유출판사, 2001.
- N Thomas Walter Manson, “St. Paul’s Letter to the Romans-and others,” *The Romans Debate*, ed. Karl Paul Donfried (Peaboy: Hendrick-son, 1977), 14-15.
- B Manson, Thomas Walter. “St. Paul’s Letter to the Romans-and others.” *The Romans Debate*. ed. Karl Paul Donfried. Peaboy: Hendrick-son, 1977.

<학위논문의 경우>

- N 이석우, “군목의 역할 속에 나타난 갈등 및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육군 군목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55.
- B 이석우. “군목의 역할 속에 나타난 갈등 및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육군 군목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N Hyung-Ki Rhee, “A Study of Man in Erasmus & Luther,” (doctoral dissertation, Drew University, 1980), 88.
- B Rhee, Hyung-Ki. “A Study of Man in Erasmus & Luther.” doctoral dissertation, Drew University, 1980.

<인터넷 사이트의 논문>

- N Evans Chan, “Postmodernism and Hong Kong Cinema,” *Culture* 10. 3 (2000), Project Muse. 20 May 2002 <<http://muse.jhu.edu/journals/pmc/v010/10.3chan.html>>.
- B Chan, Evans. “Postmodernism and Hong Kong Cinema,” *Culture* 10. 3 (2000), Project Muse. 20 May 2002 <<http://muse.jhu.edu/journals/pmc/v010/10.3chan.html>>.

5) 영화작품: 영화명, 감독, 주요배우, 배급자와 연도.

- N It’s a Wonderful Life, Dir. Frank Capra, Perf. James Syewart, Lionel Barrymore, and Thomas Mitchell, RKO, 1946.
- B It’s a Wonderful Life, Dir. Frank Capra. Perf. James Syewart,

Lionel Barrymore, and Thomas Mitchell. RKO. 1946.

### 3. 원고 작성방법

- 1) 도표는 반드시 “표” 기능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 2) 장절의 표기는 I, 1, 가, 1), 가), (1), (가) 의 순으로 한다.
- 3) 연대의 표기는 서기를 원칙으로 한다.
- 4) 서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라비아 숫자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5) 인용문은 번역을 원칙으로 한다.
- 6) 인용문이 2행 이상인 경우에는 별행으로 처리한다.
- 7) 필자가 덧붙인 설명은 [ ] 안에 넣어 원문과 구분하고, 강조하는 부분은 밑줄을 긋고 ( ) 안에 ‘원문’이라고 표시한다.
- 8) 서양어의 서명이나 논문집명은 이탤릭체로 명기한다.
- 9) 페이지 인용의 경우 쪽이나 p.를 붙이지 않아도 무방하다.
- 10) 각주와 내주를 모두 인정하지만 가능하면 각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11) 각주 방식
  - (1) 처음 인용할 때는 위의 제시처럼 자세히 소개한다. 두 번째 부터는 저자의 경우 성만 표기하고, 제목의 경우 단행본과 논문에서 적절하게 두세 단어를 취하여 저자, 저서(논문명), 페이지의 순으로 처리한다.
 

〈단행본〉 Fitzmyer, *Luke I-IX*, 220.

〈논문〉 Barrett, “Westcott,” 12.

〈번역서〉 브루스, 『신약사』, 121.

(2) 국문인 경우는 성명을 그대로 계속 사용한다.

(3) 계속 등장하는 동일한 책이나 논문은 반복하여 쓰지 않고 *Ibid.*를 사용한다.

(4) 바로 앞에 인용한 자료를 다시 참고할 경우 그 사이에 다른 자료가 들어가면 *Ibid.*를 쓸 수 없다.

12) 본문 말미의 참고(인용)문헌에는 본문에 인용한 문헌만 제시한다.

### 군선교신학논문집 출판현황

구분	발간일	논문 제목	제 출 자	총면수
제1권	2004.5.30	비전2020실천운동과 한국교회의 역할	곽선희 목사	343면
		기조강연 -비전2020실천운동의 신학적-실천적 고찰	이종윤 목사	
		21세기를 향한 한민족 교회의 사명 -복음화된 통일조국 성취를 위하여-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비판적 연구		
		군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군선교 신학의 정립	정성구 목사	
		군복음화 50년의 역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를 중심으로-	오덕교 목사	
		21세기 한국교회와 군선교 비전	박종화 목사	
		모범국민 육성을 위한 21세기형 군선교와 군중정책	김정우 목사	
		진중세례운동의 회고와 전망	주연중 군중목사	
		애국심과 신앙심	황우여 장로	
		예정통합측 군선교 비극과 비전2020실천운동	김수진 목사	
		한국 군목제도 개혁에 대한 연구 -해군·해병대를 중심으로-	조성현 군중목사	
		21세기 대중문화와 병영문화의 현실과 상호관계 -기독교문화의 관점에서-	임성빈 목사	
		군중제도의 역사적 고찰과 한국 군종의 미래는?	전호진 목사	
		효율적인 군선교를 위한 군선교 사역자 간의 윤리적 제안	박기영 군중목사	
		제2권	2004.5.30	

구분	발간일	논문 제목	제 출 자	총면수
		오늘날에도 거룩한 전쟁이 있는가? -구약성경에서 본 진멸하는 전쟁-	김정우 목사	
		전쟁과 평화에 대한 성서적 이해 -미국과 이라크 전쟁을 중심으로-	강사문 목사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에 관한 연구	최석환 군중목사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인권	김일수 목사	
		다종교 군 공동체에서의 예수님의 선교 전략 연구	이석우 군중목사	
		세계 종교 상황과 기독교	전호진 목사	
		포스트모던주의의 문제점과 극복에 관한 소고	이종윤 목사	
		기독교회의 이단종파에 대한 정의	박영관 목사	
		금욕주의 빛 아래서의 어거스틴의 결혼관	이규철 군중목사	
		군인교인 신앙성장을 위한 목회상담 임상사례	김상만 군중목사	
		제3권	2005.6.10	
기독교 영성과 예배	이종윤 목사			
생명윤리와 신앙 (기조강연)				
생명윤리와 신앙	채수일 목사			
"생명윤리와 신앙"에 대한 논찬	김영철 목사			
"양심적 병역거부주의"에 대한 기독교 신앙의 생명윤리적 양심의 비판-평화와 생명윤리 그리고 양심의 빛에 대한 기독교의 역사적 모색을 중심으로-	이규철 군중목사			
"양심적 병역거부주의에 대한 기독교 신앙의 생명윤리적 양심의 비판"에 대한 논찬	유경동 목사			
군선교를 위한 기부문화에 대한 성경적 이해	강사문 목사			
어거스틴의 "대화록"의 기본적 성격에 관한 연구	이규철 군중목사			
성경에 나타난 이교와 이단들 고찰	박영관 목사			
군중제도의 역사적 기원과 이념(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홍치모 장로			
역기능 가정에서 성장한 장병의 치유를 위한 군목회 돌봄 프로그램 연구(CARE 4단계를 중심으로)	안남기 군중목사			
군인교회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본 발전	정두영 목사			
제4권	2006.6.15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곽선희 목사

구분	발간일	논문제목	제출자	총면수
		교회 공동체와 국가	이종윤 목사	
		'비전2020실천운동'의 성경적 전도전략 -가나안 비전 성취를 중심으로-		
		진중에서의 소수 종교 정책	우기식 군종목사	
		"진중에서의 소수 종교 정책"에 대한 논찬	전호진 목사	
		군 개혁2020에 따른 군선교2020의 전략 -누가 군대의 이웃인가?-	허영식 군종목사	
		"군 개혁2020에 따른 군선교2020의 전략"에 대한 논찬	김성봉 목사	
		21세기 군종병과 패러다임의 전환	주연중 군종목사	
		"21세기 군종병과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논찬	박종화 목사	
		국가와 민족과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구약성서적 이해	강사문 목사	
		진중세례에 대한 선교 신학적 이해	장승권 군종목사	
		중세를 적신 어거스틴	이규철 군종목사	
		조나단 에드워즈와 구원과 성화	오덕교 목사	
		변화하는 세계와 기독교인의 윤리	임성빈 목사	
		군소 이교와 이단종파들 고찰	박영관 목사	
		비전2020실천운동을 통한 군선교 전략 연구	민상기 군종목사	
		청중의 적응에 관한 연구-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설교를 중심으로	최석환 군종목사	
		기독교 장병의 신앙 정도에 따른 자살 위험성 예측	박기영 목사	
		우리나라 군내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의 침투 포교와 예방론 고찰	김광호 목사	
제5권	2007.4.16	1907년 대부흥운동과 비전2020실천운동	이종윤 목사	354면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역사 집단세례	김인수 교수	
		부흥에 대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방법론적 접근	강웅산 교수	
		"부흥에 대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방법론적 접근"에 대한 논찬	이규철 군종목사	
		미래 군 구조 개편과 군선교 개선 방안 -군종목사들의 이해를 중심으로-	윤병국 군종목사	
		"미래 군 구조 개편과 군선교 개선 방안"에 대한 논찬	박종화 목사	
		민족 통일에 대한 성서적 이해	강사문 목사	

구분	발간일	논문제목	제출자	총면수
		미국에 있어서의 근본주의 운동과 신복음주의 운동에 관한 연구 동향	홍치모 장로	
		칼빈의 기도신학과 실제-기독교 강요 제3권 20장과 소신 지서 주석에 나타난 칼빈의 기도 중심으로-	최석환 군종목사	
		'Pontifex Maximus'로서의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규철 군종목사	
		한국 기독교회의 이단 종파들에 대한 역사적 고찰	박영관 목사	
		집단개종의 역사적 고찰과 합동세례 보완책 제안	전호진 목사	
		군선교와 세례운동	우기식 군종목사	
		신세대 장병의 군 적응을 돕는 기독교적 방안에 관한 연구-집단상담 심리 검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김현택 목사	
		제6권	2008.5.8	
		병역 제도와 국가 안보의 측면에서	김성봉 목사	
		"병역 제도와 국가 안보의 측면에서"에 대한 논찬	강사문 목사	
		연합을 통한 한국교회 군선교	최희범 목사	
		"연합을 통한 한국교회 군선교"에 대한 논찬	우기식 군종목사	
		모범국민 육성을 위한 군종제도(인격지도 교육을 중심으로)	이종윤 목사	
		"모범국민 육성을 위한 군종제도"에 대한 논찬	정성구 목사	
		마니교에 대한 어거스틴 반박	이규철 목사	
		국내외의 군소 이교와 이단 집단들 고찰(2)	박영관 목사	
		군장병들을 위한 성경읽기	강사문 목사	
		국제화 시대 한국 군대의 국제적 책임	전호진 목사	
		군교회와 노년기	우기식 군종목사	
		군선교를 위한 세례자 교육방안 연구 -한국 장로교 초기 문헌의 현대적 적용을 중심으로-	최석환 군종목사	
제7권	2009.5.20	여군목 제도 창설에 대한 성경적 근거	이종윤 목사	318면
		효율적인 군선교를 위한 여성의 역할	김진섭 목사	
		"효율적인 군선교를 위한 여성의 역할"에 대한 논찬	이규철 목사	
		군선교 사역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 연구	주연중 군종목사	
		"군선교 사역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 연구"에 대한 논찬	김성봉 목사	
		효율적인 군선교를 위한 여성의 역할	이광순 목사	

구분	발간일	논문제목	제출자	총면수
		"효율적인 군선교를 위한 여성의 역할(여성 군종목사 제도 신설에 관한 연구)에 대한 논찬	임낙형 목사	
		다른 종교인에 대한 성경의 교훈과 태도	강사문 목사	
		모니카의 사랑에 대한 《고백론》의 반향	이규철 목사	
		군인교회에 침투하는 기독교회의 이단들에 대한 대책	박관영 목사	
		위임입교인규도에 나타난 세례자 교육방안 연구	최석환 군종목사	
		비전캠프(Vision Camp)와 군선교 활성화	한생현 군종목사	
		군 자살 예방에서의 비전캠프의 역할: 종교적 접근을 중심으로	김세훈 대위	
		르네 자라르(R. Girard)의 희생양 이론을 통한 군선교신학 정립 모색	서민우 상병	
제8권	2010.10.5	군선교 사역을 위한 성례전의 성경신학적 의미 -구원을 위한 인침과 징표로서의 성례전Biblical-	이종윤 목사	320면
		군선교사역을 위한 성례식: 기독교 정체성 강화와 관련하여	김세광 목사	
		"군선교사역을 위한 성례식: 기독교 정체성 강화와 관련하여"에 대한 논찬	권오민 군종목사	
		군선교 현장의 성례식 적용	정비호 군종목사	
		"군선교 현장의 성례식 적용"에 대한 논찬	최희범 목사	
		기쁨과 행복한 군 병영생활을 위한 제언	강사문 목사	
		자살 생각을 가진 용사들에 대한 기독교상담학적 접근	김동연 군종목사	
		교회사에 나타난 군종활동의 역할과 의미	주연중 군종목사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 -교회를 중심으로 -	오덕교 목사	
		어거스틴의 『기독교 교육론』에 나타난 성서 해석의 원리	이규철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에 나타난 세례자 교육방안 연구	최석환 군종목사	
		다자중심적 종교다원주의와 군선교	강찬영 군종목사	
		다종교 문헌화권에서 본 군선교에 대한 신학적 고찰	이석우 군종목사	
제9권	2011.10.20	군인(군목)의 애국심과 개인윤리	이종윤 목사	309면
		기독교 군인의 국가관과 신앙관에 대한 고찰	강사문 목사	
		"기독교 군인의 국가관과 신앙관에 대한 고찰"에 대한 논찬	우기식 군종목사	
		기독교 국가관에 근거한 전쟁에서의 애국심과 개인윤리	주연중 군종목사	

구분	발간일	논문제목	제출자	총면수
		"기독교 국가관에 근거한 전쟁에서의 애국심과 개인윤리"에 대한 논찬	오덕교 목사	
		어거스틴과 '정당한 전쟁'	이규철 목사	
		요한계시록에서 십사만 사천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가?	김추성 목사	
		다문화시대와 민족주의, 교회의 역할	임성빈 목사	
		민족과 함께 걸어온 한국교회의 발자취	김수진 목사	
		한국교회 부흥의 방해 요소	안명준 목사	
		군목과 지도력	안광춘 목사	
		전쟁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고찰	김동연 군종목사	
		초기 전군 신자화 운동의 비화	정성구 목사	
		"목수지법"에 나타난 세례자 교육 방안 연구	최석환 군종목사	
제10권	2012.10.10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의 성경적 전거와 실제	이종윤 목사	293면
		건강한 병영과 1004군인 교회: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	박종화 목사	
		"건강한 병영과 1004군인 교회: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에 대한 논찬	주연중 목사	
		선사인캠페인 실천 사항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최석환 군종목사	
		"선사인캠페인 실천 사항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에 대한 논찬	김진섭 목사	
		광야-사막에 피어난 다윗의 신앙과 삶(시 23: 1-6)	강사문 목사	
		'되찾은 아들 비유'가 주는 죄와 벌의 의미	김일수 목사	
		동성애에 대한 신학적 접근	안명준 목사	
		우정에 대한 어거스틴의 담론	이규철 목사	
		호주 군선교 정책과 미래적 전망	김상만, 김택조, 이정우 군종목사	
		군에서의 해결 중심 단기 상담 적용 가능성 연구	김동연 군종목사	
		대대급 군인 교회에서의 기독교 정병 양육 연구 (2825부대 산돌교회를 중심으로)	오희준 군선교사	
		비전캠프를 통한 입소자의 공동체성 고취 및 선교의 가능성 연구	유현 군종목사	
		21세기 한국 군선교에 적합한 양육 사역 모델에 관한 연구	홍석균 목사	
제11권	2013.10.30	비전2020실천운동의 역사적·비평적 연구	이종윤, 김대덕 목사	420면

구분	발간일	논문제목	제출자	총면수	
		비전2020실천운동의 중간평가 및 제안 -1004군인교회를 중심으로-	정재원 군종목사		
		"비전2020실천운동의 중간평가 및 제안-1004군인교회를 중심으로-"에 대한 논찬	이규철 목사		
		군선교에 있어서 민간요소가 가지는 영향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군선교 회원 교회 중심으로-	주연종 목사		
		"군선교에 있어서 민간요소가 가지는 영향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군선교 회원 교회 중심으로-"에 대한 논찬	강시문 목사		
		비전2020실천운동의 순항 궤적 평가	이규철 목사		
		『조선예수교장로회헌상예식서』에 나타난 세례식 순서에 관한 연구	최석환 군종목사		
		하나님과 이웃 섬김에 대한 이론과 실제	강시문 목사		
		ACT(수용전념치료)소개: 기독교와의 만남	김동연 군종목사		
		한국교회의 신학적 문제점	안명준 목사		
		경제위기에 대한 성경적 진단과 신앙적 대처방안	김성봉 목사		
		"여호와와의 전쟁신학"이란 안경으로 읽는 성웅 이순신	김진섭 목사		
		순교자 박연세 목사의 민족운동의 행적	김수진 목사		
		아랍 스프링 이후 아랍 국가의 정치적 상황 연구	전호진 목사		
		군 상담의 이해와 발전적 제안	김상만 목사		
		장병 인권에 관한 군선교 전략과 과제 -군종목사 후보생의 인권교육을 중심으로-	신종훈 전도사		
	집단개종과 진중세례 그리고 진중서약식	강찬영 군종목사			
	제12권	2014.10.7	군인교회의 성숙한 예배와 설교, 찬양의 모범 (기조강연)	이종윤 목사	393면
			군선교를 위한 효과적인 설교 사역 방안 (발제I)	김진섭, 이승진 민상기 목사	
			군선교를 위한 효과적인 설교 사역 방안 (논찬I)	최희범 목사	
			대대급교회 사역 활성화 방안과 네트워크 동역 (발제II)	김동연 군종목사	
		대대급교회 사역 활성화 방안과 네트워크 동역 (논찬II)	최석환 군종목사		
		구약절기와 신약 교회력의 만남 -오순절 성령 강림을 중심으로-	김진섭 교수		
		항거할 수 없는 은혜	정성구 교수		
		개혁파 교회의 연합 활동과 신학의 일치성에 관한 연구	김성봉 교수		

구분	발간일	논문제목	제출자	총면수		
		폭력에서 사랑으로	안명준 교수			
		군선교를 위한 '뱀티즘' 세례자 교육방안 연구 -한국 장로교 초기문헌의 현대적 적용을 중심으로-	최석환 군종목사			
		"당신의 진정한 갈망이 당신의 기도이다"에 담긴 어거스틴의 기도의 영성	이규철 목사			
		가족미술치료 난화기법의 이해와 적용	김상만 목사			
	논문공모작	좋은 자기표상 형성을 위한 관계성 연구 -대상관계이론과 목회적 돌봄을 중심으로	김현택 목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의 지적 자산과 향후과제 -군선교신학논문(1권-11권) 내용을 중심으로	신종훈 전도사			
	제13권	2015.10.27	군인권과 선교활동 그리고 예배회복을 위한 강해설교		이종윤 목사	390면
			군인권과 선교활동		김일수 장로	
			대대급교회 활성화를 위한 예배 형식과 교육체계의 표준화 방안		이규철 목사	
			"대대급교회 활성화를 위한 예배 형식과 교육체계의 표준화 방안"에 대한 논찬		이승구 목사	
			성경에 나타난 군지도자들과 지도력에 관한 연구(1)		강시문 목사	
			효과적인 군선교 전략을 위한 3대를 잇는 성령님의 교회 같은 가정과 가정 같은 교회		김진섭 목사	
			개혁된 교회		김성봉 목사	
			군선교를 위한 교육신학 사상연구		최석환 목사	
			PTSD와 이야기 치료와의 대화		김동연 군종목사	
		목회리더십 계승의 성경적 방법연구	이용락 목사			
		대대급부대 세례신자 양육방안에 관한 연구	전요섭 목사			
논문공모작		청년비전캠프 활성화를 위한 거시적 맥락의 개선방안	신종훈 전도사			
		외상상황하에서의 군종상담 연구	전석원 외 2명			
제14권	2016.7.28	오늘의 설교개혁	이종윤 목사	270면		
		토라 613계명의 현대적 의미와 적용	김진섭 목사			
		이슬람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견해	김성봉 목사			
		Vita Augustini에 나타난 히포수도원의 영성	이규철 목사			
		노래치유 중심 표현예술심리치료 경험분석	김상만 목사			
		힐트너(Seward Hiltner)의 목회신학에 대한 연구	최석환 목사			

구분	발간일	논문제목	제출자	총면수			
제15권	2016.10.6	파트너십과 합작을 하여 하나님나라 확장에 쓰임 받자	이종윤 목사	285면			
		군종목사와 군선교사 간의 효율적인 파트너십 강화방안 연구	안만국 목사				
		군선교사 제도혁신방안 연구	정재원 군종목사				
		"군종목사와 군선교사 간의 효율적인 파트너십 강화방안 연구"와 "군선교사 제도혁신방안 연구"에 대한 논찬	이규철 목사				
		구약성경에서 본 군 지도자와 지도력에 관한 연구(II)	강사문 목사				
		동성애문제에 대한 한국교회 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과 군선교	강찬영 군종목사				
		남북통합과정에서의 군선교	오상익 군종목사				
		장병의 군복무 중 종교변화와 군선교 전략 연구	김성훈 군종목사				
		군장병의 위기 대응방안으로서 신앙활성화에 관한 연구	황미선 목사				
제16권	2017.10.10	동성애와 군형법 제92조의 6 개정안에 대한 소고	이종윤 목사	341면			
		군대 내의 동성애 심각성에 대한 논의	길원평 교수				
		길원평 교수의 논문 "군대 내의 동성애 심각성에 대한 논의"에 대한 논찬	전요섭 교수				
		군형법 제92조의 6 항문성교 및 기타 추행죄의 합리적 개정 제언	이상현 교수				
		이상현 교수의 논문 "군형법 제92조의 6 항문성교 및 기타 추행죄의 합리적 개정 제언"에 대한 논찬	김일생 교수				
		구약성경에서 본 군 지도자와 지도력에 관한 연구(III)	강사문 교수				
		칼빈주의적 미래 인간상	정성구 목사				
		신학적 해석학에서 본 과학	안명준 교수				
		게르만족의 침탈에 대한 어거스틴의 대응	이규철 목사				
		제17권	2018.10.11		한국 군선교의 진전과 과제	이종윤, 이규철 목사	391면
					'2015 인구주택총조사'와 한국교회의 성장 요인	오덕교 교수	
오덕교 박사의 "'2015 인구주택총조사'와 한국교회의 성장 요인"에 대한 논찬	주연중 목사						
구약성경에 나타난 군 지도자들과 지도력에 관한 연구(IV)	강사문 교수						
이스라엘 독립 70주년과 현대사에 나타난 이스라엘과 교회의 7대 신비	김진섭 교수						
이슬람에 대한 루터의 열려	김성봉 교수						

구분	발간일	논문제목	제출자	총면수			
		"성직자와 여인들의 교제에 관한 교훈"에 담긴 어거스틴의 금욕적 자기관리	이규철 목사				
		PTSD의 이해와 군상담에의 적용	김상만 목사				
		국방부 군 종교제도의 효율적 운용방안	전요섭 교수				
		정의로운 전쟁의 윤리와 군선교	강찬영 군종목사				
제18권	2019.10.10	병역대제 복무제 진단과 기독교 입장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신학적 비판-	이종윤 목사	432면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에 관한 기독교 입장 : 양심인가? 종교적 신념인가?	김윤태 교수				
		김윤태 교수의 논문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에 관한 기독교 입장: 양심인가? 종교적 신념인가?"에 대한 논찬	김일수 교수				
		비전2020실천운동의 평가와 향후전망	정세준 군종목사				
		정세준 목사의 논문 "비전2020실천운동의 평가와 향후전망"에 대한 논찬	강찬영 군종목사				
		구약성경에서 본 군 지도자들과 그들의 지도력(V) -다윗 왕과 예언자 예레미야	강사문 교수				
		이슬람에 대한 칼뱅의 견해	김성봉 교수				
		"만유의 평화는 평온한 질서다"에 함축된 평화에 대한 어거스틴의 비전	이규철 목사				
		위기상담의 이해와 군상담에의 적용	김상만 목사				
		한국 군 군인가족의 영적 지지를 통한 목회상담	전요섭 교수				
		군선교의 공공성 회복과 그 과제	강찬영 군종목사				
		기획논문	양심적 병역거부주의에 대한 신학적 비판: 신학적 양심 이해를 중심으로		이규철 목사		
		성평등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폐해	길원평 교수				
		제19권	2020.11.13		비전2020실천운동지역의 선교적 평가와 전망	주연중 목사	544면
					비전2020실천운동의 교회사적 평가와 전망	이정숙 교수	
이정숙의 논문 "비전2020실천운동의 교회사적 평가와 전망"에 대한 논찬	최석환 군종목사						
군인의 종교의 자유와 군선교-군인의 선교의 자유와 종교중립의무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홍창식 변호사						

구분	발간일	논문제목	제출자	총면수	
		홍창식의 논문 "군인의 종교의 자유와 군선교 -군인의 선교의 자유와 종교중립의무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에 대한 논찬	김일수 장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김진섭 교수		
		예술심리치료의 이해와 군상담에의 적용	김상만 목사		
		키릴로스의 세례교육	김선영 교수		
		남성 군종장교와 여성 군인	전요섭 교수		
	기획논문	구약성경이 말하는 코로나 팬데믹: 역대하 7:11-22, 특별히 13-14절이 제시하는 그 원인과 해법	김진섭 교수		
		포스트비전2020실천운동을 위한 제언 -군선교에 관한 이종윤 박사의 신학적 통찰을 중심으로	이규철 목사		
		화해의 공공신학과 군선교의 과제	강찬영 군종목사		
	일반논문	존 로스의 요한복음 7: 53-8: 11 삭제 비판 -성령의 조명을 중심으로	탁명진 목사		
	제20권	2021.10.26	진리란 무엇인가?		곽요셉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군인의 정신건강을 위한 군 목회상담의 과제			전요섭 교수		
전요섭의 논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군인의 정신건강을 위한 군 목회상담의 과제"에 대한 논찬			강찬영 군종목사		
기독교 군 병사의 종교적 실천과 종교적 대처가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임정인 군종목사		
임정인의 논문 "기독교 군 병사의 종교적 실천과 종교적 대처가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찬			김아영 교수		
일반논문			왜 하나님은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시는가?	강사문 명예교수	
반달족의 침공에 대응하는 어거스틴의 목회 돌봄 영성			이규철 목사		
이야기심리학의 이해와 군상담			김상만 목사		
효과적인 군 상담을 위한 전인건강과 치유의 이해			전요섭 교수		
사회적 책임(CSR, CSV)과 군선교의 과제			강찬영 군종목사		

한국군선교신학회 논문집 ㉔  
**군선교, 청년**

1판 1쇄 발행 \_ 2021년 10월 26일

발행처 \_ 한국군선교신학회(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부설기관)

주소 \_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6길 70 101호

TEL \_ 02-744-2662, 02-3675-2020

홈페이지 \_ <http://www.v2020.or.kr>

E-mail \_ [meak2020@hanmail.net](mailto:meak2020@hanmail.net)

제작처 \_ 콤란출판사

주소 \_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6

편집부 \_ 745-1007, 745-1301~2, 747-1212, 743-1300

영업부 \_ 747-1004, FAX 745-8490

본사평생전화번호 \_ 0502-756-1004

홈페이지 \_ <http://www.qumran.co.kr>

E-mail \_ [qrbooks@daum.net](mailto:qrbooks@daum.net) / [qrbooks@gmail.com](mailto:qrbooks@gmail.com)

한글인터넷주소 \_ 콤란. 콤란출판사

등록 \_ 제1-670호(1988.2.27)

제20권 군선교신학논문집 편집위원회

위원장: 이규철 목사

위 원: 이규철 목사, 전요섭 교수

담 당: 박종민 주임

값 12,000원

이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할 수 없습니다.  
 파본(破本)은 구입처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